

韓日國際學術會議

# 蒙古의 高麗 · 日本 侵攻과 韓日關係



# 개 회 사

(재)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李 相 禹

800여년전 몽골지배 아래에서 고려는 몽골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했었습니다. 대륙국가가 일본 열도를 침공한 유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래 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기금까지도 그 전쟁의 흔적이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한일문화교류기금은 동북아역사재단과 더불어 바로 이 전쟁을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분석해보는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한일관계의 오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입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학계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日本에서 무라이 쇼오스케(村井 章介) 교수, 에노모토 와타루(榎本 涉) 교수,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 稚彦) 교수, 후나다 요시유키(船田 善之) 교수, 사에키 고오지(佐伯 弘次) 교수 등이 참석하셨고, 한국에서는 이재범 교수, 김보한 교수, 남기학 교수, 윤용혁 교수, 장동익 교수, 손승철 교수,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이훈 박사 등이 참가했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몽골 학자도 초청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용덕 이사장의 배려로 성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준비해 오신 한일문화교류기금 김수웅 상무이사님과 손승철 운영위원님께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유서 깊은 도산서원과 하회마을도 돌아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開 會 辭

(財)韓日文化交流基金

理事長 李 相 禹

800余年前、モンゴル支配下で高麗はモンゴルとともに二回にわたって日本を侵攻しました。大陸國家が日本列島を侵攻した唯一の戦争でした。この戦争は長続きはしませんでした、韓国と日本のあいだの關係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いままでもその戦争の痕跡が韓国と日本に残っております。

韓日文化交流基金は北東亞歴史財団とともに、まさにこの戦争を現在の視覚から改めて分析して見るセミナーを計畫いたしました。韓日關係の現在を理解するため、役に立つと考えたからでございます。

今日セミナーには韓国と日本學界の専門家の皆さんをご招待いたしました。日本からは村井章介教授、榎元涉教授、森平椎彦教授、船田善之教授、佐伯弘次教授などがご参加し、韓国では李在範教授、金普漢教授、南基鶴教授、尹龍嬾教授、張東翼教授、孫承喆教授、そして北東亞歴史財団の李薰博士などが参加なさっております。大変有益な討論が行われると思われま。欲を出してモンゴル學者もご招待しようとも考えておりましたが、残念ながら思い通りにはできませんでした。

今日のセミナーは、北東亞歴史財団の金龍徳理事長の心づかいがありまして行わ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席をかりて深く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この會議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韓日文化交流基金の金秀雄常務理事と孫承喆運営委員にも礼を申し上げます。

ただの2泊3日の短い日程ではございますが、由緒ぶかい陶山書院と河回村もご見學なさいながら、楽しいお時間を過ごすように申し上げます。

# 환영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과 한일문화교류기금이 공동주최하는 학술회의를 위해 멀리 일본과 한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 석학과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9월에 설립된 신흥 연구기관입니다. 한·중·일 등 동아시아의 역사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분석과 다양한 학술적 교류, 그리고 여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며 보편적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번영, 평화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한·중·일 사이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역사현안 문제를 미래지향적이며 평화지향적인 안목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과 이웃, 세계 여러나라들의 우호협력과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몽고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로 정했습니다. 13세기 몽고의 고려, 일본 침공은 동아시아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고려와 일본은 몽골의 침략과 오랜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이후 양국은 상당기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의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불리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술회의가 끝난 뒤 한국 유교문화의 상징인 도산서원, 한국의 오랜 전통이 살아있는 민속마을인 하회마을을 견학하고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 가치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저희 재단에서는 『독일 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역사학자는 수준 높은 지식과 양심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려 하며, 이를 위해 과거의 빛으로 현재를 조명한다”는 이 책 머리말의 경구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몽골의 고려, 일본 침공으로 비롯된 동아시아의 전쟁과 교류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활발하게 토론되기를 기대합니다.

멀리 일본에서 오신 무라이 쇼스케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한국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의 손승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일문화교류기금의 김수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25일

# 歓迎辞

北東亞歴史財団  
理事長 金龍徳

今回、北東亞歴史財団と韓日文化交流基金が共同主催する學術會議のため、遠く日本と韓國各地からいらっしゃった碩學と専門家皆さんに深い感謝のお言葉を申し上げます。

北東亞歴史財団は、2006年9月に設立された新しい研究機關です。韓・中・日など東アジアの歴史問題などに對する総合的な研究分析と多様な學術的交流、そして多くの支援事業などを通じて客觀的かつ普遍的な歴史認識を確立し、これを通じて東アジア地域の協力と繁榮、平和体制の基盤をつくるための所です。

私たちは韓・中・日のあいだに置かれているさまざまな歴史の懸案問題を未來指向的・平和志向的な眼目から解釋することで、韓國と隣り、ひいては世界各國との友好協力と相互理解をはかろうとしております。

今回の學術大會の主題は、多くの専門家たちの意見を取り集め、「モンゴルの高麗日本への侵攻と韓日關係」に決めました。13世紀モンゴルの高麗や日本侵攻は、東アジア社會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ました。高麗と日本はモンゴルの侵略と長年の戦争により大きな苦痛を経験しましたが、以後兩國は相当の期間にわたり平和な關係を維持してきました。私たちはこれを通じて多くの教訓を得られることができると存じております。

私は今回の學術大會が韓國の「鄒魯之郷」と呼ばれる慶尙北道の安東で開か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學術會議が終わった後、韓國儒教文化の象徴である陶山書院、古から韓國の伝統が生きている民俗村である河回村を見學して東アジア文化の普遍的な価値も味わってみたい。

去る9月、我らの財団では、『ドイツ・フランス共同歴史教科書』を發刊いたしました。「歴史學者は高い水準の知識と良心によって、未來を見通そうと考えており、このために過去の光で現在を照明する」というこの本の序文の句節は、私たちに大事な教訓を与えていると存じます。なにとぞ、この學術大會を通じてモンゴルの高麗・日本侵攻から始まった東アジアの戦争と交流に関する多くの問題について活発な討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遠く日本からいらしゃった村井章介教授を含めた多くの先生方々と韓國の多くの先生方々、そして大會準備のためにいろいろと苦勞をなさってくださった韓國の孫承喆教授にも礼を申し上げます。また、今回の學術大會の開催のために、盡力をなさってくださった韓日文化交流基金の金秀雄事務局長を含めた實務担当者方々にも深い感謝の氣持をお伝え致します。

忙しい日程にもかかわらず、この學術會議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参加者の皆様にも深く感謝致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08年 10月 25日

# 學術大會 日程

○ 10月 24日(金)

12 : 20 九州 Team 仁川空港 Lobby 集合

13 : 00 金浦空港(國際線 Lobby)에서 東京Team, 韓國 Team 合流 安東向發

16 : 30 安東 韓國振興院

16 : 40 儒教文化博物館 見學

19 : 00 晚餐

○ 10月 25日(土)

第1部 : 開會 및 基調講演 (09:30 - 10:30) 進行 : 孫承喆(江原大)

開會辭 : 李相禹(韓日文化交流基金 理事長)

祝辭 : 金容德(東北亞歷史財團 理事長)

基調講演 : 麗·蒙軍의 日本侵攻과 東아시아世界 村井章介(東京大)

第2部 : 午前 主題發表 (10:30 - 12:00)

· 13世紀 以前의 麗日關係 發表 : 李在範(京畿大)

· 蒙古의 高麗侵略과 高麗의 對應 發表 : 森平椎彦(九州大)

中 食 (12:00 - 13:30)

午後 主題發表 (13:30 - 15:30)

· 三別抄와 麗日關係 發表 : 尹龍燦(公州大)

· 麗蒙軍의 日本侵攻과 日本의 對應 發表 : 南基鶴(翰林大)

· 日本侵攻以後의 麗日關係 發表 : 佐伯弘次(九州大)

休 息 (15:30 - 16:00)

第3部：綜合討論 (16:00 - 18:00) 司會：張東翼(慶北大)

榎本 涉(日本 中央大), 李 薰(東北亞歷史財團), 村井章介(東京大)

船田善之(九州大), 金普漢(檀國大)

晚 餐 (18:30 - 20:30)

○ 10月 26日(日)

08 : 30 陶山書院 見學

安東 河回마을(柳成龍 生家, 紀念館) 訪問

16 : 00 金浦空港 着, (解散)

東京 Team 金浦 20:15 發 - 羽田 22 ; 35 着 NH

16 : 40 仁川 着

九州 Team 仁川 18:20 發 - 福岡 19 : 40 着 JAL

# 목 차

- 개 회 사 開會辭 ■ 2
- 환 영 사 歡迎辭 ■ 5
- 學術大會 日程 ■ 7

## 발표문

### <기조강연>

- 몽골 내습과 異文化 접촉 ■ 村井章介 .....13
- 13世紀 以前の 麗日關係 ■ 李在範 .....33
- 13세기 전반에 있어서 麗蒙交涉의 한 단면 ■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57
- 삼별초와 여일관계 ■ 尹龍焄 .....71
- 蒙古의 日本 侵略과 日本의 對應 ■ 南基鶴 .....93
- 일본침공 이후의 麗日關係 ■ 사에키 코지(佐伯弘次) .....121

## 토론문

- 13세기 이전의 麗日關係 ■ 발표자 : 李在範 / 토론자 : 榎本 涉 .....135
- 13세기 전반에 있어서 麗蒙交涉의 한 단면 ■ 발표자 : 모리히라 마사히코 / 토론자 : 이훈 .....139
- 蒙古의 日本侵略과 日本의 対応 ■ 발표자 : 南基鶴 / 토론자 : 후나타 요시유키(松田善之) .....141
- 일본침공 이후의 여일관계 ■ 발표자 : 佐伯弘次 / 토론자 : 金普漢 .....145

## 발표문 일본어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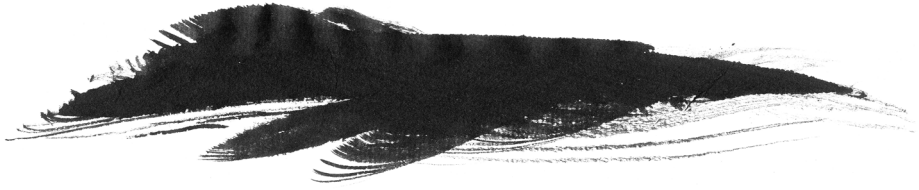
### 〈基調講演〉

蒙古襲来と異文化接触 ■ 村井章介	151
13世紀以前の麗日関係 ■ 李在範	169
13世紀前半における麗蒙交渉の一断面 ■ 森平雅彦	191
三別抄と麗日関係 ■ 尹龍嫻	205
蒙古の日本侵略と日本の対応 ■ 南基鶴	225
日本侵攻以後の麗日関係 ■ 佐伯弘次	253

## 토론문 일본어 원문

13世紀以前の麗日関係 ■ 発表者：李在範 / 討論者：榎本 涉	267
13世紀全般における麗蒙交渉の一断面 ■ 発表者：森平雅彦 / 討論者：李薫	273
蒙古の日本侵略と日本の対応 ■ 発表者：南基鶴 / 討論者：松田善之	275
日本侵攻以後の麗日関係 ■ 発表者：佐伯弘次 / 討論者：金普漢	279

발표문





# 몽골 내습과 異文化 접촉

村井章介  
(東京大學)

## 머리말

1371년 南朝方征西府의 권력자로서 九州를 제압하고, 大宰府를 수도로 삼았던 懷良親王(後醍醐 천황의 황자)은 건국 직후에 명으로부터의 외교 사절을 맞이했다. 사자는 이름을 趙秩이라고 하였고, 일본에 대한 명의 중화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臣從의 의사 표시를 재촉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였다. 懷良은 趙秩과 문답을 주고받았고, 이윽고 그 설득에 부응해 “表箋을 바쳐 臣으로 칭하고, 祖來를 파견하여 秩을 따라 入貢”하게 했다. 이를 접한 洪武帝는 곧바로 懷良을 ‘日本國王’에 봉했다. 이 사건은 남북조 내란의 성격을 크게 바꾸게 되었는데[村井, 2003], 그 점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여기에서는 두 사람의 문답에 주목하고 싶다(『明實錄』, 洪武4年 10月 癸巳條).

懷良 : 지금 新天子가 몽골 때와 마찬가지로 중화를 장악해 趙라고 하는 姓의 사자를 보내왔다. 아마도 너희는 옛 蒙古使의 자손일 것이다. 기분 좋은 말로 유인해 우리를 덮칠 생각일 것이다.  
趙秩 : 나는 蒙古使의 후예가 아니다. 나를 죽이면 재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 조정의 1명의 군사, 1척의 전함은 몽골군 100명에 상당한다. 예를 갖추어 너희를 회유하려는 우리 조정과 너희를 공격하려는 몽골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몽골 내습의 직전, 1271년과 72년(2번째를 73년이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잘못이다[朱雀, 2008]) 2번에 걸쳐서 太宰府에 온 몽골 사자의 이름은 趙良弼이었다. 그와 같은 同姓의 사자를 맞이한 懷良은 곧 100년 전 전쟁의 재현을 연상했다. 몽골 내습의 기억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

지를 알 수 있다.

몽골 내습은 전근대에 일본의 영토 내에서 치룬 대외 전쟁으로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 이외에 1019년 ‘刀伊의 入寇’와 1419년 ‘應永 外寇’가 있지만, 전쟁의 규모는 비교도 안 된다. 그만큼 몽골 내습은 동시대 및 그 후의 일본에 커다란 각인을 남겼다. 이 점에 대해서는 鎌倉幕府의 추이, 御家人制나 惣領制의 변질, 유통경제의 진전 등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異文化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각도로에서 몽골 내습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다[村井, 2005. 제9장 참조].

## 1. 외교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고 하는 명제는 몽골 내습에 대해서도 성립된다. 1266년 8월부의 ‘大蒙古國 皇帝’로부터 ‘日本國王’에게 보내진 국서는 고려를 통해 1268년 정월 太宰府에 도달했다. 시간이 걸린 것은 고려의 소극적 저항 때문이다. 국서는 몽골이 중화를 영유 하고 있다는 것, 고려가 몽골에 의해 “義는 君臣이라 하더라도, 歡은 父子와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진 것을 언급한 뒤, 국교를 맺어 親睦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머리의 ‘奉書’, 말미의 ‘不宣’이라고 하고 있어 그만한 예우를 표현하고 있어, 그다지 거만한 문언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를 이용하기에(일으키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라고 한 구절은 동아시아 외교에 익숙하지 않는 일본 측, 특히 막부에게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비쳤을 것이다[杉山, 2003]. 조정은 처음에 전통적 대외자세에 따라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1269년에 도래한 몽골 中書省牒[張, 2005]에 대해서는 太宰府 명의를 返牒을 보내는 것이 결정되어[荒木, 2008] 문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막부의 태도는 일관되게 武斷적으로 返牒을 묵살하였고, 異國警固番役의 창설 등,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한 가운데 太宰府까지 도달한 것으로서는 2번째와 3번째의 사절이 바로 그 趙良弼이었다[佐伯, 2003].

### 趙良弼と南浦紹明

蒙古史 趙良弼은 2번째의 도래 직후에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불길한 이름으로서 일본인의 역사적 기억으로 새겨졌다. 그러나 生身の 인간으로서 그는 여진족 출신의 문인으로 스스로 대일외교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부터도 상상할 수 있듯이 높은 교양을 갖춘 境界人

이었다[山本, 2001]. 그 정치적 입장은 결코 주전과는 아니었고, 2번째 사행에서 돌아간 그는 元(1271년 국호를 세움)의 황제 쿠빌라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본 정벌의 무익을 호소했다(『元史』권159, 趙良弼傳).

臣日本に居ること歳余. 其の風俗を觀るに, 狼勇にして殺を嗜み, 父子の親, 上下の礼有るを知らず. 其の地は山水多く, 耕桑の利無し. 其の人を得れども役すべからず, 其の地を得れども富を加へず. 況んや舟師海を渡るに, 海風期無く, 禍害測る莫し. 是れをしも〈有用の民力を以て無窮の巨壑を填む〉と謂ふなり.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몽골 내습을 “蠻族의 나라가 문명국 일본에 걸어온 전쟁”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파악해 왔다. 그것은 동시대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271년 趙良弼이 첫 번째로 도래해왔을 때, 太宰府의 長 少貳經資는 “蛮夷의 사람이 궁궐에 온 사례가 없다. 牒狀의 취지를 받들어야만 한다.”고 응대하여(『吉續記』, 文永8年 10月 24日條), 良弼의 상경을 거부했다. 하지만 良弼은 반대로 유교적 예의를 알지 못하고, 정복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은 蠻國이라고 일본을 간주하고 있었다. 실제, 文永의 役 후에 도래한 元使를 참살해버린 막부의 대응은 동아시아의 외교 관례를 무시한 것이며, 蠻國과 닮은꼴의 행동으로 간주되어져 재차의 전쟁에 대한 회피의 가능성을 스스로 단아버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체제 중에 趙良弼의 사적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大德寺派·妙心寺派의 祖, 南浦紹明과의 詩 唱和이다. 南浦는 入宋하여 名僧 虛堂智愚에게 嗣法하였으며, 1267년에 귀국해 70년에 博多 西郊 姪浜(메이노 하마)의 興德寺(開基는 北條時定)에서 지낸 뒤, 72년에 太宰府에 가까운 横岳崇福寺(開基는 少貳氏)의 주지가 되었다. 『円通大応國師語録』偈頌에 “蒙古國의 사신 趙宣撫의 韻에 答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22수가 보인다(현대어 번역은 [西尾, 1999 b]).

- (1) 遠公不出虎溪意 慧遠이 虎溪를 나오지 못했다는 의미는  
非是淵明誰賞音 陶淵明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뜻을 이해하겠는가.  
欲話箇中消息子 그 사이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다.  
蒲輪何日到雲林 왕골로 씌운 車輪 수레를 타고 拙寺에 와본 것이 언제든가
- (2) 外國高人來日本 外國의 고관이 일본에 도착했다.  
相逢談笑露眞機 만나서 담소해보니 玄妙한 행동을 보인다.  
殊方異域無差路 나라를 달리하더라도 眞理에 다름은 없고  
目擊道存更有誰 한 번 본 것만으로 道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 위에 누가 있을 것인가

西尾賢隆은 이 唱和時에서 南浦가 있던 절을 (1)에 나오는 虎溪三笑의 고사에 어울리는 환경으로부터 崇福寺라고 추정하고, 唱和의 연대를 良弼의 2번째의 일본 방문 때로 비정하였으며, 상경을 허가받지 못해 “大宰府에서 荏苒의 날을 보내는 良弼을 陶淵明과 같은 自適으로의 휴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따라야 할 견해일 것이다. (1)은 良弼이 대면 전에 南浦에게 보낸 시에 대한 화답이고, (2)는 직접 만나 서로 얘기를 나눈 후의 창화이다.

(1)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해원과 도연명으로 대표되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조예를 볼 수 있고, (2)에서는 선종과 유교를 관철하는 ‘道’에 비추어 보자면 나라나 지역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세계관이 퍼져 있다. 긴장한 국가 간 관계 속에 있더라도 일본인의 도해 승과 여진인 외교관이라고 하는 경계인 상호 간에는 공감의 교감되고 있었다. 귀국해서 전쟁 회피를 말한 良弼의 염두에 남포와의 해후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고 싶어진다.

또, 이 회견에서 남포의 입장을 일개인이 아니라, 외교의 일각을 담당할 사람의 것으로 보는 설이 있다[伊藤, 2002]. 몽골 내습의 직전에 송으로부터 귀국해 北條氏 연고의 흥덕사와 少貳氏 연고의 崇福寺에서 주지를 역임한 그의 경력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南浦는 良弼로부터 얻은 대륙 정보를 막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을 것이므로 鎌倉幕府의 외교적 대응을 무단적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막부의 정책 판단에 반영된 형적은 없다.

### 삼별초의 日本請願

몽골 내습에 대한 종래의 견해는 몽골·고려라고 하는 적에 대해서 우리 카마쿠라 무사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라고 하는 도식에 치우쳐 있었다. 지금 눈을 유라시아로 넓혀 제지역이 몽골의 급격한 팽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시점에 선다면, 다른 역사적 현실이 보인다. 예를 들어, 1280년대에는 전통적으로 견원지간이었던 베트남·참과 간에 몽골의 위협이나 침략에 대항한 국제적 共同이 성립했었다[旗田, 1965]. 그리고 같은 역사적 조건은 동아시아에도 있었다[村井, 1988].

몽골군이 고려에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보다 40년 이상이나 빠른 1231년의 일이다. 당시 고려에서 실권을 잡고 있던 무인 정권(일본의 막부에 유사)은 다음 해에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 저항의 자세를 나타냈다. 그 후 30년간 6번에 걸친 침략의 피폐에 빠져든 고려는 1260년에 종속적인 강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삼별초란 징병제에 의한 부병 대신해 무인 정권 군사력의 핵심이 된 정예부대로 반몽 30년 전쟁의 주된 담당자였다. 1270년, 무인 정권이 쿠데타로 넘어져 왕실이 몽골에 완전히 굽히려 했을 때, 삼별초는 “몽골 병사가 많이 와서 인민을 살육한다. 무릇 나라를 구하러고 하는 사람은 모두 毳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격문을 날려 반란에 일어섰다. 반란군은 왕족 한 명을 왕에 올림하고 정부기관을 조직하여 근거지를 한반도 서남단의 진도로 옮겼으며, 게릴라전법으로 몽골군과 고려 정부를 괴롭혔다.

1271년, 삼별초는 ‘牒狀’을 일본에 보내 원군과 자금을 요청했다. 고려의 정통 정부를 자인하는 삼별초는 강화도로부터 진도로의 이동을 ‘천도’라고 말한다. 또, 漂風人護送, 遣使問訊 등 평등 호혜의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다. 그 시야에는 일본과의 공동에 의한 몽골에의 저항이 취해지고 있었다. 참고로 첩장이 보내진 것은 진도가 함락한 동년 5월 이전으로 몽골군 장수 忽林赤이 開京에서 일본으로의 출격기지인 合浦에서 출격한 것은 동년 8월이다. 첩장 발신의 시점에서 함포를 포함한 김해부는 삼별초의 세력 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屯金海府之兵, 先廿許人, 送日本國事”라고 하는 첩장의 한 구절은 종래 나 자신을 포함해 몽골군의 동정을 전한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이영이 말하고 있듯이 삼별초 자신의 행동을 말한 것일 것이다[이영, 1999].

더욱이 삼별초의 외교 활동이 일본에 대한 원조 요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 근년의 연구에서 밝혀졌다[太田彌, 1995·山本, 2001]. 趙良弼이 태어난 곳인 河北省 贊皇縣에 있는 石刻史料 「贊皇復縣記」에 良弼의 첫 번째 도일에 대해 “명을 받아 동쪽의 일본에 사신을 보낸다. 크고 넓은 바다로서 그 사이를 측정할 수가 없다. 叛賊인 耽羅가 그 사이를 덮고 있다.”라고 있다. 1271년 5월에 진도로부터 제주도(탐라)로 옮긴 삼별초가 良弼의 외교 활동을 방해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元朝名臣事略』에 수록된 良弼의 묘비명에는 “이미(大宰府에) 이르렀다. 宋人和高麗 耽羅 모두 그 일을 막고 어지럽힌다. (少貳氏가) 공을 大宰府에 머무르게 해 사람을 보내 守護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삼별초의 방해 공작이 太宰府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宋인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두 가지 점이 알려지고 있다.

良弼의 太宰府 도착은 1271년 9월 19일로 같은 달 3일부터 京都의 조정에서는 삼별초의 첩장에 대한 대응이 논의되고 있었다(『吉續記』). 太宰府에서 良弼과 접촉한 ‘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첩장을 휴대하고 도항한 사절단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金海府로부터 일본에 보내진 약 20명의 병사는 그 호위를 담당했었다고도 생각된다. 太宰府는 정반대의 임무를 띤 2개의 사절단을 동시에 맞이해 긴장에 싸였을 것이다.

良弼에 대한 방해 공작에는 宋인도 관여하고 있었다. 『贊皇復縣記』에 “時に僞宋, 海道の兩浙を去ること遠からざるを以て, 大いに之を畏れ”라고 있는 바와 같이 남송은 良弼의 설득이 이루어져

일본이 몽골의 陣營에 포함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몽골에서 보면, 고려의 반몽골 세력, 남송, 일본의 3자가 제휴하는 것은 더할 바 없는 위협이었다.

남송의 공작은 良弼의 재차 도일에 즈음하여도 시도되었다. 『贊皇復縣記』에 “때로는 송을 가장하여…僧 滕原瓊林 등을 과견하여 (良弼의) 사행을 세워 염탐하였다.”라고 있어, 良弼은 일본인과 송의 使僧에 대해서 송인의 浮僞無信을 내세워 중국 대륙의 대부분은 몽골의 것이 되고, 동남 彈丸의 땅만 남았을 뿐이라고 내세웠는데, 승려는 입을 다문 채 반론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은 내용으로서 良弼의 묘비명에도 “송나라의 使僧 瓊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渝平(和平을 교란하고?)하고, 이로써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이 돌아갔다.”라고 있어, 이것은 일본을 몽골에 따르게 한다고 하는 良弼의 임무를 사승이 방해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송이 일본에 보낸 사승 瓊林이란 일본으로부터의 도해 선승 桂堂 瓊林인것 같다. 『延宝伝燈錄』 권3과 『本朝高僧伝』 권23에 의하면, 그는 文永 연중에 입송해, 후에 杭州 徑山住持가 된 虛舟 普度로부터 臨濟宗 松源派의 법을 이어받아, 귀국 후 洛東의 勝林寺에서 지내게 되었다. 귀국 때에 虛舟의 法衣와 頂相을 賜與받았고, 嘉元 연중에는 해외에서 건너온 「虛舟和尚語錄」을 募緣 출판했다고 한다. 그의 스승 虛舟가 있던 곳은 蘇州와 杭州 등 南宋 중추부에 있는 사원이며, 그 모임하에 있던 瓊林과 같은 도해승은 대일 외교에 안성맞춤의 인재였다.

이상과 같이 文永의 役 직전, 일본에 대한 3개의 세력의 외교적 움직임은 살펴보았다. 그 중에 남송만이 趙良弼의 일본 설득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良弼과 삼별초에 의한 공작은 완전히 반대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서는 삼별초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도록 하겠다.

첩장을 받은 조정은 龜山院에서 회의를 열어 대응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첩장이 고려의 반몽골 세력의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고, 글자 등의 해석을 儒者들이 서로 경쟁할 뿐이었다. 한편, 北條時宗을 수반으로 한 막부는 첩장을 접하고, 九州에 영지를 가지고 있는 御家人에게 그 영지로 가서 守護의 지휘 아래에서 ‘異國의 방어’에 임하도록 명령했다. 첩장은 몽골의 위협을 전했다고 하는 문맥에서만 이해되고 있었고, 자국의 방위를 굳히는 것뿐이었으며, 삼별초의 국제적인 공동 제안이 고려된 형적은 없다.

제주도에 거처한 삼별초는 나아가 2년간을 더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1273년에 원·고려 연합군에 의해 괴멸되었다. 그 다음 해에, 元은 일본 정벌을 실행으로 옮겼다(文永의 役). 전쟁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끝난 직후, 막부는 ‘이국 정벌’, 즉 한반도로의 反攻에 착수한다. 거기에는 모험적인 보복주의가 있을 뿐이었고, 삼별초의 입장에 대한 단 하나의 이해도 보이지 않는다. 당

시의 막부에 ‘이국 정벌’을 감행 할 정도의 여력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 2. 전투

몽골 전투에 참가한 肥後國 御家人 竹崎季長는 文永·弘安 두 차례 전투의 모습과 그 중간에 앞장서서 적진에 쳐들어간 공훈에 대한 인정의 요구를 구하기 위해 鎌倉으로 향한 경위를 그림 두루마리에 그리게 해, 文永의役に 대한 은상으로서 배령한 肥後國海東郷의 鎮守 甲佐 大明神에 봉납했다. 이것이 유명한 「蒙古襲來繪詞」(이하, 『繪詞』라고 생략한다)에서 현재는 宮内廳 ‘三の丸 尙藏館’에 소장되어 있다. 「蒙古襲來繪詞」는 季長 개인의 눈을 통해 몽골 전투라고 하는 세계 전쟁의 일단을, 동시대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그려낸 작품이다. 대외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일본의 무사들은 편성도 전법도 무기도 완전히 다른 이국의 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운 것일까. 주로 吉田光邦[1975], 佐藤鐵太郎[2005], 太田彩[2000]의 성과에 의거하면서 鎌倉 무사가 몽골 전투를 통해서 어떠한 이문화와 접촉했는지를 살펴보겠다.

### 陸戰

『繪詞』에 그려진 몽골군의 무기로서는 화약을 사용한 병기인 ‘철포’(총)이 눈을 끈다. 철의 반구 둘을 합한 것 내부에 화약을 장치해 손에 들 수 있는 투척기를 사용해 적진에 던져 작렬시키는 것으로 그다지 상상력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굉음에 의한 위협 효과는 발군이었다. 『八幡愚童訓』(이하, 『愚童訓』이라고 약칭함)은 “도망칠 때에 철포를 쏘아 어둡게 하였는데, 그 소리가 높이 울렸고, 마음을 혼란케 하여 간을 조리게 하였으며, 어지럽게 귀가 울려 亡然하게 東西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퇴각 시에 사용되었던 것은 『繪詞』의 그림과 일치한다. 이것에 북등 징의 소리도 더해져, 대단히 떠들썩한 전쟁이었던 것 같으며, 『愚童訓』에 “그 소리의 굉장함에 일본의 말이 모두 놀라 進退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활과 화살은 쌍방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몽골군의 활은 2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宋式의 단궁으로 쥐는 부분이 패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길고, 화살촉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쥐는 부분에 패인 곳이 없는 몽골식의 장궁이다. 또, 몽골군의 진에서는 병사의 대부분이 창이나 칼끝을 세워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기에 예상외로 유효하였는데, 『愚童訓』은 “칼 끝, 무기의 자루, 무기류 등이 틈새를 찢러와 뺄 수가 없

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외 『愚童訓』에는 석궁이라고 부르는 투석기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몽골군의 陣에는 큰 북이 3개와 징(銅鑼)이 하나 보이지만, 이것들은 『愚童訓』에 “물러날 때는 逃鼓를 치고, (진을) 펼칠 때는 責鼓를 울리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였다.”라고 있는 바와 같이 병력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신호 수단이었다. 소리를 내는 것이 상징하는 집단 전법은 일본군을 당황하게 하였다. 『愚童訓』은 “一面에 나란히 서서 다가오는 자가 있다면, 중간을 퇴각시키고 양쪽의 끝을 회합시켜 감싸게 하여 남김없이 토벌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如日本戰, 相互名乗り合テ, 高名・不覺ハ一人宛ノ勝負ト思フ處, 此合戰ハ, 大勢一度ニ寄合テ, 足手ノ動處ニ我モクト取付テ押殺シ, 虜ケリ. 是故懸入ル程ノ日本人, 無漏者.

‘야!, 야!, 우리들이야말로 …’라고 자칭하고 있는 동안에 밀려 모여들어 갈아 뭉게 버리는 희비극에 전투 방법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전투 개시 때도 그러하였으며, 『愚童訓』에 의하면, 일본의 대장 少貳景資가 “箭合ノ爲トテ小鑼ヲ射タリシニ”라고 하여 몽골의 진영으로부터 “와” 하고 웃음소리가 올랐다고 한다. 鑼矢는 날리면 소리를 내는 의례용의 화살이다.

그런데 ‘文永의 役’의 처음 전투에 竹崎季長은 선두에서 공을 세우려고 제일 앞에서 몽골의 진영에 공격해 鳥飼瀉, 즉 현재의 福岡市 城南區 鳥飼 주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 a: 凶徒は麤原に陣を取りて, 色々の旗を立て並べて, 亂聲暇なくしてひしめきあふ.
- b: 季長はせむかふを, 藤源太すけみつ申す. “御方は續き候らん. 御待ち候て, 証人を立てゝ御合戰候へ”と申を, “弓箭の道, 先をもて賞とす. たゞ懸けよ”とて, をめいて懸く.
- c: 凶徒, 麤原より鳥飼瀉の塩屋の松のもとにむけ合せて合戦す. 一番に旗指, 馬を射られて跳ね落さる. 季長以下三騎痛手負ひ, 馬射られて跳ねしところに, 肥前の國の御家人白石の六郎通泰, 後陣より大勢にて懸けしに, 蒙古の軍ひき退きて麤原に上がる.

詞書에 이렇게 기술한 季長의 분전 장면은 많은 「蒙古襲來繪詞」의 그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몽골 병사의 화살에 맞은 기병의 말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리며, 季長의 오른쪽 무릎에도 화살이 명중하고 있다. 머리 위에서는 던져진 창들이 날아가고 폭탄이 작렬하고 있다. 왼손에는 季長에게 화살을 맞은 3명의 獍猛한 얼굴을 한 몽골 병사가 있으며, 그 뒤를 한 무리의 몽골병이 퇴각해 간다.

그런데, 근년의 연구에 의해 이 그림에는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佐藤鐵太郎과 太田彩의 분석 결과를 내 나름대로 종합해 소개해 보겠다(자세한 것은[村井, 2001]을 참조).

중심을 이루는 그림 7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른쪽 중간의 그림 7-I에 기마의 季長, 왼쪽 중간의 그림 7-II에 뒤를 보이고, 도망치는 몽골의 보병이 배치되어 있으며, 두 종이의 이음매를 사이에 두고 季長과 대치하는 3명의 몽골 병사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원래의 두 종이는 연속하지 않은 것으로 3명의 몽골 병사는 추가한 것이다(잘 보면, 이 3명만이 다른 몽골병과 비교해 윤곽선, 옷차림, 표정 등의 붓 사용법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I의 우측에 있는 그림 6은 우측으로 季長의 자형 三井資長이 있는데, 말 위에서 화살을 몽골병에게 쏘고 있으며, 좌측에 몽골병 10명(그 중에서 1명은 기마), 季長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다. 이것을 그림 7-I과 그림 7-II의 사이로 옮기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몽골병이 퇴각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다만 사이에 약간의 결핍이 있다). 그림 7-I로 연결되게 된 그림 5에는 말을 쏘면서 무리지어 있는 季長이 가지고 있는 깃발 뒤로 말을 탄 채 깃발을 들고 선도하고 白石通泰의 군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詞書c에 있는 通泰가 季長의 위기를 구하는 상황이 명료하게 그려져 있다. 한편, 그림 7-II의 왼쪽으로 계속되는 그림8에서는 울타리와 격자의 방패를 늘어놓은 곳의 뒤에 몽골병이 진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詞書a를 묘사한 것이다.

이 復原案에서는 詞書c에 대응하는 그림이 詞書a에 대응하는 그림보다 앞(오른쪽)에 와있고, 詞書와 그림이 시간적으로 역전한다.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든 것은 오른쪽 단에 白石通泰의 기마 군단, 왼쪽 단에 몽골군의 陣이라고 하는 양감을 배치해, 중앙 우측에서 季長과 그 부하들의 고군분투, 좌측에서 거기에 쫓기는 몽골병을 그리는 화면 구성의 논리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공의 공적”이라는 그림에 대한 해석이다.

일본 측의 전법은 어디까지나 단독의 리더에 이끌린 군단이 독자적인 의지로 움직인다. 군단은 큰 규모로 菊池武房과 白石通泰의 100여 騎, 작은 규모로 季長과 같은 數騎이다. 詞書b에 의하면, 從者 스케미즈(すけみつ)에게 아군의 도착을 기다려 証人を 세우고 싸우도록 권유받은 季長은 선공이야말로 ‘무사의 道’라고 말하며 적진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투 방법이 나타나 있지만, 어느 쪽이나 개인 중심인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선공과 같은 모험적 행동은 전투 전체의 귀추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일본군은 그것을 상주는 이외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通泰 군단은 기마병들이 같은 모습과 방향을 보이는 한 무리의 덩어리로서 그려 통일적인 의지를 표상하고 있다. 군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 내부에서 집단 전법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더욱이 스케미즈가 권했던 전법에는 개개의 무사단을 넘어

집단전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있었고, 때문에 季長의 “무사의 道, 선공으로서 賞을 내림”의 형태가 눈에 띄는 것이다.

## 해전

『繪詞』 하권은 대부분이 ‘弘安의 役’의 해전 장면으로 접해져 있다. 국내의 전투 중에서도 중세의 해전을 이만큼 극명하게 그린 그림은 없다. 우선은 배의 묘사부터 보겠다.

일본 측의 병선에는 대소 두 종류가 있다. 작은 것은 草野·大矢野·秋月 등의 惣領이 인솔해 각각 10명 미만을 실었던 刳船(쿠리부네)보다 아주 약간 큰 정도의 선박이고, 큰 배는 季長을 포함한 肥後勢의 혼성부대와 少貳經資 등의 세력이 탄 약간 대형 구조의 선박이다. 후자의 1척의 선미에는 적선에 옮겨 탈 때 사용하는 작은 ‘端船(하시부네)’가 이어져 있다. 季長이 몽골 병사의 목을 베는 유명한 장면에서는 약간 대형의 선박의 적선에 季長의 종자가 갈퀴로 끌어서 다가가고 있다.

몽골군의 병선도 대소의 두 종류가 있다. 작은 것은 ‘走舸’로 경쾌한 操船이 가능한 타입이며, 말하자면 상륙용 선박이다. 선상에 거실이 없으며, 현측에 방패를 늘어놓아 방어한다. 여러 척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에는 뱃머리나 방패에 일본군이 쏜 화살이 무수히 박혀있다. 일본 측의 큰 배와 동일한 크기 아니면, 그것 보다 약간 큰 것처럼 보인다. 큰 선박은 ‘鬪艦’으로 갑판이 있으며, 화물 창고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큰 것은 선미에도 1실을 설치하고 있다. 뱃머리 위에는 綱代の 담이 있는데, 갑판에 있어도 半身을 숨길 수 있게 되어 있다. 뱃머리 측의 구멍으로부터 노를 내어서 젓는다. 季長이 옮겨 탄 1척과 그 좌측에 그려진 3척이 이것에 해당되는데, 어떤 선상에서는 병사가 북과 징을 울리고 있다.

일본군은 선박을 이용한 전쟁에서도 기마전 같이 개인 중심이었다. ‘弘安의 役’의 종반에 季長은 몽골의 패잔병이 있는 鷹島로 향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병선이 돌아가 버려 오지 않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곳에 지나가던 타카마사라는 무사의 배에 “수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승선하려고 했으나, 금방 들켜버렸다. 빌다시피 끈질기게 부탁하여 겨우 季長 본인만 승선할 수 있었지만, 투구는 若党(신분이 낮은 가신)에게 맡겨진 채 었다. 季長이 투구 대신에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는 도구(스네아테)를 얼굴에 대고 있는 것을 본 타카마사는 옆에 있던 若党의 투구를 빌려주려고 하지만, 季長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투구를 쓰지 않고 맞는다면 季長의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처자가 탄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거절한다. 사실, 『繪詞』에는 격렬한 움직임으로 季長의 이마에서 날아간 스네

아테가 확실히 그려져 있다[藤本, 2003].

季長の 예로 보아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각 御家人은 자기 부담으로 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둘째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몸 하나만이라도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였다. 전투의 이튿날 아침, 季長으로부터 戰功에 대한 보고를 받은 관동의 사자는 “自船候はで、一度ならずかり事(虚言)のみ仰せ候て、船々に召され候て、御大事に會はせ給候御事は、大猛惡の人に候と、上(かみ)の見參に入まいらせ候べく候”라고 약속하고 있다. ‘大猛惡’은 넘쳐난 용맹에 질린 듯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또, 若党을 내버려두고 타카마사의 배에 옮겨 댄을 때, 季長은 다시 또 “무사의 道, 앞으로 나감으로서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 측의 공격에 대응하는 몽골군의 전법은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조직적이었다. 草野次郎의 야습으로 피해를 입은 뒤, 그들은 “주의하여 배를 서로 대어 돌려서 방어하고, 다가오는 자가 있을 때, 큰 배에서 石弓을 쏘게 하면 일본의 배는 작기 때문에 맞아서 파괴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작전을 취했다(『愚童訓』). 몽골군이 선상에서 이용하는 방패는 여러 종류 있지만, 배 마다는 통일되어 있어 군단 조직 본연의 자세를 나타낸다. 첫째는 焦茶色の 장방형 판으로 상부에 1척은 白丸, 1隻은 黒丸, 1隻은 검은 휘장과 같은 모양이 그려지고 있다. 둘째는 위에 부분에 구름 모양으로 ‘卍’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가동식의 버팀봉이 붙는다. 卍 모양은 漢人들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던 것으로 『武經總要』라는 책에 의하면, ‘皮漫’이라고 하는 생 소가죽으로 만든 병기의 표면에 이 형태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셋째는 외형은 卍을 곁들인 방패와 같지만, 卍의 부분의 사각의 형태가 파여 있다. 넷째는 1장의 판이 아니라, 網代나 簀子を 장방형으로 짠 방패이다.

‘弘安의 役’에서 江南軍은 직업 군인일 뿐만 아니라, 『愚童訓』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장차 거주하기 위한 재로로서 생활의 도구를 갖추고, 경작을 위해 호미·가래까지도 가지고 가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민 선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대다수가 그런 일반 민중으로부터 구성된 14만 명은 대부분이 鷹島 주변의 바다에서 익사하였고, “바다 위는 대나무 가지를 뿌려 놓은것과 다를 바 없이, 시신이 서로 겹쳐져 마치 섬과 같았다.”라는 情景을 묘사하고 있다(『愚童訓』).

### 3. 불교와 무역

몽골 내습 사료의 상당수는 불교색이 진한 일본중세의 문화 상황을 시작으로 한 승려가 남긴

텍스트이다. 특히, 日蓮의 경우, 『立正安國論』의 ‘예언’ 이래, 대몽골 관계의 추이가 스트레이트하게 종교적 언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소식류가 상당한 정보를 가져다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이는 대외적 반응은 다른 승려나 일반인과는 대조적으로 그 자체가 이문화 접촉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의 전쟁에서는 근현대와는 달리 국가 간의 긴장이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단절에 반드시 직결되지 않고, 전쟁 상태와 무역이 반드시 양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文永·弘安 두 차례의 役 사이였던 1278년, 쿠빌라이가 ‘日本國人市舶’으로 무역을 허가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元史』, 世祖本紀). 또, 1276년 南宋의 수도 臨安(杭州)의 함락이라는 대사건이 臨安을 포함한 강남 지역에 근본적인 사회변동을 가져온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弘安의 役’ 후에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자 전쟁 상태의 계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강남간 무역선의 왕래는 개전 전보다 번창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부터 불교와 무역을 거론해보도록 하겠다.

## 日蓮의 독특함

日蓮에 들어가기 전에 몽골 내습에 눈에 띈 반응을 나타낸 다른 한 명의 승려 東巖慧安에 대해 언급해 두겠다. 洛外の 臨濟宗 正伝寺 住持였던 東巖이 1271년 9월 15일에 “八幡大士六十余州一切神等”에게 바친 원문(『正伝寺文書』)은 뒤쪽에 “모든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들 중에 뛰어난 나라”이라고 하는 和歌가 기록되어 있어, 패전 전에는 황국 정신의 발로로서 칭송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문의 “高麗は半ば蒙古に違背し本朝に隨順す”라고 하는 일절로부터 그가 삼별초의 첩장을 보고 있었으며, 그러한 반몽 행동을 눈치 채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모처럼의 알아차림도 神功皇后와 그의 子八幡神로의 열렬한 기원을 통해서 “二國 화합하여, 衣冠이 일치한다. 두 번의 牒使는 고려인이다. 명확하게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바와 같이 고려를 몽골과 동일한 적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흘러가버린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지식 계층에 공감된 것으로 중국과의 교제가 깊은 臨濟僧-東巖의 嗣法師는 渡來僧 兀庵임-도 예외는 아니었다. 9월 21일에 조정에서 논의된 口宣案에도 “西蕃(高麗)의 사신이 와서 北狄(蒙古)의 陰謀를 알렸다.”라는 글이 있지만(『吉續記』), 그러한 인식이 외교 판단에 반영된 행적은 없다.

日蓮은 1260년에 『立正安國論』을 막부에 제시하고, 법화경에 전적으로 귀의하지 않으면 ‘他國侵逼難’이 발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었지만, 빠르게도 5년 후에 그것이 몽골의 위협으로서 현실화함으로써 한층 더 자기의 사명에 확신을 가졌다. “經文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중에 日蓮이라는 한 사람이 마침내 그 西戎의 악행을 누르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에게는 막부 내에 친한 정보 제공자(아마도 신자)가 있었던 것 같고, 민간의 종교자이지만 민첩하게 몽골 관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부는 천태종 이외의 제종파를 과격하게 배격하는 日蓮 일파를 대외적 위협이 한창인 가운데 결속을 교란하는 불온 분자로 간주하여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압을 가했다. 삼별초의 침장을 접한 막부는 1271년 9월 13일, 九州에 영지를 가지고 있는 御家人, 또는 대관의 하향을 명해 이국의 방어와 영내 악당의 진압을 명했지만, 유명한 ‘龍口法難’이 일어난 것은 그 전날이었다. 日蓮 일파의 언동은 악당에게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던 것이다[川添, 2008].

日蓮은 이러한 막부의 ‘誘法’이 계속되는 한 몽골의 침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상황을 “蒙古國は…天の御使として法華經の行者をあたむ人人を罰せらるゝか”라고 해석했다(「異体同心事」). 막부가 몽골의 사자를 배었던 것에 대해서도, “日本國의 적으로서 念仏・眞言・禪・律 등의法師는 배지 않고, 죄 없는 蒙古 사신의 머리를 베는 것이야말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蒙古使御書」).

‘蒙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 日蓮은 신이 준 시련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파악한 귀중한 텍스트를 남겼다.

去文永十一年(太歲甲戌)十月に、蒙古國より筑紫によせて有しに、對馬の者かためて有しに、摠馬尉(宗助國)逃ければ、百姓等は、男をは或は殺し、或は生取にし、女をは或は取集て、手をとをして船に結付、或は生取にす。一人も助かる者なし。壹岐によせても又如是(「一谷入道殿御書」)

當時つくしへむかへハ、とゝまるめこゆくをとこ、はなるゝときハかわをはくかことく、かをとかをとをとりあわせ、目と目をあわせてなけきしか、次第にはなれて、ゆいのはま、いなふら、こしこへ、さかわ、はこねさか、一日二日するほとに、あゆみくとをさかるあゆみを、かわも山もへたて、雲もへたつれハ、うちそうものハなみたなり、ともなうものハなけきなり、いかにかなしかるらんかとなけかんほとに、もうこのつわものせめきたらハ、山か海もいけとりか、ふねの内かかうらいかにて、うきめにあはん(「富木尼御前御書」)

日蓮의 눈에는 ‘誘法’으로 한패가 된 일본의 하늘과 땅의 신은 완전히 무력했다. 文永의 役에서 筥崎 八幡宮이 탄 것을 “그 나라의 大王이 이 나라의 신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해 의무를 완수할 수 없었던 八幡神을 ‘大科의 神’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川添, 2008].

앞에서 언급한 선종의 東巖이나, 좀 더 유명한 律宗의 叡尊이 일본의 수호신인 八幡神에게 열성을 바치고, 법력으로 몽골에 대항하려 했던 것에 비해, 日蓮은 국가적 정통과와는 대척적인 입장에 서있었다. 그만큼 ‘弘安의 役’의 결말은 그에게 있어 뜻밖의 것이었을 것이다.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로부터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자, “此別一門大事也, 惣日本國凶事也. … いつもの事なれば, 秋風に纜水, 敵船賊船なんとの破損仕て候を, 大將軍生取たりなんと申, 祈成就の由を申候けに候也. 又蒙古の大王の頸の參て候かと問給へし”라고 대답했지만, 역시 강변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消息으로부터 몽골에 대한 언급은 사라져 1282년에 사망하게 된다.

### 최후의 遣使와 五山文化의 여명

‘弘安의 役’ 후에도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전쟁 준비를 명했지만, 국내외의 악조건이 겹쳐져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의 방법은 전쟁 일변만이 아니었다. ‘弘安의 役’ 후 얼마 되지 않은 1283년, 國信使 愚溪如智·王君治에게 보낸 日本國 앞으로의 詔(『善隣國宝記』, 卷上)에는 “和好の外に余善無く, 戰爭の外に余惡無し”라고 있다. “일찍이 일본이 사절을 잡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묻기 위해 해군을 보냈다. 교전 중에 사자를 보냈는데, 일본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우리 군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당연한 결과로서 화호의 요구를 말만의 감언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무변일변도의 일본 외교의 경직상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 해와 다음 해의 2번 시도된 교섭은 일본의 중앙까지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1294년에 쿠빌라이가 죽어, 뒤를 이어받은 손자 테무르가 98년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사절을 일본에 보낸 것은 쿠빌라이의 경연 두 가지 중 화호노선에 준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지명되었던 것이 舟山列島에 있는 宝陀寺(普陀山) 住持 一山一寧으로 사신을 보내기에 앞서 “妙慈弘濟禪師·江浙釋教總統”이라고 하는 직함이 부여되었다. 사절의 送達은 우연히 慶元(寧波)에 입항한 상선에 맡겨졌다. 普陀山은 慶元으로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상에 있으며, 開山の 惠堯은 9세기 중엽에 활동한 일본인이다. 불교와 민간 무역에 의지한 국가 외교였지만, 이것을 마지막으로 원이 일본에 외교 사절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一山은 1247년의 태생으로 明州(寧波)와 杭州의 여러 사원에서 天台·律·禪을 폭넓게 배워, 마침내 선종 오대산 2위의 天童寺에서 簡翁居敬에게 嗣法했다. 불교 이외에도, 문학·書·주자학 등에 통달한 올 라운드의 문화인이었다[西尾, 1999a]. 1299년 일본에 이른 一山을 막부에서는 처형하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沙門은 福田이다. 有道의 士는 万物에 관심이 없다. 元國에서는

元의 福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福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北條貞時의 결단으로 伊豆의 修禪寺에 幽閉되었다. 이윽고 그 유폐도 풀려 도래승이 거주하는 것이 한나의 관례가 되었던 建長寺의 住持로 지내게 되었다. 1317년에 71세에 사망할 때까지 円覺寺·南禪寺에서도 거주했으며, 北條得宗家나 後宇多院의 崇敬을 받았다. 특히, 後宇多院은 1319년에 一山の 頂相(肖像畫)에 스스로 “宋地万人傑, 本朝一國師”라고 贊을 가했다고 한다(「一山和尚行記」).

一山에게 嗣法한 일본 승 雪村友梅(1290-1346)가 있다[今谷, 1994]. 雪村은 1307년부터 23년간 元에 체재하여 동시대 중국 문화를 흡수했다. 일본의 초기 五山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元재에 있을 때의 시문집으로 『岷峨集』, 귀국 후의 작품집으로 『宝覺眞空禪師語錄』이 있다. 一山에서부터 출발한 범계는 커다란 문과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嗣法이 이루어지지 않은 場에서 그가 준 문화적 영향은 절대적이다. 虎關師鍊(1278-1346)은 一山으로부터 일본 고승의 사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하지 못하였는데, 僧伝集의 형태를 취하는 日本仏敎史 『元亨釋書』를 저술했다. 夢窓疎石(1275-1351)은 一山을 그리워해 京都로부터 鎌倉으로 물러나, 建長寺 入寺를 지원하여 偈頌(불교적 漢詩)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 후 夢窓派는 室町幕府·朝廷의 外護 아래에서 임제종의 최대 세력을 차지하게 된다. 龍山德見(1284-1358)은 一山이 円覺寺에 있었을 때 역시 계승의 시험으로 수석을 잡았다. 1305년부터 45년간이나 元에 체재하여 귀국 후 많은 문필승려를 길렀다. 작품집에 「黃龍十世錄」이 있다.

一山은 스스로가 주지를 지내고 있는 절에 수행승을 받을 때, 偈頌을 작성케 하여 중국어로 朗詠시켰다. 寺内の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중국어 능력이나 중국 문화의 소양이 요구되었다. 학예의 방면에서 그가 일본의 선종사회에게 준 영향은 지극히 커서 ‘日本五山 문학의 祖’로 평가된다. 西尾賢隆은 “우리나라의 禪家가 폭넓게 독서인으로서 중국의 사대부에 필적하는 소양을 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一山에 의한 偈頌의 시험이었다고 해 과언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西尾, 1999a].

## 왜구 사건과 무역통제

‘弘安의 役’ 이후, 日元 간의 상선 왕래는 당분간 끊어지고 있었지만, \*\*\*\*년에 부활하였고, 이후 14세기 전반에는 송대 이상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상선을 이용해 도해한 선승들에 관련된 사료로부터 그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집중해 ‘寺社造營料唐船’, 즉 寺社의 조영비용을 무역 이윤에 의해 벌어들이려고 하는 ‘勸進’의 선박이 중국에 보내졌지만, 그 실태는 日元 간을 왕래하는 중국 상인 경영의 무역 선박에 대해서 일본→중국→일본의 1회 항해에 한해서 일

본의 정치권력이 부여한 타이틀에 지나지 않았다[村井, 2005].

1309년에 慶元에서 일본 상인과 役人이 충돌해 域內가 대부분 소실되버리는 ‘왜구’ 사건이 일어난 이래, 元측의 ‘왜구’를 이유로 하는 倭船에 대한 입항규제가 단속적으로 행해졌다[榎本, 2007].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무역 확대의 요인이 존재했지만, 정치적·군사적으로는 무역 규제가 강해지고 있었다. 거기에 몽골 내습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1328년 겨울, 福州 長樂港에 일본에서 온 무역선이 있었는데, 다음 해에 일본으로 도항하여 2년 후 ‘關東大仏造營料唐船’의 간관을 내걸게 된다. 福州에 일본으로부터의 배가 들어가는 것은 異例이지만, 그 배경에는 1327-8년 무렵에 慶元에서 왜구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선박에 대한 慶元 입항을 금지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 게다가 1342년 겨울에 慶元에 입항한 天龍寺船의 경우로부터는 倭船 규제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종래, 天龍寺船은 큰 이익을 얻어 귀국한 것만이 강조되어 왔지만, 실은 慶元에서 고난에 휩쓸리고 있었던 것이다.

1320년 이래 慶元의 방위를 담당한 鍾万户는 1334-5년 무렵에 慶元으로 일어난 ‘왜구’를 진압하고, 그 이후에 경원을 관할하는 浙東道都元帥는 倭船의 교역 유통을 금지하고 있었다. 鍾万户는 이 금지령에 근거해 天龍寺船을 취급했다. 무역 책임자 至本은 賊船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해를 넘겨 간신히 무역은 인정되었지만, 선승들의 상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渡海僧 愚中周及은 한 명의 중국 상인의 협력을 얻어, 작은 배로 慶元을 그냥 지나쳐 저명한 선승이 있는 절에 숨었지만, 이런 성공은 오히려 예외였다. 榎本涉[2007]이 발견한 抄物史料 「愚中周及年譜抄」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天龍寺船에 편승해 求法을 목표로 한 승려의 수는 60여인 이었다. ②그 중 상륙에 성공한 것은 愚中の 일행 11명뿐이었다. ③渡來僧 清拙正澄의 제자들 17명은 밀입국하려다가 경비병에게 잡혀, 화가 난 鍾万户에 의해 몰살되었다. ④天龍寺船에 잔류하고 있던 30여인의 승려들은 이것을 듣고 전원 일본으로 귀국했다.

유사한 상황은 일본 측의 창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12세기~13세기 전반의 博多에서는 중국 상인이 ‘在蕃貿易’을 경영하면서 다채로운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13세기 후반이 되자, 그러한 동향이 사료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在蕃’의 쇠퇴와 무역선 왕래의 증가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다. ‘弘安의 役’ 직후, 막부는 “타국으로부터 처음 들어오는 異國人 등에 대해서는 制止를 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법령을 발했다. 새롭게 온 외국인에 대한 배제에 의해, 博多의 중국인 거주지는 쇠퇴의 일로를 가게 되었고, 일본 거주가 어려워진 중국 상인은 항상 무역선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몽골 내습을 경계로 博多에는 차츰 공권력의 지배가 침투해 갔다. 天龍寺船의

도항에 즈음하여, 博多의 ‘公府’, ‘官司’가 승선자의 선정에 일정한 관여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42년 中巖円月는 재차의 중국 도항을 계획하여 博多에 이르렀지만, 관아의 관리가 문서를 내려 배에 승선하는 것을 금하였다. 때문에 다시 출발할 수 없었다.(『中巖月和尚自歷譜』). 1350년, 博多의 息浜에 龍山德見 이하 18명의 일본인 승려와 선주 이하 11명의 중국인을 실은 ‘宋船’이 착안했다. 대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九州探題 一色直氏 귀국승려의 명부를 더해 무로마치 막부에 보고했다(『園太曆』). 이러한 예로부터 鎌倉幕府의 관직명이 출입국 관리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도시 博多호의 규제력을 강화시켜 나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맺음말

중세의 일본인에게 몽골 내습은 보기 드물게 보는 이문화 접촉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일본인의 대외 의식에 큰 흔적을 남겼다. 다만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본을 타국보다 뛰어난 신성공간으로서 <다른 것>에의 멸시와 배제를 동반하는 ‘神國思想’의 정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신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언설도, ‘敵’에 관한 그 어떤 이해를 근거로 해 자기를 재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공허한 국가 자랑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멸시관의 깊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신라를 조공국으로서 따르게 하는 역사적 기점으로 여겨져 온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전설의 변화로부터 엿볼 수가 있다. 그 원조인 『일본서기』에서 정벌의 동기는 財寶에 대한 욕망으로 여겨졌고, 또 신라를 굴복시켜 馬飼로 삼았다 라고 쓰여 있다. 이것이 몽골 내습을 거친 鎌倉 말기의 『愚童訓』이 되자, 정벌의 동기는 복수가 되어-따라서 그 전 단계에 신라의 일본 침공이 창작된다.- 馬飼의 이야기는 황후가 활이 끝에 있는 角으로 바위에 “신라국의 대왕은 일본의 개다”라고 써 붙였다는 이야기로 바뀐다[金, 1999].

『愚童訓』에는 삼한정벌에서 황후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전국 각지 신들의 이름이 상당수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弓箭·甲冑를 두르고 정벌로 향해 군인이었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몽골 전투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었던 것과, 적어도 동일한 정도로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전투 행위에 대해서 神領寄進라고 하는 恩賞이 요구되었다. 대외전쟁이라고 하는 희유의 경험도 국내 전투의 논리로 파악되어 인식의 변혁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몽골 내습은 민중의 의식에 무엇을 남겼을까. 1269년에 대마도까지 와서 돌아간 몽골 사신은 塔二郎·弥二郎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島民을 데리고 돌아갔다. 燕京으로 보내진 두 사람에게 쿠빌라이는 스스로 “너의 나라가 중국에 朝覲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짐이 너의

나라의 내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뿐이다.”라고 말을 걸었고, 장려한 궁전을 들이켜 본 두 사람은 “天堂 · 仏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아뢰었다(『高麗史』, 元宗世家 10년 7월 甲子條). 京 · 鎌倉은 물론, 博多마저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서민의 超絶體驗은 어딘지 모르게 환타스틱한 취치가 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인의 의식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체험을 한 일본인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한편, 민중이 이적의 침략으로부터 받은 공포는 正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무쿠리 코쿠리(蒙古·高句麗)’라고 하는 말에 남았다. 井伏鱒二의 소설 「黒い雨」에는 사람들이 廣島の 원폭구름을 ‘무쿠리 코쿠리의 구름’이라고 불렀다는 묘사가 있다[田中, 1982]. 또, 宮城縣 仙台市에는 ‘모쿠리 코쿠리 碑’라고 불리는 중세의 板碑 있어, 이것을 깎은 가루를 삼키면 백일해에 효과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정체를 모르는 위력을 가지는 것에 매달려 역병 등의 위협에 대항하려는 심성은 드문 일이 아니다.

## 〈참고문헌〉

- 荒木和憲, 2008, 「文永7年2月日付大宰府守護所牒の復元—日本·高麗外交文書論の一齣」(『年報太宰府學』 2)
- 伊藤幸司, 2002, 「蒙古襲來をめぐる円爾と南浦紹明」(『都府樓』33)
- 今谷 明, 1994, 『元朝·中國渡航記 雪村友梅の數奇な運命』(宝島社)
- 榎本 涉, 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9-14世紀』(吉川弘文館)
- 太田 彩, 2000, 『繪卷·蒙古襲來繪詞く日本の美術414』(至文堂)
- 太田彌一郎, 1995, 「石刻史料, 「贊皇復縣記」にみえる南宋密使瓊林について—元使趙良弼との邂逅—」(『東北大學東洋史論集』6)
- 川添昭二, 2008, 「蒙古襲來史料としての日蓮遺文」(『九州史學』 150)
- 金 光哲, 1999, 『中近世における朝鮮觀の創出』(校倉書房)
- 佐伯弘次, 2003, 『日本の中世9モンゴル襲來の衝擊』(中央公論新社)
- 佐藤鐵太郎, 2005, 『蒙古襲來繪詞と竹崎季長の研究』(錦正社)
- 杉山正明, 2003, 「モンゴル時代のアフロ·ユーラシアと日本」(近藤成一編『日本の時代史9モンゴルの襲來』吉川弘文館)
- 朱雀信城, 2008, 「至元8年9月25日付趙良弼書狀について」(『年報太宰府學』 2)
- 田中健夫, 1982, 「ムクリコクリ」(同『對外關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 初出 1967)
- 張 東翼, 2005, 「1269年, 「大蒙古國」中書省の牒と日本側の對応」(『史學雜誌』 114-8)
- 西尾賢隆, 1999a, 「元朝國信使寧一山」(同『中世の日中交流と禪宗』吉川弘文館 初出1990)

- 西尾賢隆, 1999b, 「モンゴル襲來前夜の日元交渉の一面－趙良弼と大応－」(同『中世の日中交流と禪宗』吉川弘文館 初出 1999)
- 旗田 巍, 1965, 『元寇－蒙古帝國の内部事情－』(中公新書)
- 藤本正行, 2003, 『鎧をまとう人びと－合戦・甲冑・繪畫の手びき』(吉川弘文館)
- 村井章介, 1988, 「高麗・三別抄の内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同『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初出 1982)
- 村井章介, 2001, 『北條時宗と蒙古襲來－時代・世界・個人を読む－』(NHKブックス)
- 村井章介, 2003, 『分裂する王權と社會』(中央公論新社)
- 村井章介, 200a,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文化』(放送大學教育振興會)
- 村井章介, 2005b, 「寺社造營料唐船を見直す－貿易・文化交流・沈船－」(歴史學研究會編『港町の世界史1港町と海域世界』青木書店)
- 山本光朗, 2001, 「元使趙良弼について」(北海道學芸大學史學會『史流』40)
- 吉田光邦, 1975, 「蒙古襲來繪詞に於ける武器について」(『新修日本繪卷物全集』10, 角川書店)
- 李 領, 1999, 「「元寇」と日本・高麗關係」(同『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13世紀 以前の 麗日關係

李在範

(京畿大學校 人文學部 史學專攻)

## 1. 서론

13世紀 以前の 麗日關係를 전체적으로 어떤 特徵的 상황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時期別로 差別化하여 말하기도 어렵다.<sup>1)</sup> 그 까닭은 이 時期에 관한 研究도 不進했지만, 實際로 交流關係를 밝힐만한 資料가 充分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實際로 交流 關係가 活潑하지 않았기 때문에 傳해지는 資料가 그것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主張이 妥當하게 들릴 그런 分野이다.

이 時期에 兩國間의 關係가 疎遠할 수 밖에 없었던 理由는 여럿 있겠으나, 우선 當時의 東아시아 國際環境과 關聯이 있다고 할 것이다. 高麗가 建國되던 918年頃의 國際情勢는 東아시아 各國이 對外的인 問題보다는 自國의 混亂 收拾에 優先的으로 置重할 수 밖에 없었던 處地였다. 高麗로서는 後三國의 分裂을 一旦 統一하여 急한 狀態는 마무리하였다 다고 하지만 地方에서 勃發하는 豪族들의 反撥과 王室內에서 展開되는 王位爭奪戰은 國家을 安定이라고 할 수 만은 없게 만들었다. 이어서 高麗의 門閥貴族들간의 勢力 다툼도 高麗의 總力을 國際的으로 돌리기에는 適合하지 않는 興件이었다.

한편 高麗의 周邊國에서 가장 많은 影響을 주었던 中國의 狀態도 그다지 有利하게 돌아가지

---

1) 森克己는 10世紀는 8-9世紀의 ‘政治中心적인 對外關係’에서 ‘經濟中心의 對外關係’로 변하기 시작하는 大 전환기로 보고, 이 時期의 對外關係를 ‘消極的 孤立主義’ 또는 ‘閉鎖主義’로 보고 있다. 80年代 後半부터는 石上英一을 中心으로 한 學者들은 이 時期를 ‘積極的 孤立主義’로 보는 등 一連의 試圖가 이루어졌다. 李炳魯는 이러한 變換의 時期를 9세기로 앞당겨 보기도 한다(李炳魯, 11世紀 韓日 兩國의 對外交涉에 關한 一考察, 大丘史學 제59집, 1-2쪽).

는 않았다. 高麗 建國期の 中國의 사정은 이른바 唐末五代의 時期로 여러 王朝가 交替되고 있었던 混亂期였다. 이 時期에 高麗는 日本보다도 中國의 여러 나라와의 關係에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宋을 무시할 수도 없었으므로 中國과의 여러 나라와 多角的인 關係를 摸索할 수 없었으므로, 相對的으로 日本과는 커다란 戰爭 등의 威脅이 없었으므로 疎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高麗로서는 中國이 契丹族에 의하여 遼가 성립되면서, 大規模의 高麗 侵入을 敢行해 오자 이에 대한 對備로 다른 나라와의 關係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實際로 13世紀 以前까지 高麗의 對中國關係는 상당히 不安한 形便이었다. 契丹族의 遼가 세차례의 大規模 侵略戰爭을 敢行하였고, 그 뒤를 이어 女眞族이 金을 세워 高麗에 壓迫을 可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東아시아 國際情勢 속에서 高麗는 大陸과의 關係 改善에 많은 努力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處地였다. 한편 日本에서는 醍醐天皇의 延喜 연간으로 이미 遣唐使가 廢止되어 中國과의 國交가 斷絶된 狀態였다. 그 뒤로 宋과의 많은 關係를 갖으려고 努力하였던 時期이다.

그것은 어떻든 高麗前期의 韓日關係에 관한 研究는 日本의 研究가 주를 이루었다. 最近에 國內에서 日本史料가 紹介되면서 一連의 研究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滿足할만한 狀態는 아니다. 그나마 多幸인 것은 日本에 있는 資料들이 國內에 紹介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程度이다. 勿論 資料集이라는 性格 自體가 限界가 있는 것은 分明하지만, 그렇더라도 全體를 涉獵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 것은 매우 多幸스러운 일이다.<sup>2)</sup>

本考는 이러한 國內에서의 資料集 刊行과 關聯하여 高麗前期의 韓日關係를 全體的으로 眺望해 본 結果이다. 以前에는 韓國에서의 高麗史 關係者들이 主로 利用하였던 것은 『高麗史』를 비롯한 韓國의 文獻들이었다. 그러다보니 自然스럽게 韓日關係사는 自國史 中心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韓日關係사의 主流은 倭寇가 되고 이를 討伐한 民族 抗爭이 한동안 浮刻된 論點이었다. 그러므로 高麗와 日本은 倭寇로 象徵되는 關係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倭寇 以前의 韓日關係史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日本 資料를 取하게 되면 또 다른 眼目에서의 韓日關係史를 眺望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既 刊行된 日本 文獻 속의 韓日關係사 資料를 包含하여 既 發表된 研究成果를 涉獵하여 13世紀 以前의 韓日關係史의 全貌를 살펴 보려고 한다.

2) 본고의 高麗 前期 韓日關係에 관해서 기존의 많은 研究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일일이 列擧하기에는 紙面이 너무 不足하다. 必要한 경우에는 각주나 본문에서 인용하는 程度에서 감사를 표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張東翼교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장동익교수의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는 原文資料의 꼼꼼한 소개는 물론, 資料內容 까지 전달하여 이 分野에 큰 업적을 쌓았음은 물론 필자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日本古中世文獻속의 韓日關係史料集成』(김기섭 등, 해안, 2005)도 커다란 參考가 되었다.

關係史를 說明하는데 時期的으로 區分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를 類型別로 分類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國家와 國家間的 關係, 民間과의 交易關係, 文化的 交流 등으로 區分하여 13世紀以前 韓日關係의 大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高麗와 日本의 國家대 國家 간의 關係

13世紀 以前の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를 한마디로 整理하기는 어렵다. 먼저 史料上의 問題가 있고, 다음으로 解釋上의 問題가 있다. 高麗史는 高麗의 사정에 유리하게, 日本은 日本의 事情에 有利하게 敘述하였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史料에 나타난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를 類型別로 分類하여 보고, 그 內容을 근거로 13世紀 以前の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高麗해 보아야 할 事項이 國家對國家의 關係인 外交關係이다. 즉 使臣의 交換을 通하여 韓日間的 公式的인 交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國家대 國家間的 公的 關係인 使臣의 交換은 關係史에서 가장 重要한 內容이 될 것이다. 國家間的 位相, 그리고 國家間的 交流의 內譯 등은 關係史의 核心的인 要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關係資料를 살펴보면 다음의 <表 1>과 같다.<sup>3)</sup>

<표 1> 高麗와 日本의 國家間的 공식關係

連番	年度	關聯事實	典據
1	922年(景明王6, 延喜 22)	◦ 6月5日, 日本朝廷이 對馬島에 到着한 後百濟王 甄萱의 使臣 輝巖을 돌려보내라는 命令書(관부)를 大宰府에 내림.	/ 扶桑略記, 延喜 22年 6月 5日, 延長 7年 5月 21日 / 『本朝文粹』12, 大宰府답新羅반牒
2	929年(敬順王3, 延長7)	◦ 1月 13日, 耽羅島를 往來하던 新羅 선박이 對馬島 下縣郡에 漂着, 島守 坂上經國이 擬通事 長岑望通·檢非違使 秦滋景 등으로 하여금 後百濟 前奏로 送還 시킴.	/ 扶桑略記, 延長 7年 5月 17日.
		◦ 3月 25日, 檢非違使 秦滋景이 對馬島 도착. 全州王(後百濟王) 甄萱이 日本과 通交를 希望하였으나 挫折된 事實을 알리다. 甄萱이 長岑望通을 남겨두고 秦滋景만 돌아와 通交의 뜻을 전하다.	/ 扶桑略記 延長7年 5月 17日.

3) 본고에 수록된 <표>의 內容은 張東翼 교수가 전계 資料集에서 韓日 兩國의 交流關係를 整理해 놓은 內容(15~47쪽)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한 것이다.

36 ■ 蒙古의 高麗 · 日本 侵攻과 韓日關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月 17日, 全州王의 使臣 張彥澄 등 20인이 對馬島에 도착. 對馬島司가 이들을 구류하고 太政官에게 보고함</li> <li>◦ 5月 21日, 太政官이 大宰府에 관부를 내려 張彥澄 등을 歸還시킴. 甄萱은 新羅의 부하이므로 外交 인정하지 않음.</li> </ul>	<p>/ 扶桑略記 延長 7年 5月 17日</p> <p>/ 扶桑略記 延長 7年 5月 21日 / 異國牒狀記</p>
3	937年(太祖20, 承平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月 5日, 高麗가 보낸 牒을 日本의 左右大臣 이하 열람.</li> </ul>	<p>/ 『日本紀略』 承平 7年8月 5日.</p>
4	939年(太祖22, 天慶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月 15日 攝政 藤原忠平이 高麗의 牒을 左少辨藏人 大江朝綱에게 보냄.</li> <li>◦ 3月 11日 大宰府가 高麗의 廣評省에 보내는 答書(返牒)와 함께 使臣團을 돌려 보냄.</li> </ul>	<p>/ 貞信公記抄 天慶 2年 2月 15日</p> <p>/ 『日本紀略』 天慶 2年 3月 11日 / 帥記 承曆 4年 閏8月 5日, 25日</p>
5	940年(太祖23, 天慶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月 21日 이래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을 檢討하고 이에 대해 의논함.</li> </ul>	<p>/ 貞信公記抄 天慶3年 6月 21日, 23日, 24日 / 帥記 承曆 4年 閏8月 5日, 25日</p>
6	972年(光宗23, 天祿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23日, 大宰府가 高麗의 南京(原)府使 咸吉兢이 牒을 가지고 對馬島에 도착한 것을 日本 朝廷에 報告, 다음달 7日 日本 朝廷에 전달.</li> <li>◦ 10月 15日, 大宰府가 高麗의 金海府使 李淳達이 牒을 가지고 對馬島에 도착한 것을 日本 朝廷에 報告.</li> <li>◦ 10月 20日,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에 대해 의논함.</li> </ul>	<p>/ 『日本紀略』 天祿 3年 9月 23日 ; 親信卿記 天祿 3年 10月 7日.</p> <p>/ 親信卿記 天祿 3年 10月 15日.</p> <p>/ 百練抄 天祿 3年 10月 20日.</p>
7	974年(光宗25, 天延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閏10月 30日, 日本 朝廷의 高麗國交易使(高麗貨物使)가 對馬島에 派遣되어 高麗의 產物을 購入해 감.</li> </ul>	<p>/ 『日本紀略』 天延 2年 閏10月 30日 ; 親信卿記 天延 2年 閏10月 30日.</p>
8	997年(成宗16, 長德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月, 高麗의 牒 3通(受信處는 日本國·對馬島司·對馬島) 日本에 도착함.</li> <li>◦ 6月 12日-13日, 日本의 公卿들이 高麗의 牒에 日本을 侮辱하는 文句가 있다고 하여 答書を 보내지 않고, 要害地를 警戒하게 함.</li> </ul>	<p>/ 異國牒狀記 長德 3年.</p> <p>/ 小右記 長德 3年 6月 12日, 13日 ; 百練抄 長德 3年 6月 13日 ; 水左記 承曆 4年 9月 4日 ; 帥記 承曆 4年 9月 2日, 3日 ; 帥帥記 貞治 6年 5月 9日.</p>
9	1019年(顯宗10, 寬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月 29日, 高麗의 鎮溟船兵都府署가 海賊船을 捕獲하여 日本人 259人을 救出함.</li> <li>◦ 9月 19日 이래 日本 朝廷이 高麗가 女眞族에게 괴로워된 日本人 送還과 함께 派遣한 鄭子良이 가져 온 牒을 의논.</li> <li>◦ 12月 30日, 大宰府가 日本 朝廷에 高麗의 使臣에 관한 일기를 바침. 高麗인 30인이 乘船한 船泊 2척이 對馬島에서  출발하여 楸津國에 표착하였다고 함.</li> </ul>	<p>/ 小右記 寬仁 3年 9月 19日, 22日 23日 ; 左經記 寬仁 3年 9月 22日 / 異國牒狀記</p> <p>/ 小右記 寬仁 3年 12月 30日.</p>
10	1020年(顯宗11, 寬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月 이래 女眞族에 의해 披露된 日本人을 送還하기 위해 來日한 高麗의 使臣인 鄭子良의 待接과 答書 作成에 대한 의논을 함.</li> </ul>	<p>/ 左經記 寬仁 4月 11日, 8月 25日 ; 『日本紀略』 寬仁 4年 2月 16日, 4月 11日 ; 百練抄 寬仁 4年 2月 16日.</p>
11	1051年(文宗5, 永承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月 10日 日本 朝廷이 高麗 金州가 商船을 통해 牒을 보낸 것을 의논 함.</li> </ul>	<p>/ 百練抄 永承 6年 7月 10日 ; 異國牒狀記 ; 水左記 承曆 4年 9月 4日 ; 帥記 承曆 4年 閏 8月 25日, 9月 2日.</p>
12	1056年(文宗10, 친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月 1日, 日本국의 使臣 藤原賴忠 등 30인이 金州에 도착함.</li> </ul>	<p>/ 高麗史 文宗 10年 10月己酉.</p>

13	1080年(文宗34, 承曆 4)	◦ 2月 5日 大宰府가 이미 받아 있던 高麗 禮賓省의 牒을 解狀과 함께 太政官에게 보냄.	/朝野群載 20, 太宰府解.
		◦ 4月 19日 日本 朝廷에서 禮賓省의 牒에 대한 議論이 이루어져 醫師를 派遣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水左記 承曆 4年 4月 19日.
		◦ 10月 2日 大宰府의  명령서(관부)를 大宰府에 내려서 高麗가 要請한 醫師를 派遣하지 않는 것, 高麗의  예물을 돌려 보내는 것, 大宰府의 答書(만첩)는 사자를 선발하여 보낼 것, 그리고 王則貞을 법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 등을 전함.	/ 師帥記 貞治 6年 5月 9日.
		◦ 11月 3日 大江朝綱이 源俊房과 의논하여答書의 子구를 수정하고 關白 藤原師實에게 보고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후 이것을 大宰府에 보냄.	/ 水左記 承曆 4年 11月 3日 ; 朝野群載 20 太宰府牒 ; 本朝續文粹 11 太宰府牒.
14	1081年(文宗35, 永保 1)	◦ 5月 2日 日本 朝廷이 大宰府가 高麗에 보낼答書(만첩)에 대해 신청한 것을 의논함.	/帥記 永保 1年 5月 2日 ; 本朝續文粹 11 太宰府解.
15	1147年(毅宗1, 久安 3)	◦ 8月13日 日本都綱 黃仲文 등 21인 高麗에 도착함.	/ 高麗史 毅宗 1年 8月甲辰.
16	1156年-1165年(毅宗 19, 永萬 1)	◦ 對馬島의 寬仁이 牒을 東南海道부서에 보내오에 따라 도부서가 이를 朝廷에 보고하자, 도부서의 이름으로 答書(공문)를 보내게 함.	/ 高麗墓誌銘集成 李文鏗墓誌銘.

<表 1>의 內容은 몇가지 類型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高麗의 使臣이 日本에 간 境遇와 日本의 使臣이 高麗에 온 境遇이다. 그리고 高麗의 國家的 使節이 直接 朝廷에 간 境遇와 高麗의 牒을 對馬島에 전하고 對馬島에서 다시 朝廷에 전한 方法 등이다. 그리고 高麗의 地方官의 이름으로 보내진 첩의 주체에 대한 것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高麗에서 日本조정으로의 傳達過程 등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먼저 위의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高麗와 日本과의 正式 通交가 高麗의 後三國統一 以後부터라는 事實이며, 그리고 상당한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高麗와 日本의 공식적인 외교關係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高麗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以前에는 단독으로 직접 日本과 通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高麗의 建國이 918년이지만, 936年 高麗가 後三國을 統一하기 前까지는 高麗의 使節은 日本에 갈 수가 없었고, 南海岸 一帶를 掌握했던 後百濟의 使節이 日本과 往來하였던 事實을 알 수 있다. (1과 2) 그러면 高麗는 동해를 이용하여 日本과 通교할 수는 없었을까? 이 부분은 高麗의 도읍인 송악과 동해안의 지리적인 조건이 高麗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또 당시에 동해안을 이용한 渤海와 日本의 使節交換이 活潑했던 것도 이유의 하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4) 이 무렵 日本과 渤海와의 公式使節 交換은 상당히 자주 施行되었다. 앞으로의 研究의 하나로서 渤海와 日本, 그리고 韓半島와의 關係를 單位로 하는 研究도 必要할 것이다.

高麗의 公式使節에 의한 牒이 傳達되고 使臣團이 처음 派遣된 것은 937年, 939年, 940年の 순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使節의 派遣은 日本측에서 拒絶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그러나 그 뒤로도 政府 次元의 正常的인 通交關係는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使臣이 직접 調整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高麗에서 첩이 調整에 보고되는 예는 적지 않다.

이 時期에 문제가 되는 것은 高麗초의 공식使節을 日本에서 拒絶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두고 대체로 日本의 平安時代 外交의 閉鎖性과 硬直性에서 原因을 찾았던 것이 일반적인 日本 학계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石上英一<sup>6)</sup>은 그러한 現象의 이유를 한반도의 주변사정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日本이 周邊世界에 대하여 無知하였거나, 無關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韓半島의 混亂과 動搖가 日本에까지 미칠지도 모른다는 憂慮에서 이를 避하기 위한 日本의 意圖적인 ‘積極的 孤立政策’이라고 하였다.

그 뒤 石上의 主張은 渡邊誠에 의해 日本이 周邊國을 無視하지 않으면서도 適切하게 對應한 것이라는 主張<sup>7)</sup>이 더해지면서 研究의 방향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南基鶴은 日本학계의 主張과는 다르게 高麗가 日本에 使臣을 보낸 것은 高麗가 上國이라는 大國意識의 發露라고 推定하였다. 그리고 ‘朝貢’이나 이것과 비슷한 史料의 表現은 日本의 意圖적인 造作이라고 主張하였다.<sup>8)</sup> 또한 李炳魯도 高麗의 국서에 聖旨와 같은 單語를 使用하여 日本의 比위를 거스른 것은 高麗가 自身の 正體性을 誇示하려 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와 같이 國家대 國家間의 交流에 대해서 兩國의 學者들은 自己式의 主張을 하고 있다. 事件의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는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麗日關係에서 國家間 공식적 關係가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증거는 972年에 高麗에서 使臣을 보낸 것으로 알 수 있다. 이해에 두 번의 牒이 高麗에서 對馬島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高麗에서 牒을 가지고 간 사람은 地方官인 南京(原)府使와 金海府使이다.<sup>9)</sup> 이들은 日本의 朝廷에까지 가지는 못한듯 하다. 그러나 이 牒이 日本의 朝廷에 傳達되었던 것은 分明하다.<sup>10)</sup>

5) 拒絶의 理由에 대하여 한국과 日本의 견해가 다르다. 日本側은 後百濟와 高麗를 蕃國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研究에서는 後百濟가 日本에 보낸 使節은 日本과 新羅의 聯合을 막게 하려는 意圖였으며, 高麗 使臣을 보낸 것은 韓半島의 統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李炳魯, 11世紀 韓日 兩國의 對外交渉에 關한 一考察, 大丘史學 59집, 94쪽.)

6) 石上英一, 日本古代10世紀の外交, 學生社, 1982.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

7) 「平安貴族の對外意識と異國牒狀問題」, 『歷史學研究』 823, 2007.

8)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 『グローバル化の歴史的前提に關する學際的研究』, 荒野泰典(研究代表) 平成12-14年科學研究費補助金成果報告書, 2003. 森平雅彦의 原稿에서 引用.

9) 張東翼은 南京으로, 다른 研究者들은 대체로 南原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모양은 ‘南涼’으로 되어 있다.

10) 森平雅彦, 日麗貿易, 大庭康時·佐伯弘次 菅波正人 田上勇一郎 編, 中世都市博多を掘る 海鳥社.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高麗의 첩을 보낸 인물이나 기구의 문제이다. 高麗의 첩이 日本에 전달되는 경우 남경 부사나 김해 부사가 발송자로 되어 있거나, 지방의 도부서가 발송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어쨌든 13世紀以前の 高麗와 日本의 공식적인 國家 交流는 그 방법이 使臣이었거나, 아니면 첩을 보냈거나 수단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었다. 交流의 방식이나 內容에 대해서는 여러 見解가 있을 수 있으나, 비록 回數는 많지 않다고 하여도 高麗와 日本의 國家間 使節의 交換은 그 密度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은 關係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이 地方官의 性格에 대해서도 주목되었다. 이 지방 豪族의 對外活動에 있어서의 독자성과 連續性의 문제였다. 신라말의 일부 豪族의 경우는 獨自的으로 中國과 연결하였던 적도 있다. 그러므로 이 時期에 남원이나 김해와 같은 중앙에서는 비교적 원거리인 지방 대호족 세력 가운데는 獨自的으로 對外活動을 行할 可能性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함이 공통적으로 ‘府使’라는 점에서 공식적 交流임에는 틀림이 없다. 974년에 日本 朝廷에서 高麗國交易使가 對馬島에 派遣되어 高麗의 物品을 購入해 간 事實도 상설인가 아닌가하는 점은 高麗의 여지로 남겨 두더라도 國家的 公적 交流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이러한 高麗와 日本간의 公式的인 交易에 관한 內容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兩國간의 國家的 公式的 關係에서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점은 兩國간의 國家的 위상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자주 거론되는 것이 첩의 內容과 격식의 문제이다. 997年の 高麗에서 보낸 첩의 內容과 격식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첩이 문제가 되어 高麗인들이 日本에서 추방당한 事件이 일어났던 것이다. 日本에서는 高麗의 牒狀에 日本을 無視하는 內容이 있다고 하여, 日本朝廷이 高麗의 國書에 答을 하지 않을 정도로 兩國關係가 惡化된 적도 있었다. 이 997年の 高麗 牒狀 事件의 狀況解釋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1019년에는 高麗에 의해 女眞의 海賊船에 披露된 日本人을 救出하여 日本에 送還한 事件이 발생하였다. 이때 정자량이 女眞 海賊에게 붙잡힌 日本人을 送還시킨 이 事件은 高麗와 日本의 關係가 결코 惡化된 상태만은 아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동해안 일대를 위협하던 공동의 적인 여진 해적에 대해서는 동병상련하는 협조關係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事件은 高麗와 日本 兩國 關係에 일대 전환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森克己는 高麗측의 호의적인 對應이 日本의 對高麗姿勢를 유연하게 바꾸었고, 그 후 잦은 漂流民 送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村井章介는 이 事件을 둘러싼 日本측의 高麗 軍事力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는 데 注目하여 高麗에 대해 여전히 시의심, ‘적국’ 新羅와 연결짓는 인식,

平安貴族의 國際感覺의 退嬰性과 閉鎖性을 強調하고 있다. 石井正敏도 刀伊 事件 후에도 高麗에 대한 日本의 敵國視는 큰 변화 없이 中央 地方을 묻지 않고 귀족층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고 서술하였다. 또 高麗側의 友好姿勢도 南基鶴이 指摘하였듯이 契丹과의 항쟁을 배경으로 하는 방편이었을 可能性이 있었을 것이다.<sup>11)</sup> 단 山內晉次가 指摘한 것처럼 日本측의 優位意識과 警戒感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新羅의 境遇와 같이 극단적인 적대시나 분쟁사항은 생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런데 특기할 것은 이때 日本에 송환할 때도 高麗에서 첩을 보낸 공식적인 使節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高麗와 日本과는 기본적으로 동동의 위협에는 國家間의 연대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國家의 공식적 關係에서 크게 주목을 끄는 事件이 高麗에서 國王인 文宗의 병을 치료할 醫師를 日本에서 구하였다는 것이다.<sup>13)</sup> 이 高麗의 醫師초청은 마침내 日本에서 보내지 않기로 함으로써 끝내 불발되고 말았지만, 日本에서 決定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의사를 보내야 한다는 決定을 내리고, 보내야 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기에 이를 정도로 日本에서 진지한 姿勢로 임하고 있었다.<sup>13)</sup> 兩國

11)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 『グローバル化の歴史的な前提に関する學際的研究』, 荒野泰典(研究代表) 平成12-14年科學研究費補助金成果報告書, 2003. 森平雅彦의 원고에서 인용.

12)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歴史科學122, 1990.

13) 이와 관련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月 5日 大宰府가 이미 받아 있던 高麗 禮賓省의 牒을 解狀과 함께 太政官에게 보냄.</li> </ul>	/ 朝野群載 20, 太宰府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月 16日 大宰府 藤原資仲이 報告한 高麗國皇帝의 牒이 日本 朝廷에 傳達될 것이 알려짐.</li> </ul>	/ 水左記 承曆 4年 4月 19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月 19日 日本 朝廷에서 禮賓省의 牒에 대한 論議 結果 醫師를 派遣하는 것으로 意見이 모아짐.</li> </ul>	/ 水左記 承曆 4年 4月 19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月 7日 藏人辨(右少辨) 藤原伊家が 禮賓省의 牒에 대해 議論하도록 命한 宣旨를 大納言 源俊房에게 傳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8月 7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閏 8月 2日 大納言 源俊房이 朝廷에서 高麗가 醫師를 要請한 것을 言及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2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閏 8月 5日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에 대해 의논하고 醫師를 派遣할 것인가, 派遣한다면 누구로 할 것인가, 答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5日 ; 帥記 承曆 4年 閏8月 5日 ; 百練抄 承曆 4年 閏8月 5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閏 8月 8日 大納言 源俊房이 高麗가 醫師를  요청한 것에 대한 公卿들의 評의의 結果를 藏人辨 藤原伊家에게   진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8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閏 8月 11日 藤原伊家が 大納言 源俊房에게  왕즉정을   심문했던 記錄을   진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13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閏 8月 14日 日本 朝廷에서 宋  황제가 보낸   예물에 대한  대처 및 高麗의 醫師 要請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후자의 境遇는 丹波雅忠과 의논하는 것이   어  떨까 하는   의견이 제시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14日 ; 帥記 承曆 4年 閏8月 14日.

간의 關係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事件이라고 여겨진다. 이 무렵 中國의 醫官들도 高麗에 오고 있지만<sup>14)</sup>, 國王의 生命을 擔當할 醫師를 日本에도 의뢰하여 구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醫學技術의 問題가 아니라 國家間的 우호의 關係를 가늠해 볼 수 있는 事件으로 특기할만하다. 이 醫師초청事件의 거절에 대하여 日本에서는 日本의 의사가 文宗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수치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高麗의 첩에 성지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등 高麗의 大國意識이 文書의 形式과 內容에서 보인다는 것이 직접적인 의사 파견 거부 의 이유였다. 그리고 이 첩을 가져온 왕즉정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까지 한다. 결국 이事件은 高麗와 日本과의 國家間 자존심 내위는 우위 關係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초래한 결과였다. 高麗의 醫師초청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 日本은 그 뒤 高麗의 팔관회 조하례의 참가자로서 초청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主張도 나왔을 정도로 이 事件은 國家의 공식적 事件으로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sup>15)</sup> 그 밖에도 이 事件과 관련하여 日本에서의 거절 이유로 여러 見解가 나왔으나,<sup>16)</sup> 日本에서의 거절 자체가 그 以後의 麗日關係에 直接적으로 어떤 影響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資料는 없다.<sup>1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閏 8月 22日 關白 藤原師實이 사람을 보내어 丹波雅忠에게 자문을 구하니, 丹波雅忠이 醫師를 派遣한다면 惟宗俊通이 적합할 것이라고 회답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23日 ; 帥記 承曆 4年 閏8月 22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閏8月 24日 藤原師實이 醫師를 派遣하지 않을 것을 決定하고, 이에 대한 答狀을 大江匡房으로 하여금 起草하게 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閏8月 24日 ; 帥記 承曆 4年 閏8月 25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2日 藤原師實이 源經信을 불러 大江匡房이 지은 答書를 보여 줌.</li> </ul>	/ 帥記 承曆 4年 9月 2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3日 藤原師實이 源經信 · 大江匡房을 불러 答書를 檢討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9月 3日 ; 帥記 ; 承曆 4年 9月 3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4日 公卿들이 藤原師實의 집에 모여 答書에 대해 논의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9月 4日 ; 帥記 承曆 4年 9月 4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6日 大江匡房이 源俊房에게 高麗 牒의 전례와 다른 점을 전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9月 6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12日 大江匡房이 源俊房에게 答書의 초안을 보고하고, 源俊房의 지시에 따라 內容 중의 殊俗을 蕃王으로 고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9月 12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17日 藤原師實이 公卿들을 초청하여 答書를 보여 줌.</li> </ul>	/ 水左記 承曆 4年 9月 17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月 18日 大江匡房이 源俊房에게 答書를 전하고, 源俊房이 이를 前筑後守 俊光으로 하여금 청서케 함.</li> </ul>	/ 水左記 承曆 4年 9月 18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月 2日 太政官의  명령서[관부]를 大宰府에 내려서 高麗가 要請한 醫師를 派遣하지 않는 것, 高麗의 禮物를 돌려 보내는 것, 大宰府의 答書[반첩]는 사자를 선발하여 보낼 것, 그리고 王則貞을 법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 등을 전함.</li> </ul>	/ 師帥記 貞治 6年 5月 9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月 3日 大江匡房이 源俊房과 의논하여 答書의 자구를 수정하고 關白 藤原師實에게 보고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후 이것을 大宰府에 보냄.</li> </ul>	/ 水左記 承曆 4年 11月 3日 ; 朝野群載 20 太宰府牒 ; 本朝續文粹 11 太宰府牒.

14) 宋에서 醫官 王愴·徐先을 보냄.(高麗史 卷9 文宗世家 26年 6月 庚戌.)

15) 奥村周司, 醫師要請事件にみる高麗文宗朝の對日姿勢, 朝鮮學報 117. 1986.

16) 渡邊誠, 平安貴族の對外意識と異國牒狀問題, 歷史學研究823, 2007.

日本에서 高麗로 牒이 온 境遇는 1156년에 보인다. 이때 高麗에 牒을 가져온 사람은 對馬島의 寬仁이었다. 이때 이 牒을 수령한 것은 高麗의 東南海都府署였다. 이 牒은 高麗 朝廷에 보고되었고, 高麗 朝廷에서는 都府署에서 答書를 보내도록 措處하고 있다. 그 절차는 日本朝廷→對馬→東南海都府署→高麗朝廷의 순이었을 것이다. 高麗와 日本의 공식적 交流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高麗와 日本의 13世紀 以前의 國家대 國家間的 關係를 살펴 보았다. 兩國간의 공식적 交流는 그다지 活潑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高麗에서 女真人 海賊에게 포로가 되었던 日本人을 送還한 예나, 高麗에서 醫師초청事件 등이 있지만 兩國간의 關係는 결코 긴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었던 적도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남아 있는 史料를 근거로 했을 때만 그러하다.

### 3. 交易關係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에서 注目해야 할 分野가 交易關係이다. 본고에서는 交易의 범위를 공식적인 國家間的 關係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 關係를 말하고자 한다. 물론 이 關係에서도 使臣을 보내거나 첩을 가진다면 交易關係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交易關係로 취급하고자 한다. 交易關係에 관한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高麗와 日本간의 交易關係

연번	年度	관련事實	전거
1	1073年(文宗27, 延久 5)	◦ 7月 5日, 日本人 王則貞·松永年 등 42인 高麗 도착, 각종 토산물을 바침. 壹岐島勾當官 藤井安國 等 33인 派遣하여 方物 바침.	/ 高麗史 文宗 27年 7月丙午.
		◦ 11月 12日, 日本人이 宋·黑水·耽羅人 등과 함께 八關會에 참석하여 예물 바침.	/ 高麗史 文宗 27年 11月辛亥.
2	1074年(文宗28,	◦ 2月 2日 日本國船頭 重利 등 39인이 高麗에 도착, 토산	/ 高麗史 文宗 28年 2月 庚午.

17) 高麗史에서는 日本에 의사를 요청한 사실을 찾을 수가 없다. 文宗32年(1078)에 ‘왕이 돌아가는 使節을 통하여 글월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자기가 風痺症으로 앓는다는 것을 말하고 의사와 약재를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內容이 있는데, 日本에 첩을 보냈다는 內容은 보이지 않는다. 혹 王則貞 개인과 관련된 어떤 일을 모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高麗史에는 日本에 첩이 도착하던 해에 薩摩州에서 方物을 바쳤다는 記錄이 있는 것을 보면 王則貞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高麗에서 日本에 의료진을 요청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1079년에 이미 약재 1백종과 합문통사사인 王舜封 등 88인을 보내왔다.

	延久 6)	물 바침.	
3	1075年(文宗29, 承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閏4月 5日 日本商人 大江 등 18인이 高麗에 도착, 토산물 바침.</li> <li>◦ 6月 22日 日本人 朝元·時經 등 12인이 高麗에 도착, 토산물 바침.</li> <li>◦ 7月 10日 日本商人 59인이 高麗에 도착함.</li> </ul>	/ 高麗史 文宗 29年 閏4月 丙申. / 高麗史 文宗 29年 6月 壬子. / 高麗史 文宗 29年 7月 庚午.
4	1076年(文宗30, 承保 3)	◦ 10月 15日 日本國 僧俗 25인이 高麗 靈光郡에 도착하여 상경하기를 요청하여 허락받음.	/ 高麗史 文宗 30年 10月 戊戌.
5	1079年(文宗33, 承曆3)	◦ 11月 5日 日本 商客 藤原 등이 高麗의 興王寺에 法螺·海藻 등을 시납함.	/ 高麗史 文宗 33年 11月 己巳.
	1080年	◦ 閏9月 11日 日本國 살마주가 使臣을 高麗에 派遣하여 方物을 바침.	/ 高麗史 文宗 34年 閏9月 庚子 ; 高麗使節遼 文宗 34年 閏9月.
6	1082年(文宗36, 永保 2)	◦ 11月 19日 對馬島가 使臣을 高麗에 派遣하여 方物 바침.	/ 高麗史 文宗 36年 1月 丙戌.
7	1084年(宣宗1, 應德 1)	◦ 6月 20日 日本 筑前州의 商客 信通 등이 수은 250근을 바침.	/ 高麗史 宣宗 1年 6月 戊子.
8	1085年(宣宗2, 應德 2)	◦ 2月 13日 對馬島 勾當官이 使臣을 高麗에 派遣하여 柑橘 바침.	/ 高麗史 宣宗 2年 2月 丁丑.
9	1086年(宣宗3, 應德 3)	◦ 3月 22日 對馬島 勾當官이 使臣을 高麗에 派遣하여 方物 바침.	/ 高麗史 宣宗 3年 3月 己卯.
10	1087年(宣宗4, 應德 4; 寬治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月20日 日本商人 重元·親宗 등 32인 高麗에 方物 바침.</li> <li>◦ 7月 21日 對馬島 元平等 40인 高麗에 各種 토산물 바침.</li> </ul>	/ 高麗史 宣宗 4年 3月 壬申. / 高麗史 宣宗 4年 7月 庚午.
11	1089年(宣宗6, 寬治 3)	◦ 8月 19日 日本 大宰府 商人 高麗에 各種 토산물 바침.	/ 高麗史 宣宗 6年 8月 丙辰.
12	1116年(睿宗11, 永久 4)	◦ 2月 2日 日本이 柑子를 바침.	/ 高麗史 睿宗 11年 2月 丙寅.
13	1159年(毅宗13, 平治 1)	◦ 8月 2日 日本 朝廷이 高麗 商人에 대해서 의논함.	/ 百鍊抄 平治 1年 8月 2日.
14	1243年(高宗30, 寬元1)	◦ 9月 29日 金州防禦官이 日本國人이 方物을 바치고 高麗의  표풍인을 쇄환한 것을 보고함.	/ 高麗史 高宗 30年 9月 壬申.
15	1244年(高宗31, 寬元 2)	◦ 2月 2日 이 時期 以前에 前濟州副使 盧孝貞·判官 李瑄이  표류해 온 日本 商船의 貨物을 압수했다가 이 때 발각되어 유배됨.	/ 高麗史 高宗 31年 2月 癸酉.

위의 내용을 보면 高麗와 日本과의 交易關係가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계층적으로나 形態에 있어서 여러 모양이 나타난다. 위의 예를 보면 高麗에 오는 日本人들 交易者만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根據가 되는 出典이 高麗史이다. 왜 이 時期에 갑자기 高麗史에만 日本에서 오는 通交者들이 많아지게 되었는지는 잘 說明할 수가 없다.

이 時期의 交易의 유형을 보면 商人이 바치는 경우, 對馬島나 壹岐島의 구당관이 와서 바치는 경우, 日本이 바치는 경우 등이 있다. 日本인들 가운데는 對馬島나 壹岐島의 구당관, 商人 등이 보이며, 高麗에서는 日本에 보냈다는 記錄은 잘 보이지 않는다. 日本의 史料 가운데에는

高麗와의 關係를 남기고 있는 유형이 일기류가 많은 데 비하여, 高麗에서는 관찬사서에서 內容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交易關係 통교자들은 갑자기 11世紀부터 高麗史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면 高麗商人들에 대하여 日本 조정에서 의논했다고 하는 사실은 高麗商人도 日本에 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高麗商人의 존재를 日本의 資料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처럼 交易의 擔當者들이 11世紀 후반에 갑자기 표면화되고, 12世紀에 들어서면 다시 급속히 자취를 감추는 현상에 대해 日本 商人들이 당시에는 自力으로 中國에 도항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곤란하였기 때문에 우선 高麗로 진출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12世紀 以後가 되면 中國史料에 ‘日本商人’이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마치 倭寇의 이동이 前期에는 高麗를 침범하다가, 후기에는 명나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해양민족이 되었다는 식과 아주 흡사하다. 이러한 발상은 조선은 대륙 진출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라고 하는 비하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한편 高麗에 渡航한 日本人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大宰府의 貿易管理體制가 瓦解되어 莊園에서 密貿易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持論을 前提로 하고, 구주의 장원영주, 혹은 성장해 온 博多의 商人이 해외貿易에 착수한 것이며, 개개에 의한 사적인 物品헌상(私獻)의 形式을 취하였다고 파악하였다.<sup>18)</sup> 그리고 日本에서 高麗측에 바란 것은 中國산품이며,<sup>19)</sup> 日本의 수은·나전·유황 등이 高麗에 의해 宋으로 유입되고, 宋의 물품이 高麗를 경유하여 日本으로 건너오고, 日本의 水銀이 宋에서 高麗로 들어간다고 하는 물류의 三國連鎖關係를 指摘하기도 한다. 그러나 森克己의 見解에 對해서는 疑問도 提示되고 있다. 우선 莊園內 密貿易說에 對해서는 11世紀 段階에서는 大宰府의 貿易管理가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指摘이 있고,<sup>20)</sup> 莊園의 對外交易主體로서의 力量, 특히 스스로 海外에 進出하는 能力에 대해서 慎重하게 評價할 必要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sup>21)</sup>

무역의 형식에 대하여 山內晉次는 奧村周司가 指摘한 ‘八關會的 秩序’와<sup>22)</sup> 연결시켜 이해하

18) 森克己, 日·宋と高麗との私獻貿易, 朝鮮學報 34, 1959.

19) 森克己, 日本·高麗內港の宋商人, 朝鮮學報 9, 1956.

20) 山內晉次, 奈良平安期の 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21) 또 당시의 日宋貿易은 宋의 海上에 의해 主導되고 있었고, 그 때문에 12世紀 以後의 中國史料에 ‘日本商人’이 나타난 것은 힘 關係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注目되었으나, 榎木涉은 이 ‘日本商人’의 實體는 宋商이며, 宋商이 日宋貿易을 主導하는 狀況은 12世紀에도 變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榎木涉, 宋代の日本商人の再檢討, 史學雜誌 110-2, 2001.

22) 奧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關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과 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意識-仲冬八關會儀および迎北朝詔使儀1を中心として, 歷史學研究 別冊特輯, 1982.

고자 한다.高麗의 國家的 제례인 八關會에서의 國王조하례에는 宋商 女眞 耽羅 등 이역사람들이 참례하고 있고, 高麗王을 中心으로 하는 王權秩序가 表現되었는데, 11世紀後半에는 그곳에서 日本으로부터의 通交者가 참가했던 境遇도 있었다. 高麗의 입장에서는 日本도 이러한 政治秩序에 포섭되는 존재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醫師招請事件은 日本에 대한 高麗의 大國意識이 文書 形式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 對日通交가 실패함에 따라 日本政府와의 關係가 재인식되고 그 以後에 성립하였다고 보여지는 八關會에 日本이 참가자로서 등록되지 않았을 可能性이 指摘되기도 하였다.

日麗通交의 經路에 대해서 山内晉次는 貿易의 盛行과 相反되게 官廳을 통한 漂流民의 積極的인 送還이 이루어진 것에 注目하여, 大宰府-對馬라인이 창구가 되어 금주로의 送還이 이루어졌고, 高麗에서는 金州의 東南海船兵都府署에 의해 中央으로 보내졌다고 하였다. 향후 日本과의 交易이나 外交절층에 있어 金州나 東南海船兵都府署의 장으로써의 性格에 대해서, 최근 活潑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 각지의 항시론의 성과를 答습하면서, 또 朝鮮 前期의 三浦形成의 前史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本格的인 檢討를 追加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sup>23)</sup>

12世紀에 들어서면 高麗-日本간의 通交와 관련된 史料는 현저히 줄어든다. 이러한 關係記事의 變化는 事實의 有無 그 自體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나 傾向性을 反映한다고 評價되고 있다. 日本측의 要因에 대해서는 日本商人이 高麗의 政治混亂에 따른 危險을 받아, 技術的으로 可能해진 對宋 進出로 轉換한 것으로 보았다. 高麗內外의 動搖를 重要하게 여기는 研究者도 있다.<sup>24)</sup> 元來 高麗貿易이 薄利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日宋貿易의 發展에 의한 利潤 밸런스의 變化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sup>25)</sup> 또 高麗측 要因에 대해서도 前述과 같이 雙方의 經濟隔差를 念慮한 高麗政府가 對日貿易을 축소하였다는 見解가 있다.<sup>26)</sup>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高麗의 혼란이나 經濟隔差가 貿易衰退의 直接적 要因이 아니라 高麗 北方情勢가 不安定해지고(女眞의 대두), 日遼貿易船으로 推定되는 日本의 괴선박이 王都 근해에 출현하자 이를 警戒하여 日本 상객의 상경을 금하였고, 또 醫師초청고섭이 악화되고부터 日本에 대한 응대가 중시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對日政策이 금주에서의 래항자 접대에 머무르는 소극 方向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라는 主張이 있다..<sup>27)</sup> 이와같이 民間의 交易에 대해서도 兩國의 研究成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

23) 山内晉次, 朝鮮半島漂流民의送還をめぐる, 歴史科學 122 1990.

24) 田村洋行, 高麗における倭寇濫觴期以前の日麗通交, 經濟經營論集 28-1, 1993.

25) 三浦圭一, 十世紀-十三世紀の東アジア, 講座日本史 2, 東京大學出版會, 1970.

26) 大山喬平, 中世の日本と東アジア, 講座日本史3-中世1, 東京大學出版會. 1984.

27) 李領, 院政期の日本・高麗交流に關する一考察, 1999. 이에 대하여 濱中昇(書評: 李領著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評論603, 2000)와 橋本雄,(書評: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學研究758, 2008.)의 史料 讀解 批判과 反論이 있었다.

기할만한 것은 日本의 麗日關係 研究는 여·일·송 등 다양한 國家와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연구성과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民間의 交易 및 交流關係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12世紀말 源平抗爭중에 藤原親光이 對馬에서 高麗로 망명하였다고 하는 일화에 관한 것이다. 川添昭一<sup>28)</sup>은 11世紀 이래 계속된 高麗와의 밀접한 關係가 배경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13世紀 전반의 史料에는 韓半島 남안지역에서 對馬島인이 高麗의 통제의 틀 밖에서 活潑히 活動하고 있었던 점이 엿보이는 內容도 주목하며, 政府記錄에는 보이지 않지만 地方·民間에서는 그 以前부터 통교가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4. 文化的 交流

13世紀 以前 高麗와 日本의 文化的 側面에서의 關係는 어떠했을까? 實際로 日本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의 수준도 아주 우수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 유물들이 제작된 時期는 13世紀 以前이더라도 日本으로 간 時期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의 出處나 건너간 經緯를 明確히 알 수 없는 現在로서는 그 分野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無理라고 생각이 든다.

本稿에서는 文獻상으로 紹介된 가운데 13世紀以前에 있었던 文化的 交流만 살펴보고자 한다. 이 時期의 文化 交流 현상에 관해 살펴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高麗와 日本과의 文化的 交流

연번	年度	관련事實	전거
1	990(成宗9, 永祚 2)	◦ 4月 3日, 이해에 百濟國(高麗)의 皇后가 宋의 商人 周文德·楊仁紹를 통해 攝津國의 勝尾寺에 觀世音菩薩像·金鼓·金鐘 등을 寄贈함.	/ 應頂山勝尾寺緣起記 下 ; 元亨釋書 28.
2	1095年(獻宗1, 嘉保 2)	◦ 10月 下旬 藥師寺의 僧侶 大房이 大宰府에서 宋의 商人 柳裕에게 高麗에서 간행된 『極樂要書』 『彌陀行願相應經典章疏』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함.	/ 阿彌陀經通贊疏 下の 題記(叡山文庫 所藏)
3	1097年(肅宗2, 永長 2)	◦ 3月 23日 宋의 商人 柳裕에 의해 高麗에서 간행된 『彌陀極樂書』 등 13부 20권이 日本에 전해지고, 이 것이 같은 해 5月 23日 興福社 淨名院에 도착함.	/ 阿彌陀經通贊疏 下の 刊記[奥書](叡山文庫 所藏)
4	1103年(肅宗8, 康和 5)	◦ 2月 11日 高麗에서 刊行된 『華嚴經隨疏演義鈔』가 播磨國 性海寺에서 筆寫됨.	/ 華嚴經隨疏演義鈔의 識語(東大寺尊勝院 所藏)

28) 川添昭一, 鎌倉初期の對外關係と博多, 箭內健次編 鎖國日本と國際交流 上, 吉川弘文館, 1988.

5	1105年(肅宗10, 長治 2)	◦ 5月 中순 大宰帥 藤原季中이 이 時期 以前에 仁和寺의 二品親王 覺行의 命을 받아 使臣을 高麗에 派遣하여 『釋摩訶衍論通玄鈔』 4권, 『釋摩訶衍論贊玄疏』 5권을 要請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 책이 日本에 到着함.	/ 釋摩訶衍通玄鈔 및 釋摩訶衍論贊玄疏의 刊記[奥書](高野山 金剛峰寺 寶龜院 所藏); 釋摩訶衍通玄鈔(叡山 文庫 所藏); 釋摩訶衍論贊玄疏(仁和寺 所藏); 釋摩訶衍論贊玄疏(眞福寺 所藏); 釋摩訶衍論贊玄疏奏(東北大 所藏); 東寺王代記(堀河院 長治2年)
6	1120年(睿宗15, 保安 1)	◦ 7月 5日, 8日 日本 僧侶 俊源이 大宰府에서 일찍이 僧侶 覺樹가 宋의 商人 莊承·蘇景 등을 통해 高麗에서 가져온 聖敎 수백권 중에서 『弘贊法華傳』을 筆寫함.	/ 弘贊法華傳(東大寺圖書館 所藏)
7	1216年(高宗3, 建保4)	◦ 2月 6日 日本國의 僧侶가 高麗에 와서 佛法을 求함.	/ 高麗史 高宗 3年 2月 己丑.
8	1224年(高宗11, 貞應3)	◦ 10月 日本의 僧侶 道元이 宋의 慶元府에서 高麗의 僧侶 智玄·景雲을 만남.	/ 正法眼藏 12, 袈裟功德.
9	1234年(高宗21, 文曆1)	◦ 이 해에 高麗國王이 日本의 貢船을 통해 圓爾弁圓에게 法語를 要請하자, 그가 顯密法門 곧 佛敎의 敎學을 條列하여  대답하였다고 함.	/ 聖一國師年譜 文曆 1年; 元亨釋書 7, 慧日山辨圓.
10	1247年(高宗34, 寶治 1)	◦ 이 해에 高麗의 僧侶 了然法明이 宋의 徑山 無準師範을 찾아갔다가 商船을 따라 日本으로 건너가 京都·鎌倉 地域을 遊歷함.	/ 日本洞上聯燈錄 1, 了然法明.
11	1251年(高宗38, 建長 3)	◦ 3月 18日 日本에 건너간 高麗의 僧侶 了然法明이 出兩國 善見村의 玉泉寺를 開創하고 이어서 北越(越前 地域)에 머물고 있던 道元을 訪問하여 그의 佛法을 繼承하였음.	/ 日本洞上聯燈錄 1, 了然法明.
12	1259年(元宗即位年, 正元1)	◦ 이 해에 日本의 僧侶가 高麗 巨濟島의 僧侶 洪辯을 찾아와 法華經을 구하여 大宰府 崇福寺에 備置함.	/ 法華靈驗傳 下.
13	1260年(元宗1, 中統1, 文應1)	◦ 이 해에 高麗의 使臣團을 따라 大宰府 崇福寺에 건너가서 法華經을 살펴 보았던 高麗의 僧侶(道人) 法行이 돌아옴.	/ 法華靈驗傳 下.

위의 내용을 보면 13世紀 以前の 高麗와 日本의 文化的 交流는 거의 佛敎關係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史料의 性格도 偏向的이다. 交易關係는 資料의 出處가 高麗史였는데, 佛敎關係는 日本史料 일색으로 보인다. 그런데 日本 史料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偏頗的으로 記述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위의 내용으로 兩國의 文化 交流를 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兩國의 關係에 송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文化를 보급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호적 關係에서 交流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高麗에서 日本에 불법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日本에서 高麗에 불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때로 송을 거쳐 高麗와 日本의 佛敎에 관한 정보를 얻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高麗와 日本의 승려가 함께 日本을 여행하는 것도 흥미롭다.

위의 내용 가운데 興味로운 것이 990年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10世紀에 송을 매개로 한 高

麗와 佛敎의 關係을 알려 주고 있다. 이는 ‘攝津勝尾寺緣起’의 정력원년(990) 內容이다. 이에 따르면 ‘百濟國皇后’가 송의 商人 周文德·楊仁紹를 통해 涉津國의 勝尾寺에 觀世音菩薩像·金鼓·金鐘 等を 寄贈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宋商을 두고 麗日通交가 10世紀에 행하여졌던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原美和子<sup>29)</sup>는 이 說話에 보이는 宋商은 실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說話 自體는 周邊 住民과의 摩擦을 收拾하는 方便으로써 長谷寺의 觀音靈驗談(異域에서 온 佛像이 靈力을 發揮한다는 說)을 基礎로 13世紀 中伴에 創出된 虛構라고 한다. 그렇다면 高麗와 日本의 思想的 交流가 12世紀부터 본격화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247年의 高麗의 僧侶 了然法明이 宋의 徑山 無準師範을 찾아 갔다가, 상선을 따라 日本으로 건너간 事例가 있다. 이를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승려의 日本 출입이 묘사되고 있다. 이런 境遇 밀입국으로 처리되지 않을 정도로 사상계에서는 交流가 비교적 원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實際로 民間에서의 交流가 活潑하였던 점을 보면 이보다 앞서 記錄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상적 交流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백제국황후’의 사실은 믿을 수 없지만, 이를 근거로 高麗 等 異域의 珍寶를 宋商이 가져왔다고 하는 모티브가 實際 歷史狀況을 背景으로 하고 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하였다.

### 5. 軍事적 갈등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이 무력적 충돌이다. 다시 말하면 國家勸力의 물리적 충돌인 군사적 關係를 찾아 볼 수 있다. 현전하는 史料에 보이는 13世紀以前의 高麗와 日本과의 군사적 關係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충돌의 정도고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關係 史料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年度	관련事實	전거
1	954年(光宗5, 天曆 8)	◦ 1月 25日 新羅(高麗)가 日本을 攻撃하려 한다는 風聞이 있어 藤原朝忠을 大宰大貳로 任命함	/ 길기 승지 5年(양화 1) 3月 6日.
2	1014年(顯宗5, 長和3)	◦ 3月 12日 日本이 新羅(高麗)와  전투를 行함.	/신황정통록 중, 장화 3年 3月 12日)
3	1019年(顯宗10, 寬仁 3)	◦ 3月 28日 이래 女眞族인 刀伊가 對馬島·壹岐島·筑前國·怡土郡 等の 地域을 攻撃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侵入에 關聯되었던 高麗 關係 記事도 收錄되어 있음.	/ 小右記 寬仁 3年 4月 17日, 18日, 20日, 21日, 24日, 25日, 26日, 27日, 5月 1日, 3日, 4日, 24日, 6月 29日, 8月 3日 등 ; 扶桑略記 寬仁 3年 4月 8

29) 原美和子, 勝尾寺緣起に見える宋海商について, 學習院史學 40. 2002.

			日, 18日; 『『日本紀略』』 寬仁 3年 4月 17日, 18日, 21日, 25日, 27日, 5月 26日; 百練抄 寬仁 3年 4月 18日.
4	1152年(毅宗6, 仁平 2)	◦ 이 해에 日本 肥前國 宇野廚內 小值賀嶋의 辨濟使인 是包가 高麗의 船舶을 攻擊함.	/ 靑方文書 安定이년삼월십삼일부관 동재어장안.
5	1223年(高宗 10, 貞應2)	◦ 5月 22日 倭人이 金州를 侵犯함.	/ 高麗史 高宗 10年 5月 甲子.
6	1225年(高宗12, 元仁2)	◦ 4月8日 왜선 2수가 경상도 연해지역을 침구하다가 高麗군에 의해 나포됨.	/ 高麗史 高宗 12年 4月 戊戌.
7	1226年(高宗13, 嘉祿2)	◦ 1月 27日 왜인이 경상도 연해지역을 침구하다가 거제 현령 진룡갑에 의해 격파당함.	/ 高麗史 高宗13年 1月 癸未
		◦ 6月 1日 왜인이 금주에 침구함.	/ 高麗史 高宗 13年 6月 甲申.
		◦ 10月 16日 對馬島와 高麗가 싸웠다는 풍문이 있음.	/ 明月記 嘉祿 2年 10月 16日.
		◦ 10月 17日 宋포당이 10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高麗의 별도를 공격하여 민가를 약탈하였다는 풍문이 있음.	/ 明月記 嘉祿 2年 10月 17日.
		◦ 12月 7日 등원정가가 구조교실로부터 高麗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을 전해 들음.	/ 明月記 嘉祿 2年 12月 7日.
		◦ 12月 27日 비후 壹岐의 민들이 高麗에 침입했다는 풍문이 있음.	/ 民經記 嘉祿 2年 12月 27日
8	1227年(高宗14, 嘉祿3)	◦ 2月 전라주도안찰사가 승존 등 20인을 派遣하여 大宰府에 牒을 보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倭寇의 침입을 할난함.	/ 五妻鏡 嘉祿 3年 5月 14日.
		◦ 2月 18日 이래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짐.	/ 明月記 嘉祿 3年 2月 18日, 4月 13日.
		◦ 5月 1日 이時期 以前에 高麗의 전라주도 안찰사가 使臣을 派遣하여 大宰府 總관에게 牒을 보내 倭寇의 침입에 대해 항의함. 이에 對應하여 대재소이 무등자뢰가 使臣단의 면전에서 악도 90인을 처형하고 가만히 答書를 보내는 동시에 牒의 정보를 관동에 보내고, 사본을 관백 등원(구조)가실에게 보냄.	/ 民經記 嘉祿 3年 5月 1日, 15日; 百練抄 嘉祿 3年 7月 21日.
		◦ 5月 14日 高麗의 牒이 검창막부에 도착함.	/ 五妻鏡 嘉祿 3年 5月 14日; 鎌倉年代記 嘉祿 3年 5月 14日.
		◦ 7月 18日, 21日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에 대해 의논함.	/ 民經記 嘉祿 3年 7月 18日, 21日; 百練抄 嘉祿 3年 7月 21日.
		◦ 8月 12日 高麗가 재차 牒을 보낸다는 항설이 있음.	/ 明月記 嘉祿 3年 8月 12日.

高麗와 日本의 13世紀 以前까지의 軍事的 긴장은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 같다. 韓半島와 日本과의 軍事的 긴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두 類型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대륙에서 열도로의 침공이거나, 열도에서 대륙으로의 침공이다. 그 가운데서도 역사적으로(이 時期뿐만 아니라) 한국과 日本의 군사적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日本의 膨脹主義에 있었다. 日本이 팽창하게 되면 거의 中國을 영토화하려는 政策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13世紀의 日本에서는 그러한 팽창주의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위의 內容에서도 13世紀에 들어서 高麗와 日本간의 긴장關係가 발생하는 것은 이른바 초기 倭寇라고 하는 性格의 침구 집단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군사적 갈등이라고 할만한 사례가 적기도 하거니와 1223年 5月の 왜인이 금주를 침범한 事件이 발생하기 以前까지는 물리적 충돌이라고 할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223年 이후부터의 군사적 갈등은 이른바 초기倭寇의 활동이므로 13기 以前의 일반적인 麗日關係의 현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倭寇적 性格의 관련기사를 배제한다면 13世紀以前의 高麗와 日本과의 군사적 갈등은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위에서 1019年の 刀伊와 관련된 內容은 오히려 高麗에서 여진의 해적으로부터 日本人을 구하여 송환한 사실이 있게 되어, 이를 계기로 兩國간의 關係는 더욱 돈독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事件에 대해서는 國家間的 交流 分野에서 이미 약간의 언급을 하였다.

## 6. 漂流民의 送還 및 방문(民間인의 交流)

13世紀 以前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에서 가장 잦은 記錄이 나타나는 것은 民間에서의 交流이다. 民間에서의 交流라고 하면 여러 形態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漂流民의 送還이 가장 많다. 漂流民의 送還은 그 자체가 國家勸力이나 地方의 행정단위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표류 그 자체는 公式的인 事件이 아니라 民間에서의 活動에서 부차적으로 수행된 일이므로 이 事實을 통하여 民間에서의 活動이 어떠한 形態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漂流民에 대한 처우를 통하여 兩國의 우호關係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漂流民의 送還과 관련된 內容들은 대개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번	年度	관련事實	전거
1	942年(太祖25, 天慶 5)	◦ 11月 15日 出雲國司가 新羅舟 7척이 隱岐國에 寄着했다는 것을 日本 朝廷에 보고함.	/ 『『日本紀略』』 天慶 5年 11月 15日
2	984年(成宗3, 永觀 2)	◦ 4月 3日 高麗船이 筑前國 早良郡에 도착함.	/ 小右記 目錄, 永觀 2年 4月 3日, 21日.
3	996年(成宗5, 長德2)	◦ 5月 19日 日本 朝廷이 石見國에 도착한 高麗國人에게 食량을 주어 귀국시키도록 함.	小右記 長德 2年 5月 19日
4	998年(穆宗1, 長德 4)	◦ 2月 大宰府가 高麗國人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이는 南蠻人의 착오로 판단됨.	/ 百練抄 長德 4年 2月.
5	999年(穆宗2, 長保 1)	◦ 10月 日本國人 道要·彌刀 等 20호가 高麗에 내투해 음.	/ 高麗史 穆宗 2年 10月.

6	1002年(穆宗5, 長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月 27日 日本 朝廷이 가혹한 政治를 피해 日本으로 건너와 살기를 要請한 高麗人에 대해  의논함.</li> <li>◦ 7月 16日 大宰府에 도착한 高麗  표류인 4인 및 이주를 희망한 高麗人[참래高麗인] 20인에 대해 日本國王이 2통의 文書[선지를 내림.</li> </ul>	/ 小右記 目錄, 長保 4年 6月 27日 ; 百練抄 長保 4年 6月 27日. / 權記 長保 4年 7月 16日.
7	1004年(穆宗7, 長保 6)	◦ 3月 7日 日本 朝廷이 因幡國에 도착한 于陵鳴人 折競悅 등 11인에 대해  의논함.	/ 權記 長保 6年 3月 7日 ; 本朝麗藻下 ; 千載和歌集 11
8	1012年(顯宗3, 寬弘 9)	◦ 8月 3日 日本國人 潘多 等 35인이 高麗에 내투해 옴.	/ 高麗史 顯宗 3年 8月 戊戌.
9	1019年(顯宗10, 寬仁 3)	◦ 5月 29日 高麗의 康州人 未斤達이 筑前國 志摩郡에 표착하여 온 것을 구금하고 신문함.	/ 小右記 寬仁 3年 6月 21日.
10	1029年(顯宗20, 長元 2)	◦ 7月 28日 日本에 표류했던 耽羅인 정일 등 7인이 귀환함.	/ 高麗史 顯宗 20年 7月 乙酉.
11	1031年(顯宗22, 長元 4)	◦ 2月 19日 이래 1年 전 日本에 표류해 온 耽羅인 8인을 귀화시킴.	/ 小右記 長元 4年 2月 19日, 24日, 26日.
12	1034年(靖宗3, 長元 7)	◦ 3月 對馬島가 대우국에 표착했던 高麗인을 귀국시킨 것을 日本 朝廷에 보고함.	/ 『『日本紀略』』 長元 7年 3月 某日.
13	1036年(靖宗2, 長元 9)	◦ 7月 16日 日本이 표류한 高麗인 謙俊 등 11인을 귀환시킴.	/ 高麗史 靖宗 2年 7月 壬辰.
14	1039年(靖宗5, 長曆 30)	◦ 5月 10日 日本人 남녀 26인이 내투해 옴.	/ 高麗史 靖宗 5年 5月 庚子.
15	1048年(文宗2, 永承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月 1日 高麗人을 아버지로 하는 大宰府의 舞師 우두 머리[舞師首]인 滋井好行(猶好行, 959-1048)이 죽음.</li> <li>◦ 5月 2日 大宰府가 日本 朝廷에 新羅曆(高麗曆)을 구하여 바침.</li> </ul>	/ 猶氏系圖 / 百練抄 永承 3年 5月 2日 ; 扶桑略記 永承 3年 5月 2日.
16	1049年(文宗3, 永承 4)	◦ 11月 29日 對馬島官이 首領 明任으로 하여금 표류한 金孝 等 20인을 金州로 送還함.	/ 高麗史 文宗 3年 11月 戊午.
17	1051年(文宗5, 永承 6)	◦ 7月 11日 對馬島가 使臣을 派遣하여 도망한 죄인 良漢 등 3인을 送還해 옴.	/ 高麗史 文宗 5年 7月 己未.
18	1056年(文宗10, 天喜 4)	◦ 10月 1日 日本국의 使臣 藤原賴忠 等 30인이 金州에 도착함.	/ 高麗史 文宗 10年 10月 己酉.
19	1060年(文宗14, 康平 3)	◦ 7月 27日 對馬島가 표류한 位孝男을 送還해 옴.	/ 高麗史 文宗 14年 7月 癸丑.
20	1072年(文宗26, 延久 4)	◦ 3月 20日 求法僧 成尋 일행의 선박이 耽羅島 부근을 통과함.	/ 參天台五臺山記 1.
21	1076年(文宗30, 承保 3)	◦ 10月 15日 日本국 僧俗 25인이 高麗  영광군에 도착하여 상경하기를 요청하여 허락받음.	/ 高麗史 文宗 30年 10月 戊戌.
22	1078年(文宗32, 承曆 2)	◦ 9月 1日 日本국이 표류한 耽羅인 高礪 등 18인을 送還해 옴.	/ 高麗史 文宗 32年 9月 癸酉.
23	1082年(文宗36, 永保 2)	◦ 9月 14日 延曆使의 僧侶 戒覺이 宋商 劉琨의 배를 타고 耽羅島 부근을 통과함.	/ 戒覺, 渡宋記
24	1093年(宣宗10, 寬治 7)	◦ 7月 8日 高麗의 연평도 巡檢軍이 海賊船 1척을 나포하였는데, 이에는 宋人 12명, 倭人 19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각종 화물이 실려 있었음.	/ 高麗史 宣宗 10年 7月 癸未.

25	1108年(睿宗3, 嘉承 3)	◦ 2月 9日 日本 朝廷에서 唐人·高麗人이 日本에 도착하는 일에 대해 의논함.	/ 中右記 嘉承 3年 2月 9日.
26	1160年(毅宗14, 永曆 1)	◦ 4月 28日 日本 朝廷이 對馬島사를 통해 高麗의 김해부가 對馬島民을 구급하였다는 事實을 보고 받고서 여러 分野의 전문가 [제도, 제도박사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勸申케 함.	/ 百練抄 永曆 1年 4月 28日.
		◦ 12月 17日 日本 朝廷이 高麗가 對馬島의 商人을 구류한 것을 의논함.	/ 山槐記 永曆 1年 12月 17日 ; 百練抄 永曆 1年 12月 17日.
27	1185年(明宗15, 元曆2)	◦ 3月 4日 對馬守 藤原親光이 平氏의 난을 피해 가족 및 부하를 이끌고 高麗에 망명함.	/ 玉葉 文治 2年 2月 24日 ; 五妻鏡 元曆 2年 5月 23日, 6月 14日.
		◦ 6月 14日 對馬守 藤原親光이 高麗로부터 對馬島에 귀환함.	/ 玉葉 文治 2年 2月 24日 ; 五妻鏡 元曆 2年 6月 14日.
28	1223年(高宗10, 貞應2)	◦ 겨울 高麗人이 越後國 寺泊浦에 표착함.	/ 五妻鏡 貞應 3年 2月 29日 ; 百練抄 貞應 3年 4月 11日.
29	1224年(高宗11, 貞應3)	◦ 2月 29日 3개월전 越後國에 표착한 高麗人이 소지했던 弓箭을 비롯한 각종 물건들을 越後守護 北條朝時가 압수하여 幕府將軍 源賴經에게 보냄.	/ 五妻鏡 貞應 3年 2月 29日.
30	1232年(高宗19, 貞永 1)	◦ 閏9月 17日 이 以前에 肥前國 唐津에 위치한 鏡神寺의 住人이 高麗 건너가 노략질한 事件이 있었는데, 이날 幕府가 범인의 구류 및 승선 장물 등의 처리에 대해 守護所에 명령을 내림.	/ 五妻鏡 貞永 1年 閏9月 17日.
31	1243年(高宗30, 寬元1)	◦ 9月 29日 金州防禦官이 日本國人이 方物을 바치고 高麗의 표풍인을 쇄환한 것을 보고함.	/ 高麗史 高宗 30年 9月 壬申.
32	1244年(高宗31, 寬元 2)	◦ 2月 2日 이 時期 以前에 前濟州副使 盧孝貞·判官 李珪이 표류해 온 日本 상선의 화물을 압수했다가 이 때 발각되어 유배됨.	/ 高麗史 高宗 31年 2月 癸酉.
33	1263年(元宗4, 弘長3)	◦ 6月 이 달에 日本의 官船大使 如眞 등이 宋에 들어가려다가 開也召島, 群山島 楸子島 등에 표류해 왔고, 大宰府 少卿 殿白의 商船이 宋에서 日本으로 귀국하다가 宣州 加次島에 표착하였는데, 이들 모두를 귀국시킴.	/ 高麗史 元宗 4年 6月.
		◦ 7月 27日 日本 상선이 龜州 艾島에 표착하자 귀국시킴.	/ 高麗史 元宗 4年 7月 乙巳.

高麗와 日本의 民間간의 交流라고 하였으나, 여기에는 兩國이 民間인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를 하는 점도 포함하였다. 때로는 극히 드물지만 조정 당국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방관들에 의하여 표착민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표착민에 대하여 兩國이 일정하게 어떤 조례나 규약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漂流民 送還이나 交易을 둘러싼 점점으로써 부상한 것이 對馬이다. 山內晉次<sup>30)</sup>는 對馬와 高麗와의 사이에서 빈번 밀접한 人的交流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日本側

史料에는 당시 高麗와 交易한 것은 오로지 對馬島인이었다고 하는 記錄도 있다. 거기에서 佐伯弘次<sup>31)</sup>는 日麗貿易의 주요한 擔當者로써 對馬에 注目하여 土地의 生産을 中心으로 한 交易形態를 指摘하고 있으나, 對馬의 銀 採掘에 高麗 人夫가 關與하였을 可能性도 考慮하고 있다.

## 7. 進奉關係

高麗와 日本과의 公式的인 關係로 進奉關係가 나온다. 많은 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13世紀가 되면 高麗와 對馬와의 關係에서 進奉의 關係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內容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번	年度	관련事實	전거
	1206年(熙宗2, 元久3)	◦ 1月 14日 對馬島의 使臣 明퇴 등 40인이 금주 남해에 도착하여 원포 2,000牒, 흑鮑 2,000果, 녹피 30매를 進奉함.	/ 平戶記 延應 2年 4月 17日.
		◦ 2月 高麗의 금주방어사가 日本의 對馬島에 牒을 보내 명퇴 등이 바친 牒이 進奉의 예를 갖추지 못했음을 꾸짖고, 이를 돌려 보냄.	/ 平戶記 延應 2年 4月 17日.
	1227年(高宗14, 嘉祿3)	◦ 2月 전라주도안찰사가 승준 등 20인을 派遣하여 大宰府에 牒을 보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倭寇의 침입을 힐난함.	/ 五妻鏡 嘉祿 3年 5月 14日.
		◦ 2月 18日 이래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짐.	/ 明月記 嘉祿 3年 2月 18日, 4月 13日.
		◦ 5月 1日 이時期 以前에 高麗의 前라주도 안찰사가 使臣을 派遣하여 大宰府 總管에게 牒을 보내 倭寇의 침입에 대해 항의함. 이에 對應하여 大宰소이 무등자뢰가 使臣단의 면전에서 악도 90인을 처형하고 가만히答書를 보내는 동시에 牒의 正本을 관동에 보내고, 사본을 관백 등원(구조)가실에게 보냄.	/ 民經記 嘉祿 3年 5月 1日, 15日 ; 百練抄 嘉祿 3年 7月 21日.
		◦ 5月 14日 高麗의 牒이 鎌倉幕府에 도착함. 進奉.	/ 五妻鏡 嘉祿 3年 5月 14日 ; 鎌倉年代記 嘉祿 3年 5月 14日.
		◦ 7月 18日, 21日 日本 朝廷에서 高麗의 牒에 대해 의논함.	/ 民經記 嘉祿 3年 7月 18日, 21日 ; 百練抄 嘉祿 3年 7月 21日.
		◦ 8月 12日 高麗가 재차 牒을 보낸다는 항설이 있음.	/ 明月記 嘉祿 3年 8月 12日.
2	1259年(元宗即位年, 正元1)	◦ 7月 28日 監門衛錄事 韓景允·權知直史館 洪貯를 日本에 派遣하여 倭寇의 禁止를 要請함.	/ 高麗史 元宗 即位年 7月 庚午.
	1263年(元宗4, 弘長3)	◦ 4月 5日 大官署丞 洪貯·詹事府錄事 郭王府를 日本에 派遣하여 倭寇가 金州 熊神縣의 勿島에 침입하여 공선을	/ 高麗史 元宗4年 2月 癸酉.

30) 山内晉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31) 佐伯弘次, 國境の中世交渉史, 海と列島文化3 玄界灘の島, 小學館, 1990.

	노략질한 것을 힐문함.	
	◦ 6月 이 달에 日本의 官船大使 如眞 등이 宋에 들어가려다가 開也召島, 群山島 楸子島 등에 표류해 왔고, 大宰府 少卿 殿白의 商船이 宋에서 日本으로 귀국하다가 宣州 加次島에 표착하였는데, 이들 모두를 귀국시킴.	/ 高麗史 元宗 4年 6月.
	◦ 7月 27日 日本 상선이 龜州 艾島에 표착하자 귀국시킴.	/ 高麗史 元宗 4年 7月 乙巳.
	◦ 8月 1日 洪貯·郭王府 등이 對馬島로부터 배상을 받아 귀국함.	/ 高麗史 元宗 4年 8月 戊申.
	◦ 9月 高麗의 使臣團이 牒을 가지고 하카타(博多)에 도착함.	/ 青方文書, 肥前國在聽 解案.

13世紀 전반에는 日本에서 高麗로의 ‘進奉’이 史料에서 확인되는 時期이다. 그리고 초기倭寇가 麗日關係에서 나타나는 時期이기도 하다.

이 ‘進奉’에 관해서는 朝貢과 동일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日本의 高麗通交 전반에 걸친 것으로 파악하였던 적이 있다. 그리고 13世紀에 進奉이 史料에 나타난 것은 高麗가 交易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며, 그 처사에 반대하여 日本에서 나타난 대응이 倭寇<sup>32)</sup>의 발생이라고 연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進奉은 覲見막부가 民間의 자유貿易을 허락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進奉은 그 以前 時期부터의 私獻貿易의 계승으로 對馬에 의해 행해진 것이며, 倭寇의 발생은 이때 日本商人이 철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sup>33)</sup>

現在 進奉에 대해서는 進奉의 日本측의 주체, 전대 貿易과의 연속성, 제도, 관례 등의 性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따라 설이 나뉜다. 근년에는 주체를 對馬로 보는 傾向이 강하며, 大宰府의 관여나 인지도 추정되고 있다. 기본적인 논점은 進奉이 어떤 특정 시점의 狀況을 일반화한 것이냐, 아니면 통상적인 의례였느냐에 쟁점이 있다. ‘進奉’이라는 용어는 ‘아래’에서 ‘위’에 대한 진헌을 意味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13世紀의 麗日關係에서 高麗 資料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데 대한 일정한 정론에 이르기에는 다소 시간이 必要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단지 進奉이 13世紀以前 麗日關係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關係가 아니라는 점만

32) 13世紀전반부에 倭寇의 존재가 보인다. 倭寇는 일반적으로 14世紀후반부에 일어난 역사적 事件 내지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資料에서는 이미 廣開土王陵碑文에 고유명사화한 ‘倭寇’라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적대적 의미의 용어가 상당히 이른 時期에 생성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日本과 고구려 사이에 적대적 關係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최근에 廣開土王陵碑文에 나오는 왜나 倭寇의 표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해석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 용어들이 상징하는 일종의 거부반응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倭寇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進奉’과의 관련된 內容만 간략히 취급하겠다.

33) 森克己, 海路による東方貿易の展開, 東洋學術研究 8-3. 1969.

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8. 結論

13世紀 以前の 麗日關係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關聯資料도 소략할뿐만 아니라 研究者도 많지 않다. 단지 그나마 일부 研究者들이 없는 資料나마 치밀한 분석과 解釋을 유도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麗日關係사에 있어서 研究者의 수나 研究성과는 日本이 韓國에 비해 압도적이다. 따라서 關聯資料에 대한 解釋도 日本의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사뿐만이 아니라 關係史에서 警戒視 되는 점은 자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sup>34)</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關係사는 가장 자국사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하는 分野일 수도 있다. 韓日關係史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도 脫民族主義 歷史觀을 主張하며, 동아시아사로의 지향을 강하게 主張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변국의 民族主義化를 가버이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中國의 東北工程이나 티베트, 신강事件 등은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 깊은 걱정거리를 제공한다.

역사학의 만남이 바로 政治, 經濟, 군사 등의 현실문제로 바뀌어가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각이나 관심이 물질세계를 바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나 무형의 요소들은 물질세계를 바꾸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을 必要로 한다. 그보다는 당장의 經濟的 利害關係, 領土의 紛爭과 같은 要所들이 오히려 當代 歷史觀의 變化에 큰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歷史的 苦悶들이 時時刻刻 變하는 國際情勢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13世紀以前の 麗日關係를 정리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13世紀以前の 麗日關係는 文獻에 나타난 史料上으로 볼 때 全分野에 걸쳐서 交流가 活潑했다고 할 수는 없다. 政治的으로도 냉랭하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우호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高麗가 여진의 해적에게 억류된 日本人을 송환해 보낸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高麗에서 日本에 의사를 초청한 정도의 일은 그나마 우호적 關係라고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력적으로 대립했던 적도 없다. 高麗가 침공한다든지, 兩國이 접전을 했다고 하는 기사들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13世紀 후반으로 가면서 몽고의 日本침공 의도가 표면화되면서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물론 이보다 앞서 對馬와의 進奉關係가

34) 大國意識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경향에서일 것이다. 李炳魯는 日本측에서 後百濟와 高麗에서 보낸 蕃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어지러워지면서 초기倭寇가 발생하지만, 본격적인 적대關係는 몽고가 개입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 사상적인 關係에서는 상당한 交流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高麗의 승려가 상선을 타고 와서 日本의 中心지를 유유히 둘러 보았다는 記錄은 兩國의 이 分野의 關係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中國에서 만났던 高麗의 승려를 記錄한 日本 승려의 일기에서도 이들 간의 交流는 일단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兩國이 民間에 대한 處遇도 일단은 自國으로 돌려 보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時期의 研究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것은 史料의 문제이다. 이 時期의 史料가 특정한 資料에서 특정한 時期에 集中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減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日本에서 高麗에 많은 方物을 가져오는 時期는 高麗 文宗때에 集中的으로 나오는 史料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른 文獻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이를 高麗의 八關會의 秩序에 포함시켜 理解하려는 傾向도 있지만, 그나마도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다. 또 日本에 佛敎가 전래된 경위는 日本의 資料를 통해서만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史料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資料와 研究成果의 열악함 속에서도 韓日關係史의 次元에서 13世紀以前의 麗日關係를 딱이 特徵 짓자면, 兩國은 독자적인 세계에서 자신들의 正體性을 摸索하는 가운데 相互 依存의 으로 持續的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時期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35) 본고 작성에 森平雅彦教授의 論考를 참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2008년도 6월6일부터 8일까지 東京에서 가졌던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에서 發表한 森平雅彦교수의 ‘10-13世紀 前半에 있어서의 日麗關係史의 諸問題-研究動向을 中心으로-’에서 많은 部分의 情報를 취하였고, 本考의 內容의 一部는 森平雅彦교수의 見解나 整理를 옮겨 왔다. 그러나 앞의 論考를 森平雅彦教授가 ‘未定原稿이므로 轉載 引用 再配布를 嚴禁’한다고 하여 本考에서 脚註 處理하지를 못한 點이 遺憾이다.

# 13세기 전반에 있어서 麗蒙交涉의 한 단면

—몽골 官人과의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큐슈대학

## 1. 머리말

고려가 1231년부터 본격화된 몽골제국의 침략에 대하여 30년 가까이 끈질기게 저항을 계속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sup> 그러나 교전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노력에 의한 사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은 같은 몽골에 대하여 강경자세 일변도였던 일본 등과 비교하여<sup>2)</sup> 흥미 깊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정면에서 추구했던 연구는 그 예가 거의 없는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 글에서는 고려가 몽골 官人(將帥·書記官 외에 여기서는 몽골 황족을 포함한다)과 교환했던 외교문서의 양식에 대하여 고찰한다. 종래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 사실관계와 역사적인 문맥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對元講和 이전에 있어서 여몽관계의 일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池内, 1963 ; 김재홍, 1963 ; Henthon, 1963 ; 旗田, 1965 ; 姜晋哲, 1974 ; 柳在城·蔡漢國, 1988 ; 尹龍麟, 1991 ; 윤용혁 1994, 참조

2) 다만 최전선의 대응 책임자의 동향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至元 8년(1271)에 元使 趙良弼이 來日했을 때 太宰府 西守護所는 使者 26명을 보냈다고 한다(『元史』 권208, 日本傳).

## 2. 문서 형식의 검토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高麗史』에는 對元講和 이전에 고려가 몽골의 장수와 서기관 또는 황족에게 송부했던 문서에 관한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表> 참조. 이하 관계 문서를 정리번호에 따라 “문서01”과 같이 부르겠다.)

먼저 발신 명칭의 의미와 書式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

### (1) 발신 명칭

문서01·02는 고려에 갑자기 쳐들어 온 거란 집단을 쫓아서 1218년에 비로소 모습을 나타냈던 몽골군 장수에게 보낸 문서이며, 錄文의 타이틀과 附記에 의하면 尙書省(尙書都省)이 발신 명칭이다. 1811년에 사망한李文鐸의 墓誌銘에는 對馬에서 보낸 「牒」에 尙書省이 答信을 보내려고 했으며, 「邊吏」에 대하여 과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중지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尙書省이 외국에 문서를 보내는 사태는 원래부터 상정되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상기 이외에 실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고려의 관부가 외국의 관부·관인과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중앙의 禮賓省과 按察使·防禦使 등의 지방 담당관을 발신 명의로 하는 牒(統屬關係가 없는 관청 사이에 사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3)</sup> 對馬의 사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의 상급관청인 尙書省이 직접 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과 교섭 상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첫 대면인 몽골 장수에게 尙書省 명의로 응대했던 일은 미지의 교섭 상대를 중시하는 이례적인 표현이며, 환언하면 신중한 경계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07·12는 왕족 淮安公 佺을 발신 명칭으로 한다는 것이 錄文 타이틀에 기록되어 있다. 전자는 그가 몽골에 파견되었을 때 道中保護에 대한 禮狀이며, 후자는 몽골의 장수 唐古가 「令公」 앞으로 보낸 金線을 당사자인 權臣 崔怡가 수령하지 않고 淮安公 명의로 답장을 작성했던 것이다.<sup>4)</sup> 이 경우는 모두 사적인 성격이 강한 書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 문서는 발신 명칭이 고려왕(당시는 高宗)이라는 사실을 비교적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먼저 문서06은 「國銜」(국가로서의 자격) 문서가 「나」라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왕조를 대표하는 국왕의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國銜行」인

3) 森平, 2007, 106-108쪽, 참조.

4)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附 崔怡傳 ;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9년 5월.

문서05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다.

문서17에는 「所論予及崔令公出來事」([몽골측이] 논하는바 나와 崔令公 출두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으며, 몽골로부터 권신 崔怡와 함께 출두하라고 명령을 받은 「나」가 高宗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문서21도 「나」라는 1인칭으로 기록되는 한편, 「遣親弟新安公代我身」(친동생 新安公을 보내 나를 대신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왕의 동생 新安公의 형인 高宗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하게 「나」라는 1인칭으로 기록되었고, 「親弟新安公」이라는 문장이 보이는 문서22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문서13에서는 몽골의 공격 통고에 대한 고려 백성의 동요를 설명하고, 「予亦不能無懼」(나 역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으며, 고려가 達魯花赤(몽골의 감시관)을 살해한 사건에 관한 견책에 대하여 「予亦一一不能知之」(나도 [상세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회답하고 있다. 또 문서18에서 「나」는 「大官人을 보내 글을 皇帝闕下에게 올린다」(遣以大官人, 奉書于皇帝闕下)라고 적고, 다시 문서20에서 「나」는 「사신을 보내 토지의 사소한 물산을 皇帝闕下에게 바친다」(以土地輕薄所產, 遣使介奉進于皇帝闕下)라고 적었다.

이들 「나」는 왕조의 통치에 책임을 지고, 국가를 대표하여 몽골과 교섭하며, 遣使·進獻을 행하는 주체이며 바로 국왕 자신이다. 문서11에서 몽골의 지시를 「有司에 명하여」 실시했다고 언급한 것도 국왕의 행위일 것이다. 문서15·16·19도 「나」라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발신 명의는 국왕이었다고 이해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문서25·27은 국왕문서였다는 것이 『高麗史』 世家 地의 글에 명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신 명의가 錄文의 타이틀과 附記에 명시되지 않은 외교문서는, 실제로는 국왕 명의의 문서였다는 것이 확인·추정되는 케이스가 많으며, 거꾸로 국왕 명의가 아닌 것이 확인·추정된 것은 없다. 문서02·07·12처럼 국왕 명의 이외의 외교문서를 옮겨 적는 경우, 통상은 발신 명의가 錄文 타이틀 등에 명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신 명의가 부기되지 않고, 또한 문서 내용에 판단재료가 발견되지 않는 문서03·04·08~10·14·23·24·26·28·29도 국왕 명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書式

문서01에 관해서는 「尙書省牒」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統屬關係가 없는 관청 간에 이용하는 牒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찬사료 地의 글의 서술이며, 官文書를 나타내는 일반명사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서02에서는 錄問의 문언에서 대등관계에서의

書簡文인 致書(서두가 「某謹致書(于)某」가 된다)<sup>5)</sup>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서01의 「牒」도 실체는 致書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초에는 牒 또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致書로 변경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칭기스 칸(Cinggis Qan)의 동생인 카사르(Qasar)의 아들 예그(Yegü)대왕에게 국왕 명의로 보낸 (내지는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서24~26(26에서는 官人에게 보낸 것도 포함한다)도 부분적인 錄文에서는 서식을 관명할 수 없지만, 『高麗史』 地의 글에서는 이들의 발송을 「致書」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왕에 대한 金나라 황제의 「詔諭」와,<sup>6)</sup> 머리말 부분에 「高麗國王珣謹奉書于日本國王殿下」라고 적은 1292년의 對日國書<sup>7)</sup>처럼 명백하게 致書가 아닌 외교문서의 발송에 관하여 『高麗史』 地의 글에서는 「致書」로 표현한 케이스가 있다.<sup>8)</sup> 편찬사료의 地에서 문언으로 서식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高麗史』에 보이는 다른 사례(문서27~29)는 단순히 「書」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書狀 일반을 지칭하는 경우와 구별이 곤란하며, 역시 서식을 뜻하는 術語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전체의 절반이 약간 못되는 문서04·08~18에 관해서는 「右啓」 내지 「某啓」(淮安公 명의 문서07·12)로 서두를 달고, 「不宣」 「再」 「謹啓」 등으로 끝을 맺는 서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말하는 啓에 해당한다. 고려가 참고했던 唐의 제도에서 啓는 황태자(실제로는 황태자 이외의 왕도 포함)와 官府의 長에 대한 上申文으로 규정되어 있지만<sup>9)</sup>, 일반 官人들끼리의 上行文書로서, 또한 私人 간에 공손한 뜻을 표시하는 길흉의 인사와 일상의 안부를 묻는 경우, 기타의 서간문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sup>10)</sup>. 외교에서의 사용은 隋나라 말기에 唐 高祖 李淵이 처음 자립하던 당시에 突厥의 可汗에 대하여 사용했던 예 및 渤海王이 일본에 대하여 사용했던 예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개인 간의 통신문으로서 啓의 성격을 응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渤海에 관해서는 일본에 대하여 臣禮를 피하면서도 辭를 천하게 여기고 우호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를 지적할 수 있다<sup>11)</sup>.

宋 司馬光의 『溫公書儀』 권1·私書에서는 私文書에 있어서 啓事(사물을 진술할 때 쓰는 글)의 서식으로서 啓의 한 형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는 割註).

5) 致書에 관해서는 中村, 1991, 299~330쪽 ; 中村, 1996, 153~162쪽 ; 中西, 2005 참조.

6) 『高麗史』 권14, 睿宗 14년 2월 정유.

7) 일본 金澤文庫와 東京大學史料編纂所に 복사본이 남아 있다(錄文은 竹內, 1982, 298~300쪽).

8) 金澤文庫의 對日國書에 관해서는 『高麗史』 권30, 忠烈王 18년 10월 경인조에 기록이 있다.

9) 조선왕조에서 국왕에 대한 上申文을 啓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추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10) 堀, 1998, 243~246쪽 참조.

11) 堀, 1998, 246~250쪽. 또한 石井, 2001a ; 石井, 2001b, 551~556쪽 참조.

具位姓 某  
 右某啓 [述事云云] 謹奉啓事陳聞 [陳賀陳謝隨時] 伏惟  
 尊慈俯賜 鑑念不宜謹啓  
 月 日 具位姓 某 啓上

<表>에 올린 문서의 錄文에서 「右啓」라고 쓴 것은 아마도 冒頭의 「具位姓 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행의 「右某啓」에서 「某」도 빠진 것이 되지만, 후술하는 1267년의 啓式 對日國書에서는 冒頭에 「高麗國王王 禎」으로 되어 있으며, 2행째에 「右啓」로 적었다. 교전기의 대몽골 문서 중에 「右啓」라고 쓴 것은 모두 王文書일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67년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高麗國王姓諱/右啓」(／는 改行을 의미한다)로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冒頭를 「某啓」로 기록한 것은 淮安公 명의의 문서뿐이지만, 唐代의 啓에서는 일반적인 표기법이며, 예를 들면 渤海의 對日文書 속에서 「武藝啓」 등으로 적고 있다. 『溫公書儀』 私書에서는 時候啓狀(時候의 인사장)과 別簡(첨부장?)·手簡(일반적인 서간)에서 「某啓」로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平交·稍卑에 대하여 사용하는 케이스도 보인다. 국왕의 啓와 人臣의 啓에서 冒頭가 다른 것은 國王의 啓가 왕조를 대표하는 國書임에 비하여<sup>12)</sup>, 淮安公의 啓는 전술한 것처럼 사적인 禮狀이라는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인가? 『溫公書儀』에서 「啓事」와 기타의 「某啓」 형식의 용법 구분이 혹은 이 차이에 대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右啓」로 적는 啓는 현재까지 唐代에는 확인할 수 없는 모양이다.

### 3. 사용 書式의 역사적 문맥

啓라는 書式은 『東文選』과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文書錄文을 통하여 고려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현시점에서는 용법에 관하여 중국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는 宋·遼·金 등 冊封 종주국과 이에 준하는 대륙왕조의 황제 이외의 외국 정부 관계자에 대하여 국왕이 친서를 송부하는 행위 자체가 드문 현상이다<sup>14)</sup>.

12) 國書란 반드시 군주 간에 교환하는 문서만은 아니다. 『高麗史』 권7, 文宗 9년 7월 정사조에 의하면, 거란의 東京留守에 대한 고려왕의 친서도 「國書」로 부르고 있다.

13) 林椿, 「代李湛之寄權御史敦禮書」 「荅朴仁碩書」(『東文選』 권58); 同 「与皇甫若水書」, 「上李學士書」 「与皇甫若水書」 「与趙亦樂書」 「同前書」 「与洪校書書」(同書 권59); 李奎報 「与金秀才懷英書」(『東國李相國集』 권26); 同 「軍中荅安處士置民手書」 「又寄安處士」(『東國李相國集』 권26; 『東文選』 卷59).

14) 宋·強至 『祠部集』 권28에 수록된 「代史館王相公荅高麗王王徽書」과 「又代參政馮諫議荅高麗王書」

또한 실제로 외교에 있어서 啓의 사용이 그다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唐末부터동아시아에서는 어떤 군주가 군신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 군주 등에게 문서를 보내는 경우 致書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눈에 띈다<sup>15)</sup>. 몽골 교전기의 고려왕도 遼東에 독자 정권을 구축하고 있던 蒲鮮萬奴에게 「高麗國王某謹廻書于東夏國王殿下」라는 冒頭句의 書狀을 보내고 있다<sup>16)</sup>. 이것은 蒲鮮萬奴가 보낸 書狀에 대한 회답이기 때문에 「謹廻書」가 된 것이지만 사실상 致書이다. 더군다나 官文書이든 私文書이든 啓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위에 두는 정중한 서식이다.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致書와는 성격이 다르다. 아마도 그것은 외교문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金 초기의 외교문서를 모은 『大金弔伐錄』의 기록에 의하면, 南宋의 高宗은 金軍 元帥에게 처음에는 「大宋皇帝」를 자처하는 致書를 사용했지만, 열세에 놓이게 되자 「宋康王趙構」라는 호칭을 쓰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啓를 사용하게 되었다<sup>17)</sup>.

한편, 1218년에 몽골군이 처음으로 고려에 들어왔을 때, 고려정부는 몽골 지휘관에게 尙書都省 명의를 致書를 사용했다. 그런데 그 후 동일한 몽골 장수에게 국왕 명의를 啓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고려의 관청이 平行文書를 사용했던 대상에 대하여 군주가 上行文書를 사용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양국 관계가 크게 변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18년 단계에서는 거란 집단을 공동 토벌하는 우군으로서 접촉했지만, 1231년 이후는 몽골의 대규모 침공을 당하는 와중에서의 절충이었다. 즉 南宋의 高宗이 金에게 행했던 것처럼, 위급 존망의 시기를 맞이한 고려는 국왕 자신이 스스로 문서의 격을 낮추어 교섭에 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태의 타개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고려의 위기의식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啓의 사용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서04에서 고려왕은 칭기즈 칸(Cinggis Qan)의 막내동생 테무게 오치긴(Temüge Otčigin)에게도 啓를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오치긴에 대한 문서03에서 어떤 書式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몽골과의 개전 이전부터 啓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칭기스 근친의 황족이므로 몽골 官人에 대한 것보다는 啓의 사용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동격의 「왕」이라는 입장이므로 致書를 사용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오치긴은 서방 원정중인 칭기스의 대리인으로서 몽골고원을 통치하는 책임자였다. 그를 「皇太弟」로 부르는 고려측도 그 위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몽골고원 동쪽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동방으로 세력

는 宋의 高官에 대하여 高麗王의 親書가 송부된 것을 알 수 있는 예이다. 또 書式은 不明이지만 契丹의 東京留守에 대하여 「致書」(書式은 不明)한 예도 있다(『高麗史』 권7 文宗 9년 7월 丁巳條).

15) 中西 2005, 참조.

16) 『東文選』 권61, 回東夏國書.

17) 井黑 2008, 참조.

확대를 피하고 있던 오치긴은 그 무렵 공물 요구를 반복해서 고려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1225년에 고려 국경에서 조난을 당하여 양국 관계가 결렬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著古与는 오치긴의 휘하에서 과견된 인물이다. 그와 같은 강압적인 「皇太弟」와의 절충에 임하여 신중하게 문서의 격을 낮춘 국왕문서를 사용했던 것은 고려 나름의 예민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서24~26의 예그대왕에 대한 「致書」에 대해서도 다소의 추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이 『高麗史』의 用字 그 자체로 致書라면, 과거에 몽골 官人에 대하여 啓를 사용하면서, 格上의 몽골 皇族에게는 거꾸로 平行文書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고통스런 전황이 거듭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역시 「致書」는 서식을 의미하는 術語가 아니며, 실제로는 모종의 上行文書가 사용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한다. 오치긴의 예에서 유추하면 그것은 啓였을지도 모른다. 명백하게 啓인 문서09의 발송에 관하여 『高麗史』 23 高宗世家 19년 4월 임술조의 地文에서는 「致書」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몽골 官人에 대한 국왕문서 중에 서식을 알 수 없는 05·06·19~23·26·28·29도 어찌면 모두 啓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書」의 형식에도 「奉書」「獻書」 등 보다 정중한 서식도 있으므로 그것들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측은 삼가겠다.

고려에 있어서 啓式 외교문서는 의외로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일본 平安貴族 藤原實資의 일기 『小右記』 長徳 3년(997) 6월 12·13일에 의하면 이 해에 「高麗國牒三通」이 일본에 왔는데, 각각 日本國·對馬島司·對馬島가 수신인이며, 이들 문서는 「高麗國啓牒」으로 총칭되기도 한다. 「啓」와 「牒」이 각각 서식을 뜻하는 말이라면, 적어도 「日本」이 수신인인 문서류는 啓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일본 측이 宋의 모략을 의심하는 등 발신인의 정체에 수상한 점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고려 정부에서 문서를 발송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외교에 啓를 사용하는 선례는 이미 고려 초기에 존재했고, 그것은 국왕 명의의 문서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10세기의 고려에는 渤海 멸망을 전후하여 세자 大光顯을 비롯한 다수의 遺民이 유입된 일이다. 唐代에 啓式 외교문서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渤海 뿐이다. 渤海에서 축적되어 온 대일 외교의 노하우가 고려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997년에 고려가 일본으로 上行 형식의 國書를 보냈다면, 그 배경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발송 직전에 고려가 처음으로 거란의 대규모 침략을 받았던 일이다. 북으로 부터의 위협을 받은 고려 정부가 대일관계의 호전을 도모한 것이라면, 굳이 啓를 사용한 것도 부자연스런 일은 아니다<sup>18)</sup>. 마치 唐·新羅와 대치하고 있던 渤海 武王이 日本에 啓를 보냈던 때

18) 南基鶴, 2003, 312쪽에서는 997년 고려에서 보낸 문서에 일본 측이 경계심을 보인 것에 대하여 고려의 大國意識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만일 國書에 啓를 사용했다면 적어도 서식의

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된다. 하지만 그 후 13세기 전반까지 200년 이상 고려의 啓式 외교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10세기에 있어서 啓式 國書의 存否는 별론으로 하고, 몽골 官人에 대한 啓의 사용에 제도상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는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고려의 啓式 외교문서를 최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274년에 원·고려군이 일본을 침략했던 甲戌의 役(일본사에서 이른바 文永의 役)에 앞서서, 일본에 대하여 원과의 통교를 권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至元 4년(1267) 일자의 일본국왕 앞으로 보낸 元宗國書이다. 원본은 없지만, 일본 東大寺 소장의 『調伏異朝怨敵抄』에 그 당시 元 世祖 쿠빌라이(Qubilai)의 國書와 高麗使 潘阜 일행의 書狀을 복사한 것이 남아 있다<sup>19)</sup>. 주요부의 텍스트는 『高麗史』 『高麗史節要』에도 전하며, 2차적인 錄文은 江戸時代の 일본에서 편찬한 외교문서집 『異國出契』(內閣文庫 소장)에도 수록되지만, 同時代性이 높고, 首末을 비롯한 제반 형식이 보다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調伏異朝怨敵抄』의 복사본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문서는 冒頭에 「高麗國王王 禎 / 右啓」云云으로 되어 있으며, 結辭에는 「覆 / 日本國王左右 / 至元四年九月日 啓」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는 改行), 틀림없는 啓이다.

다만 고려왕이 동일한 「王」인 일본 군주에 대하여 上行文書를 사용한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며, 蒲鮮萬奴와 마찬가지로 致書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것처럼 10세기에 전례가 있으며, 그것을 모방했을 뿐인지도 모르지만, 두 개의 사건에 25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 10세기 이후 양국 정부의 관계가 매우 소원하다는 것, 또한 고려가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海東天子」<sup>20)</sup>와 「八關會적 질서」<sup>21)</sup>라는 自尊의 자세를 형성해 갔던 것을 고려하면 당장 수궁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일본에 보냈던 元의 國書와의 균형과, 元의 對日 招諭에 대한 高麗의 태도를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의 論旨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고찰하려고 생각한다.

#### 4. 高麗史料로 본 몽골 官人의 문서

몽골 官人이 고려에 보낸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1차 침략군을 지휘했던 撒禮塔이 1231년에 보낸 2통의 書狀이다<sup>22)</sup>. 몽골제국에서 편찬한 白話風の 漢語를 사용하여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된다.

19) 『調伏異朝怨敵抄』의 텍스트에 관해서는 平岡, 1959 所載의 影印 참조.

20) 盧明鎬, 1997·1999 참조.

21) 奥村, 1979, 참조.

22)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12월 임자, 갑술. 이 문서의 試釋에 村上, 1960과 Ledyard, 1963이 있다.

몽골文을 直譯調로 옮긴 특수문체, 소위 몽골文 直譯體 白話風 한문<sup>23)</sup>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로는 최초의 사례이며, 달리 유례가 없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문서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연구에 맡겨야 하겠지만, 첫머리의 「天底氣力. 天道將來底言語. 所得不秋底人, 有眼睛了, 有手沒了, 有脚子癩了」(하늘의 힘. 하늘이 한 말. 따르지 않는 자는 눈이 있다면 멀 것이며, 손이 있다면 없어질 것이며, 다리가 있다면 병에 걸려 버려라) 등은 몽골 명령문 특유의 「권한 부여」와 「威嚇文言」의 요소에 해당한다<sup>24)</sup>. 이와 같은 하늘의 권위의 주장과 “협박 문구”는 몽골에서는 거의 정형화된 표현이다. 그러나 쿠빌라이(Qubilai)國書<sup>25)</sup>의 「至用兵, 夫孰所好」(兵을 쓰기에 이르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도 보이는 것처럼,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고려쪽의 수용 자세는 기록에 없지만,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밖에 몽골 官人의 문서가 전면적으로 기록된 예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고려측 문서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으며, 역시 몽골문 직역체 白話風 한문으로 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문서03 「不會發遣女孩兒及會漢兒言語人, 亦不進奉諸般要底物」

문서08 「你國選揀人戶, 赴開州館及宣城山脚底, 住坐種田」

문서13 「你者巧言語, 說得我出去後, 却行返變了, 入海裏住去° 不中的人宋立章·許公才, 那兩箇來的說謊, 走得來. 你每信那人言語呵, 返了也」

「達魯花赤交死, 則死. 留下來, 如今你每拿縛者」

「你本心投拜, 出來迎我, 不投拜, 軍馬出來, 与我廝殺者」

[237]

이상은 문서의 主文인데, 冒頭 형식에 관해서는 문서22의 錄文 附記에 「來書云, 福蔭裏, 統領蒙古紮漢大軍征討高麗唐古拔都魯言語, 道与高麗王」(來書에서 말한다. 福蔭 아래로. 統領蒙古紮漢大軍征討高麗唐古拔都魯의 말. 高麗王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무개의 말. 아무개에게 道与한다」는 표현은 초기의 몽골 명령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福蔭裏」라는 冒頭 문구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福蔭」에 관하여 언급하려면 어떤 「福蔭」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고려측의 문서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언이다.

23) 몽골문 직역체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에 船田, 2007이 있다.

24) 몽골 명령문의 서식에 관해서는 松川, 1995 참조.

25) 『調伏異朝怨敵抄』 수록.

26) 이것은 발령자가 몽골인이기 때문이며, 耶律楚材 등 漢文化人이 발령한 문서가 있다면(미확인) 아마도 통상의 한문을 사용했을 것이다.

문서21 「孟夏漸熱，伏惟，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四海皇帝福蔭裏 大官人閣下，起居千福…」

문서22 「夏序方廻，伏惟，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皇帝福蔭裏 帥府大官人閣下，茂膺千福…」

두 문서 모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신자에 대하여 인사를 한 부분인데, 「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皇帝福蔭裏」(영원한 하늘의 힘 아래로. 蒙古大朝國皇帝의 威福 아래로)라는 문언이 수신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원래 이것은 몽골 명령문에서 「권한 부여」를 의미하는 문장 첫머리의 상투적인 표현이다<sup>27)</sup>. 아마도 문서21·22의 작성에 앞서서 고려에 보낸 몽골 측의 문서 첫머리에는 「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皇帝福蔭裏. 某官某言語」 등으로 적은 것을 고려측이 오해하여 「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皇帝福蔭裏」를 발령자인 官人을 수식하는 어구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서22에 앞서는 「書狀」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때는 단순한 실수인지, 참조한 문서 원본 내지 錄文의 결손 때문에 「福蔭裏」 앞부분이 탈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면 이처럼 문서에 國號를 붙일 필요는 없었으며, 「蒙古大朝國皇帝」라는 호칭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붙인 용어이다. 최근에 몽골제국에 관하여 「大朝」라는 칭호가 주목되며<sup>28)</sup>, 「大朝」「大朝國」「大朝蒙古國」으로 표기한 중국 사료의 용례가 소개되었는데, 「蒙古大朝國」이라는 표현은 고려 사료에서 새롭게 판명된 것이다<sup>29)</sup>.

문서21에서는 「蒙古大朝國四海皇帝」라는 칭호도 주목된다. 1246년에 로마 교황 인노센트 4세(Innocentius IV) 앞으로 보낸 定宗 구유크(Güyük) 國書의 印璽銘에는 황제의 호칭이 「monggo l-un ulus-un dalay-in qan」(몽골국의 바다의 황제)로 기록되었다<sup>30)</sup>. 이 「dalay-in」의 漢譯이 「四海」일 것이다. 문서21은 太宗 오고타이(Ögödei) 때의 문서인데, 「四海皇帝」라는 칭호가 오고타이와 구유크에 관하여 확인된 것이 된다. 몽골제국에 관하여 유라시아의 극동(朝鮮)과 극서(유럽)의 사료가 훌륭하게 부합하는 한 가지 사례이다<sup>31)</sup>.

高麗에 보낸 문서에 대해서는 몽골문 정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으며<sup>32)</sup>, 고려가 몽골에 보냈던 國書에 몽골 측에서 보냈던 문서에 관하여 「以文字之各殊，憑譯解而乃識」(문자

27) 몽골어 möngke tengri-yin küčün-dur. yeke mongγol ulus-un qayan-u suu-dur의 직역.

28) 于采芑, 2006 참조.

29) 「蒙古大朝國」이라는 표현은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12월 갑술조에 수록된 문서에도 보인다.

30) Pelliot 1923, pl.° 몽골황제 중에서도 칭기스와 구유크는 qan으로 부른다.

31) 李承休의 『賓王錄』에 묘사된 원의 궁중 향연 모습이 마르코 폴로 『東方見聞錄』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森平, 2004, 78~79쪽).

32) 宮, 2006, 204~205쪽.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으로 이해했다)<sup>33)</sup>는 것이 한 가지 근거가 된다. 다만 오고타이 때 몽골의 국정을 기록한 『黑韃事略』에는 「行於漢人·契丹·女眞諸亡國者, 只用漢字」(漢人·契丹·女眞 모두 망국으로 갔다. 문서는 한자만을 사용한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몽골문 직역체로 기록된 모든 외교문서에 몽골어 정본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도 경솔한 생각일 것이다.

##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 글에서는 여몽 교전기에 고려가 몽골 官人에 대하여 사용했던 문서 형식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고려측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몽골 측 문서의 내용·형식에 관해서도 약간 언급하였다. 감히 대담한 추측을 덧붙인 부분도 있으며, 하나의 試論에 불과하지만 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표) 고려에서 몽골 官人에게 발송한 문서

번호	名義	발송처	年次	起草者	書式	出典
01	尙書省	哈眞	1218		※ 「牒」	節要 高宗5/12
02	尙書都省	蒙古兵馬元帥	1219	李奎報	某月日右謹致書于某官幕下…惶恐惶恐	蒙古兵馬元帥幕送酒菓書 (東61;李28)
03		蒙古皇太弟(오치긴)	1220·24	李奎報		蒙古國使齎上皇大弟書 (東61; 李28)
04		大王(오치긴)	1221	俞升旦	右啓…謹啓	同前書(東61)※回東夏國書에 대한 것
05	國衙行	閣下(사르타크)	1232	李奎報		國衙行荅蒙古書 (李28; 東61)
06	國衙行	荅兒巨元帥(탕구트)	1232	李奎報		同前荅兒巨元帥狀 (李28)
07		荅兒巨元帥(탕구트)	1232	李奎報		淮安公荅同前元帥狀 (李28)
08		蒙古國元帥	1232	李奎報	右啓…	送蒙古國元帥書 (李28;東61;高19/3/甲午)
09		撒里打官人(사르타크)	1232	李奎報	右啓…	送撒里打官人書 (李28;東61;高19/4/壬戌)
10		河西元帥(탕구트)	1232	李奎報	右啓…	送河西元帥書 (李28; 東61)
11		某官	1232	李奎報	右啓…不宜謹啓	送某官狀 (李28; 東61)
12	淮安公	河西元帥(탕구트)	1232	李奎報	右啓…不宜謹啓	淮安公荅河西元帥書 (李28; 東61)
13		蒙古官人	1232	李奎報	右啓…	荅蒙古官人書 (李28; 東61;高19/9)
14		沙打官人(사르타크)	1232	李奎報	右啓…	荅沙打官人書 (李28;東61;高19/11)
15		晋卿丞相(耶律楚材)	1232	李奎報	右啓…	送晋卿丞相書 (李28; 東61)
16		沙打里(사르타크)	1232	李奎報	右啓…不宜謹啓	荅沙打里書 (李28; 東61; 高19/11)
17		蒙古大官人	1232	李奎報	右啓…不宜謹啓	送蒙古大官人書(李28;東61;高19/12)

33) 『東國李相國集』 권28, 蒙古國使齎廻上皇帝表.

18		蒙古大官人	1232	李奎報	右啓…	荅蒙古大官人書 (李28;東61;高19/12)
19		唐古官人(탕구트)	1238	李奎報		送唐古官人書 (李28; 東61)
20		晋卿丞相(耶律楚材)	1238	李奎報		送晋卿丞相書 (李28; 東61)
21		中山·称海(粘合重山·칭카이)	1240	金敏		与中山称海兩官人書 (東61)
22		唐古官人(탕구트)	1240	朴暄		荅唐古官人書 (東62)
23		吳悅官人	1240	李藏用		与吳悅官人書 (東62)
24		也窟(예그)	1253		※「致書」	高40/8/己未
25	高麗王	也窟(예그)	1253		※「致書」	高40/9/戊寅
26		也窟·阿母侃·吳悅·王万户·洪福源	1253		※「致書」	高40/11/戊寅
27	高麗王	也窟(예그)	1253		※「書」	高40/11/戊戌
28		胡花官人	1253		※「書」	高40/11/戊戌
29		車羅大(차라이르타이)	1256		※「書」	高43/4/乙亥

注) 李: 『東國李相國集』, 東: 『東文選』, 高: 『高麗史』 高宗世家(數字와 干支는 연월일), 節要: 『高麗史節要』 ※ 「 」는 編纂史料 地의 글에서 당해 문서에 관한 표현.

### 《참고문헌》

- 井墨忍, 2008, 「金初の外交文書様式と國際關係—『大金弔伐錄』の検討を中心に」 國際シンポジウム 「10~14世紀東アジアの外交交流史料」 予稿集
- 池内宏, 1963, 「蒙古の高麗征伐」 同著 『滿鮮史研究』 中世 第3册,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a, 「神龜四年, 渤海の日本通交開始とその事情—第一回渤海國書の検討」 同著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b, 「古代東アジアの外交と文書—日本と新羅・渤海の例を中心に」 同著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論文集』 16
- 中西朝美, 2005, 「五代北宋における國書の形式について—「致書」文書の使用状況を中心に」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3
-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 中村裕一, 1996, 『唐代公文書研究』 汲古書院
- 旗田巍, 1965, 『元寇—蒙古帝國の内部事情』 中央公論社
- 平岡定海, 1959, 『東大寺宗性上人の研究并史料(中)』 日本學術振興會
- 船田善之, 2007, 「蒙文直譯體の成立をめぐる—モンゴル政權における公文書翻譯システムの端緒」 『大東文化フォーラム』 13
- 堀敏一, 1998, 「渤海・日本間の國書をめぐって」 同著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 松川節, 1995, 「大元ウルス命令文の書式」 『待兼山論叢(史學篇)』 29
- 宮紀子, 2006, 「モンゴルが遺した「翻譯」言語—舊本『老乞大』の発見によせて」 同著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 森平雅彦, 2004, 「『賓玉錄』にみる至元十年の遣元高麗使」 『東洋史研究』 63-2

- 森平雅彦, 2007, 「牒と咨のあいだ—高麗王と元中書章の往復文書」 『史淵』 144
- 村上正二, 1960, 「蒙古來牒の翻譯」 『朝鮮學報』 17
- 姜晋哲, 1964, 「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 『한국사7—武臣政權과 對蒙抗爭』 국사편찬위원회
- 김재홍, 1963, 『원 침략자를 반대한 고려 인민의 투쟁』 과학원출판사
- 南基鶴, 2003,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 『グローバル化の歴史的前提に関する學際的研究』 平成12~14年度科研費補助金(基盤研究A2) 研究成果報告書, 村井章介譯(原載: 『日本歴史研究』 11, 2000年)
-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1997年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 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1999年
- 柳在城(執筆)·蔡漢國(主幹) 1988 『對蒙抗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 尹龍懌,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 윤용혁, 1994, 「몽고 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 于采芑, 2006, 「蒙古汗國國號“大朝”考」 赫時遠·羅賢佑·烏蘭編 『天驕偉業—成吉思汗与蒙古汗國研究紀念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Henthorn, W.E. 1963 *Korea: The Mongol Invasions*, E.J.Brill.
- Ledyard, G. 1963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 s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2.
- Pelliot, P. 1923 Les Mongols et la Papauté, *Revue de l'Orient Chrétien*, 3esérie.



# 삼별초와 여일관계

尹 龍 燾

(공주대학교 교수)

## 머 리 말

고려시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시대에 비할 때 전반적으로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이다. 이것은 이 시기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정부 차원 상호간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13세기에는 몽고의 전란으로 고려의 영토는 피폐되고 정권과 왕조의 명운이 걸린 절대 절명의 조건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지만, 전란에 처한 대륙의 정세 속에서 일본은 봉건적 체제 가운데 안주함으로써 동아시아 교류의 환경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3세기 일본의 고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제기된 것은 몽고의 압박에 의한 새로운 정세의 조성 때문이었다. 장기적인 침략전 끝에 일단 복속을 표방한 고려를 앞세워 몽고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고 이같은 몽고의 대일 ‘招誘’ 작업에 고려는 그嚮導로 동원되었다.

본고에서는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진도와 제주도를 거점으로 몽고, 고려 연합세력에 저항 하였던 삼별초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삼별초와 일본이 상호 어떤 구체적인 외교적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1271년 일본에 파견된 삼별초의 사신도 일본 조정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거점으로 삼았던 진도가 함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대외관계를 전개할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삼별초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서 적극적인 외교적 방안을 구사하지 못한 채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반몽의 전선을 새로 형성한 삼별초 세력이 반몽 항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일본과의 연합전선 구축을 도모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러한 기도의 일환으로 보내진 외교문서 관련이 자료가 약간이나마 남아 있다는 점도 흥미 있는 일이다.

4년에 걸치는 삼별초의 봉기와 항전은 실패로 결말 되었지만, 몽고의 대일 征役に 일정한 차

질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몽고군의 공격은 순조롭지 않은 경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삼별초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이외에 삼별초의 항전이 야기한 정세의 변수를 주목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삼별초 항전이 갖는 동아시아 戰局에의 영향 및 대일 관계의 측면을 검토하고, 나아가 삼별초의 대일 외교 관련 문서인 ‘高麗牒狀不審條條’의 문건을 대일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삼별초가 13세기 후반 동아시아 전국에 미친 영향을 좀더 입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기와와 삼별초 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본고에서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 1. 고려 삼별초와 대몽항쟁

고려에서 삼별초 봉기가 야기된 시점은 1170년(원종 11) 6월 1일이다. 몽고군이 고려에 침입을 개시하고 최씨정권이 이에 불복하여 저항을 시작한 1231년(고종 18)으로부터 40년만의 일이다. 이 40년 기간 고려는 최씨정권의 집정자 崔瑀·崔沆·崔誼를 거쳐, 金俊과 林衍, 林惟茂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내부의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집정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몽고에 대하여 항전을 고수하는 정책노선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인집정자의 교체가 정권의 성격에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인정권은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침략 이듬해인 1232년 왕도 개경에 가까운 도서인 강화도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려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몽고군에 의하여 6차(11회)에 걸친 침략을 되풀이 받으면서 장기적인 저항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1270년 삼별초의 봉기는 원종의 개경 환도 결정 및 무인정권의 붕괴라는 정치적 변동 상황에서 야기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삼별초는 고려 무인정권하 집정자 최우에 의하여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고려의 군사조직이다. 그 시기는 몽고군의 침입 직전인 1230년(고종 17)<sup>1)</sup> 경이다. ‘별초’라는 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정예군으로 선발된 조직이었으며, 무인정권이라는 정치적 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던 만큼 친정권적 성격과 기반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몽고군의 대대적 침략이 시작되자 삼별초는 고려의 가장 강력한 군사집단으로 부각되었으며,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그 규모 역시 확장되었다. 야별초가 ‘삼별초’라는 조직으로 바뀌는 것 또한 이러

1) 야별초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김당택, 「최씨정권과 그 군사적 기반」 『고려무인정권연구』, 새문사, 1987, 186-187쪽 ; 윤용혁, 「삼별초의 봉기와 남천에 관하여」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131쪽.

한 조직 확대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삼별초는 몽고군의 침입 직전에 무인정권에 의하여 설치되고 1270년 무인정권의 붕괴와 동시에 정부에 의하여 해산 조치가 내려진 무력 집단이라는 점에서 대몽항쟁기 무인정권과 관련한 가장 상징적인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별초의 이같은 성격으로 말미암아 무인정권이 붕괴하고 고려정부가 몽고에 복속한 여건 속에서 삼별초 준립의 근거는 완전히 상실된 셈이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의 보유가 문제였다. 개경정부가 삼별초의 해체를 명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삼별초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완전한 굴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점에서 본다면 1270년 삼별초의 봉기는 고려가 몽고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복속으로 전환함에 따른 필연적으로 맞게 된 정치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삼별초는 몽고에 대한 복속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대항하는 고려 최후의 세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삼별초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먼저 하고자 한다. 첫째는 삼별초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이다. 삼별초 항전은 근대사학의 관점에 의하여 민족 항전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sup>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년 이같은 ‘민족항전’으로서의 평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역사에서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삼별초 항전의 역사적 의의를 ‘민족항전’이 아닌 ‘민의 항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3)</sup>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삼별초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었다. ‘삼별초’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조작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들이 반민족적 집단이었고 그리고 그 행동은 ‘민족’이 아닌 정권을 ‘보위’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견해가 이에 속한다.<sup>4)</sup> 삼별초에 대한 이같은 양극적 평가는 역사적 사건을 과거로서 보다는 지나치게 현재적 상황에 대입하여 해석한데서 오는 시각이라

2) 왕조체제에 대한 단순한 반란으로 인식되어온 삼별초의 항전을 외세에 대한 자주적 반몽항전의 사례로서 그 의미를 적극 부여한 것은 일제하 김상기의 공헌이었다(김상기, 「삼별초와 그의 란에 就하야」 『진단학보』 9·10·13, 1938-1941 ;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48). 이후 삼별초는 대외항전의 대표적 사건 혹은 고려 대몽항쟁의 하이라이트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한편으로 1970년대 군사정권에 뿌리를 둔 정치현실의 맥락에서 삼별초의 항전은 ‘국난 극복’의 대표적 사례로서 강조되기도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구성된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삼별초의 항전이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공통적이었다.

3) ‘삼별초의 항전’이 갖는 의미는 삼별초의 ‘강인한 민족정신’ 등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고려 지배층과 몽골의 결탁에 반대하는 일반민의 저항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데 있다고 하였다. 이익주, 「고려 후기 몽골침입과 민중항쟁의 성격」 『역사비평』 24, 1994, 269쪽.

4) “1970년대 군사 독재정권 아래에서 어용학자들은 무신정권을 민족적이고 진취적인 정치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삼별초군의 활동을 ‘국난극복’의 사례로 꼽았다. 군사독재정권의 민족주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역사조작의 한 예였다.” 이이화, 『몽골의 침략과 30년 항쟁』(한국사 이야기 7), 한길사, 1999, 104·115쪽.

고 생각된다. 특히 이들이 고려 장기 항전의 오랜 정치적 기반이었고 봉기시 ‘반몽 구국’을 직접적으로 주창한 점에서도, ‘민족항전’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sup>5)</sup>

삼별초 항전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 만들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삼별초에 의한 반몽 항전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삼별초의 역사적 의의를 ‘민의 항전’에서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견해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민족항전’과 배치되는 영역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하는 생각이다. <sup>6)</sup>

## 2. 여일관계와 삼별초

삼별초의 여일 관계와 관련하여 우선 몽고의 고려에 대한 助軍 요구와 몽고측 사신의 일본 파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몽고의 조군 요구는 처음에는 명확히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몽사의 일본 파견 추이에 상응하여 일본에의 군사적 공격으로 진전되어간 사안이었다.

몽고의 대일 견사는 1266년에 처음 시도된 이후, 2차 1267년, 3차 1268년, 4차 1269년, 5차 1271년, 6차 1272년, 7차 1273년 등, 여원 연합군의 일본침입(1274)에 이르기 까지 거의 해마다 이루어졌다.<sup>7)</sup> 1266년 1273년까지의 추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8)</sup>

- 
- 5) 삼별초의 민족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찍이 村井 교수에 의해서도 주목된 바 있다. ‘반몽 보국’이라는 삼별초의 격문은 삼별초의 강한 민족의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村井章介, 「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171-172쪽 참조.
  - 6) 삼별초의 역사적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발표된 필자의 「삼별초 대몽항전을 보는 여러 시각」(『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을 함께 참조 요망. 또 김일우·이정란은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제주도사연구』, 11, 2002, 25-27쪽)에서, 삼별초 항쟁이 갖는 역사적 성격을 민중적 성격과 항몽적 성격의 양면에서 평가해야 하고 삼별초를 포함한 고려의 장기항전이, 원의 간섭기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독립성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필자는 근년 삼별초에 대한 평가 문제를 포함하여 고려 장기항전의 요인, 전쟁시의 강화도 문제, 대몽항전 유적에 관한 문제 등 고려 대몽항전 전반과 관련한 논의점을 추출하여 정리한 바 있다. Yoon Yong-hyuk, *The Focal Issues in the Historical Study of the Koryo's Resistance against Mongol*,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0, 2006 참조.
  - 7) 원의 견사는 大德 3년(1299) 11차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김위현, 「여·원 일본 정벌군의 출정과 여원관계」 『국사관논총』, 9, 1989, 4-10쪽.
  - 8) 『고려사』, 『원고려기』, 『원사』 등 참고. 일본측 자료는 장동익, 『일본 고종세 고려자료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4를 참고함.

〈표〉 몽고의 對日 招誘 건사(1266-1273)

次數	연도	遣使 명단	건사의 경과	국서의 내용	결 과
1	1266	◦ (몽고)黑的(병부시랑), 殷弘(예부시랑) ◦ (고려)宋君斐(추밀원부사), 金贊(시어사)	11월 파견, 거제도에서 출항 직전 기상을 핑계로 포기		거제도에서 포기
2	1267	◦ (고려)潘阜(기거사인), 李挺(서장관)	몽제와 고려 국서 전달, 태재부에서 5개월 대기, 경도에는 가지 못함	(몽고국서) 일본의 복속을 귀유하며 용병의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암시 (고려국서) 몽고의 의도가 우호관계 수립이라는 것으로 일본 설득	국서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함. 몽고 및 고려국서 동대사에 전함
3	1268	◦ (몽고) 黑的, 殷弘 외 6인 ◦ (고려)申思恂(지문하성사), 陳子厚(예부시랑), 潘阜 외 1인 도합 70여 명	12월 파견, 1269년 3월 귀국시 대마도의 일본포로 2명(塔二郎, 彌二郎) 대동		대일본 군사력 투입 가능성 시사(10월)
4	1269	(◦ 고려) 金有成, 高柔	7월 왜 포로를 송환한다는 명분으로 파견. 대마도에서 보낸 편지는 태재부, 막부를 거쳐 경도에 보냄. 대마도를 거쳐 태재부에서 체재	(원 중서성의 첩장)일본의 내속 요구 및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	일본은 거절의 답장을 작성 하였으나 보내지는 않음.
5	1271	◦ (몽고) 趙良弼 ◦ (고려) 徐稱(별장) 일행 100여 명	9월, 대마도 거치지 않고 19일 규슈 今津 도착, 태재부로 직행, 국서를 경도로 보냄		일본사신 12명을 원에 들여보냈으나 원 세조가 접견 거부(조작된 사신) 조양필이 휴대한 서장이 남아 있음
6	1272	◦ 고려 사신	2월 13일 원종이 일본 국왕에게 서신을 보내 초유함 4월 일본 파견 원에 보낸 사신단 호송 귀국케 함		내용 불명확
7	1273	◦ (몽고) 趙良弼	3월 태재부에서 경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옴		

1268년 고려 반부를 통하여 일본에 전달한 국서가 무위로 끝나자 몽고는 고려에 요구하였던 송 정벌에 대한 助軍 요구, 군사 1만, 선박 1천 척의 작업을 감독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일본에 투입할 것도 고려하게 된다.

몽고의 고려에 대한 조군 요구는 처음에는 일본보다 대남송전을 전제로 추진되었다. 1268년

(원종 9) 3월 于也孫脫 등이 전한 세조 쿠빌라이의 조서에서 대송전을 앞두고 고려에 대해 군사 와 병선 조달에 대한 준비, 군량의 저축을 주문한 것이 그것이다. 그해(1268) 6월(을사) 몽고는 靉都止를 파견하여 병선의 수와 군대 인원수를 점검하고 8월 대장군 崔東秀는 몽고에 입조하여 助軍을 위한 군사 1만의 확보 및 병선 1천 척 건조를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 10월에는 위 사향을 점검하기 위해 몽고로부터 脫朶兒, 王國昌, 劉傑 등 14명이 입국하였는데 휴대한 몽제의 조서에는 이들 사신의 지시에 의하여 배를 건조할 것이며, 군대와 선박을 잘 정돈하여 남송이든 일본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 흑산도와 일본 간의 길을 탐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국창, 유걸 등은 고려 도착 즉시 흑산도 현지를 점검하였고, 흑산도에서 돌아 온 유걸은 다시 造船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해도로 나갔다고 한다.<sup>9)</sup>

이 무렵 몽고는 남송에 대한 공격이 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고려의 助軍 문제는 일본보다 남송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268년(원종 9) 10월 쿠빌라이는 도원수 阿朮(아출), 劉整 등에 7만의 군으로 양자강 북의 요새 襄陽을 포위 공격케 함으로써 남송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였다.<sup>10)</sup> 그러나 남송 공격을 위한 고려의 조군은 실행되지 않았다. 아마 고려에서의 발전과 대남송전예의 투입이 실제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을 수 있고, 거기에 1270년 삼별초의 봉기는 고려의 대송 조군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 하고 삼별초가 진도에 대치하고 있던 1270년 12월 원 세조의 조서는 고려가 造船 및 징병 명령을 승낙하고서도 성과가 없는 것을 질책하면서, “남송이건 일본이건 유사시에 대비하여 병마와 군선, 식량을 빨리 준비하도록” 다시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sup>11)</sup> 군선의 조선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단계에 있었으며, 고려군을 남송으로 보낼지 일본으로 보낼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단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고려의 대규모 군선 조성과 1274년 일본침략에의 참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던 것이며, 다만 1270년 삼별초의 반몽 봉기와 저항이라는 새로운 상황 전개로 인하여 그 일정이 얼마간 지연되었던 셈이다.

고려의 조선작업과 관련하여 이 시기 주목되는 사실의 하나는 1272년 3월 전함병량도감의 설치이다. 명칭상 이것은 대규모 군선과 군량을 확보하려는 기구의 신설인데, 단기적으로는 제주 삼별초에 대한 대공세를 위한 준비였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본정벌까지를 염두에 둔 기구였다고 생각된다. 이 무렵 일본 招諭에 대한 문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고 이 도감의 설치가 여원 관계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특히 1271년 9월 일본에 파견되었던 元使 趙良弼

9) 『고려사』 권26, 원종 8년.

10) ドーソン 『蒙古史』, 三田史學會, 1933, 538-539쪽.

11) 『고려사』 권27, 원종 11년 12월.

은 “11월을 기한으로 여전히 회답이 없으면 병선을 보내겠다”는 통첩을 보내기까지 하였다.<sup>13)</sup> 이같은 추이는 고려를 앞세운 차후의 군사적 행보가 이제 남송이 아닌 일본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특히 조양필의 제5차 견사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만 진도 함몰 이후 제주도를 거점으로 여전히 남서해 연안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하지 않은 삼별초의 존재로 인하여 일본에 대한 군사적 조치 시기는 더 늦추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대외정벌을 위한 고려의 助軍 및 造船에 관한 문제는 삼별초 봉기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삼별초의 봉기라는 고려의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1266년부터 개시된 몽고의 대일 초유, 1268년 남송전의 본격적 재개 등의 진전을 감안하면, 1270년 삼별초의 봉기가 없었을 경우라면 대략 1271년 경에는 대일 무력 공격이 시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별초 봉기에 의하여 대략 2년 정도 연합군의 대일 공격 시점이 지연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1270년 삼별초 봉기의 해에 대일 초유의 견사가 1년을 거르게 되었던 것에서도 그러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sup>14)</sup> 이에 대해 村井 교수는 삼별초의 봉기로 인한 대일 征役 저지 요인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몽고의 둔전군 및 일본 원정에 사용할 함선에 대한 삼별초의 공격, 몽고(원) 둔전군에 공급될 貢賦가 경상, 전라지역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한 점, 일본원정에 투입하려던 둔전군을 삼별초 진압에 轉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이 그것이다.<sup>15)</sup> 그러나 다른 한편 진도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와의 해전 경험은 그 다음해 일본침입과 관련하여 몽고군에게는 하나의 ‘좋은 연습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일 초유 과정에서는 제1차 여원군의 일본침입 전년인 1273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초유 사절이 파견되었다.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 1270년 한 해만 사절 파견이 거르고 다시 속개되고 있는데, 이 같은 1년의 休止는 삼별초의 봉기로 인하여 남부 연안 일대가 진도 거점 삼별초의 세력권에 포함된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별초의 대일 연합전선 추구는 기본적으로는 여원관계의 역사성과 지리적 인접성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다. 그

12) 戰艦兵糧都監과 함께 鈿函造成都監이 설치되었는데 후자는 원 황후의 대장경 보관을 위한 용품 제작을 위한 것이었다(『고려사』 권27, 원종 13년 갑진).

13) “此上以來十一月可爲期 猶爲無音者 可艤兵船云云”(『吉續記』 문영 8년 10월 24일).

14) 삼별초 봉기가 여몽군의 일본 침입을 지연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 일찍이 旗田 巍는 이점을 지적하여 “이 항전이 없었다면 몽고는 더 일찍 일본을 습격했을 것이다. 일본원정을 위한 둔전군은 삼별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삼별초 토벌에 轉用될 수 밖에 없었다. (중략) 객관적으로 보면 삼별초의 란은 몽고의 일본 침입을 지연시키고 방위 준비를 갖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단정 하였다(旗田 巍, 『元寇』, 中央公論社, 106쪽).

15) 村井章介, 「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160-161쪽.

러나 동시에 이처럼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일본에의 초유, 그리고 대일 정역을 염두에 둔 군선의 준비 등 일련의 상황이 삼별초로 하여금 여원연합세력에 대한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대일본 초유 과정 및 이후의 사태 진전에서 확인되는 사실의 하나는 고려와 일본을 하나의 동일범주로 파악하는 일본의 입장이다. 심지어 개경정부와 삼별초에 대해서도 이를 구분하는 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sup>16)</sup>

### 3. 삼별초의 일본과의 연대 시도

1270년 6월 1일, 강화도의 삼별초는 몽고에 복속하여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의 고려정부에 반기를 들고 봉기하였다. 이들은 몽고에 복속한 개경정부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 조직한 그들의 정부야말로 고려의 정통정부라는 인식이었다. 이들은 봉기 직후 강화도로부터 진도로 이동, 용장성을 구심점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개경정부와의 대결을 기도하였다. 이들은 구 후백제 지역과 남부 해안지역을 아우르는 연안 해양세력권 구축을 통하여 개경정부와의 대결을 기도하였다. 한편 몽고의 압력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일본과의 공동전선 연대를 의도하여 나름대로의 세력 구축을 도모하려 하였다.

몽고에의 대항을 위한 일본과의 ‘국제적 연대’라는 이 같은 착안은 어디에서 가능했던 것일까. 삼별초가 강화도를 포기하고 진도로 남천 하였을 때 서남해 연안의 도서만으로 여몽연합군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진도 이외의 배후기지 확보가 우선적인 관건이고, 다음으로 남송 혹은 일본과의 연결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1266년 이래 이미 진행되고 있던 대일본 초유에 의하여 몽고의 압력 하에 놓여진 일본의 입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sup>17)</sup>

삼별초의 대일 교섭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논의한 것은 根本 誠씨이다.<sup>18)</sup> 『吉續記』

16) 남기학, 「몽고침입과 중세 일본의 대외관계」 『아시아문화』 1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474쪽.

17) 삼별초가 일본과의 관계를 구상한 것은 “몽고의 난폭한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싸움, 장기에 걸치는 억압을 견디어 온 경험에서 온 의식”과 삼별초가 남해안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점차 일본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 것”이라 한 언급(村井章介, 「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에 대하여, 이영은 고려의 일본에 대한 ‘항상적 외교관계’에 기반한 것이라 하였다(103-104쪽).

의 문영 8년 9월의 ‘고려첩장’에 대한 해석이 그것이다.<sup>19)</sup> 그리고 이것은 ‘고려첩장 불심조조’ 문서의 발견에 의하여 사실로서 확인되었다. 이에 의하면 진도정부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 대몽 항전에 있어 공동의 보조와 협조를 타진하게 된 것은 원종 12년(1271)의 일이다. 진도에서 보낸 편지는 진도정부가 몽고군에 의해 무너진 한참 뒤인 9월 초에야 가마쿠라(鎌倉) 막부를 거쳐 교토(京都)의 조정에 전달되었다. 이 서신을 가져온 사신은 아마 7월 말 이전에 하카다 부근에 도착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는데, 진도에서의 출발을 진도에 대한 대공세가 이루어진 5월 15일 이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카다(博多) 혹은 다자이후(太宰府) 도착은 대략 5, 6월경의 일이어야 한다.

진도정부가 일본에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吉續記』의 동년 9월 4일조에 몽고가 일본을 치게 될 것임을 먼저 경고하고 아울러 식량과 병력으로 협조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sup>20)</sup> 그런데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의 보관문서인 「高麗牒狀不審條條」는 이때 진도정부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 문서가 진도의 삼별초가 보낸 편지 그 자체는 아니지만, 편지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삼별초의 일본에 대한 희망과 당시 진도정부의 내부사정에 대하여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高麗牒狀不審條條

- 一. 以前狀(文永五年) 揚蒙古之德 今度狀(文永八年) 韋毳者無遠慮 云云 如何
- 一. 文永五年狀 書年號 今度不書年號事
- 一. 以前狀 歸蒙古之德 成君臣之禮云云 今狀 遷宅江華近四十年 被髮左衽 聖賢所惡 仍又遷都珍島事
- 一. 今度狀 端ニハ 不從成戰之思也 奧ニハ 爲蒙被使云云 前後相違 如何
- 一. 漂風人護送事
- 一. 屯金海府之兵 先二十許人 送日本國事

18) 根本 誠, 「文永の役までの日蒙外交—特に蒙古の遣使と日本の態度」 『軍事史學』 5, 1966, 58-60쪽.

19) 일본에 전해진 ‘고려첩장’에 대한 논의는 『吉續記』의 문영 8년(1271) 9월 2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관련 기록은 장동익, 『일본 고증세 고려자료 연구』, 139-143쪽에서 볼 수 있다. 장동익에 의하면 『吉續記』는 가마쿠라 시기의 인물인 藤原經長(1143-1200)이 1167년부터 1302년까지의 일기체의 기록으로서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관련 기록 9건이 포함되어 있다(張東翼, 『일본 고증세 고려자료 연구』, 143쪽).

20) “件牒狀趣 蒙古兵可來責日本 又乞糶 此外乞救兵歟 就狀を見區分”(『吉續記』, 문영8년 9월 5일). 장동익, 『일본 고증세 고려자료 연구』, 139쪽.

- 一. 我本朝統合三韓事
- 一. 安寧社稷待天時事
- 一. 請胡騎數萬兵事
- 一. 達冕旒許垂寬宥事
- 一. 奉贄事
- 一. 貴朝遣使問訊事

진도 삼별초정부가 보낸 편지에는 첫째, 몽고에 대한 비난, 반몽 의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 가령 제1조에서 몽고를 ‘韋蠡(위취)’(짐승의 가죽)라는 말로, 3조에서 몽고풍속(문화)을 ‘被髮左衽’(오랑캐의 습속)이라는 문자로 지칭한 것 등은 공식적 외교문서로서는 매우 강렬한 반몽 의지의 표현들이다.

둘째, 당시 삼별초 정부는 진도정부가말로 정통의 ‘고려’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때문에 본 문서의 제목은 ‘高麗牒狀’이며, 강화도에서의 40년 항전이후 항몽 전통을 계승하여 진도로 천도하였음을 제3조에서 밝히고 있다.

셋째, 진도정부와 일본과의 공동적 운명 내지 진도정부의 일본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히 몽고 침략의 위기적 상황을 일본과 공동으로 타개해 나갈 것을 소망하는 삼별초정부의 기대가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情況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하여” 사절의 파견을 일본에 요청한 것으로 보아, 진도정부는 일본과의 반몽 항전을 위한 일종의 공동전선을 희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sup>21)</sup>

고려척장 문서의 이상과 같은 맥락은 일본과의 공동운명을 강조함으로써 진도정부가 일본의 구체적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삼별초 진도정부의 對日 사신 파견은 공동대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군량, 병력 등의 실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정한 목적이 있었다. 실제 진도정부가 식량의 결핍을 우려하고 있었던 사실은 원종 12년 몽고측의 진도에 대한 첩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이다. 진도정부는 몽고군의 대규모 공세를 목전에 두고 병력면에서도 상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일본과의 연대를 타개책으로 시도하였던 것이라 하겠다.<sup>22)</sup>

삼별초 정부의 반몽 연대 제의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은 애매한 것이었다. 일본은 고려 국내

21)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12, 1978 ; 柳永哲, 「高麗牒狀不審條條의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 1994. 石井의 논문은 필자가 「삼별초의 대일 통교사료」라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한 바 있다(『史郷』 2,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1985).

22) 삼별초 문서를 포함한 진도 삼별초 전반에 대해서는 윤용혁, 「삼별초 진도정부의 수립과 전개」 「삼별초의 진도항전」(『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참고.

정세의 최근의 변동에 대해서 거의 사전 지식이 없었고, 따라서 진도에서 보낸 편지의 진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허황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은 몽고의 침입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적인 대비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삼별초 침장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石井 씨의 소개와 해석 이래 여러 번의 검토가 있었지만, 삼별초의 대일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본 자료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자료에 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건 중 특히 당시의 대일관계상 직접 연관되는 것은 4, 5, 6번째의 문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4번째 문구에서부터 보기로 한다.

一. 今度狀 端ニハ 不從成戰之思也 奧ニハ 爲蒙被使云云 前後相違 如何

우선 문자 판독의 면에서는 ‘思’를 ‘由’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었다.<sup>23)</sup> 문건의 해석에서는 ‘不從成戰之思也’에 대하여 “따르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난다” 또는 “몽고의 일본 공격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된 바 있다. 그러나 ‘爲蒙被使’에 대해서는 앞의 문장과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前後가 相違’한 것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4)</sup> 그후 김윤곤은 위 문장의 내용을 “삼별초 정부에 일본이 군량과 원병을 보내라, 이 명령에 쫓지 않으면 일본과 몽고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일본은 ‘몽고에 부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sup>25)</sup>라고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不從’의 주체를 일본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은 삼별초에 대한 일본의 ‘不從’을 가정하고, ‘爲蒙被使’의 주체 역시 일본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류영철은 ‘부종성전’의 주체는 삼별초, ‘위몽피사’의 주체는 개경정부라는 전제하에서 위의 문건을 “(항복 출륙환도 등 몽고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삼별초와 몽고·개경정부 간) 전쟁이 이루어진 이유이다”, 그리고 ‘爲蒙被使’는 “(개경정부가) 몽고의 부림 당하는 바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일본 입장에서는 고려가 항복하였다고도 하고 몽고와 一戰을 決하게 되었다고도 하니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26)</sup> 한편 이영 씨도 류영철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27)</sup>

‘불심조조’의 문서 내용은 대체로 원래 침장 내용의 순서에 따라 메모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문건은 앞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서, 대략 지금까지의 경과 설명과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3) 柳永哲, 「『고려침장불심조조』의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994, 163-164쪽.

24)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 5쪽

25) 김윤곤,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지방 군현민」 『동양문화』 21·22합, 1981, 4-5쪽.

26) 류영철, 「『고려침장불심조조』의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994.

27) 李頌, 「『元寇』と日本・高麗關係」 『倭寇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103쪽.

따라서 미래형의 요구보다는 과거형의 설명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몽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우리(삼별초)는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고, 반면 개경측은 몽고에 복속되어 부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류영철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첩장 가운데 1270년을 전후한 고려에서의 정세 변동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개경정부에 대한 삼별초의 신정부 수립 등 당시 고려의 정세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 했던 탓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복속되어 부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전후가 맞지 않다는 혼동을 야기한 것이다. 이같은 일본 측의 혼선과 불명확한 인식은 ‘불심조조’에서만 아니라 한편으로 『吉續記』 기록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다.<sup>28)</sup> 고려에서 야기된 일련의 정세 변화를 일본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의 첩장의 文面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一. 漂風人護送事

일본측의 표풍인을 삼별초가 호송했다는 내용인데, 해석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원종 연간(1263년, 원종 4년 6, 7월) 고려 연해에서 일본측의 선박이 조난을 당하고 漂風인들이 고려측에 의하여 본국에 호송된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 되고 있다.<sup>29)</sup>

- 6월, 일본 官船大使 如眞 등이 불법을 배우려 송으로 가던 중 바람을 만나 승, 속 합하여 230인이 開也召島에 닿고, 265인은 군산도와 추자도에 머물렀다.
- 太宰府 少卿殿의 상선에 탔던 78명이 송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다가 바람을 만나 배를 잃고 小船으로 宣州 加次島에 정박하게 되었으므로, 전라도 안찰사에게 명하여 식량과 배를 주고 본국에 호송해 주었다.(6월)
- 7월(을사) 일본 상선 30인이 바람으로 표류하여 龜州의 艾島에 머무르므로 식량을 주어 (본국으로) 호송하였다.

이에 의하여 당시 고려 연안 해로에서 일본 선박의 해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른 표풍인의 호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선박들은 모두 남송과 왕래하던 일본의

28) “당시의 조정에서는 외교문서를 정확히 읽고 상대측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評定은 일본의 국가로서의 외조적 대응을 策定하는 중요한 회의라기보다는 高辻長成, 日野資宣, 藤原茂範 등 儒者들이 한문 독해 능력을 닦는 場이 되고버리고 있다.”(村井章介, 「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167쪽).

29) 『고려사』 원종 6월, 7월.

선박이며, 표류 혹은 정박 지점이 개야소도(서천, 현재는 군산시 개야도), 군산도(군산 선유도), 추자도, 가차도(평북 선천), 애도(평북 구성, 현재는 정주) 등 거의 서해 연안 남북 전역에 걸치고 있어 당시 일본의 대송 왕래가 강남으로의 직항로와 함께 한반도 연해를 북상하여 중국 연해를 돌아 남하하는 연안 항로가 여전히 이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과정에서 종종 해난사고가 서해 연안에서 야기되었고, 이들 표풍인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음을 말해준다.<sup>30)</sup> 1270년 삼별초 봉기 이후 서남해 연안을 삼별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서해 연안 표풍인 문제가 삼별초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류영철은 이 표풍인의 호송이 구태여 ‘불심조조’에서 언급되었던 이유는, 당시 삼별초에 의한 ‘표풍인 호송사’에 대한 사실을 막부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 하였다.<sup>31)</sup> 太宰府의 少卿殿 상선의 경우처럼, 당시 일본은 지방 영주, 혹은 사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상선을 파견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제반의 사실을 일본 정부 혹은 업무 담당자가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불심조조’에서 ‘표풍인’이라 한, 이 표풍인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1270년 삼별초 봉기 이후는 서해 연안이 일종의 전시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표풍인’은 순수한 표풍인이었다기 보다는 남해와 서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던 삼별초에 의하여 항해도중 구류된 집단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삼별초는 잠재적 연합세력인 일본과의 通好를 여는 방안으로 이들을 본국에 호송하였고, 따라서 일본측에의 첩장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여 언급하였을 것이다. ‘불심조조’에서 ‘표풍인 호송사’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 一. 屯金海府之兵 先二十許人 送日本國事

“김해부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중 먼저 20여 명을 일본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屯金海府之兵’의 정체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石井 씨는 이들이 몽고군 병사로서, 일본으로 가는 조양필 일행의 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일본에 보내진 병사라고 해석 하였다. 1271년 9월 19일 규슈의 今津에 도착한 당시 원사 趙良弼 일행의 사신단의 규모는 ‘100여 인’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sup>32)</sup> 이 문서에서 100명이 아닌 ‘20여 명’이라 한 것은

30) 60년 후인 1323년 寧波(明州)를 출발하여 博多를 향하던 무역선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도, 혹은 이 선박이 강남과 일본열도의 직항로가 아닌 고려 서해 연안해로를 이용 중이었던 것인지 모른다.

31) 류영철, 앞의 「고려침장불심조조」의 재검토, 168-169쪽.

그만큼 삼별초 측의 부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sup>33)</sup> 40여 명의 元使 조양필 일행이 고려에 당도한 것은 같은 해(1271) 정월(기묘일)의 일이었다. 忽林赤·王國昌·洪茶丘 등이 동행하였는데, 조양필 이외의 이들 휘하의 군사는 조양필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까지 금주(김해) 등지의 해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sup>34)</sup> 이는 원사 일행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함과 동시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압력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파견되는 몽고 사신 조양필 선발대로서의 몽고병사가 금번 삼별초의 사행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윤곤은 이 김해부의 병사를 몽고병이라 한 해석을 부정하고, 이 20명 군사가 ‘포로된 왜구’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류영철도 이 일본에 보내진 20명 병사가 김해를 침입했다가 포로된 왜구이며, 원종 12년(1271) 4월 삼별초가 금주를 습격했을 때 이를 탈취한 것이며, 이들 탈취한 왜구를 삼별초가 일본 본국에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屯金海府之兵’의 ‘屯’의 의미가 문제인데, 여기에서의 ‘둔’은 억류의 의미이며, “일본에 대한 외교적 의례로서 김해에 억류되어 있던 왜구들을 김해부의 둔병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다.<sup>35)</sup>

이영 씨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1271년 3, 4월의 금주 일대에 대한 삼별초의 대대적 공략을 주목하고 있다. 즉 이 시기가 대일본 첩장의 작성 및 발송시기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인데, 그는 첩장의 작성 시기를 원 세조의 조서를 진도에 가져온 박천주의 귀경 이후로부터 삼별초가 장흥부 등을 공격하여 남해 연안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는 2월 계묘일 사이로 추정하였다.<sup>36)</sup> 아울러 삼별초의 첩장이 보내진 후라고 할 수 있는 1271년 5월 조양필은 아직 개경에 머물러 있고, 조양필이 일본을 다녀올 동안 금주에 대기해 있어야 할 홍다구는 삼별초의 거점 진도 공격전에 투입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37)</sup> 조양필이 개경을 출발하는 것이 8월, 이들이 筑前國 今津에 도착한 것이 9월 19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기록을 원사 조양필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된다.

문자적으로 보아 김해부의 군사는 ‘김해부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이다. 류영철 등은 ‘둔’을 억류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역시 무리한 감이 있다. 이 때문에 ‘김해부의 군사’는 금주 주둔의 몽고군으로 처음 해석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들 ‘김해부 주둔의 군사’가 몽고군

32) 『五代帝王物語』, (續群書類從完成會本 3) 石井 논문에서 재인용.

33)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

34) 『고려사』 권27, 원종 12년 정월 기묘.

35) 류영철, 「고려첩장불심조조’의 재검토」, 169-170쪽.

36) 李領,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일본역사연구』 9, 1999, 65-67쪽.

37) 『고려사』 권27, 원종 12년 5월 정축 및 경인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李領, 위의 「여몽 연합군의 일본 침공과 여일관계」, 70-71쪽.

도 왜구도 아니라면, 이 김해부의 병사가 삼별초의 군사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영은 1271년 4, 5월 금주 일대에서의 왕성한 삼별초의 군사 활동이 남해도에 거점을 둔 유존혁 부대에 의한 것이었다고 추정하였다. 유존혁의 부대는 전통적인 고려·일본의 우호관계에 근거하여 일본과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 일대에 진출하였으나, 여몽연합군의 대공세를 앞둔 시점에서의 삼별초의 이같은 병력 분산이 진도 삼별초의 실패에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을 이영 씨는 개진한 바 있다.<sup>38)</sup>

진도 삼별초의 군사적 실패의 한 원인을 남해도 거점의 군사력 분산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진도 자체가 연안의 작은 섬으로서 여기에만 병력을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삼별초는 제주도에 배후를 설정하고 완도, 남해도 등 연안 여러 섬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지역 거점의 설정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만, ‘불심조조’에서 언급한 ‘김해부의 병사’는 아마 삼별초의 군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대일 사신단의 파견을 위한 삼별초의 사전 단계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것이 반드시 유존혁 휘하의 군사였을지는 역시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 一. 安寧社稷待天時事

이우성은 이에 대해 “天時가 돌아오면 사직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9)</sup> 즉 향후 정국에 대한 삼별초의 자신감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류영철은 “사직의 안녕이 천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다급하다”고 해석하였다.<sup>40)</sup> 이 해석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자는 이 구절을 “사직을 안녕케 하는 것은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즉 “사직의 안녕은 오직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위기 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보다는, 자신의 운명이 오직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서, 거대한 여몽연합군과 군사적으로 대결중인 삼별초 정부의 장엄한 결의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같은 삼별초의 운명이 한편으

38) 李頎, 앞의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74쪽 참조. 한편 진도정부의 급속한 몰락 배경, ‘김해부 주둔 병사’의 유존혁과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 배상현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배상현, 「삼별초의 남해항쟁」 『역사와 경계』 57, 2005, 105쪽 및 111쪽 참조.

39) 이우성, 「삼별초의 천도 항몽운동과 대일통첩」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185쪽.

40) 류영철, 앞의 「고려침장불심조조’의 재검토」, 171쪽.

로 일본의 운명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삼별초와 일본의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 정통정부를 자임하는 삼별초 정부의 수립을 알지 못하는 막부에서는, 이 같은 삼별초의 위기의식과 결연한 정세 판단과 각오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一. 請胡騎數萬兵事

이에 대하여 류영철 교수는 請軍의 주체는 개경정부이고, ‘胡騎 數萬’은 몽고군이라 하였다. 즉 개경정부가 대규모 몽고군을 끌어들이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41)</sup>

이에 대하여 배상현은 이것이 일본군 수만을 요청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sup>42)</sup> 문자적으로 볼 때 역시 ‘호기’는 몽고군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류영철의 견해대로 개경정부가 청군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고려정부와 연합한 대규모 몽고군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삼별초 정부와 고려정부에 대한 혼선에서 이해의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 생각된다. 삼별초는 이같은 사태가 자신들에 대한 위기인 동시에 향후에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 옮겨질 것임을 예고하였을 것이다.

삼별초의 대일 첩장은 일본과의 연대에 의하여 공동 대항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시의 배후 피란지 확보를 도모한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삼별초는 제주를 배후기지로써 확보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제주 이후의 배후 기지로서 일본 열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자 한다. 삼별초의 첩장에서는 몽고에 의한 고려의 복속 및 저간의 정세 변동과 관련한 간단한 상황 전달이 있었고 서남해 상에서 확보한 일본 상인 혹은 표풍인의 송환을 통하여 삼별초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끌어내려 하였다. 아울러 김해부 주둔의 삼별초 군사(20인 규모)를 먼저 파견하여 금번 일본에 대한 견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 측에서는 혹 일본 측이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필요하다면 진도에 대한 현지 확인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조정은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국제적 인식조차 결여되어 첩장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이를 묻어버리고 말았다. 심지어는 개경 측의 고려정부와 삼별초 정부 간의 구분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고려와 일본의 외교적 상호 관계가 소원했던 시대적 배경이 첩장의 처리에서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삼별초의 첩장 접수를 계기로

41) 류영철, 위의 논문, 171쪽.

42) ‘호기’의 ‘호’가 ‘오랑캐’의 지칭이 아니고 ‘戈戟’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호기’는 ‘갈 무장된 기병’을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다. 배상현, 「삼별초의 남해항쟁」 『역사와 경계』 57, 2005, 105쪽.

일본은 몽고의 위협을 현실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큐슈 방어전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된다.<sup>43)</sup>

#### 4. 오키나와와 삼별초

한국에서는 2007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의 오키나와 특별전을 계기로 오키나와 출토의 이른 바 ‘계유명’ 기와가 삼별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출품된 자료 중에는 ‘계유명’ 기와 이외에 삼별초의 거점이었던 진도 용장성 출토의 것과 매우 흡사한 연화문 와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계 기와는 9종류 32형식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sup>44)</sup> 그 가운데 특별히 ‘癸酉年 高麗瓦匠造’ 명문 기와는 제작자의 신원 및 제작 시기를 밝힌 기년명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 되어왔다. 5백년 고려 역사 가운데 이 계유년이 구체적으로 어느 연대를 지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1153년, 1273년, 1333년, 1393년 등이 제시되었으나,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대략 고려 원종 14년(1273)과 조선 태조 2년(1393)의 두 가지 설이 주로 논란이 되어 왔다.<sup>45)</sup>

우선 1273년 설은 우라소에성(浦添城)을 근거로 中山에 강대한 세력을 형성한 것이 유구왕국 英祖王의 치세라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sup>46)</sup> 여기에 세키구치(關口廣次)는 계유년 명문와와 14세기 전반 카츠렌성(勝連城 本丸터) 출토 古瓦와의 기술상의 연속성 내지 계승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영조왕의 1273년 설을 지지하였고<sup>47)</sup>, 오가와(大川 清) 역시 1273년 제작의 이 기와가

43) 조정에서 삼별초의 침장에 대한 논의 직후라 할 수 있는 9월 13일 막부에서 큐슈에 영지를 가진 동국의 御家人들에게 자신이 직접 내려가든가 대관을 급히 내려 보내도록 명하고, 이듬해 문영 9년(1272) 정월에는 큐슈의 御家人으로 하여금 연안을 경비하도록 守護에게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기학, 「중세 일본의 외교와 전쟁」 『동양사학연구』 80, 2002, 205쪽 참고.

44) 수막새 4종, 암막새 10종, 수키와 2종, 암키와 5종, 有段式 수키와 5종, 서까래 기와 1종, 귀면와 1종, 마루기와 1종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고려계 기와는 오키나와에 도래한 고려 장인에 의하여 처음 제작된 후 기술적 계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上原 靜, 「오키나와제도의 고려계 기와」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212쪽 참조.

45) 1153년 설은 田邊泰·巖谷不二, 『琉球建築』, 1935, 49쪽 ; 新城德祐, 『琉球歴史年表』, 1960 등에 언급되어 있으나, 근년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1333년 설은 고고학적 공반유물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는 않다.

46) 松本雅明, 『沖繩の歴史と文化-國家の成立を中心として』, 近藤出版社, 1971, 89쪽.

47) 關口廣次, 「沖繩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とその間の事情-勝連城本丸跡出土古瓦を中心として-」 『考古學雜誌』, 62-3, 1976.

유구왕국에 있어서 기와 제작의 시초라는 관점을 강조한 바 있다.<sup>48)</sup>

이상과 같은 1273년 설에 대하여 1393년 설은 『고려사』에 창왕 원년(1389)에야 비로소 琉球 고려 간 교섭의 기록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에 보여지는 琉球 왕의 고려에의 망명 등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어서 양국 교섭을 중시하여 문제의 계유년이 1393년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sup>49)</sup> 西谷 正 교수는 규슈대 소장의 또 다른 계유명 및 ‘大天’ 명문와 자료를 소개하는 한편 기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1393년 설에 기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으로 소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sup>50)</sup>

한편 계묘년 고려 기와에 대한 일본에서의 다양한 연대관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이형구,<sup>51)</sup> 최규성이 이 계묘년 고려기와를 삼별초와 연결하여 1273년 설을 강조한 바와 같이 거의 1273년 설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1273년은 고려 원종 14년에 해당하는데, 이는 제주도 항파두리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가 여원연합군에 의하여 완전 진압 당한 해이다. 즉 연합군에 쫓긴 제주 삼별초의 일부가 제주를 탈출, 국내 연안 혹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오키나와 유구왕조로의 귀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전제이다.

이러한 국내의 연대관에 비추어, 제주박물관의 특별전에 출품된 자료중 우라소에성의 연화문 수막새기와는 용장성에서 출토한 수막새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은행알을 연상시키는 9잎의 연꽃잎이 중심문양으로 전개되고 중앙에는 몽툰한 자방이 자리 잡았는데 자방과 연꽃 사이에 돌선대의 테두리를 둘렀다. 9엽의 연꽃 외곽으로는 2조의 선대를 두르고 선대 사이에 30여 알의 주문을 장식한 형태이다. 와당의 크기는 단축 16.0- 장축 21.0cm이다.<sup>52)</sup> 이 고려 와당이 국내에서 소개되는 것이 국내에서는 처음이거니와, 특히 그것이 삼별초의 거점이었던 진도 용장성 출토와와 흡사하다는 것은 오키나와 고려와의 1273년 제작설과 맞물려 크게 흥미를 일으킬만한 것이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 요오도레 출토의 것을 용장성 출토 와당과 세밀히 비교한다면 양자가 동

48) 大川 清, 「琉球古瓦調査抄報」琉球政府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要覽』, 1962, 115-120쪽).

49) 三島 格, 「琉球の高麗瓦など」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攷』, 1980, 789-795쪽.

50) 西谷 正, 「高麗·朝鮮 兩王朝と琉球の交流—その考古學的研究序說」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26, 九州大, 1981. 이 논문은 필자가 전문을 번역하여 충청문화재연구원 『금강고고』 4, 2007에 게재하였다.

51) “아마 이 시기에 제주도에서 연합군에 항거하던 삼별초와 그 가솔들이 유구 쪽으로 피난해 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이때 내류한 고려인들이 유구의 도성 조영사업에 참여하여 건축과 제와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이형구, 앞의 논문, 531쪽).

52)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유구왕국』, 2007, 134-135쪽 사진자료와 설명.

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 용장성의 것이 8엽인데 대하여 오키나와 기와는 연꽃이 9엽이라는 점, 꽃잎의 형태가 용장성의 것이 좀더 둥근 느낌을 주고, 외곽의 연주문도 용장성 쪽이 좀더 정리된 느낌을 준다는 점 등의 차이점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가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1271년 삼별초의 잔여 세력이 진도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잔여 세력의 일부가 제주도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일이다. 1273년 제주도에서의 경우는 진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수의 島外 분산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탈주한 삼별초 잔여세력은 다시 고려의 남, 서 연안의 도서로 회귀하여 목숨을 부지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보다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본 열도 방면으로의 필사적 탈주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일이다.

1274년 일본이 여몽연합군을 침입을 받고난 이후 큐슈에서는 연합군의 공격 대상이 되는 하카다(후쿠오카) 해안 일대에 20km 길이의 대규모 장성, 이른바 元寇防壘를 구축하였다.<sup>53)</sup> 해안에 석축의 장성을 쌓아 적을 막는다는 큐슈의 이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당시로서 이같은 석축의 관방 시설은 일본으로서 펍 생소한 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일본 원정 직전 여원군은 삼별초의 최후 거점 제주도를 함락한 바 있고, 이 제주도에는 해안을 둘러싼 장성이 삼별초의 방어 설비로서 구축되어 있었다. 제주도의 연안을 석축으로 둘러쌌었다는 이른바 ‘環海長城’의 존재가 그것이다.<sup>54)</sup> 현재 남겨진 제주도의 환해장성 유적은 왜구 등에 대한 필요 때문에 후대의 보축이 끊임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그 유적의 일부가 아직 제주도에 남겨져 있다. 몽고군의 침략을 석축의 방루에 의하여 저지한다는 ‘원구방루’의 아이디어가 제주도 연해를 석축으로 둘러친 환해장성과 동일한 발상이라는 것은 양자의 연관관계를 암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제주도 삼별초 세력의 일부가 큐슈에 상륙함으로써 제공된 아이디어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한국과 오키나와 양 지역 고려기와의 대한 보다 광범하고 정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며, 특히 造瓦의 기술적 측면이 세밀히 점검될 필요가 있다. 용장성, 항파두성 등 진도와 제주도의 항몽 유적은 오키나와 고려 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유적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전쟁사 혹은 민족항쟁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세 동아시아 교류의 국제적 측면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적 검토가 중요

53) 원구방루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개요는 川添昭二, 『蒙古襲來研究史論』, 雄山閣, 1977에 시기별로 연구사가 정리되어 있고, 지구별 현장 중심의 개황은 柳田純孝 등, 『元寇と博多—寫眞で讀む蒙古襲來』, 西日本新聞社, 2001, 27-52쪽이 좋은 참고가 된다.

54) 강창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1991.

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 맺는 말

본고는 1270년 강화도에서 봉기하여 진도, 제주도를 전전하며 1273년까지 활동하였던 삼별초에 대하여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삼별초의 대일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1271년 진도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첩장관련 자료(高麗牒狀不審條條)이다. 이에 의하면 당시 고려는 첩장을 통하여 몽고에 대한 복속 및 저간의 정세 변동과 관련한 간단한 상황 전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별초는 서남해에 대한 제해권을 기반으로 확보한 일본 상인과 표풍인의 송환을 통하여 삼별초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끌어내려 하였다. 아울러 김해부 주둔의 삼별초 군사(20인 규모)를 먼저 파견하여 금번 일본에 대한 견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측에서는 혹 일본측이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필요하다면 진도에 대한 현지 확인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조정은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국제적 인식조차 결여되어 첩장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이를 묻어버리고 말았다. 고려와 일본의 외교적 상호 관계가 소원했던 시대적 배경이 첩장의 처리에서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여몽연합군은 삼별초 진압 이후인 1274년에 일본에의 정역에 나섰지만, 만일 삼별초의 봉기가 없었다면 몽고는 더 일찍, 적어도 1-2년을 당겨 일본에 대해 무력적 방법에 의한 압박에 나섰을 것이다. 삼별초 봉기 이전의 대일 招諭 과정에서는 1266년부터 제1차 여원군의 일본침입 전년인 1273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사절이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1270년 한 해만 사절 파견을 거르고 있는데, 이 같은 1년의 休止는 삼별초의 봉기로 인하여 남부 연안 일대가 진도 거점 삼별초의 세력권에 포함된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별초의 대일 연합전선 추구는 기본적으로는 여원관계의 역사성과 지리적 인접성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처럼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일본에의 초유, 그리고 대일 정역을 염두에 둔 군선의 준비 등 일련의 상황이 삼별초로 하여금 일본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삼별초와 관련하여, ‘癸酉年 高麗瓦匠造’라는 글자가 찍힌 오키나와 출토와가 삼별초와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다. 기와의 계유년이 1273년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용장성의 것과 흡사한 와당의 존재는 이 문제의 기와가 제주도 혹은 진도 삼

별초와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이 점이 사실로서 확인되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많은 연구와 광범한 자료 검토를 필요로 한다.



# 蒙古의 日本 侵略과 日本의 對應

—高麗와 日本의 관계에 유의하여—

南 基 鶴

## 머리말

13세기 말 蒙古(1271년 이후 국호를 ‘大元’으로 바꾸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蒙古로 칭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元’이라 칭함)의 일본 침략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연계된 국제적 사건이었다. 이 전쟁은 蒙古·南宋·高麗·日本 각국의 국내사정과 각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에 연동되어 발발하였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의 국제정국은 크게 요동쳤다. 남송은 바야흐로 세계제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몽고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몽고에 복속한 고려는 두 차례나 일본 침략에 강제 동원되었다. 일본은 역사상 未曾有의 대외적 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의 존망을 걸고 그 대응에 고심하였다.

본고는 몽고의 침략에 대하여 일본이 外交上·軍事上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몽고의 의도와 정책, 몽고에 의해 동원된(혹은 동원될 처지에 놓인) 고려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일본의 대응방식과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사정을 두루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특히 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유의하고자 한다.

한편의 당사자인 고려는 일본을 초유하려는 몽고와 일본의 사이에서 어떤 입장에 놓였으며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고려는 일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일본은 몽고와 고려의 외교교섭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또한, 몽고의 일본 침략 전쟁과 관련하여 고려가 수행한 역할은 무엇이며, 일본은 몽고와 고려에 대하여 어떠한 군사행동을 취했는가? 전쟁을 겪으면서 고려와 일본은 상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몽고의 일본 침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의 성격은 물론, 이 시기의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분석 대상이다.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고려의 對蒙古抗爭에 역점을 두는 반면, 元의 干涉期 고려와 일본의 관계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근년 일본 학계에서는 몽고의 침략에 대응한 국내 정치사 분석이 중심이고, 국제관계라고 해도 일본과 대륙의 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 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이해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 1. 蒙古의 日本 招諭와 日本의 對應

### 1) 蒙古의 日本 招諭의 전개

蒙古는 제1, 2차 일본 침략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外交交渉을 시도하였다. 사실, 蒙古의 일본에 대한 정책은 外交交渉(=日本招諭)과 武力解決(=日本遠征)의 두 축으로 전개되었다. 이 양면 정책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비중이 바뀌긴 했지만, 蒙古가 일본에 대해 함께 사용한 기본정책이었다. 蒙古는 군사적 수단 못지 않게, 아니 그것에 앞서서 가능하다면 외교적 수단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蒙古의 對日交渉의 전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한다.

1274년 제1차 일본 침략 이전 蒙古는 모두 6회(1266.8 未到着, 1268.1, 1269.3, 1269.9, 1271.9, 1272.5)에 걸쳐 일본 초유를 시도하고 있다. 1268년 1월에 도착한 최초의 蒙古國書는 ‘大蒙古國皇帝’가 ‘日本國王’ 앞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高麗가 蒙古에 ‘來朝’한 것을 알리고 고려와 인접한 ‘小國’ 日本이 蒙古에 ‘通好’=朝貢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미에는 “兵力을 사용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라고 군사적 위협을 비추고 있었다.<sup>1)</sup> 이 국서는 元代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을 臣下로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으며 사뭇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sup>2)</sup> 國書의 문면상 蒙古는 일본과의 원만한 교섭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단계에서 蒙古의 日本 招諭의 의도에 대해서는 南宋 征伐의 일환이었다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蒙古는 南宋의 襄陽城 공격(1268-1273)을 전후하여 日本 招諭를 시도하

1) 至元3年(1266) 8月 蒙古國牒案, 『鎌倉遺文』 13卷 9564號.

2) 國書의 末尾에는 ‘不宣’으로 맺고 있는데, 元代의 『國朝文類』(卷41, 征伐, 日本)에 의하면 ‘不宣’은 “臣下로 여기지 않음을 말한다”고 하고, 이 國書 전반에 대해서 “文體가 정성스럽고 謙讓의 의사가 簡冊에 넘친다”라고 평하고 있다.

고 있으며, 그 목적은 海上으로 연결된 남송과 일본의 통교관계를 끊어 남송을 고립시키기 위함이었다. 수 차의 사신 파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회답이 없자 蒙古의 쿠빌라이는 1270년 11월, 일본 원정 준비에 착수하여 고려에 屯田兵을 파견하고 있다.<sup>3)</sup> 하지만 마침 고려에서 일어난 三別抄의 반란(1270-1273)으로 인해 그 실행이 불가능했으며, 1273년 4월 삼별초를 평정함으로써 저해요인이 사라지자 전열을 정비, 그 이듬해에 일본 침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sup>4)</sup> 1274년은 5년간에 걸친 襄陽城 공략이 성공한 직후이자 바야흐로 蒙古가 남송의 본토에 본격적으로 침공하려는 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1차 일본 침략은 실은 같은 해에 일제히 개시되었던 남송에 대한 全面 進攻作戰의 일환이었다. 즉 일본의 군사적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남송에 대한 총공격의 측면 작전으로서 남송과 일본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武力示威 내지 武力偵察이었다.<sup>5)</sup> 이때의 원정군은 蒙古人·漢人(舊金朝人)·高麗人 등으로 구성된 3만 수 천의 병력<sup>6)</sup>으로, 九州 博多에서의 전투 다음날 기상악화도 겹쳐 그대로 철수하고 있다.

제1차 침략 이후 蒙古는 1275년 4월과 1279년 6월 2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 초유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蒙古는 실제의 군사적 위협에 의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1275년의 사신은 일본과의 전투후 고려에 귀환한 1274년 11월에서 불과 세 달 후인 1275년 2월에 결정되었고, 1279년의 사신으로는 蒙古에 항복한 남송의 사신과 일본인 유학승을 함께 파견하는 등 남송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蒙古는 사신 일행이 다음 해 1280년 4월까지 돌아와 일본의 태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 후에 출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2회의 사신 일행을 모두 참수하였고, 그 사실은 뒤늦게 蒙古側에 알려져 2차 침략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sup>7)</sup>

1281년 蒙古의 제2차 일본 침략은 남송 정벌이 성공한 후, 日本側의 사신 처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다. 원정군은 蒙古·漢人·高麗 이외에 항복한 南宋의 군사를 포함하여 14만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sup>8)</sup>으로 1차에 비해 약 5배에 달했으며, 일본에 屯田軍을 설치할 계획

3) 旗田巍, 『元寇—蒙古帝國の内部事情』, 中央公論社, 1965, 90-91쪽.

4)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同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161-163쪽.

5)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 陸と海の巨大帝國』, 角川書店, 1992, 249-250쪽. 石井進, 『鎌倉びとの聲を聞く』, 日本放送出版協會, 2000, 56-57쪽.

6) 『元史』·『高麗史』 등의 사료와 여러 관련 연구들은 원정군의 규모에 대하여 각각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투요원만 약 2만 6천(蒙漢軍 2만, 高麗軍 약 6천), 고려의 사공〔梢工〕·수부〔水手〕 6,700의 총 3만 2천~3만 3천이 동원되었다고 본다. 그 이외에 元으로부터 별도로 사공·수부가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京, 東洋文庫, 1931, 126~127쪽 참조). 현재로서는 不明이다.

7) 相田二郎, 『蒙古襲來の研究 増補版』, 吉川弘文館, 1982, 24-27쪽 참조.

이었음에 비추어 蒙古는 일본(적어도 그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정복·지배까지 고려한 듯하다.<sup>9)</sup> 蒙古의 쿠빌라이는 1266년 당시 일본에 대해서 ‘不臣’의 朝貢國으로서의 국교 개시를 요구했지만 일본의 無回答으로 인해 무력행사로 이어졌고, 사신의 처형에 의해 1279년 중국통일 후에는 정복에 의한 屬領化를 노리거나 적어도 君臣關係의 설정을 의도했다고 보인다.<sup>10)</sup>

대대적인 제2차 일본 침략이 태풍으로 인해 실패한 이후에도 쿠빌라이가 1282년, 1284-85년, 1292-1293년에 걸쳐 제3차 일본 침략을 집요하게 기도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1)</sup> 그러나 쿠빌라이는 오로지 무력해결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며, 종래대로 수 차례 사신을 보내어 일본의 초유를 꾀하고 있다. 제2차 일본 침략 후 蒙古의 일본에 대한 사신 파견은 1283년 8월의 如智·王君治, 1284년 5월의 如智·王積翁, 1292년 10월의 고려사신 金有成·郭麟, 1299년 3월의 禪僧 一山一寧 등 총 4회에 달한다. 또한 1292년 7월, 귀국하는 日本商船에 기탁한 燕公楠의 첩장을 포함하면 蒙古는 모두 5회의 일본 초유를 꾀한 셈이다. 이 가운데 처음 2회는 일본에 도착하지 않았고, 燕公楠의 첩장은 무시되었으며, 金有成은 억류되었고, 마지막 一山一寧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억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쿠빌라이는 제3차 일본 침략의 기도가 중국 강남 각지의 반란, 베트남의 저항, 蒙古帝國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좌절되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정복·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외교교섭 쪽에 보다 중점을 옮겨갔던 것 같다.<sup>12)</sup> 1294년 쿠빌라이가 사망한 후에도 蒙古는 1299년, 成宗이 국서를 보내 일본 초유를 시도하고 있다. 이때의 蒙古國書는 書式上 쿠빌라이가 최초로 보낸 국서와 유사하며, ‘先皇의 遺意’를 받들어 일본에 대하여 ‘通問’을 요구한다는 취지이다.<sup>13)</sup> 쿠빌라이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종도 일본이 ‘不臣’의 조공국이 되는 형태로 원만히

8) 고려에서 출진한 東路軍은 약 4만(高麗軍 1만, 高麗의 水手 약 1만 7천, 蒙漢軍 1만 수 천), 중국에서 출진한 江南軍은 10만이었다. 특히 江南軍 10만을 태운 3,500척의 大艦隊는 外海를 항해한 함대로서는 인류사상 최초의 超大型 함대였다고 알려진다.

9) 日本遠征軍의 모습이나 당시의 전황이 상세하게 묘사된 『八幡愚童訓』(甲本)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여 거주에 필요한 생활용구와 경작하기 위한 쟁기·괘이까지 가지고 왔다”고 기술되어 있다(『日本思想大系』 20 『寺社緣起』, 岩波書店, 1975, 190쪽).

10) 中村榮孝, 「十三·四世紀の東亞情勢とモンゴル襲來」, 『岩波講座 日本歴史』 6 中世2, 1963, 42쪽.

11) 旗田巍, 『元寇』, 147-172쪽 참조.

12) 1292년 8월에 고려의 세자가 입조했을 때, 쿠빌라이는 그 자리에서 일본 침략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으나, 이번의 침략 준비는 종전과 달리 고려에만 명령했을 뿐 중국 내부에서 행한 흔적이 없다(旗田巍, 『元寇』, 167쪽). 중국인의 반항을 경계한 탓도 있겠지만, 침략의 목적이 적어도 이 단계에 이르면 일본의 來服을 촉구하는 데 있었음을 강력히 추측케 한다.

13) 첫머리에 ‘大元皇帝 致書于日本國王’이라 하고 말미에 ‘不宣’이라 적고 있다(大德3年(1299) 3月 元國王書狀寫, 『鎌倉遺文』 第25卷 19324號).

국교를 맺을 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한 해 전인 1298년, 성종은 일본 침략의 건의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기각했었는데,<sup>14)</sup> 실제 그 후 성종이 일본 침략을 준비한 흔적은 없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쿠빌라이의 晩年 혹은 성종 즉위 후 蒙古의 외교교섭에 대해서 일본이 냉정하고 사려깊게 대처했다라면, 일본은 ‘臣事’이든 ‘不臣’이든 蒙古의 朝貢國이 되는 것으로 그치고,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적었던 침략의 압박과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부는 멸망에 이르기까지 외교교섭을 거부하고, 蒙古에 대한 방어체제를 고수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본은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蒙古의 사신들을 처형 혹은 억류하는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sup>15)</sup> 이 점은 蒙古의 침략군을 끝내 물리친 안남(安南 : 베트남 중부·북부)과 점성(占城 : 베트남 남부의 참파 champa)이 나중에는 스스로 쿠빌라이 정권에 入朝하여 종속관계를 맺은 사실<sup>16)</sup>과 대조적이다. 그런 편이 蒙古의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정치적·경제적으로 이로운 점이 많았던 것이다.<sup>17)</sup> 일단 入朝하면 쿠빌라이는 다시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 2) 高麗 朝廷과 三別抄의 對日交涉

1266년 11월, 쿠빌라이는 일본 초유를 위해 蒙古의 사신 黑的을 고려에 파견하면서 일본으로의 길 안내를 명하였다.<sup>18)</sup> 이에 고려는 다음해 1월 宋君斐·金贊 등을 黑的과 동행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巨濟島에 이르러 바람과 파도가 험한 것을 이유로 開京으로 귀환해 버린다. 그러자 고려 국왕 元宗은 黑的이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宋君斐를 함께 쿠빌라이에게 파견하여 “對馬島의 풍속이 頑迷하고 禮儀가 없기” 때문에 사신의 渡日이 위험한 것, 그리고 “일본은 본디 小邦과 일찍이 通交한 일이 없고, 다만 對馬島人이 때때로 무역 때문에 金州를 왕래할 뿐이다”고 보고하였다.<sup>19)</sup> 그러나 이는 쿠빌라이의 큰 노여움을 사서 고려는 이후 일본 초유의 사명을 직접

14) 『元史』卷208, 「外夷列傳」日本傳, 大德2年(1298).

15)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元의 使臣을 살해 혹은 억류하거나 모욕을 가했지만, 일본과 같이 그 후에도 스스로 외교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片倉穰, 「蒙古の膨脹とアジアの抵抗」,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史』IV, 東京大學出版會, 1992, 101쪽).

16)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 255-256쪽.

17) Morris Rossabi,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218.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 256쪽.

18) 『高麗史』卷26, 「元宗世家」元宗7年(1266) 11月 癸丑條.

19) 同, 元宗7年(1266) 11月 丙辰條, 元宗8年(1267) 1月條.

깊어지게 된다. 1267년 8월, 黑的 일행이 쿠빌라이의 명령을 담은 詔書를 가지고 재차 고려에 오자<sup>20)</sup> 宰相 李藏用은 黑的에게 서신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舊來의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때때로 相通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찍이 중국에 職貢한 일이 없었고, 중국도 또한 “오면 이를 慰撫하고 가면 관계를 끊었다. 이를 얻어도 王化에 이익이 없고 버려도 皇威에 손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일본을 방치해 두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隋文帝 때의 예를 들어 일본은 “교만하고 명분을 알지 못하는” 나라이므로 일본에 국서를 송달하는 것에 대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 득책이다”고 권고한다. 결론적으로 李藏用은 ‘바다 멀리 있는 것’을 믿고 蒙古에 ‘入朝’하지 않는 일본을 내버려두고, “세월을 기약하고 일본이 하는 것을 두고 보다가, 중국에 오면 內附를 권하고 오지 않으면 度外에 두어서 일본이 어리석게 외딴 곳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21)</sup>

이것에 대해서 『高麗史』에서는 “(李)藏用은 일본이 畢竟 오지 않아 장차 우리나라에 累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은밀히 黑的을 설득하여 그 일(일본 초유)을 중단토록 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고려의 ‘累’란 바로 蒙古의 일본 원정에 고려가 동원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태를 우려하여 국서를 보내지 않는 것이 得策이라고 黑的에게 力說한 것이었다. 이장용의 일본 인식은 전술한 元宗의 그것과 동일하다. 元宗은 또한 1271년 3월 쿠빌라이에게 올린 표문 속에서 “그(일본) 풍속이 頑疾하고 깊은 사려가 없다”<sup>22)</sup>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 국왕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일본은 한낱 島夷일 뿐이다”<sup>23)</sup>고 한 忠烈王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고려가 당초부터 쿠빌라이에 대한 비협력적인 태도를 취한 배후에 이와 같은 고려 조정의 일본 인식이 개재해 있던 것은, 일본 초유를 위한 고려의 對日交涉 자세를 통해 반증된다. 1268년 1월, 일본에 파견된 고려 사신 潘阜는 九州의 大宰府 앞으로 서신을 보내,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예부터 敦睦했던 것을 들고 그 오랜 우호 관계를 위해 이전 蒙古使臣(黑的)의 渡日을 막았던 것을 ‘貴國을 향한 我國의 뜻’의 반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 황제 국서의 의미는 귀국과 通好하는 것 이외에 결코 다른 말이 없다”고 하고, 蒙古國書와 高麗國王書를 직접 日本國王에게 전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가 지참한 高麗國王書에서는 蒙古 皇帝의 ‘日本 通好’ 요구는 “貢獻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無外의 이름을 天下에 드높이기 위한 따름이다”고 하면서 “一介의 使臣을 파견하여 가보게 할 것”을 권하고 있다<sup>24)</sup>.

20) 同, 元宗8年(1267) 8月 丙辰條.

21) 『高麗史』 卷102, 「列傳」 15, 李藏用.

22) 『高麗史』 卷27, 「元宗世家」 元宗12年(1271) 3月條.

23) 『高麗史』 卷28, 「忠烈王世家」 忠烈王 4年(1278) 7月 甲申條.

고려 국왕의 국서와 고려 사신의 書狀은 고려와 일본 양국의 우호 관계와 그에 입각한 일본에의 배려를 강조하고, 蒙古國書에 대해 예상되는 일본의 의혹과 반발을 무마하여 蒙古의 조공 요구에 응하도록 일본을 설득하는 데 진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려의 자세는 전술한 일본 인식, 즉 “교만하고 명분을 알지 못한다” 혹은 “풍속이 완질하고 깊은 사려가 없다”는 日本=‘小夷’·‘島夷’觀과 모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인식이 근저에 있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본과의 외교교섭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蒙古 使臣의 渡日과 蒙古國書의 送付를 어떻게든 막으려 했지만, 쿠빌라이의 명에 의해 일본 조유의 사명을 짊어지게 된 고려는 전쟁의 사태를 未然에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외교적 설득 내지 회유로 전환했던 것이다.

蒙古國書는 朝貢인가 아니면 戰爭인가라는 兩者擇一을 일본에 강요하고 있었고, 고려가 일본에 대해서 위와 같이 蒙古의 의도를 설명한 것은 蒙古國書에 대한 강한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고려 조정은 기본적으로 ‘島夷’ 日本이 유연한 국제적 현실감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고려 나름의 외교적 노력은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潘阜 일행은 大宰府의 냉담한 대우를 받고 그대로 귀국하였고,<sup>25)</sup> 日本側은 후술하듯이 蒙古國書가 “禮를 결여했다”고 하여 返牒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蒙古의 일본 침략 사태를 원치 않는 고려 조정의 입장은 고려가 兵站基地로서 떠안게 될 무거운 부담이 예상되었던 것에 의한다. 그렇지만 일단 일본 원정이 불가피해지면, 고려는 가급적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거나 혹은 그 부담의 댓가로서 원정군 안에서의 자국의 지위 향상에 힘쓰게 마련이다.

제1차 일본 침략 이듬해인 1275년, 2차 원정에 응할 수 없는 고려의 곤궁한 상태를 호소했던 忠烈王이 1278년, 돌연 일본 원정을 자청하고<sup>26)</sup>, 1280년에는 軍糧·兵力·水手 등 軍備부담의 한계를 역설하는 한편 고려의 장군 金方慶이 元師府에 참여하여 公事を 주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sup>27)</sup>은 그 단적인 예이다. 제1차 원정 당시 소극적으로 회피하려 했던 고려가 제2차 원정에서는 元의 일본 원정 의지를 도와 일본을 元에 복종시켜 자국의 소모를 줄이려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sup>28)</sup> 그 배후에는 蒙古의 제2차 원정이 필연시되고 고려의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었

24) 至元五年(1268) 正月日 高麗國牒狀案, 『鎌倉遺文』 13卷 9845號. 1292년 金有成이 일본에 가져온 고려국서에서도 “귀국은 멀리 海外에 있으니 다만 사신을 보내 入朝한 한다면 결코 어떠한 후환도 없을 것이니 잘 참작하기 바란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다(『高麗史』 卷30, 「忠烈王世家」 忠烈王 18年(1292) 10月 庚寅條).

25) 『高麗史』 卷26, 「元宗世家」 元宗9年(1268) 7月 丁卯條.

26) 『高麗史』 卷28, 「忠烈王世家」 忠烈王4年(1278) 7月 甲申條.

27) 『高麗史』 卷29, 「忠烈王世家」 忠烈王6年(1280) 11月 己酉條.

던 것이다.<sup>29)</sup>

더욱이 이러한 고려의 태도 변화를 두고서 고려에게 심각했던 倭寇 문제를 元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 했다는 해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sup>30)</sup>, 찬성할 수 없다. 倭寇의 피해가 한층 심각해지는 1320년대 이후, 나아가 본격적인 倭寇로 전개되는 1350년대 이후에 고려가 蒙古의 일본 원정을 바라 흔적은 전혀 없는 데다가 고려는 어디까지나 和親的 입장을 취하며 외교 절충에 의한 倭寇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일본 원정의 최대 피해자는 고려였으며, 그 피해는 13세기 당시의 왜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막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 조정의 입장이 본래 蒙古와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데 있었다면, 그와는 반대로 일본과 연대하여 蒙古에 대한 抗戰을 기도하는 고려 국내의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고려 武臣政權의 중추로서 對蒙古抗戰의 중심이었던 三別抄이다. 근년 일본에서 발견된 「高麗牒狀不審條條」라는 古文書에 의해 알려지듯이, 삼별초는 1271년 5월 珍島 함락 직전, 일본에 대하여 군사 원조와 연대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通牒하였다.<sup>31)</sup> 통첩에 임하여 일본에 표류민을 호송하거나 예물을 보내는 등 友好的·儀禮的 조치를 취한 것도 공통의 敵에 대한 同盟關係 결성의 한 포석이었다. 조정이 예부터의 우호관계를 내걸고 蒙古에 入朝하도록 외교적 설득에 힘썼다면, 진도의 삼별초 정부는 동일하게 일본과의 우호를 표시하면서 對蒙古抗戰을 위한 군사 동맹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별초는 조정과 다를 바 없는 고려의 정통왕조로서 자임하고 있으며, 또한 1260년대에 倭寇와 적대한 경험이 있고 왜구의 피해가 많았던 南海地域 민간의 지지를 얻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을 夷狄 혹은 寇賊으로 보는 관념에서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별초는 아마도 對蒙古 連帶鬭爭을 전개하는 데 有用한 ‘오랑캐로서 거칠고 倭寇로서 海戰에 능숙한’ 국가로서 일본을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려 정부와 삼별초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고려와 蒙古를 한 통속의

28) 中村榮孝, 「文永·弘安兩役間の國際政局—日本・モンゴル間の高麗—」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東京, 吉川弘文館, 1965, 72쪽 이하, 川添昭二,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上) 『福岡大學總合研究所報』 147, 1992, 87쪽.

29) 1278년에 충렬왕이 상주문을 올린 배경에는, 이전에 명령받았던 화살의 제조가 1277년 1월에 끝난 상태에서 2차 일본 원정을 피할 수 없다는 왕의 판단과 함께, 당시 고려의 남쪽 반을 元에 귀속시키려 하던 洪茶丘의 책동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池內宏, 『元寇の新研究』, 200~201쪽 참조).

30) 川添昭二,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上), 87.

31)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三別抄の日本通交史料の紹介—」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12, 1978 ;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164~166쪽.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sup>32)</sup> 삼별초의 통첩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정부 당국자는 이를 무시했을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건전한 양국 관계 발전의 가능성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몽고의 일본 침략 이전에 외교적 해결을 꾀한 조정의 시도이든, 반대로 군사적 동맹을 모색한 삼별초의 시도이든,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고려와 일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향후 동아시아 속에서 양국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었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고려 조정의 설득에 임할 만큼 유연한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있지 못했으며, 또한 삼별초와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할 만큼 고려의 국내사정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능력도 결여하고 있었다.

### 3) 일본의 대응

일본은 蒙古가 두 차례 침략을 전후하여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즐기치게 시도했던 외교교섭을 모두 무시하였고, 전쟁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려의 권유와 설득에도 불응하였으며, 일체의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蒙古에의 연대 투쟁을 호소하는 삼별초의 통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일본은 외교상 ‘無對應’으로 일관하였던 셈이다. 그 배후에는 어떠한 국내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 국내에서는 蒙古의 강대한 세력과 대륙에서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적어도 蒙古國書가 到來한 당시에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蒙古國書가 도래하자 公家·武家が 보인 당혹과 위기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일은 국가의 珍事이자 大事이다. 만인이 경탄할 수밖에 없다”<sup>33)</sup>든가 “이것(첩장)을 보고 公家和 武家が 크게 놀라 返牒을 보내야 할지 아닐지, 牒使를 목베어야 할지 아닐지 諸道の 의견서와 公卿의 僉議가 분분하였다”<sup>34)</sup>는 말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民間에서도 “당시 天下無雙의 놀라운 일은 다만 이 일뿐이다”<sup>35)</sup>라고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0세기 이후 오랜 동안 주변 국가와 국교를 맺지 않고, 국제적 긴장상태에 놓인 일이 거의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鎌倉幕府는 九州의 大宰府로부터 보내온 蒙古國書를 高麗國書와 함께 京都 朝廷의 後嵯峨

32) 文永8年(1271) 9月 15日 祈願文, 『鎌倉遺文』 第14卷 10880號.

33) 『深心院關白記』 文永5年(1268) 2月 8日條(『大日本古記録 深心院關白記』, 岩波書店, 1996).

34) 『八幡遇童訓』, 『伏敵編』 卷1, 15쪽.

35) 至元5年(1268) 正月日 高麗國牒狀案, 『鎌倉遺文』 第13卷 9845號.

上皇에게 올리는 동시에, 1268년 2월 蒙古에 대한 경계령을 西國地方의 御家人들에게 내리고 있다.<sup>36)</sup> 여기에 원칙상 조정이 外交權을 장악하고 대외적으로 國王〔天皇〕으로서 일본을 대표하고 있던 것, 그리고 幕府가 日本國의 守護를 본래적인 職務로 하는 軍事權門<sup>37)</sup>으로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막부는 경계령에서 “蒙古人이 凶心을 품고 本朝를 엿보려고 牒使를 보낸 것이다”<sup>38)</sup>고 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幕府가 애당초 蒙古國書의 到來를 侵略의 前兆로 받아들였다는 견해<sup>39)</sup>가 있지만, 이런 경우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경계태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蒙古國書에 처음 접한 公家貴族들은 後嵯峨上皇이 주재하는 院評定에서 ‘返牒의 有無’를 둘러싼 논의를 거듭한 끝에 “蒙古國書가 禮를 缺하고 있어서 회답하지 않는다”<sup>40)</sup>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의 방침은 1269년 9월 제 4회 사신이 온 것을 계기로 바뀐다. 조정은 이번에는 返牒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 취지는 종래 중국과의 通好가 中絶되었기 때문에 蒙古의 通好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과 함께, 蒙古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그 不義를 호소한다는 것이었다.<sup>41)</sup> 菅原長成가 기초한 文永 7년(1270) 정월 일자의 「贈蒙古國中書省牒」은 日本國太政官으로부터 蒙古의 中書省 앞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귀국과는 일찍이 인물의 교통이 없었으니 본조가 어찌 好惡가 있겠는가. 由緒를 돌아보지 않고 凶器를 사용하려고 하니 和風이 다시 불어도 疑水이 여전히 두텁다. 어찌 帝德仁義의 경지를 칭하면서 民庶殺傷의 근원을 열려고 하는가”<sup>42)</sup>라는 道義的 비판의 색채를 띤 것도 그 때문이었다. 조정은 이러한 返牒을 작성하여 막부에 보냈으나 막부는 이것을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여기서 조정은 왜 返牒을 보내려 했고, 막부는 왜 그것을 억류했는가 검토 대상이 된다.

조정의 ‘返牒’은 실은 어떻게든 蒙古와의 전쟁을 회피하려는 公家側 의도의 발로였다. 1271년 9월 제 5회 사신 趙良弼이 일본에 와서 회답을 요구하며 “오는 11월을 기한으로 여전히 회답이 없으면 兵船을 보내겠다”는 最後通牒을 발했을 때, 조정측은 “사태가 몹시 급하게 되었다. 일이 중국에 이르렀으니 탄식할 만하다”라고 당황해하며 막부가 억류했던 예전의 返牒 초안을

36) 龍肅, 『蒙古襲來』, 至文堂, 1959, 27-31쪽.

37) 黒田俊雄, 「中世の國家と天皇」, 『岩波講座 日本歴史』 6 中世2, 1963 (同, 『日本中世の國家と宗教』, 岩波書店, 1975, 수록).

38) 文永5年(1268) 2月 27日 關東御教書, 「追加法」436(佐藤進一·池内義資編, 『中世法制史料集』 第1卷, 岩波書店, 1955, 227쪽).

39) 川添昭二, 『蒙古襲來研究史論』, 雄山閣出版, 1977, 27쪽.

40) 『深心院關白記』 文永5年(1268) 2月 8日, 10日, 14日, 17日, 19日, 25日, 26日條 및 『鎮西要略』 文永5年條, 『伏敵編』 卷1, 31쪽.

41) 蒙古來使記錄, 『鎌倉遺文』 第14卷 10380號.

42) 贈蒙古國中書省牒, 『本朝文集』 67, 『伏敵編』 卷1, 39쪽.

약간 수정하여 서둘러 보내려 하고 있다.<sup>43)</sup> 1269년 말 조정이 返牒을 보내기로 한 것도 동년 2월 對馬島에 도착한 제3회 사신들과 島民과의 충돌,<sup>44)</sup> 그때 잡아간 島民 2인을 송환하면서 회답을 요구하는 등 蒙古의 거듭된 ‘尋問’<sup>45)</sup>에 따라서 對外的 危機意識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조정은 蒙古의 통호 요구는 완곡히 거절하면서도, 전쟁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강구한 것이었다.

조정은 이와 동시에 고려에 대해서도 「大宰府守護所牒」을 보내려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지난번 사신과 對馬島民과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정중히 사과하고, 使行의 어려움에 대해 동정을 표하며 식량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등 매우 宥和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sup>46)</sup> 일본 국내에서 이 返牒을 ‘和親’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sup>47)</sup>은 단순한 誤傳이 아니라, 이 返牒이 외교적·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했던 것에 기인한다. 요컨대 조정측은 몽고·고려와의 외교교섭을 통해 전쟁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며, 返牒에 대한 蒙古側의 반응을 살피려 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막부는 왜 조정이 보내려 한 返牒을 억류했던 것일까? 조정의 返牒 방침에 대한 막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국 “(蒙古)牒狀의 体が 無禮하므로 返牒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신을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전해진다.<sup>48)</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막부가 ‘牒狀의 体’를 문제삼고 있는 점이다. 이것을 전통적인 國際意識이나 慣習에 의한 태도<sup>49)</sup>로 보는 것은, 그러한 意識의 張本인 조정이 返牒을 택한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또한 軍事·警察을 담당하는 정권으로서의 ‘武斷的·劃一的’ 태도<sup>50)</sup>의 반영으로 보는 것은 막부의 狀況認識을 度外視하는 武人體質論의 평가에 가깝다. 그밖에 당시 南宋側으로부터의 情報나 民族主義的인 중국 禪僧들의 宗教思想의 영향을 지적하는 견해<sup>51)</sup>도 있으나, 朝廷側도 그러한 情報와 思想을 접한 흔적이 있다<sup>52)</sup>.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의 政治體制 즉 朝廷과 幕府의 관계 및 幕府權力의 성격

43) 『吉續記』 文永8年(1271) 10月 24日條.

44) 『五代帝王物語』 龜山, 『新校 群書類從』 第2卷.

45) 『師守記』 貞治6年(1367) 5月 9日條 ; 『史料纂集 師守記』 第9.

46) 贈高麗國牒, 『本朝文集』 67, 『伏敵編』 卷1, 39-40쪽.

47) 조정의 ‘반첩’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첩을 보내며, 또한 화친을 해야 한다고 한다”(文永7年(1270) 5月 26日 東嚴慧安敬白文, 『鎌倉遺文』 第14卷 10630號)라는 巷說이 퍼진 것도, 기본적으로는 ‘반첩’이 외교적·평화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던 것에 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48) 『五代帝王物語』 龜山.

49) 田中建夫, 「東アジア通交關係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9, 岩波書店, 1970, 543쪽.

50)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168쪽.

51) 川添昭二, 『中世九州の政治と文化』, 文獻出版, 1981, 110-111쪽.

52) 京都의 正傳禪寺 주지인 東嚴慧安은, “蒙古國은 性情이 교만합니다. (중략) 삼가 敵國의 원래 의도를 생각컨대, 일본의 군병을 몰아 여러 나라의 국토를 항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조정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에게 제출하고 있다(東嚴慧安意見狀, 『鎌倉遺文』 第14卷 10559號).

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蒙古國書는 어디까지나 ‘日本國王’인 天皇 앞으로 보내진 것이고, 막부가 그것을 조정에 上奏하여 중대한 國際事件에 대한 대응을 (설령 형식적이라고 해도) 맡긴 것은 朝廷(天皇)의 存在意義가 대외적 위기 속에서 확인된 것을 뜻한다. 조정의 ‘返牒’은 국가 통치권자로서의 당연한 권한의 발동이고, 국가의 重大事를 스스로 담당하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막부에 의해 억류되었지만, 조정이 막부의 의사와는 별도로, 아니 그것에 反하면서까지 ‘返牒’을 보내려 한 것은 對外問題를 계기로 하여 조정의 爲政者意識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53)</sup>

대외적 위기상황하에서의 조정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방침이 어떻든 外交面에서 막부의 主導權을 제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만일 返牒을 계기로 蒙古의 사신과 첩장이 도래하여 조정과 蒙古의 접촉이 활발해지게 된다면 막부가 고립화될 우려도 있다. 그 때문에 막부는 조정의 외교권 발동을 억제하고, “牒狀이 무례하므로 返牒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大義名分에 입각한 강경한 정책을 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 名分論的 強硬策은 조정의 ‘返牒’ 즉 ‘外交權의 發動’을 억지하는 데 정당성을 제공하고, 軍事權門인 막부가 武力에 의한 國家守護를 내세워 外交上的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효했을 것이다. 蒙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의 논리적 귀결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武家에게 賦課하십시오. 武家は 朝家の 第一의 重寶입니다”<sup>54)</sup>라는 말처럼, 바로 막부에 의한 國政의 主導였던 것이다.

한편, 당시 幕府權力의 최고 실력자가 北條氏의 家督인 北條時宗이었다는 사실도 이 강경책의 배경의 하나로 주목된다. 이미 時宗의 生父인 北條時賴의 시대부터 막부의 실질적 최고권력은 ‘執權’이라는 公職에 있는 것이 아니라, 北條氏 本家の 長인 ‘得宗’(도쿠소)로 옮겨지고 있었다.<sup>55)</sup> 그러나 北條氏는 본래 막부의 御家人과 同列의 身分으로, 得宗은 將軍이 갖는 御家人 支配의 正統性を 결여하고 있었다.<sup>56)</sup>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군사적 대결을 피하려

53) 조정에 대한 막부의 힘의 우위를 결정지은 1221년 承久의 亂 이후, 특히 1246년 宮騒動을 계기로 하여 조정은 막부의 강한 간섭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後嵯峨上皇이 주재하는 院評定制였다. 그 후 後嵯峨院政하의 조정은 内外의 重大事에 관해서 막부의 의향에 따랐다고 지적되고 있다(上横手雅敬, 『鎌倉幕府と公家政權』, 岩波講座『日本歴史5 中世1』, 岩波書店, 1975, 58-60쪽 및 網野善彦, 『蒙古襲來』, 小學館, 1974, 48-51쪽). 그러나 蒙古國書의 到來라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조정이 나름대로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주목된다.

54) 東巖慧安意見狀, 『鎌倉遺文』 第14卷 10559號.

55) 村井章介, 「執權政治の變質」, 『日本史研究』 261, 1984, 17쪽.

56) 幕府體制의 頂点인 將軍이 되기 위해서는 身分的 尊貴性を 갖추어만 했지만, 北條氏는 小國 伊豆의 在廳官人 출신이라는 낮은 신분이었다(同上, 27-28쪽).

한다면 지배의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대항세력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여기서 막부의 得宗權力은 大義名分에 입각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막부가 일본과 蒙古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牒狀의 無禮’를 명목으로 蒙古에 대한 戰爭不辭라는 강경책을 택한 데에는 이상과 같은 일본 국내의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인다. 제1차 침략 이후 1275년 9월, 동년 4월에 도착한 蒙古의 사신을 막부가 참수한 것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막부의 사신 참수는 “영원히 和親하지 않고 通問하지 않는다”<sup>57)</sup> 혹은 “일본을 엿보는 것을 막고 침략하지 못하게 한다”<sup>58)</sup>는 명분에서였다. 이 조치는 막부의 得宗權力이 蒙古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國內外에 보인 것<sup>59)</sup>인 동시에, 蒙古와의 외교교섭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막부의 의사표시이기도 했다. 조정이 이때의 첩장을 상주받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sup>60)</sup> 1279년 6월, 멸망한 남송의 옛 신하 출신의 牒使가 도착했을 때에도 막부는 형식상 첩장을 조정에 상주했지만, 조정의 評定를 기다리지 않고 역시 막부 독단으로 처형하였다.<sup>61)</sup> 조정의 외교권은 이 단계에서 사실상 부인되어 아예 외교적 대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정은 막부의 독단적인 조치에 무력할 뿐, 그 후 ‘反牒不可’라는 先例에 따라 막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었다.<sup>62)</sup>

## 2. 蒙古의 日本 侵略과 高麗·日本

### 1) 고려의 군사전략적 위치

몽고의 일본 침략은 일본의 가장 인접한 국가이자 몽고에 복속한 고려의 軍事基地化를 초래

57) 『關東評定傳』 建治1年(1275), 『群書類從』 第4輯 補任部.

58) 『鎌倉年代記裏書』 建治1年(1275), 『增補 續史料大成』 51.

59) 江戸 시대의 『大日本史贊藪』에서는, 時宗가 이때의 元の 使臣을 목베어 일본의 ‘威武’를 선양하고 외국을 두렵게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고 평하고 있다(同, 卷4, 日本國粹全書刊行會, 1916, 293쪽).

60) 『師守記』 貞治 1年(1362) 5月 9日條, 『增補 續史料大成』 51.

61) 『北條九代記』 下, 弘安2年(1279)條, 『續群書類從』 第29輯 上 ; 『勸仲記』 弘安2年 7月 29日條, 『增補 史料大成』 34 ; 相田二郎, 『蒙古襲來の研究 增補版』, 26-27쪽.

62) 1292년 7월, 고려의 사신 金有成이 가져온 고려국서에 대하여 조정의 後深草上皇은 “실로 고려국왕의 문체가 무례하고 기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대책으로서 “이전에 결정한 취지와 다를 바 없다”는 선례 중시에 머물러 있었다(正應 5年(1292) 12月 10日 後深草上皇書狀, 『鎌倉遺文』 第23卷 18066號).

하였다. 고려는 몽고의 일본 원정을 위한 戰艦, 軍糧, 兵力 등을 보급해야 하는 兵站基地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가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되어 엄청난 부담을 가져왔음은 고려측 사료 곳곳에서 확인된다.

1271년 1월, 몽고는 일본에 사신 趙良弼을 파견할 단계부터 몽고의 군대를 金州(金海)에 주둔시키면서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戰艦을 金州에 집결시킬 것을 명하고 있었다.<sup>63)</sup>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屯田經略司를 鳳州(黃海道 鳳山)에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農牛 3,000두와 둔전에 필요한 農具·種子·秣糧 및 가을까지의 軍糧을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sup>64)</sup> 屯田軍의 설치에 이어서 1272년 2월에는 戰艦兵糧都監이 설치되어<sup>65)</sup> 고려는 마야흐로 본격적인 보급기지 체제하에 놓이게 된다. 1273년 4월 耽羅의 삼별초가 멸망한 이듬해 고려는 1274년 1월부터 5월까지 諸道에서 造船 인원 30,500명을 징발하여 大船 300척을 포함한 총 900척을 급속히 건조, 완공하였다.<sup>66)</sup> 제1차 원정에 동원된 고려군은 약 6,000명, 사공·수부 등은 6,700명이었으며, 고려가 그동안 부담한 군량은 양곡이 ‘乏絶’<sup>67)</sup>될 정도였다. 이 전쟁의 수행으로 고려가 겪은 부담은 1275년 1월, “만약 다시 일본 정벌을 일으킨다면 거기에 소용되는 전함들과 군량을 小邦은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나라가 파멸되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sup>68)</sup>라고 쿠빌라이에게 호소한 충렬왕의 말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제2차 일본 원정에 따른 보급기지로서 고려의 부담은 1차보다 더욱 막중한 것이었다. 고려는 전함 900척, 군사 10,000명, 사공·水夫 17,000명, 군량 최소 10만석 이상<sup>69)</sup>을 공급하였다. 여기에 말의 사료, 무기, 각종 군수품까지 조달해야만 했다. 고려는 두 차례의 원정에 따른 전함의

63) 『高麗史』 卷27, 「元宗世家」 元宗12年(1271) 1月 己卯條.

64) 同3月 丙寅條.

65) 『東國通鑑』 卷36, 元宗13年(1272) 2月條.

66) 『高麗史』 卷27, 「元宗世家」 元宗15年(1274) 1月條, 同6月 辛酉條.

67) 제1차 원정군에 대하여 고려가 공급한 군량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수 년에 걸친 원정 준비 기간 고려가 공급한 군량은 “庚午年(1270)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에 군량을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벌써 양곡이 乏絶된 지 오래 되었다”는 말처럼 막대한 것이었다. 고려는 1274년 2월, “근년에 군인, 군마의 식량과 사료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官員들과 백성들에게서 거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식량 공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元은 同年 4월 쌀 2만석을 보내 군량에 보충하게 하고 양곡 값으로 비단을 보내도록 하였다(『高麗史』 卷27, 「元宗世家」 元宗15年(1274) 2月 甲子條, 同4月 甲子條). 太田弘毅의 지적대로, 여기서 말하는 2만석이 실제로 漕運되었다고 해도 결국 양식의 준비는 고려가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太田弘毅, 『蒙古襲來—その軍事史的研究—』, 錦正社, 1997, 91쪽).

68) 『高麗史』 卷28, 「忠烈王世家」 忠烈王1年(1275) 1月 庚辰條.

69) 제2차 원정 당시 고려가 공급한 군량에 대해서는 10만석(『元史』 「世祖本紀」), 11만석(『高麗史』 「忠烈王世家」), 혹은 12만 3천 5백 60여석(『東國通鑑』 忠烈王8年) 등 諸史料에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건조로 하천과 바다 연변의 재목을 거의 다 벌채하여 더 이상 전함의 건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sup>70)</sup> “十八年辛巳年(1281) 官軍이 일본을 정벌할 때 모든 전함, 식량을 비롯하여 군졸과 사공·수부, 기타 일체의 물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공급하였다”<sup>71)</sup>는 충렬왕의 말은 정치적 言辭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려가 깊어졌던 부담의 막중함을 가히 짐작케 한다.

그 후에도 쿠빌라이의 제3차 일본 원정의 기도가 있을 때마다 고려는 전함의 수리·건조, 군량의 준비, 兵器의 제작, 軍士와 水夫의 징발 등을 요구받았음은 물론이다<sup>72)</sup>. 몽고는 고려 이외에 中國 江南과 東京(遼陽)에도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명하였지만, 1285년 11월 江南의 江淮米 100만석을 고려의 合浦(馬山)에까지 운반·저장하도록 명한 것<sup>73)</sup>에 드러나듯이, 고려야말로 일본 원정을 위한 第一의 병참기지였던 것이다.

고려는 몽고의 일본 원정을 위한 보급기지 내지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한편, 역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침공에 대한 방어기지로서의 역할도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몽고의 일본 원정 이전부터 고려와 일본 사이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 속에서 고려는 일본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269년 5월, 慶尙道 按察使가 “濟州島人이 일본에 표류했다가 돌아와 말하기를 일본이 兵船을 갖추어 장차 우리를 침범하려 한다고 한다”라고 보고하자 고려조정은 삼별초를 파견하여 연해를 경비하도록 하는 한편, 築城과 糧食의 備蓄을 명하고 일본에 가까운 彰善縣(南海)에 있던 國史를 珍島에 옮기게 하고 있다.<sup>74)</sup> 일본측의 몽고 침입에 대한 경계태세가 잘못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고려로서는 세 달 전 黑的 일행이 對馬島民과 충돌하여 島民 2명을 사로잡아 귀환한 사건과 연관지어 일본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 이후에는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여 더욱 방비를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제1차 일본 원정 직후 合浦에는 몽고군으로 구성된 鎭戍軍이 설치되어 1278년 고려군으로 대체될 때까지 주둔하였다. 아마도 우려되는 일본의 침공에 대비한 조치였을 것이다.<sup>75)</sup>

70) 『高麗史』 卷31, 「忠烈王世家」 忠烈王20年(1294) 1月 癸酉條.

71) 同, 忠烈王23年(1295) 10月 丙申條.

72) 『高麗史』 卷29, 「忠烈王世家」 忠烈王9年(1283) 3月 庚午條 ; 同卷30, 「忠烈王世家」 忠烈王11年(1285) 12月 辛丑條 ; 同12月 甲寅條··丁卯條 ; 『東國通鑑』 卷38, 忠烈王9年(1283) 3月條.

73) 『元史』 卷13, 「世祖本紀」 至元22年(1285) 11月 癸巳條. 또한, 元은 아마도 쿠빌라이의 사망 직전인 1293년, 일본 정벌을 위하여 江南米 10만석을 운반하여 江華島에 비축해 두고 있었다(『高麗史』 卷31, 「忠烈王世家」 忠烈王20年(1294) 12月 庚寅條).

74) 『高麗史』 卷26, 「元宗世家」 元宗10年(1269) 5月 丙午條.

75) 1278년 7월, 고려의 忠烈王은 “合浦鎭戍軍은 남겨두어 倭寇에 대비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청하였는데, 쿠빌라이는 “구태여 남겨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 백성들에게 험가 되지 않겠는가? 그대가 스스로 그대 나라 사람을 써서 鎭戍하도록 하라. 倭寇는 죽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답하고 있

1280년 5월 倭賊이 固城 漆浦 및 合浦에 침입하여 어부를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려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군사를 보내 수비하게 하는 한편, 몽고에 大將軍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sup>76)</sup> 몽고는 이때 고려의 軍卒으로써 倭賊을 방어할 것을 명하였지만, 일본 원정에 즈음하여 1281년 6월 본국에서 騎兵 300명을 보내 合浦를 지키게 하였다.<sup>77)</sup> 원정이 실패한 직후인 1281년 10월, 몽고는 忠烈王과 征東行省의 요청을 받아들여 ‘日本과 마주보는 要衝’인 慶尙道 金州·合浦 等地와 全羅道에 鎮邊萬戶府를 설치하였다.<sup>78)</sup> 다음해 1282년 1월에는, 일본의 고려 연안 침구 사건과 관련한 충렬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몽고는 본국에서 군사 500명을 金州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sup>79)</sup> 곧이어 2월 몽고는 蒙·漢軍 1,400명을 보내 耽羅島의 防備를 강화하였으며,<sup>80)</sup> 4월에는 군사 340명을 보내 合浦를 지키게 하고 60명은 王京을 지키게 하여 ‘불의의 변고(不慮)’에 대비케 하였다.<sup>81)</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몽고와 고려가 일본으로부터의 逆攻에 대비하여 金州·合浦 등을 비롯한 고려 要害와 首都 開京,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江南地方을 연결하는 海上 要衝인 耽羅島의 防備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몽고 본국도 일본의 보복을 우려하여 1281년 11월, 일본 원정에서 돌아온 군사들로 하여금 慶元(寧波)·上海·澱浦 등 江南地方의 沿海를 鎮戍하게 하고 있었다.<sup>82)</sup>

1, 2차 일본 원정의 發進基地가 되었던 고려의 合浦는 행정상 金州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要害地였다.<sup>83)</sup> 금주는 늦어도 11세기 중엽부터 1266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일본인 무역상인을 접대하는 館舍가 있을 정도로 고려 내에서 일본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對日交涉 거점이었다.<sup>84)</sup>

다(『高麗史』卷28, 「忠烈王世家」 忠烈王4年(1278) 7月 戊戌條). 후술하는 2차 원정 직후의 동향을 함께 고려하면, 몽고군은 아마도 1차 원정 직후 요해지역 합포에 수 년간 주둔하여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6) 『高麗史』卷29, 「忠烈王世家」 忠烈王6年(1280) 5月 癸卯條.

77) 同, 忠烈王7年(1281) 6月 丙戌條.

78) 『元史』卷99, 「兵志」, 鎮戍에는 “〔至元十八年(1281)〕十月, 高麗王并行省皆言, 金州, 合浦, 固城, 全羅州等處, 沿海上下, 與日本正當衝要, 宜設立鎮邊萬戶府屯鎮, 從之。”라고 보인다.

79) 『元史』卷208, 「外夷列傳」高麗傳, 至元19年(1282) 正月條. 『元高麗記事』에는, “〔至元19年 正月 15일〕 蒙古軍 100명으로 高麗의 金州를 鎮戍하였다”라고 보인다.

80) 『東國通鑑』卷38, 忠烈王8年(1282) 2月條. 이미 몽고는 원정 실패 직후인 1281년 9월, 耽羅의 鎮戍軍을 증원하고 고려에게 그 戰具를 공급하도록 명하였다(『元史』卷11, 「世祖本紀」至元18年(1281) 9月 癸酉條). 당시 耽羅는 몽고의 직할지로서 다루하치 總管府의 지배하에 있었다.

81) 『高麗史』卷29, 「忠烈王世家」 忠烈王8年(1282) 4月 戊戌條.

82) 『元史』卷99, 「兵志」. 鎮戍, 〔至元〕十八年(1281)十一月條.

83) 『高麗史』卷57, 志11, 地理2, 慶尙道 金州條에 의하면, 金州에는 義安郡·咸安郡의 2郡과 漆園縣·熊神縣·合浦縣의 3縣이 속해 있었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昌原都護府」에는, 合浦의 形勝에 관하여 “합포는 큰 진이다. 범이 웅크린 듯, 용이 도사린 듯하다(合浦巨鎮, 虎踞龍盤)”라고 기술되어 있다. 合浦는 조선시대에 慶尙右道 兵馬節度使의 本營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금주가 平和時에 일본인의 해상 왕래가 가장 활발한 인접 지역<sup>85)</sup>이었던 만큼 戰時에는 일본과의 군사적 대치가 가장 첨예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몽고와 고려가 攻守兩面の 군사 요해로서 合浦와 金州를 중시했던 까닭이다.

2차 원정 실패 직후에 慶尙道の 合浦 等地와 全羅道에 설치된 鎭邊萬戶府는 “日本을 控制하는”<sup>86)</sup> 것이 주요 목표였다. 1301년 7월 몽고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前年에 설치되었던 耽羅總管府를 폐지하고 고려에 예속시켜 萬戶府를 설치하기에 이른다.<sup>87)</sup> 이들 세 곳의 萬戶府는 몽고군의 일시적인 주둔<sup>88)</sup>을 제외하고 평시에는 고려군으로 충당되며 征東行省의 관할하에 놓였다. 본래 제2차 일본 원정을 위해 1280년 8월에 설치되었던 征東行省은 원정의 실패 후 몇 차례 置廢를 거듭하다가 이윽고 防倭(=對日本防禦)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sup>89)</sup>. 征東行省이 일본 원정을 위한 군사령부 역할을 했을 초기에는 江南軍의 蒙古人 총사령관이 장관을 맡았지만 그 후에는 고려국왕이 장관이었다.

1302년 遼東行省이 征東行省을 병합하려고 획책했을 때, 고려의 忠烈王은 “小邦은 [원나라의] 가장 먼 변강에 있는 중요한 지대이며 아직도 귀순하지 않은 日本國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至元18年(1281) 大軍이 바다를 건너 출정한 후 至元20年(1283) 世祖皇帝의 聖旨를 받들어 본인이 行征東省事의 職을 맡아 邊面을 威鎮하였고, 현재의 慶尙道 合浦 等地와 全羅道 두 곳의 鎭邊萬戶府를 管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本國(高麗)의 軍官·軍人을 징발해서 현재 合浦·加德·東萊·蔚州·竹林·巨濟·角山·內禮梁 등의 요해 지대와 耽羅 등지에 倂·배치하고 烽燧를 설치하

84) 南基鶴,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日本歷史研究』 11, 2000, 81-82쪽.

85) 일본으로부터의 고려표류민 송환도 日本 各地→大宰府→對馬島→金州→東南海(船兵)都部署라는 官廳간의 루트로 처리되고 있었다(山內晉次, 「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歷史科學』 122, 1990, 40쪽.) 13세기에 들어 金州에 倭寇가 발생한 것도 이곳이 對馬島를 비롯한 九州 지역민들이 가장 활발히 오가는 지역이었음을 반증한다.

86) 『元史』 卷208, 「外夷列傳」 高麗傳, 至元18年(1281) 11月條.

87) 『高麗史』 卷32, 「忠烈王世家」 忠烈王27年(1301) 5月 庚戌條.

88) 1287년 3월에는 合浦를 수비하던 몽고의 군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高麗史』 卷30, 「忠烈王世家」 忠烈王13年(1287) 3月 庚申條).

89) 쿠빌라이의 사망을 계기로 원정 논의가 중단된 후 征東行省은 1299년에 再設置되어 고려를 관할 영역으로 하는 元의 지방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며, 이후 元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高柄翊은 ‘征東’ 자체가 중지된 이후에도 征東行省은 명의상·형식상으로 존재하였으며, 일시적으로 元朝의 관리를 요직에 임명하여 高麗 內政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려의 元帝國內에서의 1行省으로서의 지위를 확정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征東行省의 군사기구로서의 주요 임무는 ‘征東’에서 ‘控制日本’ 즉 防倭로 바뀌었다고 한다(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同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0, 222-229·282-292쪽 참조).

고 船兵을 숨겨두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 순찰하여 日本國 賊軍에 對備하는 일을 주관하여 왔는 바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日本의 賊人을 포획한 일이 있으며, 이것을 [원나라의] 中書省과 樞密院에 공문으로 보고도 하였습니다.”라고 征東行省의 임무와 일본에 대한 고려의 경비태세의 萬全을 강조한 후, “이전과 같이 行征東省事를 맡아보게 해서 東方 極邊의 未服屬國 日本 方面을 威鎮하는 일을 전담케 해주신다면 邊關事務가 크게 잘못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상주하였다.<sup>90)</sup> 여기서 일본에 대한 ‘威鎮’(警戒·對備)을 主任務로 하는 軍事機關으로서의 征東行省의 존재의의를 잘 살필 수 있다. 또한 이때 고려가 병합 반대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警備였다<sup>91)</sup>는 점에서 몽고의 對日防禦基地로서의 고려의 위치가 잘 드러나 있다. 몽고의 정부도 제3차 일본 원정을 기도하는 한편에서 항상 일본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1292년 10월 무역을 위해 慶元에 입항한 日本船으로부터 武器가 발견되자 “異圖가 있을까 두려워” 곧바로 都元帥府를 세워 海道를 防備하게 한 조치<sup>92)</sup>에서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는 군사전략상 몽고의 일본 원정을 위한 병참·보급기지에 그치지 않고, 몽고의 對日防禦基地로서의 위치에도 놓이게 되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일본 원정의 부담만이 아닌 對日防禦의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몽고로서는 자신의 ‘東藩’<sup>93)</sup>인 고려국으로 하여금 몽고와 대치하고 있는 일본을 ‘威鎮’·‘控制’하도록 하였고, 고려는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라도 이 역할을 스스로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sup>94)</sup>

90) 『高麗史』 卷32, 「忠烈王世家」 忠烈王 28年(1302)條.

91) 위의 上表에서는 “東京으로부터 開京까지는 1500餘里요, 開京으로부터 合浦까지는 다시 1400餘里이니 만약 海外에 약간이라도 警戒할 일이 생기면 報告往來에 千里도 멀다하거늘 하물며 3千里 밖이 되니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92) 『元史』 卷17, 「世祖本紀」 至元29年(1292) 10月 戊子條.

93) 1330년 윤7월, 고려의 忠肅王은 고려의 국가를 부정하고 元帝國의 內地로 만들려는 획책을 듣고 원나라 太師 右丞相에게 서한을 보내, “고려국은 우리의 동쪽 변방 [東藩] 이다”는 至元3년(1266) 일본을 초유한 몽고국서의 문장을 인용하여 반박하고 있다(『高麗史』 卷36, 「忠肅王世家」 忠肅王17年(1330) 閏7月 庚寅條). 고려가 원나라의 ‘東藩’임은 세조 쿠빌라이 이래 양국의 기본관계로서 줄곧 인정되어 온 것이었다.

94) 1332년 6월 고려의 신하들은 忠惠王의 復位 문제에 관한 상서문 속에서, “[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직도 귀순하지 않은 이웃 海倭의 變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高麗史』 卷36, 「忠惠王世家」 忠惠王2年(1332) 6月 壬辰條). 왕의 복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맥이기는 하지만, 고려가 여전히 일본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2) 일본의 ‘異國征伐’ 계획

고려가 일본으로부터의 침공을 우려했던 것은 결코杞憂가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일본 쪽에 시야를 돌려, 당시 ‘異國征伐’이라 불린 高麗 侵攻 계획의 경과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몽고의 침략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대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고려와 일본 양국관계의 전개를 살피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다.

1274년 10월 5일, 고려의 合浦를 출발한 제1차 일본원정군은 對馬島·一岐島를 점령하고 10월 20일 마침내 九州 博多에 상륙하였다. 일본의 무사들이 이에 응전하였지만, 결과는 일본측의 苦戰, 일본군은 大宰府 방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정군이 蒙古人·女真人·漢人·高麗人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혼성부대이면서도 통일적인 지휘체계하에 조직적인 集團戰法을 구사하고, 독을 바른 짧은 화살과 ‘鐵砲(뎃포)’ 같은 火藥武器까지 동원하여 重裝備의 個人戰으로 맞선 일본군을 패퇴시켰음은 『八幡愚童訓』에 잘 묘사되어 있다.<sup>95)</sup> 個人騎馬戰을 위주로 한 국내전쟁과는 다른 대규모의 대외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개별 무사단을 집합시켜 놓은 정도의 일본군의 지휘체계의 불일치·비효율이야말로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하였다.<sup>96)</sup>

기상악화도 겹쳐 다음날 원정군이 물러간 후 막부는 몽고의 再侵에 대비하여 연안 경비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른바 ‘異國警固番役’을 정비하여 다음해 1275년 2월에는 春夏秋冬 각 3개월씩을 守護의 지휘하에 九州 各國의 御家人이 교대로 경비하는 체제를 만들었다.<sup>97)</sup> 같은 해 4월, 몽고의 사신 杜世忠 일행이 長門國 室津에 도착한 것을 계기로 막부는 5월 周防·安藝兩國의 御家人을 長門國 경비에 동원하고 備後の 御家人을 추가, 4개국으로 편성하여 침입에 대비케 하였다.<sup>98)</sup> 그런데 막부는 이 사신 일행을 8월에 關東으로 소환, 9월 7일 鎌倉의 瀧の口에서 참수하고는 곧이어 ‘異國征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늦어도 같은 해 11월 이전에는 세워졌던 것이 확인된다.<sup>99)</sup> 이렇게 막부는 몽고의 再侵에 대비하여 경비체제를 정비·강화하다가 사신의 처형이라는 강경책에 뒤이어 ‘異國’을 ‘征伐’한다는 攻勢로 선회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異國’은 침략의 장본인 蒙古가 아니라 침략에 동원된 인접국 高麗를 가리킨다.

95) 『八幡愚童訓』(甲本), 『日本思想大系』 20 『寺社緣起』, 184-185쪽.

96) 南基鶴, 「중세 일본의 외교와 전쟁—몽골의 일본 침략을 소재로—」 『東洋史學研究』 80, 2002, 214-215쪽.

97) 文永12年(1275) 2月 4日 少貳經資書狀案, 『鎌倉遺文』 第15卷 11805号.

98) 建治元年(1275) 5月 12日 關東御教書案, 『鎌倉遺文』 第16卷 11910号, 建治元年(1275) 5月 20日 關東御教書案, 同, 11913号. 또한 이 무렵 異國警固番役의 방식도 변경되어 3개월씩 연1회에서 1개월씩 연3회로 바뀌었다(建治元年(1275) 6月 5日 豊後大守護友頼泰書下, 同, 11923号).

99) 『帝王編年記』 卷26, 九州探題.

이 계획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해 1276년 3월경을 실행 시기로 하고, 鎮西(=九州)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동원하되 부족할 경우에 山陰·山陽·南海道 등 西國 연안지대의 地頭御家人 및 本所一圓地の 사공〔梶取〕·수부〔水手〕를 징발한다는 것이었다.<sup>100)</sup> 그리고 실제로 1276년 3월을 전후한 시기에 九州의 守護 또는 守護代가 총책임자 大宰少貳經資의 지휘에 따라 御家人·非御家人을 불문하고 동원을 독촉하는 등 ‘정벌’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관련사료인 『北條九代記』에서는 이것을 ‘警固事’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고,<sup>101)</sup> 또 막부가 실행 시기에 맞추어 高麗를 향해 출진하는 자를 제외한 九州의 무사들에게 ‘異國警固石築地’를 築造하게 하고 있는 점<sup>102)</sup>에 비추어, ‘異國征伐’은 원래 고려에 대한 全面 侵攻이 아니라 ‘異國警固’와 함께 추진된 局地的 侵攻 기도였다고 보인다. 막부는 1276년 3월 “앞으로 한 두 달은 각별히 異國警固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sup>103)</sup>라고, ‘異國征伐’을 준비하는 한편에서 ‘異國警固’를 엄중히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막부는 왜 ‘異國警固’에 그치지 않고 ‘異國征伐’까지 敢行하려고 했던 것일까? ‘異國征伐’에 대하여 몽고의 일본 공략기지이자 병참기지인 고려에 대한 반격이나 보복 공격이라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sup>104)</sup> 거기에 깔린 대외태도로서 고려의 弱體를 틈탄 ‘冒險的 侵略主義’<sup>105)</sup>를 지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종래까지 몽고의 사신들을 둘러보내

100) 建治元年(1275) 12월 8日 關東御教書案, 『鎌倉遺文』 第16卷 12170号. 村井章介는 安藝 1國에서 100척을 넘는 선박이 守護에 의해 징발되었던 점에서 ‘異國征伐’을 위한 군사동원은 상당한 규모였다고 지적하고 있다(村井章介, 『北條時宗と蒙古襲來 時代·世界·個人を讀む』, 日本放送出版協會, 2001, 121-122쪽).

101) 『北條九代記』下 建治元年條에는, “警固事に 대하여 결정하였다. 鎮西에 유능한 守護들을 임명하여 海邊 지역에 파견하였다. 京都大番役을 중지하였다. 在京人을 두었다. 公家와 武家が 국가행사의 비용을 줄이고 검약을 행하였으며 民庶를 번거롭지 않게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軍旅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102) 建治2年(1276) 3월 5日 大友頼泰書下, 『鎌倉遺文』 第16卷 12252号, 建治2年 3월 11日 持蓮請文, 同, 12262号 등.

103) 建治2年(1276) 3월 8日 北條宗頼書狀(川添昭二, 『注解 元寇防壘編年史料—異國警固番役史料の研究—』, 福岡市教育委員會, 1971, 146-147쪽).

104) 한 예로 中村榮孝는 “적극적인 防衛政策으로서 바다를 건너 반격하는 이국정벌”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다(同, 「十三·四世紀の東亞情勢とモンゴル襲來」, 37쪽). 한편, 막부가 몽고의 再侵에 대비하기 위해 西國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하는 병력을 단기간에 博多灣 주변에 동원할 필요에서 ‘異國征伐을 名目으로’ 西國御家人에게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安田元久編, 『古文書の語る日本史3 鎌倉』, 筑摩書房, 1990, 226쪽). 이것은 ‘정벌’을 위한 준비로서는 지극히 소략했던 점이나 막부의 군사력의 열세에 주목한 견해로서, 鎌倉幕府가 진정으로 고려에 침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현존 사료들은 고려 침공 준비가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이국정벌을 단순한 ‘명목’이었다고는 보지 않는 입장이다.

고 방어태세를 일관해 오던 막부가 돌연 사신의 처형과 外敵에의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강경책을 택한 데에는 그 나름의 국내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將軍과 御家人 사이의 御恩·奉公의 상호관계에 입각한 幕府主從制의 원리상, 戰後에 御家人이 恩賞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1272년 2월 이래 九州御家人들은 과중한 異國警固의 부담을 짊어졌기에 그 요구는 강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전장터에 출진한 御家人들의 궁극적인 동기는 요컨대 勳功의 賞이며 자기의 領主制 지배의 확대충동이였다.<sup>106)</sup>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275년 6월, 九州의 肥後國 御家人 竹崎季長가 은상의 소송을 위하여 鎌倉에 올랐던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季長과 같은 무사들이 적지 않았음은 다음해 3월 豊後國御家人 田原泰廣가 鎌倉에 직접 상소하려 한 것<sup>107)</sup>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막부는 戰後에 새롭게 획득한 영지가 없었고 몽고의 再侵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훈공자 이외는 은상 급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은상을 기대했던 많은 御家人들에게 불만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御家人들의 불만과 경제적 부담은 여러 가지 분쟁·소송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 訴訟을 관할·재판하는 鎮西守護와 御家人 사이의 不和를 양성했을 것이다. 이것은 1280년 12월, “근년에 守護와 御家人이 토지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인해 다수가 不和하기 때문에 (鎮西警固에)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08)</sup>라는 막부의 警告에서 엿볼 수 있다.

守護와 御家人의 불화는 訴訟 이외에도 戰功·軍忠의 보고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었다. 전술한 竹崎季長의 경우도 자신의 戰功을 누락시킨 守護에 대한 불만이 배후에 있었다. ‘異國警固’의 독립적 근무를 둘러싼 御家人 總領과 庶子の 대립도 軍忠을 막부에 보고할 직책인 守護와의 불화를 가져온 또다른 요인이었다. 1276년 윤3월, 豊後國御家人 禪季는 ‘異國警固’에 관해서는 總領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守護의 지휘를 따를 것을 청하면서 그 이유로서 막부에 戰功을 보고할 경우 자신의 이름을 名簿에 직접 올리기를 바라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었다.<sup>109)</sup> 이러한 庶子の 행동은 總領과의 분쟁을 가져오고 守護 자신도 양자의 대립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軍役 부과에 의한 경제적 부담, 恩賞의 연기에서 오는 불만, 警固番役의 근무 방식을 둘러싼 總領·庶子間의 대립, 그리고 戰功·軍忠을 보고하는 守護에 대한 불신·불만 등이 소송의 빈발과 守護·御家人의 불화를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戰後 恩賞問題

105)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169쪽.

106) 黒田俊雄, 『庄園制社會』, 日本評論社, 1976, 210쪽.

107) 建治2年(1276) 3月 8日 北條宗頼書狀.

108) 弘安3年(1280) 12月 8日 關東御教書, 『鎌倉遺文』 第19卷 14207号.

109) 建治2年(1276) 閏3月 15日 僧禪季申狀案, 『鎌倉遺文』 第19卷 14207号.

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하는 1275년 이래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守護와 御家人의 불화는 守護에 의한 御家人의 지휘·통제에 입각한 防禦體制의 동요를 초래한다. 막부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宿意를 품고 天下大亂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매우 不忠한 일이다”<sup>110)</sup>고 하여 그것을 억제하려 할 뿐이었다.

1275년 9월 사신의 처형이라는 막부의 강경책은 당시의 국내사정, 특히 最重要防衛地域인 九州의 현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실은 對外危機를 스스로 釀成함으로써 防禦體制의 弛緩을 다 잡으려 한 것이었다. 그에 뒤이은 ‘異國征伐’계획도 단순한 外敵에의 공격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축으로 하는 방어체제의 재편·강화를 꾀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막부는 동요하고 있는 방어체제로 外敵의 침략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공격을 통하여 敵軍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對外戰爭의 수행을 轉機로 하는 臨戰體制下에서 국내통제의 강화를 꾀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이 임전체제하에서 막부는 御家人에 대한 守護의 군사지휘권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종래 지배권이 미치지 않았던 本所一圓地의 무사들까지 군사지휘·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sup>111)</sup> 또한 막부는 국내 무사들의 통제를 위하여 得宗權力의 의사를 직접 대면, 관철하는 다수의 유력한 守護(혹은 守護代)들을 西國地方에 파견했던 것이 주목된다.<sup>112)</sup> 이 계획은 실행상의 곤란함<sup>113)</sup>에 부딪혀 오래지 않아 중지된 것 같지만, 막부에 의한 국내 무사의 통제 효과는 충분히 가져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異國征伐’이라는 大義名分 자체가 得宗權力의 對蒙古政策에 正當性을 제공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종래 방어를 고수해 온 막부가 나아가 외적을 공략한다는 공세적인 자세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得宗權力은 막부의 유력 御家人과 조정의 公家側에 대하여 정책 주도의 정당성을 주장, 획득하려 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의명분 아래 北條氏 일족이 대거 西國地方의 守護로 진출하고 있으며, 京都의 本所·領家側의 支配領域에 막부의 지배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sup>114)</sup> 이 대의명분은 北條一門 守護의 西國 進出에 대한 外樣守護의 불만이나 그 支配圈

110) 同 註)108.

111) 막부는 제1차 몽고의 침략에 처하여 御家人이 아니더라도 군공을 세우면 은상을 수여한다는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文永11年(1274) 11월 1日 關東御教書案, 『鎌倉遺文』 第15卷 11742号), 현존 사료상 실제로 非御家人을 막부의 지휘통제하에 동원하는 것은 1276년 3월 이래의 일이다. “異國警固는 예외없는 軍役 [平均役] 이다”(建治3年(1277) 9월 19日 關東御教書, 『鎌倉遺文』 第17卷 12866号)는 원칙이 성립한 時點도 전면적인 ‘警固事’가 정해진 1275년말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12) 村井章介, 「蒙古襲來と鎮西探題の成立」, 190-196쪽.

113) 石築地 造營과의 兩立의 곤란함, 課役 부담의 경감을 바라는 御家人의 의향, 막부에 의해 처음 동원되는 本所一圓地의 무사 즉 非御家人의 非積極性 등으로 인해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114) 村井章介, 「蒙古襲來と鎮西探題の成立」, 190-196쪽. 南基鶴, 「蒙古襲來と鎌倉幕府の對應—對應策の

을 침해당한 本所領家側의 반발을 억압하기 위해서도 유효했을 것이다.

막부의 ‘異國征伐’ 계획이 중지된 이후 石築地の 조영이 거의 완성된<sup>115)</sup> 1277년 6월, 南宋의 멸망이 국내에 전해지고, 1279년 7월에는 한 달 전에 도착한 元使(舊南宋 降將의 사신)를 博多에서 처형하는 등 대외적 긴장은 더욱 높아가고 있었다. 남송의 멸망에 따른 국제상황의 변화 때문인지 이 시기에 ‘異國征伐’은 계획된 흔적이 없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제2차 일본 침략 직후의 일이다.

원정군이 태풍에 의해 괴멸적 피해를 입고 철퇴한 1281년 윤7월초부터 약 한 달 남짓한 시기에 막부는 또다시 ‘異國征伐’=고려 침공을 계획하였다. 大將은 少貳經資 혹은 大友賴泰이고, 그들의 관할국으로 보이는 3개국(筑前·豊後·肥前)의 御家人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山城·大和의 惡徒 57인을 동원한다는 내용으로, 그 악도들은 8월중에 九州에 내려가도록 명해졌다.<sup>116)</sup> 이번의 계획은 前回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筑前·肥前 등 전투의 중심지가 동원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번 계획이 戰勝의 여세를 몰아 侵略國에 보복을 가한다는 大義名分에 입각한 것을 시사해 준다. 아마도 해당지역 非御家人이나 九州의 타지역 등 서국지방의 무사들은 ‘異國警固’에 동원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계획도 실행된 흔적은 없지만,<sup>117)</sup> 단순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막부에 의한 국내통제의 강화를 기도한 점에서 前回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1282년 得宗時宗의 叔父 北條時定가 少貳經資를 대신하여 肥前國 守護에 취임하였고, 그 후 그가 北條氏의 九州支配의 강화에 橋頭堡的 역할을 했던 사실<sup>118)</sup>, 일찍이 1278년 단계부터 막부가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大和의 惡徒<sup>119)</sup>를 ‘異國征伐’의 대의명분하에 거둬 동원하려 한 것에 드러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몽고의 제1, 2차 일본 침략 후에 각각 대두한 ‘異國征伐’ 계획은 고려 침공을 轉機로 삼아 국내무사의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北條氏 得宗權力的 직접적인 지휘통제하의 對蒙古防禦體制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었다. 고려와 일본 관계에서 보자면, 이 계

性格をめぐって— 『蒙古襲來と鎌倉幕府』, 臨川書店, 1996, 28-31쪽 참조.

115) 1277년 1월, 薩摩守護島津久時は 同國御家人 比志島太郎佐範에게 宮崎役所の 石築地役 근무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建治3년(1277) 1월 27日 島津久時覆勘狀, 『鎌倉遺文』 第17卷 12645号).

116) 弘安4年(1281) 8月 16日 聖守書狀, 『鎌倉遺文』 第19卷 14422号.

117) 大和 興福寺側의 부정적 태도(『勘仲記』 弘安5年 10月 16日條 裏文書)에 따른 막부와의 교섭이나, 원정의 실패 후 高麗側의 對日防禦態勢의 정비 등에 의해 실행이 지연, 중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8) 川添昭二, 「岩門合戰再論—鎮西における得宗支配の強化と武藤氏—」 『論集日本歴史4 鎌倉政權』, 有精堂, 1976, 254쪽.

119) 1278년 7월 막부는 大和國의 惡徒=寺僧·國民을 동원하려 했고, 興福寺側에서는 國民에 대해서는 응하지만 寺僧에 대해서는 거부한 적이 있다(『中臣祐賢記』 建治4年(1278) 7月 3日, 同4日條).

획은 양국이 交戰國으로서 雙方의 침공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正面 對峙 상태에 돌입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게 이제 고려는 몽고와 완전 일체화한 ‘異國’=外敵 그 자체로서 현실의 침략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고려의 일본에 대한 ‘控制’·‘威鎮’은 그만큼 현실성을 지니고 있던 것이기도 하였다.

### 3) 고려와 일본의 相互認識

몽고의 일본 침략은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의 外侵을 받은 일본인의 對外意識 특히 高麗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려가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원되긴 했지만, 日本側에서 볼 때 고려는 몽고와 일체화한 ‘敵國’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1275년 몽고의 사신과 함께 온 고려 사신을 처형하고, 제2차 침략 직후 일본군의 포로가 된 원정군 중에서 노예로 삼은 舊南宋軍을 제외한 몽고인과 고려인을 모두 처형하였다.<sup>120)</sup> 고려인을 일본의 침략자로서 몽고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異國征伐’은 바로 그러한 인식이 바탕에 깔린 고려에의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對馬·壹岐·博多 등 北部九州 地域民들의 몽고·고려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은 당시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蒙古國의 兵士들은] 백성들을 붙잡아 남자는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여자는 한데 모아 손을 뚫어 배에 메어달거나 포로로 잡아두었다”<sup>121)</sup>든가, “고려의 병선 5백척은 壹岐·對馬로부터 올라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인민들은 이를 견디지 못해 처자식을 데리고 깊은 산에 숨었지만, [고려군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오니 짧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기를 울며울며 죽였다”<sup>122)</sup>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려를 포함한 원정군의 ‘잔혹한 침략자’ 이미지는 당시부터 형성되어 세간에 전해내려 왔다. 후세에 ‘무쿠리·고쿠리(蒙古·高麗)’라는 말이 西日本 지역에서 공포로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것<sup>123)</sup>도 그러한 사정에 의한다.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는 이른바 神國思想을 크게 고양시켰다. 일본은 수 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국토이며, 神明의 가호가 있기에 외국이 절대 넘볼 수 없다고 하는 사상이 ‘神風’(가미카제)를 촉발제로 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여기에 내재된 신비적·독선적인 自國優越意識을 바탕으로 ‘神功皇后의 三韓 征伐’ 신화가 想起되고, 급기야 “新羅(高麗)의 왕은

120) 『國朝文類』 卷41, 征伐, 日本

121) 『日蓮聖人遺文』〔建治元年(1275)〕 5月 8日 一谷入道女房宛書狀, 『鎌倉遺文』 第16卷 11905号.

122) 『八幡愚童訓』(甲本), 『日本思想大系』 20 『寺社緣起』.

123) 田中健夫, 「ムクリコクリ」 『日本歴史』 228, 1967, 88-89쪽.

일본의 개[犬]이다”<sup>124)</sup>라는 식으로 고려를 卑下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대에는 신명이 가호하기 때문에 諸蕃, 특히 新羅를 지배할 힘이 있다는 대외적 우월의식이 神國思想의 주된 내용이었으나,<sup>125)</sup> 이제는 고려를 한낱 畜生으로 취급하는 노골적인 蔑視觀마저 등장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몽고의 침략 이후 일본의 ‘武威’에 대한 관념이 고양되었다는 점이다. 自己認識의 한 형태로서 외국에 대한 일본의 軍事的 威勢의 自覺과 主張은 武士政權이 수립된 鎌倉 初期부터 싹트기 시작했지만,<sup>126)</sup> 몽고의 침략에 의한 대외적 긴장을 계기로 한층 고양되기에 이르렀다. 蒙古國書의 도래 이후 京都 正傳寺의 禪僧 東巖慧安은 “일본국의 武藝는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다. 弓箭이 비할 바 없으며 甲冑는 귀신을 두렵게 한다”<sup>127)</sup>고 하여 鎌倉幕府의 武力과 그 威勢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었다. 鎌倉末 ~ 南北朝期の 儒者 玄惠는 “天竺(인도)·震旦(중국)·日域(일본)의 3국 중에서 일본인은 마음도 강하고 활의 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sup>128)</sup>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구체적으로는 鎌倉幕府)의 ‘武威’가 고양되면서 “武威가 엄중하고 文道가 올바르니 四夷가 일어나는 일이 없고 三韓을 바로 服屬시킬 수 있다”<sup>129)</sup>라는 三韓(高麗)에 대한 武斷的 侵略主義가 생겨났다. 막부가 기도한 ‘異國征伐’이야말로 바로 그 표현이었다.

한편, 몽고의 일본 침략은 高麗의 日本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몽고의 제2차 일본 침략에 즈음하여 全羅南道 順天都護府에 있는 定慧社(現, 松廣寺)의 禪僧 冲止<sup>130)</sup>는 일본 원정의 威容을 稱頌하는 내용의 ‘東征頌’<sup>131)</sup>을 지었다.

그는 먼저 몽고의 황제 쿠빌라이의 寬德과 恩澤을 칭송한 후,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을 믿고 몽고에 來朝하지 않는 것에 대한 問罪로서 ‘東征’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술 안의 물고기 무리〔鼎魚群〕” 같이 편협하고 고립된 “추한 섬나라 오랑캐〔島夷醜〕”라고 묘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멸시의 태도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

124) 『太平記』卷39, 「神功皇后攻新羅給事」.

125) 成澤光, 『政治のことば意味の歴史をめぐって』, 平凡社, 1984, 168쪽.

126) 南基鶴, 「鎌倉時代の ‘武威’에 대한 일고찰—中世 日本의 自己認識의 한 형태—」 『歴史學報』 178, 2003, 179-185쪽.

127) 東巖慧安意見狀, 『鎌倉遺文』 第14卷 10559號.

128) 玄惠注, 『聖德太子憲法』(坂本太郎編, 『聖德太子全集』 第1卷, 龍吟社, 1942 所收).

129) 宴曲抄 「文武」(早川純三郎編, 『宴曲十七帖 附謠曲末百番』, 國書刊行會, 1912 所收).

130) 冲止(俗名은 魏元凱)는 1244년 科擧에 합격한 인재로서 1254년 出家하기 전까지 官職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 동안에 ‘倭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使臣으로서 일본에 갔던 경력이 있다. 그를 官과 전혀 무관한 인물로 볼 수는 없지만, 승려가 되고나서 民間에 몸을 두고 官으로부터 자유로운 종교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던 점에서 민간지식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31) 冲止 著, 秦星圭 譯, 『圓鑑國師集』, 亞細亞文化社, 1988, 73-75쪽.

冲止는 1280년 ‘東征’을 위한 戰艦을 만들 때 嶺南地方의 慘狀을 목격하고서 “嶺南의 고통을 말하려 하니 눈물이 앞선다”<sup>132)</sup>고 하는 등 민중에 동정적인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가 원정군의 위용을 칭송하고 있는 것은 二律背反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本心은 일본 원정이 불가피했던 이상 그 사실을 是認하면서 민중의 鬱憤을 배설하려 했다는 지적<sup>133)</sup>이 있다.

이같은 충지의 입장을 지탱, 조장한 것이 바로 일본에 대한 ‘島夷’觀과 ‘倭寇’觀였다. 東征頌의 作詩와 같은 무렵 그는 원정군의 都元帥인 金方慶에게 올린 祝壽에서, 일본을 가리켜 ‘卉服’ 혹은 ‘倭寇’라고 蔑稱하고 있다.<sup>134)</sup> 즉 夷狄과 寇賊으로서 일본을 인식,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오랑캐로 여기는 관념은 조정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며, 일본=‘倭寇’觀은 13세기에 들어 형성되기 시작한 약탈자로서의 일본인 이미지가 점차 강화되어 고려와 일본의 敵對關係를 배경으로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중의 울분을 발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고려 邊民을 침탈하는 ‘倭寇’=일본의 토벌에서 찾았던 것이 아닐까? 그에게 있어서 일본은 “편협하고 추한 島夷”, “邊民을 약탈하는 倭寇”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에 몸을 두고 민중에 동정적이었던 그의 일본 인식은 민간의 정서를 일부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13세기 말 몽고의 일본 침략은 고려와 일본 사이에 편견·중요·공포·멸시로 채색된 부정적인 상호인식을 가져왔던 것이다. 국가간의 전쟁이 가져온 傷痕은 양측 모두 깊었고, 상호인식은 상당한 굴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맺음말에 대신하여 —아시아 속의 고려와 일본—

高麗末의 儒者 李齊賢은 1323년, 고려를 元의 内地로 만들려는 이른바 ‘立省’策動을 반박하면서 元의 中書省에 上書했는데, 그 속에서 “小邦과 日本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인접국이어서 우리가 중국과 화친하여 복을 누리면 그들은 歸化가 늦은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우리가 냉대를 받으면 그들은 頑迷함에 자만할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sup>135)</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立省策은 中國(元)의 高麗에 대한 냉대로 받아들여져 일본의 귀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므로 그 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立省策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서는 元帝國의 지배질서에 속한 고려왕조의 名分論의 입장에서 元에 ‘歸化’하지 않는 일본을 頑迷한 나라로 취급하고 있다. 일찍

132) 同上, 解題, 19쪽.

133) ‘嶺南艱苦狀 二十四韻 庚辰年造東征戰艦時作’, 同上, 67-69쪽.

134) ‘都元帥金侍中’祝壽疏, 同上, 243-245쪽.

135) 『高麗史』卷110, 「列傳」23, 李齊賢.

이 蒙古의 사신이 고려에 왔을 때 宰相 李藏用이 중국의 冊封體制에 의거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小夷’·‘島夷’로 규정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러한 고려의 日本觀은 중국 즉 元帝國의 冊封體制에 속한 고려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이라는 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와 일본은 13, 4세기 蒙古帝國의 유라시아대륙 지배-東西統合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각 그것에의 편입과 이탈이라는 상이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고려와 일본 각국의 역사 전개도 커다란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12세기 말 거의 同時期에 성립했던 양국의 武士政權은 결국 고려의 武臣政權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 1세기만에 소멸되고, 일본의 武家政權은 그 후에도 존속, 발전해 갔던 것이다. 일본은 蒙古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속에서 고려를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달리 敵對의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였으니, 그 주체는 바로 동아시아의 例外的 존재라고 할 武士政權이었다.

몽고제국의 등장과 고려와 일본의 상이한 進路는 양국간의 武力衝突과 심각한 軍事對峙를 수반하였다. 고려의 對日交涉 거점이었던 金州는 그 관할내의 合浦가 일본원정군의 發進基地가 되었고, 고려와 가장 긴밀한 교류지역이었던 北部 九州는 원정군과 일본군의 激戰地가 되고 말았다. 이후 반세기 이상 양 지역은 상대국에 대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防禦基地로 화했고 通交는 단절되었다. 비교적 평온했던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예부터의 제한적인 通교조차 보이지 않고, 지리적인 인접 요인도 작용하여 일본과 대륙 사이보다 더욱 강한 적대적 긴장관계가 형성, 지속되었다.<sup>136)</sup>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은 몽고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속에서 엄연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었던 것에 유의해야 한다. 元의 개방적인 무역정책과 일본의 대륙문물에 대한 왕성한 의욕을 배경으로, 일본은 빠르게도 13세기 말부터 元과의 무역에 나서고 있다. 14세기에 들어서는 寺院·神社의 造營을 명목으로 이른바 ‘寺社造營料唐船’이라는 일종의 公許貿易船이 막부에 의해 元에 파견되기에 이른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과 대륙과의 문물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훗날 日明間 勸合貿易의 역사적 전제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은 蒙古帝國 지배하의 세계질서 속에서 일정한 고립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의 적극적 참여라는 二重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136) 南基鶴,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85쪽.



# 일본침공 이후의 麗日關係

사에키 코지(佐伯弘次)

## 머리말 -몽골침공에서 전기왜구로-

13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정치적 동향을 크게 규제했던 것은 몽골(元)의 동향이다. 고려는 1230년대 이후 몽골의 격심한 공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몽골에 굴복한 뒤에는 그 속국으로서 몽골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제약을 받았다.

13세기 후반에 2회에 걸친 몽골의 침공을 받았던 일본은 3회째의 몽골침공에 대비하여 異國警固番役과 石築地 축조, 異國 항복을 위한 기도, 寺社에 대한 德政政策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결국 3회째의 몽골침공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異國警固番役과 石築地 축조는 14세기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元의 일본 招諭<sup>1)</sup>는 1299년까지 계속되었고, 일본과 원 사이에 외교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반면에 일본과 원의 무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면서 경제·문화면에서는 깊은 교류가 있는 정경분리의 관계가 오래 계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려와 일본 사이는 외교관계는 물론 경제적 교류도 공적으로는 단절된 채로 있었다. 이것이 일본·원과의 관계와 일본·고려관계의 큰 차이점이다.

14세기 중후기가 되면 이러한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1350년 이후 전기왜구(庚寅 이래의 왜구)의 활동과 중국에서 명의 건국으로 麗日關係는 물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

1) 弘安의 役 이후 元의 日本招諭에 관해서는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 龍肅, 『蒙古襲來』, 至文堂, 1959년 ; 川添昭二, 『蒙古襲來研究史論』, 雄山閣, 1977년 ; 南基鶴 『蒙古襲來と鎌倉幕府』 臨川書店, 1996년 ; 佐伯弘次, 『日本の中世9モンゴル襲來の衝撃』, 中央公論新社, 2003년 등 참조. 또한 전반적으로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編, 『對外關係史總合年表』, 吉川弘文館, 1999년을 참조했다.

큰 흐름으로는 몽골침공(전쟁) 시대부터 왜구의 활동과 그에 대한 대책, 더 나아가서 명에 의한 동아시아 세계의 재편과 각국의 대응시대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 1. 몽골침공 이후의 麗日 교섭

### 1) 元使·高麗使의 일본 파견

1281년 원의 제2차 일본원정(弘安의 役) 이후에도 원의 일본 招諭는 계속되었다. 쿠빌라이는 그 후에도 일본원정을 준비했으며, 일본 측도 이를 예상하여 異國 경비와 石築地 수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세 번의 일본원정(몽골침공)은 양국에게 있어서 조만간 실행되는 현실 문제였다.

1283년 12월에 일본의 鎌倉幕府는 元이 내년 봄에 침공하니까 異國警固番役을 엄중하게 하도록 薩摩國의 地頭 御家人과 本所一円地의 주민들에게 명했다. 이듬해 1284년 4월, 원은 日本國信使 王積翁과 愚溪如智 일행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동행했던 자들이 對馬에서 積翁을 살해했기 때문에 원의 사절 일행이 되돌아갔다.

1289년부터 90년 사이에 일본의 조정 주변에서 「머지않아 몽골이 침공한다」는 소문이 퍼져 조정과 막부는 주요한 寺社에 異國 항복을 위한 기도를 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낭설」이었으며, 원의 침공은 없었다.

반쿠빌라이파의 몽골 왕족 나얀과 카단이 중국 동북부에서 쿠빌라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고려에까지 파급됐는데, 1291년에 쿠빌라이 쪽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이듬해인 1292년 5월, 일본 상선이 耽羅에 들렀을 때 상인 2명이 현지인에게 체포되었다. 같은 해 7월, 일본 상선이 원의 慶元(寧波)에서 귀국하는 길에 원의 지방관 燕公南의 牒狀을 가져왔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鎌倉幕府가 異國 항복을 위한 기도를 전국의 一宮(그 지방에서 으뜸가는 神社)·國分寺(奈良 시대에 평화를 기원하며 전국 각지에 세운 관립 사찰)에서 거행하도록 했던 일로 미루어볼 때, 몽골의 재침을 예견할만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쿠빌라이의 지시를 받고 1292년에 耽羅에서 체포한 일본 상인을 송환한다는 구실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高麗使(宣諭使) 金有成 일행은 동년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갔다<sup>2)</sup>. 11월 12일, 鎮西(九州를 말함)의 사자가 京都에 도착하여 몽골牒狀(실제로는 高麗牒狀)의 도래를 보고

2) 高麗使 金有成의 來日과 일본 측의 대응에 관해서는 池內 1931, 龍 1959,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編 1999, 佐伯 2003 등 참조.

했고, 13일에 六波羅探題의 사자도 동행하여 鎌倉로 향했다. 11월 24일, 鎌倉幕府는 모임을 갖고 北條兼時·北條時家を 「異國打手大將軍」으로 결정했다. 12월 8일, 鎌倉幕府의 사자는 異國牒狀을 가지고 京都로 올라갔다. 鎮西 → 六波羅探題(京都) → 鎌倉幕府(鎌倉) → 朝廷(京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異國牒狀 전달 경로는 文永의 役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12월 10일, 幕府의 사자는 關東申次西園寺實兼에게 高麗牒狀을 제출했으며, 이후 조정과 院 내부에서 高麗牒狀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다. 治天君인 後深草法王은 대책에 대하여 지시하고, 이 牒狀을 「무례, 우둔, 기괴」하다고 평가했다.

金有成가 일본에 가져왔던 高麗國書는 『高麗史』 등에 기록이 있고, 金澤文庫에는 복사본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상인이 耽羅에서 체포되었고, 쿠빌라이의 명으로 호송된 경위를 설명했으며, 고려가 원에 복속하여 국가를 보존했지만 宋은 원에 거역하여 나라가 멸망한 일, 황제 쿠빌라이는 덕망이 높다는 등을 설명하고 원에게 사신을 보내 入朝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 國書를 본 조정과 幕府는 寺社에서 異國 항복 기도를 올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幕府는 이 사절의 渡日에 위기감을 느꼈으며, 北條兼時와 北條時家を 「異國打手大將軍」에 임명하고 九州로 향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이듬 해 1293년에 九州의 博多로 갔다. 北條兼時は 北條時宗의 조카이며 得宗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당시는 六波羅探題北方이라는 요직에 있었다. 이러한 임명이 元の 재침공을 예상하고 남다른 결의 아래 행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北條時家は 北條씨의 유력한 일족 名越씨이다. 이들 두 사람의 「異國打手大將軍」 임명과 九州 부임을 鎮西探題의 성립으로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sup>3)</sup>. 이들 두 사람이 九州로 향하기 직전에 鎌倉幕府는 「爲異賊警固, 所下遣兼時·時家於鎮西也, 防戰事加評定, 一味同心可運籌策, 且合戰之進退, 宜隨兼時之計」(異賊 방어를 위하여 兼時·時家を 鎮西로 파견하는 바이다. 防戰에 대해서는 評定을 행하고, 일치단결하여 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전투의 진퇴는 兼時の 계책에 따라야 한다)고 薩摩守護 島津忠宗에게 하명하고 있다<sup>4)</sup>. 전쟁에 임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며, 兼時가 首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異國打手大將軍」의 파견을 전후하여 幕府는 關東에 아직 남아 있던 九州에 所領을 가진 御家人을 九州로 보내고, 아울러서 앞으로 닥칠 異賊과의 전투의 勳功賞을 九州의 御家人들에게 약속하며 九州 방어를 확고히 하려고 했다. 博多로 내려간 兼時와 時家は 石築地 개축과 철저한 異國警固番役 근무를 꾀했던 모양이다. 특히 1294년 3월에는 北九州 연안과 도서지방에서 烽火 연습을 했다. 이 일을 지시했던 문서<sup>5)</sup>에, 「異國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 결코 게을리

3) 예를 들면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98년.

4) 島津家文書 正応 6년 3월 21일 關東下知狀(『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之一』 34호).

5) 來島文書 永仁 2년 3월 6일 北條定宗書下(『鎌倉遺文』 24권 18499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元의 재침공을 예상한 연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元의 재침공은 없었고, 兼時와 時家は 1295년 4월에 關東으로 돌아갔다.

일본 측의 사료<sup>6)</sup>에 따르면 1293년 4월에 幕府의 계획으로 「異國牒使」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하는데, 『高麗史』列傳·金有成에 의하면 金有成은 일본에 억류된 채 귀국하지 않았고, 1307년 7월 5일에 일본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어떤 사료가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文永의 役 이후의 元使는 幕府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일이 흔했으며, 어쩌면 高麗 使節은 귀국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1298년, 일본의 상선이 元의 明州(慶元)에 도착했다. 이듬 해 이 선박이 귀국할 때 元使(國信使) 一山一寧이 편승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종래의 元使는 高麗를 경유하여, 高麗의 안내를 전제로 일본에 파견되는 것이 항례였으며, 慶元에서 海路로, 더군다나 일본의 무역선에 편승하여 일본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禪僧이 正使로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一山一寧은 10월에 鎌倉에 도착했다. 그 후 一寧은 귀국하지 않고 建長寺 주지가 되는 등 일본의 禪宗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것이 일본을 招諭하는 元의 마지막 사신이었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 2) 일본의 대륙 군사정보의 수집

弘安의 役 직후부터 일본은 元과 高麗의 군사정보 입수에 노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7)</sup>. 즉 1282년에 일본은 弘安의 役 때 항복한 賈祐리는 南宋의 투항병을 강남에 파견하여 元의 원정계획을 정찰하였다. 일본 상선에 편승하여 원에 입국하는 일본 승려도 정찰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元의 정찰은 아마도 幕府의 주도로 행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南宋의 멸망을 일본에 전한 것은 무역선이었다. 文永의 役 이후에도 元과 일본은 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日元貿易船이 元의 정찰을 떠맡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고려 역시 弘安의 役 직전에 고려의 군사기지가 있는 舍浦 주변에서 「어부」가 연속적으로 왜적에게 납치되고 있는 것은 고려의 군사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6) 『師守記』 貞治 6년 5월 9일조.

7) 南 1996, 181-183쪽.

## 2. 14세기의 麗日關係

### 1) 前期倭寇의 활동

전기왜구가 활동하는 1350년 이전에도 왜구의 활동이 있었다. 13세기 전반에 약간 피크를 맞이한 왜구를 초기왜구라고 부르며, 14세기 무렵이 되면 元에 대한 왜구활동이 행해졌다. 이것은 元寇를 계기로 元 쪽이 일본 상인을 박해하고, 이에 대한 일본 상인의 자위적인 폭력행위가 해적 집단의 발생·전개로 연결됐다는 설<sup>8)</sup>이 있지만, 최근의 연구<sup>9)</sup>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인의 「왜구」 행위는 元나라 현지 관리의 일본 상인에 대한 侵漁와 이에 대한 폭동사건이며, 결코 조직적·계획적인 해적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323년 6월에 倭가 會元의 漕船을 群山島에서 약탈하고, 楸子島에 침입하여 老弱男女를 잡아간 사건<sup>10)</sup>이 발생했다. 漕船 습격과 被虜人 약탈은 전기왜구의 특징이기도 하며, 前期倭寇와 연결되는 해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이지만 14세기 전반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던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350년 2월, 倭가 固城·竹林·巨濟에 침입했다<sup>11)</sup>. 合浦千戶 崔禪 등이 이들과 싸워서 3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倭寇의 침입은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건 이후 倭寇의 활동이 급격하게 활발해졌고, 한반도를 빈번하게 습격하게 되었다. 「倭賊祈穰法席」 「倭賊防禦使」라는 글이 『高麗史』에 자주 보이듯이, 애초에 왜구는 高麗 정부에서 「倭賊」으로 호칭했던 듯하다.

이와 같은 전기왜구에 관해서는 몇몇 시기구분이 행해지고 있다. 田中健夫씨는 크게 4시기로 나누었다<sup>12)</sup>. 제1기는 1350년 2월 이후의 초기 단계, 제2기는 恭愍王 시대(1352년~74년)로 왜구 활동이 본격화된 시기, 제3기는 왜구활동의 전성기로서 辛禡王(1375년~88년)대에 최고점에 달한다. 제4기는 왜구세력의 쇠퇴기이며, 고려 恭讓王 시대부터 조선 太祖·定宗·太宗 시기에 해당한다. 그 구분이 되었던 사건이 1389년 2월의 고려군에 의한 대마도 정벌이었다고 한다.

田村洋幸씨는 크게 나누어 초기·중기·종말기의 3기로, 자세하게는 6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sup>13)</sup>. 빈도가 낮은 초기는 1350년~73년으로, 왜구에 대한 무대책의 시기였던 전반기(1350년~62

8) 森克己, 『新訂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9) 榎本, 2007.

10) 『高麗史』 世家, 忠肅王 10년(1323) 6월 丁亥, 동 戊子條.

11) 『高麗史』 世家, 忠定王 2년 2월조.

12)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6, 11-14쪽.

년)와, 적극적으로 왜인 초빙책을 세우고 자진해서 일본에 왜구 금지책을 요청한 후반기(1364년~73년)로 나눈다. 전성기인 중기는 1374년~89년이며, 왜구창궐기인 전반기(1374년~80년)와 점차 쇠퇴해 가는 후반기(1381년~89년)로 나눈다. 왜구종말기는 1390년~1418년으로, 소규모의 비조직적 왜구와 대규모 선단의 왜구가 뒤섞인 전반기(1390년~1400년)와 소규모화하는 후반기(1401년~18년)로 나눈다.

양자의 시기구분에서 세세한 연대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지만, 135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辛禡王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며,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에 쇠퇴한다는 흐름은 공통적이다.

일본의 과거의 통설<sup>14)</sup>에서 왜구들의 주요한 목적은 漕船·창고 등의 습격에 의한 식량 약탈과 사람의 약탈이었다고 한다. 그 근거지의 중심은 對馬·壹岐·松浦 지방의 「三島」 지역이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농업생산만으로는 섬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三島의 경제적 사정이었다고 한다. 아울러서 고려·조선 측의 외교정책과 왜구 회유정책 등으로 왜구들은 向化倭(投化倭)와 使送倭人·興利倭人 등으로 변질되어 갔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왜구의 개념을 크게 바꾸는 연구가 뒤를 이었다. 田中健夫씨<sup>15)</sup>는 대규모 집단 왜구의 실체를 검토하고, 대량의 인원·선박·마필의 해상 이동을 고려하면 왜구가 일본인만의 해적집단이라는 생각은 부자연스러우며, 대규모 왜구집단은 일본과 고려·조선 양국 인민이 연합하여 성립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한편, 高橋公明씨<sup>16)</sup>는 倭服을 입고 倭語로 대화하며 각지를 이동하는 제주도 海民을 검토하는 중에, 조선 국내의 상당한 해상세력이 왜구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기층부분을 제주도 海民이 담당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이들 두 사람의 새로운 견해가 왜구연구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에서는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浜中昇씨<sup>17)</sup>는 이와 같은 田中健夫씨와 高橋公明씨의 견해에 비판을 가했다.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수많은 왜구 기사 속에서 고려의 인민이 거짓으로 왜적이 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두 가지 경우에 불과하며, 「倭人不過一二」라고 한 1446년의 李順蒙의 말은 근거 사료가 없다는 점, 고려·조선의 禾尺·才인들이 도적행위를 한 기사는 많지만 그들과 왜인들의 연합을 보여주는 사료가 없다는 점, 제주도 등지의 海民을 해적집단으로 조

13)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제2장, 三和書房, 1967.

14)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田中 1966 등.

15)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會史1』 岩波書店, 1987.

16)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 33, 1987.

17) 浜中昇, 「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 『歴史學研究』 685, 1996.

직할 수 있을만한 주체가 조선 국내에는 없고, 한반도 남부의 海民이 고려 말기의 왜구에 가담했다고 해도 개별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점, 왜인·일본인에 의한 대규모 왜구는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한반도 남부의 海民이 개별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왜구를 구성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왜인 내지 일본인이라고 했다.

村井章介<sup>18)</sup>는 禾尺·才人들이 왜적으로 위장했던 일은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왜적과 연합해서 하나의 집단이 되어 왜구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李順蒙의 말은 국가의 役을 회피하고 있는 자가 매우 많아서 군대의 수가 부족해졌다는 의미의 문맥을 기초로 기록된 것이며,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田中說을 비판했다.

李領<sup>19)</sup>은 庚寅年의 왜구는 足利直冬의 공세에 당황한 少貳賴尙이 對馬의 군대를 동원하고 군량미를 얻어서 고려를 공격한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왜구는 해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악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광범위한 사회적 계층이며, 대다수의 왜구집단은 공권력, 특히 南朝 쪽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점, 田中健夫씨의 禾尺·才人=왜구론에 관해서는 대규모의 禾尺·才人이 왜구와 연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없다는 점, 高橋公明씨의 제주도인=왜구론에 관해서는 제주도인이 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전혀 없다는 점, 왜구=고려인 주체론을 거론한 李順蒙에 관해서는 왜구에 관한 기사가 傳聞에 기초한 것이며, 李順蒙의 인격·성향이 「狂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발언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 세분의 견해는 田中씨·高橋씨의 새로운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전기왜구의 주체를 일본인과 고려·조선인의 연합이라거나 고려·조선인으로 보는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舊說인 일본인 주체설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sup>20)</sup>. 다만 庚寅年의 왜구는 少貳씨가 파견한 것이라는 李領씨의 견해는 일본 학계에서는 부정적이다<sup>21)</sup>.

한편 중국에서 활동했던 전기왜구는, 元代에 관해서는 사료가 드물지만, 1358년 무렵에 해마다 왜구가 해안에서 가까운 군현을 습격하고 있다<sup>22)</sup>. 원 말기의 왜구에 관해서는 方國珍 등 군웅의 반란과 관련지어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浙江 연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方國珍은 그 휘하에 舟山列島 등지의 海民이 있었고, 그들이 「島夷」, 즉 왜구와 결탁하여 해적활동을 했다는 점, 方國珍과 張士誠이 멸망한 뒤에 휘하의 「諸豪」는 망명하여 「島夷」와 손을 잡았으며, 중국

18) 村井章介, 「倭寇の他民族性をめぐって」, 大隅和雄·村井章介編,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 山川出版社, 1997.

19) 李領, 『倭寇と日麗關係史』 제4장·제5장, 東京大學出版會, 1999.

20) 橋本雄·米谷均, 「倭寇論のゆくえ」, 桃木至朗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21) 森茂暁, 『南朝全史』, 講談社, 2005, 橋本·米谷 2008.

22) 榎本涉,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 吉川弘文館, 2007, 177-180쪽.

연해를 침입했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23)</sup>. 이와 같은 왜구와 중국 연해 지방의 海民이 연합하여 중국 연해를 침입한 것과 고려를 습격한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문제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구는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며, 동아시아적인 규모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 2) 고려의 對日使節 파견과 일본 측의 대응

### ① 金龍·金逸의 來日(1366년)

왜구의 활성화라는 상황에 직면했던 고려는 왜구금압을 요청하는 사자를 일본에 파견했다. 1366년 9월, 고려의 사자 金龍 일행이 出雲에 도착했다<sup>24)</sup>. 金有成的 파견 이래 실로 70여년만의 사신이다. 일행은 出雲에서 方物을 탈 취당했지만, 이듬해 2월에 상경하여 天龍寺에서 머물렀다. 이 절에서 숙박한 것은 室町幕府의 계책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들보다 약간 늦게 고려에서 金逸이 별도로 도착했고, 역시 天龍寺에 머물렀다.

처음에 京都에서는 「몽골 및 고려 사신이 牒狀을 가지고 來朝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나중에 고려의 사자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金龍이 지참했던 「牒狀」(외교문서)은 室町幕府를 거쳐 조정에 전달되었다. 몽골침공 때의 대응과 동일하다. 이 일련의 고려의 외교문서는 현존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의 征東行中書省(고려왕이 장관)이 일본국에 대하여, 至正 10년(1350) 이후 일본의 해적선 다수가 고려를 습격하고 관청을 불태웠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海島에 대하여 엄중히 금압을 가하도록 의뢰하는 것이었다. 또 『高麗史』에 따르면, 나중에 보낸 金逸의 파견 목적도 「일본으로 가서 해적을 금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조정에서 이 「牒狀」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고 있을 때, 室町幕府는 고려사신 일행을 후하게 접대했고, 奈良·大佛殿을 관광시키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조정에서 고려에 「返牒」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室町幕府는 「返牒」을 작성하고 각종 선물을 사절에게 주었으며, 天龍寺 승려를 사신으로 파견하고 일행을 송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교를 室町幕府가

23) 奥崎裕司, 「方國珍の亂と倭寇」, 明代史研究會編, 『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上』, 汲古書院, 1990, 藤田明良 「「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 1997, 熊遠報, 「倭寇と明代の「海禁」—中國學界の視点から—」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 1997, 壇上寬 「方國珍海上勢力と元末明初の浙江沿海地域社會」, 京都女子大學東洋史研究室編, 『東アジア海洋域圈の史的研究』, 京都女子大學, 2003.

24) 金龍·金逸의 來日에 관해서는 青山公亮, 『日麗交涉史の研究』 제8장, 明治大學, 1955, 中村榮孝, 「『太平記』に見える高麗人の來朝」, 동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1965 참조.

관할하는 선례가 생겨났다. 왜구금압을 요구하는 고려사신의 파견이 일본에 있어서는 외교권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던 것이다.

### ② 羅興儒의 來日(1375년)

1375년 2월, 고려는 羅興儒를 通信使로서 일본에 파견하였다<sup>25)</sup>. 『高麗史列傳』에 의하면, 羅興儒가 日本에 도착하자 일본 측은 興儒를 「謀者」로 의심하고 체포하였다. 「鄭夢周傳」에 따르면 夢周가 구금되었던 곳은 博多이며, 博多의 主將(九州探題?)이 구금했다고 기록했다. 고려 출신의 승려 良柔가 興儒를 보고 사면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1375년 11월 6일, 室町幕府는 「高麗使之羅興儒以下, 同進物等」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播磨守護에게 人夫·傳馬를 준비하고 경비를 지시했으며, 통과시키도록 명했다<sup>26)</sup>. 즉 1375년 11월~12월 경, 羅興儒 일행은 京都를 향해서 播磨國 부근을 통과했다. 그 후 이듬해 1276년 5월 3일, 近衛道嗣 앞으로 公家 1인이 倭寇禁止을 요구하는 「高麗國牒狀」을 가져왔다(「愚管記」). 道嗣는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幕府에 상정하도록 신청했다. 그 후의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羅興儒 일행은 1376년 10월에 귀국했다. 이때 室町幕府는 승려 良柔를 사자로 고려에 파견했다. 당시 선승 周佐가 기록했던 私信 형식의 외교문서가 『高麗史』 辛禡傳에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우리 서해도의 九州는 亂臣이 할거하고, 年貢을 바치지 않은 지 20년 이상이나 된다. 서해도의 어리석은 백성이 敵의 틈을 노리고 入寇하였다. 우리가 행한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조정은 武將을 파견하여 왜구들을 정벌하였고, 그 땅에 깊숙이 들어가서 적과 아군이 전투를 벌였으며, 매일같이 싸웠다. 바라는 바는, 九州를 회복하면 하늘에 맹세하여 海寇를 금지하겠다」는 일본 측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왜구의 근거지인 九州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구 금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室町幕府의 사정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③ 安吉常의 來日(1377년)

1377년 6월, 고려는 安吉常(吉祥이라고도 함)을 일본으로 보내 禁賊을 요청했다. 『高麗史』에는 이때의 國書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安吉常은 일본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東寺領 播磨國 矢野莊의 이 해의 算用狀에는 「高麗人上洛人夫催促雜事」과 「同下向時送夫催促雜事」가 기록되어 있다<sup>27)</sup>. 羅興儒 때와 마찬가지로 播磨國 沿道の 장원에 人夫·傳馬 등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播磨 1국뿐만 아니라 고려 사신이 지나가는 沿道에는 모두 동일한 賦課가 행해졌다

25) 羅興儒 이후의 遣使에 대해서는 주로 靑山 1955, 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編 1999를 참조했다.

26) 東寺百合文書よ函60, 「人夫役文書案」 『相生市史 第8卷 上』, 相生市, 1992, 380-381쪽.

27) 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編 1999.

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해 8월에 일본은 승려 信弘을 고려에 파견하여 왜구금압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을 전했다. 信弘은 室町幕府가 아니라 九州探題 今川了俊이 파견한 使僧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28)</sup>. 了俊은 이듬해 6월에 信弘에게 군사 69명을 거느리고 왜적을 체포하도록 했다. 7월에 信弘은 왜구와 싸워 배 한척을 포획하고, 포로가 된 부녀 20여 명을 구출했다. 11월에 다시 왜적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귀국했다.

#### ④鄭夢周의 來日(1377년)

1377년 9월, 고려는 鄭夢周를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금압을 요청했다. 『高麗史』 鄭夢周傳에 의하면, 鄭夢周는 博多에서 「古今交隣의 利害」를 「極陳」하여 主將(今川了俊?)을 감복시켰다고 한다. 鄭夢周는 일본에서 지은 漢詩를 남기고 있다(「圃隱先生文集」). 夢周는 이듬해 78년 7월 일본에서 귀국했다. 九州探題 今川了俊은 周孟仁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동행시켰고, 尹明 등 수백 명의 被虜人을 송환하고 三島의 왜구 금압을 약속했다. 78년 6월에 東寺領 播磨國 矢野莊에 守護代로부터 「高麗人送夫催促使雜事」가 賦課되었던<sup>29)</sup> 것은 鄭夢周가 京都에서 귀국길에 올랐던 때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安吉常의 사절 파견 이래 室町幕府보다 오히려 博多의 九州探題와 교섭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며, 사절의 송환도 九州探題가 행하고 있다.

「鄭夢周傳」에 의하면 왜구들이 고려의 여염집 자제를 노예로 삼는 것을 막하게 여기고, 석방금을 지불하고 被虜人을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廷臣으로부터 각출한 자금을 토대로 被虜人이었던 尹明을 博多로 파견하여 被虜人 백여 명을 송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被虜人 송환이 사절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⑤李子庸·韓國柱의 來日(1378년)

1378년 10월, 고려는 李子庸·韓國柱 두 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금지를 요청하고 今川了俊에게 金銀酒器 등을 선물했다. 이듬해 1379년 5월에 韓國柱는 귀국했다. 大內義弘은 朴居士에게 병사 186명을 인솔하게 하여 韓國柱와 동행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李子庸이 귀국했다. 今川了俊은 被虜人 230여구를 돌려보내고 槍 등을 헌상했다. 고려의 교섭 상대는 점점 더 西國大名들 쪽으로 기울었다.

28) 靑山 1955.

29) 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編 1999.

## ⑥尹思忠의 來日(1379년)

1379년 윤5월, 고려는 尹思忠을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일본에서의 활동과 귀국한 연도 등 상세한 것은 불명이다.

이상과 같이 고려의 왜구 금압 요구에 응했던 것은 외교권을 장악해 갔던 室町幕府가 아니라 今川了俊과 大内義弘이라는 西國의 유력 大名들이었다. 室町幕府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381년 8월 6일, 大隅守護 今川了俊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악당들이 고려로 건너가서 난폭한 짓을 하므로, 엄중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大隅國의 왜구 금압을 명하고 있다<sup>30)</sup>. 고려의 왜구 금압 요구에 幕府로서도 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금압에 나섰던 것은 守護大名과 지역의 영주들이었다. 今川了俊은 많은 被虜人을 고려·조선에 송환했고, 그 보답으로 大藏經을 요구하기도 했다<sup>31)</sup>. 고려 사신이 돈으로 被虜人의 구입·송환을 의도했던 일이 상징하듯이, 被虜人 송환은 무역상의 우월한 대우와 무역 자체의 확대라는 이점이 있었다.

## 맺는말

이상과 같이 고려의 빈번한 외교노력은 西國의 유력 대명을 주목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380년대가 되면 왜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三島의 일각, 對馬島主 宗氏의 동향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1368년 7월에 對馬島 万戶가 高麗에 사신으로 건너와서 토산물을 헌상했다. 고려는 윤9월에 講究使를 對馬에 파견, 11월에는 對馬島 万戶 崇宗慶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來朝했으며, 고려는 宗慶에게 쌀 1000석을 주었다. 崇宗慶(宗宗慶)은 원래 宗家の 宗經茂이며, 앞의 對馬島 万戶와 동일인일 것이다. 宗經茂는 이 무렵부터 고려에 사신을 보내 고려와 통교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아마도 宗氏는 對馬 근해에서 고려 사신의 호송에도 관여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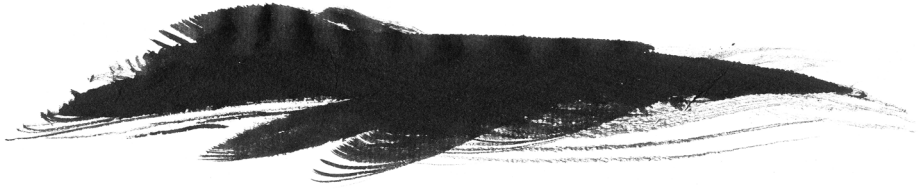
이러한 遣使와 쌀 급여는 다음 시대인 조선에서 宗氏와 조선의 관계와 공통되는 것이며, 중세의 日朝關係는 14세기 후반의 고려 말기부터 차츰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0) 禰寢文書 永德 원년 8월 6일 室町幕府御教書案, 『南北朝遺文九州編』 5권 5673호.

31) 川添昭二, 『對外關係の史的展開』 제5장, 文獻出版, 1996.



# 토론문





## 13세기 이전의 麗日關係

발표자 : 李 在 範

토론자 : 榎本 涉

李在範씨의 논문은 전기 麗日關係史의 토픽을 국가 간의 관계·교역 관계·문화적 교류·군사적 갈등·표류민 송환·進奉 관계의 여섯 개로 나누어서 개관한 것인데, 한국·일본 양국의 사료와 연구사를 정리한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으며, 식견이 적은 당해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논문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① 이재범씨가 정리한 여섯 항목은 이재범씨의 麗日關係史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것인데, 상호간에 관계가 깊은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서 표류민·도망인·전쟁포로의 송환은 국가와 지방관 사이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는데, 인민을 그가 속하는 국가로 돌려보내든가 귀화인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원래 국가적인 통치권·지배권에 속하는 사항이며(10세기 이후 일본의 실태가 반드시 그렇게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송환은 종종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표류민 송환이라는 기회가 생기면 국가 간의 교섭도 발생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이재범씨가 국가 간의 관계로 열거한 것으로는 표류민 송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산견된다. 예를 들면 997년 고려에서 보낸 牒狀 송부에 관해서는, 「抑高麗使, 大宰人也」라고 했고(『小右記』長德 3/6/13), 이때 일본에서 보낸 太政官符에는 「須專國信, 先達大府. 何脅斷綆漂流之客, 以爲行李」라고 되어 있으며(『水左記』承曆 4/9/4), 고려가 大宰府의 표류민을 일본으로 송환할 때 보낸 牒狀임을 알 수 있다. 또 1051년의 高麗牒狀에 대하여는 「高麗國牒狀定. 返上日向國女事」(『百鍊抄』永承 6/7/10)라고 하며, 日向의 여성을 일본으로 송환했을 때 牒狀도 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할 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고려 건국 초기의 외교교섭(937~940년)과,

국왕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 파견을 요청했던 특수한 사례(1080년)를 제외하고, 이재범씨가 麗日 간에 국가 간의 관계로 다룬 것은 모두 표류민 · 전쟁포로의 송환으로 한정된다.<sup>1)</sup> 의도하지 않은 인민의 이동이 양국 간에 일어났을 때 그 해결 과정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것이며, 환언하면 그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 이외에 국가 차원에서 교섭이 행해지는 일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범씨가 거론한 여섯 항목 중에서 국가 간의 관계와 표류민 송환, 특히 11세기 이전에 관해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될 것이다. 표류민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구속하는 선택도 있으니까 표류문제의 하위 레벨에 속하는 하나의 토픽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은 이재범씨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분류라는 작업의 한계를 보이기 위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재범씨의 논문은 관계 자료의 분류가 주된 목적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기 쉽게 되었지만, 분류작업은 각 토픽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상호 관계를 보기 거북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국가 간의 관계와 표류문제 외에는 진봉관계와 군사적 갈등, 교역 관계와 문화적 교류 · 진봉 관계 등이 그러하다). 그 선행 작업으로서 이번에는 분류한 각 토픽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범씨의 논문 앞에서 곤란하다고 한 「13세기 이전의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상황으로서 말하는 것」도 일정하게 논리를 세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제3장의 교역관계에 관해서는, 주로 일본 상인의 내항에 관한 『高麗史』의 기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도로 제4장의 문화적 교류 부분에서 1095~1120년에 宋商人이 고려에서 佛典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몇몇 기사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것들도 고려와 일본 간

1) 972년에 金海府 · 南原府가 파견했던 使者에 대하여, 森平雅彦씨는 이 시점에서 지방관의 파견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방호족이 자주적인 통교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森平 2008 「日麗貿易」 『中世都市 · 博多を掘る』 海鳥社). 1056년 「日本國使正上位權隸滕原朝臣賴忠」의 金州來航에 관하여, 그 官位를 「正七位權掾」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掾은 지방관인 國司의 4等官의 네 번째이며, 大掾에 해당하는 관위는 正7位, 少掾에 해당하는 관위는 從7位), 滕原賴忠은 對馬 등 國衛의 在廳官人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日本國使」로 기록되어 있어도 京都의 조정에서 파견한 使者는 아닌 것이 된다. 1147년 고려에 來航했던 日本都綱黃仲文이 일본의 使者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며, 현상으로는 일개 상인의 來航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56-65년의 사례로 되어 있는 李文鐸墓誌銘의 기사는 對馬가 「辺事」에 관하여 東南海都部署에 牒을 보낸 것으로, 東南海都部署는 開城에 이 문제를 전달했지만 「辺事」 문제로 尙書省에서 返牒을 보낼 수는 없다고 하여 東南海都部署에서 返牒을 보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는 한, 對馬의 牒으로 취급된 「辺事」는 麗日 간의 국가적인 안건이 아니라 對馬에 관한 안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은 지방관 차원에서 교섭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적인 성격을 가졌다 해도 「국가 간 관계」의 토픽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 물건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는 명백히 麗日貿易의 사례가 된다.

宋商人이 麗日貿易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高麗史』에 일본 상인 내항기사가 집중되는 1073~89년 이후의 시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언은 피하고 싶다. 다만 어느 것이 됐든 宋商人으로 보이는 黃仲文이 1147년 고려에 내항하여 「日本都綱」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제2장 표 참조)도 포함해서 생각하면, 일본인의 이름을 가진 상인과 使者 외에 宋商人도 麗日貿易에 관여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 점은 麗日貿易을 아시아사의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高麗史』에 등장하는 宋商人 중에 사실은 일본을 경유하여 내항했던 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일본상인의 활동 장소가 고려에서부터 宋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보는 森克己의 발상이 조선을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보는 卍下意識에서 왔다고 하는 이재범씨의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이 森克己의 학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무역의 동향과 그 담당자 문제를 고려·일본 간으로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추급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일본의 佛教 사료에는 高麗의 佛典을 구입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 외에도 고려에 관한 기록이 산견된다. 예를 들면 日宋 교통로 상의 표지·표착지로서 고려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sup>2)</sup>. 1072년의 成尋, 1082년의 戒覺의 사례에 대하여는 이재범씨도 언급하고 있는데(제5장 表), 13세기 중엽까지의 다른 사례를 보면, 円爾가 1241년 宋의 慶元에서 출항한 도중에 高麗國 耽沒羅阿私山 아래 표착했던 사례(『聖一國師年譜』), 文榮房(13세기 전반의 入宋 승려 湛海?)가 入宋할 때 악풍을 만나 고려에 표착했던 사례<sup>3)</sup>, 無本覺心이 1254년 宋에서 귀국했을 때 배가 표류하여 아마도 그때 고려에 들렀다는 사례(『明極和尚語錄』)를 들 수 있다.

宋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배가 고려에 표착하는 일이 많았던 것은 京都의 藤原定家が 1226년에 왜구의 활동을 들었을 때 언급하고 있으며<sup>4)</sup>, 고려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日宋 간의 왕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편에서 고려와의 통교단절에 대한 위구감에 관하여는 언급

2) 拙稿, 2008, 「日宋·日元交通における高麗-佛教史料を素材として-」 『中世港湾都市遺跡の立地・環境に關する日韓比較研究』 平成15~19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3) 高橋秀榮, 2007, 「泉涌寺出身の律僧たち -金澤文庫の聖教を手がかりに-」 『戒律文化』 5.

4) 『明月記』 嘉祿 2년 10월 16일조.

午時法眼來談. … 高麗合戰一定云々. 鎮西凶党弓松浦党, 構數十艘兵船, 行彼國之別鳴合戰, 滅亡民家, 掠收資財所行向, 半分許被殺害, 其殘盜取銀器等歸來云々. 爲朝廷太奇怪事歟. . 依此事舉國興兵. 又我朝渡唐之船, 向西之時, 必到着彼國, 歸朝之時, 多隨風寄高麗, 流例也. 彼國已爲怨敵者, 宋朝之往反不可輒. 當時唐船一艘寄高麗, 被付火, 不殘一人燒死云々. 末世之狂亂至極, 滅亡之時歟. 甚奇怪事也.

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적어도 중앙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고려의 중요성은 日宋 간의 교통로 상이라는 지리적인 위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표류했던 사람에게 가까운 입장에서 기록된 것으로, 일본의 불교사료는 귀중하다.

다만 불교사료를 취급할 때는 다른 사료와 마찬가지로 그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재범씨가 일본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던 고려 승려의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하는 了然法明이 그러한데, 16세기까지의 사료에서 그를 고려 승려로 다룬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고려 승려가 된 것은 『日本洞上聯灯録』에 수록된 伝에 「高麗國人」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는데, 이 책은 1727년에 성립했으며 충분한 믿음을 갖기에는 주저된다. 한편에서 1808년 序의 『宗門略列祖伝』처럼 『日本洞上聯灯録』 이후에도 了然을 일본인으로 명기한 것도 있으며, 후세에도 반드시 了然이 고려인이라는 학설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高麗人說의 근거는 아마도 1645년에 성립된 『玉泉寺緣起』인데, 了然이 개창했던 出羽 玉泉寺의 由緒書이다. 이것도 성립년대·사료의 성격에서 볼 때 역시 믿음을 갖기는 곤란하다. 여기서 了然은 고려인이 아니라 「百濟國僧也」라고 하며, 齊明天皇 시대에 일본에 왔고(655-61), 玉泉寺 개창은 663년이라고 한다. 모델은 명백히 『元亨釋書』에 보이는 백제인 法明尼(656년에 中臣鎌足の 병을 치료한 비구니)이며, 了然法明과 法明尼의 法諱가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오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了然이 고려 승려로 된 것도 「百濟國僧」이라는 誤伝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了然法明의 평가에 대하여는 유보의 필요를 느끼지만, 종래에 불교사료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고, 고려관계 사료도 여전히 발굴될 가능성은 있다. 麗日關係 사료집의 발간은 이후의 연구 진전에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사료 탐방의 의의도 여전히 저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언해 두고 싶다.

# 「13세기 전반에 있어서 麗蒙交涉의 한 단면」 -몽골 官人과의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발표자 :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토론자 : 이 훈

## 1. 본 논문의 의의

본 논문은 13세기 고려·몽고 교섭의 추이를 외교문서의 양식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러·일 간의 외교문서 등과 비교를 통해 고려시대 對蒙古, 對日本 외교문서가 「啓式(외교)문서」였음을 조심스레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원본의 부재는 물론, 사본이라 해도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문서학적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다.

## 2. 질문

### -사료적 문제

우선 제목의 부제를 보면 고려 측(국왕, 상서성 등)과 몽고 관인과의 왕복문서가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다. 왕복문서라면 보낸 문서에 대해 받은 문서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상호 검토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표>를 보면 고려 측 문서만 제시되어 있는데, 각 문서에 대응하는 몽고 측의 외교문서는 없는지? 본 논문에 제시된 사료가 현재 알 수 있는 고려시대 외교문서의 전부인가?

### -방법론적 문제

고려 측의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발신인의 명기 방식, 문서를 보낼 때 사용하는 문언, 말미에 사용하는 문언, 연기기재 등이 서식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몽고 측의 실제 외교문서로는 1231년 살레탑이 보낸 ‘書狀’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문체(몽골文 直譯體 白話風 韓文)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 서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식은 알 수 없는지?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으며, 이때 ‘서장’이라면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書’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표>의 1232년의 고려 측 문서가 「啓」인데 몽고 측 문서가 「書」라면 이러한 외교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 -평가의 문제

「啓」를 상행문서, 「書」를 평행문서 등, 어떤 書式으로 보는 것 및 외교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자도 주저했듯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조선시대 조일관계에서 주고받은 문서(서계)를 예로 들면, 동일한 외교상대에게 주는 문서라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17세기 초 조일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마번주가 예조참의에 대해 문서를 보낸다는 뜻의 문언으로 ‘謹啓’·‘奉啓’·‘奉書’·‘啓書’·‘贈書’·‘致書’·‘啓達’의 7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정도에 따른 차이였다.

즉 13세기 고려몽고 관계에서 외교문서로서 「啓」를 선택하느냐, 「書」를 선택하느냐는 그때그때 외교적 자세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해도 외교관계(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교문서의 서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마찰과 교섭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啓」식 문서라 해도 문장의 말미에는 「不宣」이라 하여 「書」에 보이는 문언 사용.

「啓」를 강조하려면 「書」의 특징에 대해서 더 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상행문서로서 「啓」식문서와 「咨」식 문서의 차이?

# 蒙古의 日本侵略과 日本의 対応

-高麗와 日本의 關係에 留意하며-

발표자 : 南 基 鶴

토론자 : 후나타 요시유키(船田善之)

南基鶴씨의 논문 「蒙古의 日本侵略과 日本의 対応 -高麗와 日本의 關係에 留意하며-」는 몽골의 대일교섭과 침략이라는 미증유의, 더욱이 긴박했던 동아시아의 정치정세에 있어서 고려와 일본이 취했던 대응에 관하여 논한 글이다. 南基鶴씨에게는 勞作 『蒙古襲來と鎌倉幕府』(臨川書店, 1998년)이 있다. 南基鶴씨는 이 성과를 기초로 고려·일본의 입장 및 대응과 고려·일본의 관계를 고찰하고 새로운 시각과 식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글에 대한 논평으로는 몽골제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일본사 혹은 고려사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원래 적합할 것이다. 논평자의 코멘트는 자연히 몽골제국사의 입장에서 가해지게 되지만, 핵심을 벗어난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 두고, 南基鶴씨의 넓은 아량을 바라는 바이다. 또한 논평자는 수년 동안 큐슈대학 대학원 세미나에서 사에키 코지(佐伯弘次)씨·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씨와 공동으로 일본·몽골 관련 자료집 『伏敵編』을 강독하고 있다. 이하의 코멘트도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논의에서 많은 것을 의거하고 있음을 부언해 두고 싶다. 물론 부적당한 내용이 있다면 논평자가 책임질 일이다.

南基鶴씨 논문의 새로운 시각은 몽골의 일본침략, 몽골·일본관계라는 테마에 일본-고려라는 좌표축을 그었다는 점이다. 南基鶴씨는 「서문」에서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고려의 대몽골 항쟁에 역점을 두는 한편, 원 간섭기의 고려와 일본의 관계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최근에 일본 학계는 몽골의 침략에 대응했던 국내 정치사를 중심으로 분석이 행해지고 있으며, 국제관계라고 해도 일본과 대륙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각각 한국의 「高麗史」 학계와 일본의 「日本史」 학계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몽골제국사」 학계에서도 타당하다. 중국의 「蒙元史」 학계에 대하여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자국사의 입장에서 대외관계사(중국에서는 「中外關係史」라고 한다)의 무대를 고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對高麗·對日本을 별개로 다루고 있으며, 通史와 斷代史 개설서에서도 대외관계를 서술하는 章에서 각각 별도의 節과 항목으로 고려와 일본을 따로 취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서술은 사실상 『元史』 「外夷傳」의 고려·일본이라는 역사서술의 틀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면적·입체적인 국제관계의 파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일본에서도 종래의 몽골제국사 연구·元代史 연구의 對高麗·對日本에 관한 서술은 중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몽골시대사」라는 개념이 제창되기에 이르렀고, 이 이후 중앙유라시아사 시각에서의 검토, 유라시아사 규모에서의 고찰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조류가 새로운 식견과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논평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몽골의 對高麗·對日本關係史를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시각은 거시적 관점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미시적인 검토, 특히 고려의 동향에 대한 세심한 분석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일본 학계는 몽골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경제·문화교류에 관심의 중심이 이행되고 있으며, 정치·외교·전쟁에 관해서는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씨가 일련의 개설서·통사에서 몽골시대사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南基鶴씨의 논문은 「고려 조정과 三別抄의 대일교섭」이라는 節에서 몽골의 대일외교 중단을 획책하거나, 외교문서·書狀을 통하여 일본의 태도 軟化를 시도하는 등 고려의 두드러진 동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節에서는 몽골이라는 대국에 복속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안정·보전을 위하여 전쟁 회피를 지향하는 양면외교를 전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고려의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의 입장과 대책에 착안했던 점은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다면적·입체적인 歷史像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공적에 대하여 두 가지 욕심을 말하고 싶다. 첫째로, 몽골제국에 있어서 고려의 위치, 특히 고려 왕실의 지위와 관련해서이다. 고려 국왕은 1259년 이후 몽골제국 내부에서의 지위 상승을 계속 추진해 간다. 몽골의 駙馬 고려국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까지의 과정은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씨가 상세한 검증으로 추적하고 있다. 몽골에 있어서 고려국왕의 이러한 동향과 몽골·고려의 대일교섭 및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그 당시 국제관계의 다면적인 파악에는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몽골이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을 때 고려가 취했던 양면외교라고도 할 수 있는 조

치에 관해서이다. 고려는 일본으로 보낸 문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몽골의 외교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듯한 표현으로 변명하는 것과 아울러서, 몽골로 사절을 파견하도록 일본에 권유하고 있다. 고려의 이 조치는 커다란 문제를 품고 있다. 몽골 쪽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고려의 양면외교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가 몽골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했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반대로 몽골쪽(특히 使節 차원에서)이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는 정책을 취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趙良弼이 國書의 복사본을 일본 쪽에 부탁했던 일로 미루어 사절 일행은 이 같은 외교문서의 복사본을 휴대했던 것이 틀림없다. 즉 몽골 사절은 고려가 일본으로 보낸 문서의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측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을 連動해서 고찰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씨는 「鎌倉日本에 外交는 없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南基鶴씨의 논문은 일본-몽골의 좌표축에 막부-조정, 아울러서 北條得宗家-將軍-天皇이라는 좌표축을 추가함으로써 몽골 국서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았던 막부의 외교정책, 더우기 그 이후의 異國征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일본(막부·조정)의 대외정세 인식이다. 즉 일본은 어느 정도 당시 고려의 한반도 정세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이다. 종래에는 三別抄가 보낸 牒文을 둘러싸고 충분한 정세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논의되는 경향이였다. 반면에, 三別抄의 존재는 한반도 정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무신정권에서 고려국왕의 복권이라는 대략적인 정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보가 使節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은 높으며, 무엇보다도 제출된 국서 2통은 대몽골국 황제와 고려국왕이 각각 발송한 것이었다. 이 인식이 조정과 막부의 대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유무에 대한 南基鶴씨의 의견, 아울러서 플로어를 포함한 논의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에 관한 고찰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상술했듯이, 이 좌표축을 그은 점이 南基鶴씨 논문의 성과 중 하나이다. 南基鶴씨의 논문은 몽골의 일본침략으로 고려·일본의 상호인식은 부정적이며 굴절된 것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결론은 확실히 외교·정치·전쟁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몽골·일본 사이의 외교 단절과 경제·문화교류의 활성화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경제·문화교류를 담당했던 불교라는 코드이다. 이 사실은 寺社造營料唐船의 존재에서도 명백하며, 직접적인

현관이었던 중국의 江南 뿐만 아니라, 몽골의 비호를 받던 華北의 대사원에서조차 郟元같은 일본 승려의 활약을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의 불교계도 몽골과 강력히 결합되어 있었다. 최근에 소개된 松廣寺의 티베트어 法旨, 大都 교외와 安陽 · 杭州의 사원 관련 사료 등에서도 그 긴밀성을 엿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일본은 불교라는 코드를 통해서 몽골과 교류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고려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에 있어서 일본과 고려의 경제 · 문화교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써 본 코멘트를 끝내려 한다.

# 일본침공 이후의 여일관계

발표자 : 佐伯弘次

토론자 : 金 普 漢

13·14세기는 북방 몽골초원에서 원의 성립, 금과 송의 멸망, 고려의 항복과 일본의 침공, 室町幕府와 조선의 성립, 원의 멸망과 명의 성립 등 동아시아 정세가 격변하는 시기였다.

본 발표문에서는 먼저 13세기 몽골침공 이후에 사신의 입국이라는 여일교섭의 진행과정과 일본의 군사정보 수집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왜구의 흥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중국연안에 출현한 왜구와 고려침입 왜구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의 규모에서 왜구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려의 禁寇使臣 파견과 일본의 대응에서는 입국하는 고려사신을 열거하면서 피로인 송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대마도에 지급되는 쌀 지원이 고려 말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전체적 흐름 속에서 몽골침공에 대한 군사적 위기, 금구에 위한 여일양국의 외교적 노력, 피로인 송환의 경제적 가치 등의 내용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본 발표문은 논문의 완결성 면에서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약간 조심스럽지만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궁금한 내용에서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첫째, 1292년에 金有成에 의해서 전달된 고려첩장에 대해서 일본조정과 院이 「무례, 우둔, 기괴」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전달된 몽골·고려첩장에 대한 조정의 평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조정과 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이었을까. 예를 들면 일본 중심적 관념(신국사상 등) 혹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미숙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둘째, 본문에서 대륙에 대한 일본의 군사정보 수집 대해서 ‘元의 정찰이 막부의 주도하에 행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략) 日元貿易船이 元의 정찰을 떠맡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에 원의 동향에 가장 민감한 존재는 일차적으로 막부보다 원을 오가며 교역의 담당하던 일본상인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인은 무역이 우선이고, 무역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차선이며, 원에 대한 정보는 부차적 생김 결과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려내의 왜구활동에서 보면 조창의 위치정보, 인물에 대한 정보(최영 장군 등), 지리 지형의 정보 등은 왜구들에게 필수요소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즉 왜구의 고려에 대한 정보량은 막부의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日元貿易船의 주된 목적은 일차적으로 원의 정찰보다 무역의 이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사료를 통해서 金龍은 1366년 8월 고려를 출발하여 9월 일본에 입국하고, 金逸은 1366년 11월 고려를 출발하여 1367년 2월 일본에 입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표자는 이들이 모두 고려왕이 보낸 사신으로 보고 있는데, 고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禁寇)으로 사신을 중복해서 파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넷째, ‘安吉祥의 사절 파견 이래 室町幕府보다 오히려 博多의 九州探題와 교섭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며, 사절의 송환도 九州探題가 행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래 일본의 외교권은 조정의 고유한 권한인데, 김용-김일의 입국 이후에는 室町幕府가 관할하고, 安吉祥의 입국 이후에는 九州探題 또는 西國의 大名에게로 이관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외교권에서 몇 차례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1380년대 왜구가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서 고려의 외교가 西國의 大名들을 주목하게 되면서 그 성과를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마도 宗氏에게 쌀 1,000석 하사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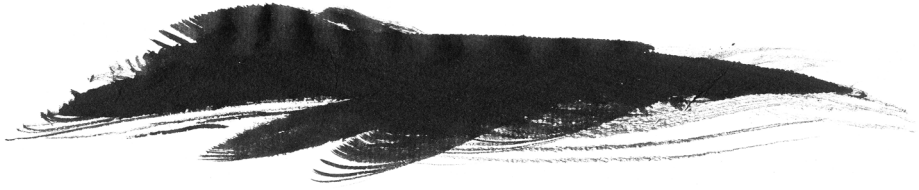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1354년 조운선 40여척 약탈, 1355년 200척 약탈, 1360년 윤 5월에 4만 석을 약탈한 이후에 상당기간(1년 혹은 9개월간) 고려에 왜구가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또 1368년 11월에 고려 조정에서 쓰시마의 崇宗慶(宗宗慶)에게 쌀 1천석 하사한 이후에도 약 1년간 왜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상 4건의 기록의 공통점은 대량의 약탈품과 하사품이 전달된

이후에는 장기간 침입과 약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고려시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선시대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해동제국기』와 『경국대전』의 규정에서 무역을 제외한 순수 접대비가 1만석이고, 『중록』에 1509년(중종 4) 접대비용 2만 2천석이라는 숫자가 눈에 띈다. 결국 중세의 朝日관계는 고려가 약탈당한 총량을 조선이 그대로 떠안았기에 가능한 외교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일관계는 무역보다는 약탈의 측면에서, 조일관계는 내재된 약탈과 무역의 측면에서 상호 통일된 조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 발표문 일본어 원문





# 蒙古襲来と異文化接触

村井章介  
(東京大學)

## はじめに

1371年、南朝方征西府の主として九州を抑え、大宰府に都していた懐良親王(後醍醐天皇の皇子)は、建國直後の明から外交使節を迎えた。使者は名を趙秩といい、日本に對して、明の中華支配の正当性を認め、臣従の意思表示をするよう、促すのが任務だった。懐良は趙秩と問答を交わし、やがてその説得に応じて、「表箋を奉りて臣と称し、祖來を遣はし、秩に隨ひて入貢」せしめた。これに接した洪武帝は、ただちに懐良を「日本國王」に封じた。この事件は南北朝内亂の性格を大きく変えることになる〔村井2003〕が、それはさておき、ここでは兩人の問答に注目したい(『明實錄』洪武4年10月癸巳條)。

懐良 いま新天子が、蒙古のときと同様、中華を掌握して趙という姓の使者を送ってきた。さだめしなんじは昔の蒙古使の子孫であろう。心地よいことばで誘ってわれわれを襲うつもりだろう。

趙秩 私は蒙古使の後裔ではない。私を殺せば禍がなんじに降りかかるだろう。わが朝の1人の兵、1艘の戦艦は、蒙古軍の100にも相当する。礼をもってなんじを懐けようとするわが朝と、なんじを襲った蒙古とを比べてみるがよい。

蒙古襲来の直前、1271年と72年(2度めを73年とする説があるが誤り〔朱雀2008〕)の2度にわたって大宰府に來た蒙古の使者の名を、趙良弼といった。それと同姓の使者を迎えた懐良は、ただちに100年前の戦争の再現を連想した。蒙古襲来の記憶がいかに強烈なものであったかがわかる。

蒙古襲来は、前近代に日本の領土内で戦われた對外戦争として、希有なものである。それ以外に1019年の「刀伊の入寇」と1419年の「応永の外寇」とがあるが、戦争の規模は比べものにならない。それだけに蒙古襲来は、同時代およびその後の日本に大きな刻印を残した。この点については、鎌

倉幕府政治の推移、御家人制や惣領制の変質、流通經濟の進展など、さまざまな観点から検討されてきたが、ここでは異文化との直接的な接触という角度から、蒙古襲來のもった意味を考えてみたい〔村井2005第9章参照〕。

## 1. 外交

「戦争は外交の延長」という命題は、蒙古襲來についてもなりたつ。1266年8月付の「大蒙古國皇帝」から「日本國王」あて國書は、高麗を介して、68年正月に大宰府に到達した。時間がかかったのは高麗の消極的抵抗による。國書は、蒙古が中華を領有したこと、高麗が蒙古と「義は君臣と雖も、歡は父子の如し」という関係になったこと、を述べたあと、國交を結んで相親睦するよう求めている。書出の「奉書」、書止の「不宣」ともにそれなりの礼遇を表現しており、さほど尊大な文言ではない。しかし「兵を用うるに至りては、夫れ孰か好む所ならん」という一節は、東アジア外交に習熟しない日本側、とりわけ幕府にとって、大きな軍事的脅威と映ただろう〔杉山2003〕。朝廷は、はじめ伝統的對外姿勢に従って返書を送らなかったが、1269年に到來した蒙古中書省牒〔張2005〕に對しては、大宰府名義の返牒を送ることに決し〔荒木2008〕、文案を作成した。しかし幕府の態度は一貫して武斷的で、返牒を握りつぶし、異國警固番役の創設等、軍事的對応に終始した。そんななか、大宰府まで到達したのものとしては2度めと3度めの使節が、かの趙良弼である〔佐伯2003〕。

### 趙良弼と南浦紹明

蒙古使趙良弼は、2度めの到來直後に戦争が始まったことから、まがまがしい名として日本人の歴史的記憶に刻まれた。しかし生身の人間としての彼は、女眞族出身の文人でみずから對日外交の役目を買って出たことから想像されるように、高い教養を備えた境界人だった〔山本2001〕。その政治的立場はけっして主戦派ではなく、2度めの使節行から歸った彼は、元(1271年國号を立てる)皇帝フビライに對して、つぎのように日本征討の無益を訴えた(『元史』卷159趙良弼伝)。

臣日本に居ること歳余。其の風俗を觀るに、狼勇にして殺を嗜み、父子の親、上下の礼有るを知らず。其の地は山水多く、耕桑の利無し。其の人を得れども役すべからず、其の地を得れども富を加へず。況んや舟師海を渡るに、海風期無く、禍害測る莫し。是れをしも〈有用の民力を以て無窮の巨壑を填む〉と謂ふなり。

現在にいたるまで日本側は、蒙古襲来を〈蛮族の國が文明國日本にしかけてきた戦争〉というイメージで捉えてきた。それは同時代人も例外ではなく、1271年良弼の初度來日に際して、大宰府の長少貳経資は、「蛮夷の者帝闕に參る事先例無し、牒狀の趣承るべし」と應對して(『吉續記』文永8年10月24日條)、良弼の上京を拒否した。だが良弼は逆に、儒教的礼義を知らず、征服しても得るものの少ない蛮國と、日本を見なしていた。實際、文永の役後に到來した元使を斬殺するという幕府の対応は、東アジアの外交慣例を無視したものであり、蛮國に似つかわしい行動と見なされ、再度の戦争を回避する可能性を、みずから閉ざすものだったといわざるをえない。

日本に滞在中の趙良弼の事蹟として注目されるのが、大徳寺派・妙心寺派の祖、南浦紹明との詩の唱和である。南浦は、入宋して名僧虛堂智愚に嗣法し、1267年に歸國、70年に博多西郊姪浜の興徳寺(開基は北條時定)に住したあと、72年に大宰府に近い横岳崇福寺(開基は少貳氏)の住持となった。『円通大応國師語録』偈頌に「蒙古國信使趙宣撫の韻に和す」と題された2首が見える(現代語譯は〔西尾1999b〕のもの)。

- |  |  |
|--|--|
| <p>(1) 遠公不出虎溪意<br/>非是淵明誰賞音<br/>欲話箇中消息子<br/>蒲輪何日到雲林</p> | <p>慧遠が虎溪を出ることがなかったというわけは、<br/>陶淵明でなかったならば、誰がそのわけを解しようか。<br/>その間の事情を申しあげたい、<br/>がまで包んだ車輪の車に乗って拙寺に來られるのは、いつの日のことか。</p> |
| <p>(2) 外國高人來日本<br/>相逢談笑露眞機<br/>殊方異域無差路<br/>目擊道存更有誰</p> | <p>外國の高官が日本にやって來た。<br/>出會って談笑してみると玄妙な働きを露わす。<br/>國を殊にしても眞理に食い違いはなく、<br/>一日見ただけで道を具えていることがすぐわかる、その上に誰があらうか。</p>       |

西尾賢隆は、この唱和時に南浦がいた寺を、(1)に出る虎溪三笑の故事にふさわしい環境から崇福寺と推定し、唱和の年代を良弼の2度めの來日時と考定し、京上を許されず「大宰府で荏苒と日を過す良弼を陶淵明のような自適へと誘わんとした偈とうけとりたい」と述べた。従うべき見解であろう。(1)は良弼が對面前に南浦のもとに送った詩に寄せた和韻で、(2)は直接會って語りあったのちの唱和である。

(1)には、兩人の關係を慧遠と陶淵明になぞらえる中國文化への憧憬と造詣が見られ、(2)には、禪宗と儒教を貫く「道」に照らせば、國や地域の差異は本質的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世界觀が盛られている。緊張した國家間關係のなかにあっても、日本人の渡海僧と女真人の外交官という境界人相互に

は、思いのほか共感が通いあっていた。歸國して戦争回避を説いた良弼の念頭に、南浦との邂逅があったと想像してみたい。

また、この會見における南浦の立場を、一私人ではなく外交の一角をになうものとする説がある〔伊藤2002〕。蒙古襲來の直前に宋から歸國し、北條氏ゆかりの興徳寺と少貳氏ゆかりの崇福寺に歴任した彼の経歴を考えると、ありえない話ではない。もしそうなら、南浦は良弼から得た大陸情報を幕府関係者に伝達しただろうから、鎌倉幕府の外交的対応を武斷的のみのみ評価することは再考を要する。だがその情報が幕府の政策判断に反映した形跡はない。

### 三別抄の日本請援

蒙古襲來に対する従來の見方は、蒙古・高麗という敵に對してわが鎌倉武士がいかに勇敢に戦ったか、という図式に偏っていた。いま眼をユーラシアにひろげて、諸地域がモンゴルの急激な膨張をどう受けとめたか、という視点に立つなら、ちがった歴史的現実が見えてくる。たとえば1280年代には、伝統的に犬猿の仲だったベトナム・チャンパ間に、蒙古の脅威や侵略に對抗する國際的共同が成立した〔旗田1965〕。そして同様の歴史的條件は東アジアにもあった〔村井1988〕。

蒙古軍が高麗への侵略を始めたのは、日本より40年以上も早く、1231年のことである。当時高麗で實権を握っていた武人政權(日本の幕府に類似)は、翌年、都を開京から江華島に移して抵抗の姿勢を示した。その後30年間、6波におよぶ侵略に疲弊きった高麗は、1260年に從屬的な講和を余儀なくされる。

「三別抄」とは、徴兵制による「府兵」に代わって武人政權の軍事力の中核をになった精銳部隊で、反蒙30年戦争のおもな担い手だった。1270年、武人政權がクーデタで倒れ、王室が蒙古に完全に屈しようとしたとき、三別抄は「蒙古兵大いに至り、人民を殺戮す、凡そ國を輔けんと欲する者は、みな毳庭に會せよ」という檄を飛ばして、反亂に立ち上がった。反亂軍は王族のひとりのみずからの王に擁立し、政府機關を組織し、根據地を朝鮮半島西南端の珍島に移して、ゲリラ戦法で蒙古軍と高麗政府を悩ませた。

1271年、三別抄は「牒狀」を日本に送って、援軍と兵糧を要請した。高麗の正統政府を自認する三別抄は、江華島から珍島への移動を「遷都」と言っている。また「漂風人護送」「遣使問訊」など平等互惠の關係を結ぶことを提案した。その視野には、日本との共同による蒙古への抵抗がとらえられていた。なお、牒狀の發せられたのは、珍島が陥落する同年5月以前で、蒙古軍の將忽林赤が開京から日本への出撃基地合浦へ出撃したのは同年8月である。牒狀發信の時点で、合浦をふくむ金海府

は三別抄の勢力下にあった可能性が高い。「屯金海府之兵、先廿許人、送日本國事」という牒状の一節は、従来、私自身もふくめて、蒙古軍の動静を伝えたものと解釋されてきたが、李領の言うように、三別抄自身の行動(予定?)を述べたものであろう〔李1999〕。

さらに、三別抄の外交活動が、日本への援助要請にとどまるものでなかったことが、近年の研究で明らかになった〔太田彌1995・山本2001〕。趙良弼の生地である河北省贊皇縣にある石刻史料「贊皇復縣記」に、良弼の初度渡日について、「命を受け東のかた日本に使す。鯨海浩瀚にして、其の際を測る莫し。叛賊耽羅其の衝を蔽ふ。」とある。1271年5月に珍島から濟州島(耽羅)に移った三別抄が、良弼の外交活動を妨害したという。おなじ事實は、『元朝名臣事略』に収められた良弼の墓碑銘には、「既に(大宰府に)至る。宋人と高麗耽羅と、共に其の事を沮撓す(阻み亂す)。(少貳氏が)公を大宰府に留め、專人守護す。」と書かれており、三別抄の妨害工作が大宰府で行われたこと、そこに宋人が一枚かんでいたこと、の2点が知られる。

良弼の大宰府到着は1271年9月19日で、同月3日から京都の朝廷では三別抄の牒状に対する対応が議論されていた(『吉續記』)。大宰府で良弼と接触した「耽羅」とは、この牒状を携えて渡航した使節団であろう。右に触れた、金海府から日本へ送られた20人ばかりの兵士は、その護衛を任務としたとも考えられる。大宰府は正反対の任務を帯びる2つの使節団が鉢合わせして、緊張に包まれただろう。

良弼への妨害工作には宋人も関与していた。「贊皇復縣記」に「時に僞宋、海道の兩浙を去ること遠からざるを以て、大いに之を畏れ」とあるように、南宋は良弼の説得が功を奏して日本が蒙古の陣營に加わることを強く警戒していた。蒙古から見れば、高麗の反蒙古勢力、南宋、日本の3者が連携することは、このうえない脅威であった。

南宋の工作は、良弼の再度の渡日に際しても試みられた。「贊皇復縣記」に「時に僞宋、…僧藤原瓊林等を遣はし、(良弼の)行を止むるを謀るを爲す」とあり、良弼は日本人と宋の使僧に對して、宋人の浮偽無信を數えあげ、中國大陸の大半は蒙古の有となり、東南彈丸の地を余すのみだ、とまくし立てたところ、使僧は語に詰まって反論できなかったという。おなじことは良弼の墓碑銘にも「宋人使僧の瓊林と曰ふ者、來りて渝平(和平を攪亂する?)し、故を以て和事成らず、公還る」とあって、こちらは日本を蒙古に従わせるという良弼の任務を使僧が妨害したことに主眼がおかれている。

南宋が日本へ送った使僧瓊林とは、日本からの渡海禪僧桂堂瓊林らしい。『延宝伝燈録』卷3と『本朝高僧伝』卷23によれば、彼は文永年中に入宋し、のちに杭州徑山住持となった虚舟普度から臨濟宗松源派の法を嗣いで、歸國後洛東の勝林寺に住した。歸國時に虚舟の法衣・頂相を賜与され、嘉元年中には舶來の「虚舟和尚語録」を募縁上梓したという。彼の師虚舟がいたのは蘇州や杭州など

南宋中樞部にある寺院であり、その會下にいた瓊林のような渡海僧は、對日外交にもってこいの人材であった。

以上のように、文永の役直前、日本に對して3つの勢力が外交的働きかけを試みた。そのうちで南宋のみは、趙良弼の日本説得が成功しなかったという点で、成果をあげたといえる。對して良弼と三別抄による工作は、目的はまったく反對であるが、ともに不成功に終わった。ここでは三別抄についてのみふれておきたい。

牒状を受け取った朝廷は、龜山院のもとで會議を開いて對応を検討した。しかしそこでは、牒状が高麗の反蒙古勢力のものであることが、正確には理解されず、字づらの解釋を儒者たちが競い合うだけだった。一方、北條時宗を首班とする幕府は、牒状に接して、九州に所領をもつ御家人に、その所領に赴いて、守護の指揮のもとに「異國の防禦」につくよう命じた。牒状は、蒙古の脅威を伝えたといい文脈でのみ理解されており、自國の防衛を固めるだけで、三別抄の國際的共同の提案が考慮された形跡はない。

濟州島に據った三別抄はなお2年間抵抗を續け、1273年に元・高麗連合軍によって壊滅した。翌年、元は日本征討を實行に移す(文永の役)。戦争が思いがけない結果に終わった直後、幕府は「異國征伐」すなわち朝鮮半島への反攻にのりだす。そこには冒險的報復主義があるだけで、三別抄の立場への一片の理解も見られない。当時の幕府に「異國征伐」を敢行するほどの余力がなかったことは、むしろ幸いだったかもしれない。

## 2. 戦闘

蒙古合戦に参加した肥後國御家人竹崎季長は、文永・弘安兩度の合戦のようすと、その中間に先懸けの功の認定を求めて鎌倉に赴いた経緯を、繪卷物に描かせ、文永の役の恩賞として拝領した肥後國海東郷の鎮守甲佐大明神に奉納した。これが有名な『蒙古襲來繪詞』(以下『繪詞』と略す)で、現在は宮内廳三の丸尙藏館に所藏されている。『繪詞』は、季長個人の眼を通して、蒙古合戦という世界戦争の一端を、同時代性と寫實性をもって描き出した作品である。對外戦争の経験のない日本の武士たちは、編成も戦法も武器もまったく異なる異國の軍を相手に、どのように戦ったのだろうか。主として吉田光邦〔1975〕・佐藤鐵太郎〔2005〕・太田彩〔2000〕の仕事に據りながら、鎌倉武士が蒙古合戦を通じてどのような異文化と接触したかを見ていこう。

## 陸戦

『繪詞』に描かれた蒙古軍の武器としては、火薬を使った兵器「てつはう(鐵砲)」が眼をひく。鐵の半球ふたつを合わせたなかに火薬を仕こみ、手持ちの投擲器を使って敵陣に投げこみ炸裂させるもので、さほど殺傷力があつたとは思えないが、轟音による威嚇効果は拔群だつた。『八幡愚童訓』(以下『愚童訓』と略す)は「逃ル時ハ鐵放ヲ飛シテ暗ク成シ、鳴音闇高レバ、心ヲ迷シ肝ヲ★シ、目眩耳鳴テ、亡然トシテ東西ヲ不弁」と表現する。退却の際に使われたことは『繪詞』の繪と一致する。これに太鼓や銅鑼の音も加わって、ずいぶんとにぎやかなくさつたようで、『愚童訓』に「其ノ聲唱立サニ、日本ノ馬共驚テ進退ナラズ」とある。

弓矢は双方が使っているが、蒙古軍の弓は2種類あつた。ひとつは宋式の短弓で、握りの部分がへこんだ形をしており、射程距離が長く、矢の根には毒が塗つてあつたらしい。もうひとつは握りにへこみのない蒙古式の長弓である。また、蒙古軍の陣では、兵士の多くが槍や鉾を立ててもっている。当時の日本ではあまり使われなかつたからことのほか有効で、『愚童訓』も「鉾・長柄、物具ノ罅間ヲ差テ不外」と述べている。このほか『愚童訓』が石弓と呼ぶ投石機もあつた。

蒙古軍の陣には、大きな太鼓が3つと銅鑼がひとつみえるが、これらは『愚童訓』に「引ベキニハ逃鼓ヲ打、懸ベキニハ責鼓ヲ叩クニ隨テ振舞ヒ」とあるように、兵力を組織的に動かすための信号手段だつた。鳴りものが象徴する集団戦法は日本軍をとまどわせた。『愚童訓』は、「一面ニ立並ビテ、寄ル者アレバ、中ヲ引退キ、兩方ノ端ヲ廻合テ取籠テ、無殘所討レケル」と述べ、またつぎのようにも描いている。

如日本戰、相互名乗り合テ、高名・不覺ハ一人宛ノ勝負ト思フ處、此合戰ハ、大勢一度ニ寄合テ、足手ノ動處ニ我モト取付テ押殺シ、虜ケリ。是故懸入ル程ノ日本人、無漏者。

「やあやあわれこそは……」と名乗っているうちに、よつてたかつて組み敷かれてしまうという悲喜劇に、合戦の作法のちがいがあらわれている。戦闘開始のときもそうで、『愚童訓』によれば、日の大將少貳景資が「箭合ノ爲トテ小鏑ヲ射タリシニ」、蒙古の陣からどつと笑い聲があがつたという。鏑矢は飛ばすと音を發する儀礼用の矢である。

さて文永の役の初戦、竹崎季長は、先駈けの功を立てんとまっさきに蒙古の陣中へ攻め入り、鳥飼潟、現在の福岡市城南區鳥飼周辺で苦戦を強いられる。

- a. 凶徒は麤原に陣を取りて、色々の旗を立て並べて、亂聲暇なくしてひしめきあふ。
- b. 季長はせむかふを、藤源太すけみつ申す、「御方は續き候らん。御待ち候て、証人を立

て、御合戦候へ。」と申を、「弓箭の道、先をもて賞とす。たゞ懸けよ。」とて、をめで(大聲をあげて)懸く。

- c. 凶徒、麤原より鳥飼瀉の塩屋の松のもとにむけ合せて合戦す。一番に旗指、馬を射られて跳ね落さる。季長以下三騎痛手負ひ、馬射られて跳ねしところに、肥前の國の御家人白石の六郎通泰、後陣より大勢にて懸けしに、蒙古の軍ひき退きて麤原に上がる。

詞書がこう記す季長奮戦のシーンは、数ある『繪詞』の繪のなかでももっとも有名である。蒙古兵の矢に射られた乗馬からは鮮血がしたり、季長の右膝にも矢が命中している。頭上には投げ槍が飛び、「てつはう」が炸裂する。左手には季長に矢を射かける3人の獐猛な顔をした蒙古兵がおり、そのうしろを一群の蒙古兵が退却していく……。

ところが、近年の研究によって、この繪には多くの疑点や問題点があることがわかってきた。佐藤鐵太郎と太田彩の分析結果を、私なりに総合して紹介しよう(詳細は〔村井2001〕を参照)。

中心をなす繪7は2紙からなり、右半の繪7Ⅰに騎馬の季長、左半の繪7Ⅱに背を見せて逃げる蒙古の歩兵が配置され、兩紙の継目をはさんで季長に對峙する3人の蒙古兵が描かれている。しかしほんらい2紙は連続せず、3人の蒙古兵は追筆である(よく見ると、この3人だけが他の蒙古兵とくらべて輪郭線、身なり、表情などの筆使いが異なることがわかる)。繪7Ⅰの右側にある繪6は、右側に季長の姉婿三井資長がいて馬上から矢を蒙古兵に射かけ、左側に蒙古兵が10人(うちひとり騎馬)、資長に背をむけて逃がっている。これを繪7Ⅰと繪7Ⅱの間に移すと、右から左へ蒙古兵が退却しようすが自然につながる(ただし間に若干の欠落がある)。繪7Ⅰとつながることになった繪5には、馬を射られて徒立ちになった季長の旗指のうしろを、乗馬の旗指に先導された白石通泰の軍団が懸けるようすが描かれ、詞書cにある通泰が季長の急場を救った状況が明瞭になる。いっぽう繪7Ⅱの左に続く繪8では、網代や格子の楯を並べたうしろに蒙古兵が陣を布いており、これは詞書aを描いたものである。

この復原案では、詞書cに對応する繪が詞書aに對応する繪よりも前(右)に来て、詞書と繪が時間的に逆轉する。それを必然としたのは、右端に白石通泰の騎馬軍団、左端に蒙古軍の陣というマスを配し、中央右側で季長主従の孤軍奮闘、左側でそれに追われる蒙古兵を描くという、畫面構成の論理である。これはまさしく「先懸けの功」の繪解きである。

日本側の戦法は、あくまで單獨のリーダーに率いられた軍団が独自の意志で動く。軍団は大きいもので菊池武房や白石通泰の100余騎、小さいものでは季長のように數騎である。詞書bによれば、従者すけみつに味方の到着を待ち証人を立てて戦うよう勧められた季長は、先懸けこそが弓箭の道だと言い捨てて、敵陣に突入した。ここにはふたつの戦い方が示されているが、どちらも個人中心であ

る点で共通している。先懸けのような冒険的行動は、戦闘全体の歸趨にとってはマイナスになりなないが、当時の日本軍はそれを「賞」する以外の論理をもちあわせていなかった。しかしいっぽうで通泰軍団は、騎馬武者たちがおなじ姿と向きをもつ塊として描かれ、統一的な意志を表象する。軍団の規模が大きくなれば、その内部で集団戦法の比重が大きくなるようである。さらに、すけみつが勧めた戦法には、個々の武士団を越えた集団戦につながる要素があり、だからこそ季長の「弓箭の道、先をもて賞とす」が際だつのである。

## 海戦

『繪詞』下巻はほとんどが弘安の役の海戦場面で占められる。中世の海戦をこれだけ克明に描いた繪は、国内の合戦についてもない。まずは船の描寫から見よう。

日本側の兵船には大小の2種類がある。小は、草野・大矢野・秋月らの惣領が率い、おのおの10名未滿を乗せる、刳船に毛が生えた程度の船、大は、季長をふくむ肥後勢混成隊や少貳経資の手の者が乗る、やや大型の構造船である。後者の1艘の船尾には、敵船に乗り移る際に使う小さな「端船」がつないである。季長が蒙古兵の首を搔き切る有名なシーンでは、そのやや大型のものを、季長の従者が敵船に熊手で引き寄せている。

對する蒙古軍の兵船も大小の2種類がある。小は「走舸」で、輕快な操船が可能なタイプ、いわば上陸用の船である。船上に居室をもたず、舷側に楯をならべて防御する。數隻が描かれており、そのひとつには舳先や楯に日本軍の放った矢が無數に突き立っている。日本側の大船と同程度か、それよりやや大きいように見える。大は「鬪艦」で、甲板があり船倉にも多くの人がはいれる。大きいものは船尾にも1室を設ける。舷上には網代の垣があり、甲板にいても半身をかくせるようになっている。舷側の孔からオールを突きだして漕ぐ。季長の乗り移った1隻やその左側に描かれた3隻がこれにあたり、ある船上では、兵士が太鼓を叩き銅鑼を鳴らしている。

日本軍は、船いくさも騎馬戦同様個人中心だった。弘安役の終盤、季長は蒙古の敗殘兵のいる鷹島へ向かおうとするが、自分の兵船が回漕されてこず途方にくれていた。そこへ通りかかったたかまさという武士の船に、「守護のお召しがあります」と嘘をついて乗せてもらおうとするが、たかまさにたちまち見破られてしまう。拝みたおしてやっと季長本人だけ乗せてもらったが、兜は若党に預けたままになつてしまう。季長が兜がわりに脛当を額に当てているのを見たたかまさは、かたわらにいた若党の兜を貸そうとするが、季長は「ありがたいおことばですが、兜をお着けにならずに討たれなさつては、季長のせいでこうなつたと、妻子がお歎きになりましよう。そうなつては身の痛みですから、いただくわけ

にはまいりません。」と断る。事実『繪詞』には、激しい動きで季長の額から飛んだ脛当がしっかり描かれている〔藤本2003〕。

季長の例で注意すべき点がふたつある。第1に、各御家人は自前で船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第2に、どんな手段を使ってでも、身ひとつになっても、がむしゃらに前進することこそ正義だった。合戦の翌朝、季長から戦功報告を受けた關東の使者は、「自船候はで、一度ならずかり事(虚言)のみ仰せ候て、船々に召され候て、御大事に會はせ給候御事は、大猛惡の人に候と、上の見參に入まいらせ候べく候」と約束している。「大猛惡」はあまりの勇猛ぶりにあきれた気持ちをあらわす。また、若党をおきざりにたかまさの船に乗ったとき、季長はまたも「弓箭の道、進むをもて賞とす」と言っている。

以上のような日本側の攻撃を迎える蒙古軍の戦法は、これまたあくまで組織的だった。草野次郎の夜襲で被害を被ったあと、彼らは「用心シテ船ヲ鑿合押廻シテ守護シ、寄スル者在レバ、大船ヨリ石弓ヲ下スニ、日本ノ船小クテ不打破云事ナシ」という戦法をとった(『愚童訓』)。蒙古軍が船上で用いる楯は数種類あるが、船ごとには統一されており、軍団組織のあり方を示す。第1は、焦茶色の長方形の板で、上部に1隻は白丸、1隻は黒丸、1隻は黒い帳のような模様が描かれる。第2は、上辺が雲形で「卍」の模様が描かれ、裏には可動式のつかい棒が付く。卍模様は漢人の中で用いられたもので、『武経總要』という本によると、「皮漫」という生牛皮でつくる兵器の表面にもこの形が描かれていたという。第3は、外形は卍をあしらった楯とおなじだが、卍の部分が四角い窪みになっている。第4は、一枚板ではなく網代や簀子を長方形に編んだ楯である。

弘安の役の江南軍は、職業軍人だけでなく、『愚童訓』が「今度ハ一定可勝、可居住料テ世路ノ具足、耕作ノ爲トテ鋤鋤マデモ持セタリケリ」と述べるように、移民船団の性格ももっていた。大多数がそんな一般民衆から構成される14万人は、大半が鷹島周辺の海に沈み、「海ノ面ハ算ヲ散スニ不異、死人多重テ如鳴タリ」という情景を呈した(『愚童訓』)。

### 3. 仏教と貿易

蒙古襲来史料の多くは、仏教色の濃い日本中世の文化状況からして、僧侶の残したテキストになる。とくに日蓮の場合、『立正安國論』の「予言」以来、對蒙古關係の推移がストレートに宗教的言説に反映したため、おびただしく残る消息類が、多くの情報をもたらしてくれる。それだけでなく、彼の對外的反応は他の僧侶や一般人とは對照的で、それ自体が異文化接触の特異なケースといえる。前近代の戦争においては、近現代とはちがって國家間の緊張が文化的・經濟的交流の斷絶にかなら

ずしも直結せず、戦争状態と貿易とはかならずしも相いれぬものではなかった。文永・弘安兩役にはさまれた1278年、フビライが「日本國人市舶」に貿易を許可したのは、その1例である(『元史』世祖本紀)。また、1276年の南宋首都臨安(杭州)陥落という大事件が、臨安をふくむ江南地域に根本的な社会変動をもたらしたようには見えない。さすがに弘安の役後には空白があるが、それをすぎると、戦争状態の継続にもかわらず、日本・江南間の貿易船の往来は、開戦前よりさかんになる。以上のような観点から、仏教と貿易をとりあげてみたい。

## 日蓮のユニークさ

日蓮にはいるまえに、蒙古襲来に際だつた反応を示したもうひとりの僧、東巖慧安にふれておこう。洛外の臨濟宗正伝寺住持だつた東巖が、1271年9月15日に「八幡大士六十余州一切神等」に捧げた願文(「正伝寺文書」)は、奥に「すへのよの末の末までわが國はよろづのくにゝすぐれたる國」という和歌がしるされていて、敗戦前は皇國精神の發露としてもてはやされた。

しかしこの願文の「高麗は半ば蒙古に違背し本朝に隨順す」という一節から、彼が三別抄の牒状を見ており、その反蒙行動に気づいていたことがわかる。ただせっかくの気づきも、神功皇后とその子八幡神への熱烈な祈りを介して、「二國和合し、衣冠一致す、兩度の牒使は高麗人なり、顯然として疑ひ無し」というように、高麗を蒙古とひとしなみの敵と見る伝統的な観念に流しこまれてしまう。こうした傾向は当時の知識階層に通有のもので、中國とのつきあいが深い臨濟僧東巖の嗣法師は渡來僧兀庵普寧であるも例外ではなかった。9月21日に朝廷で議論された口宣案にも「西蕃(高麗)の使介有りて、北狄(蒙古)の陰謀を告ぐ」の文字があつたが(『吉續記』)、その認識が外交判断に反映したようすはない。

日蓮は、1260年に『立正安國論』を幕府に呈示して、法華經にひとえに歸依しなければ「他國侵逼難」が生起すると予言していたが、はやくも5年後にそれが蒙古の脅威として現實化したことで、いっそう自己の使命に確信をもった。「經文の如くんば、彼の國より此の國を責めん事必定也。而して日本國中日蓮一人、まさに彼の西戎を調伏を爲すべき人と、兼ねて之を知る。」と豪語している。

彼には幕府内に親しい情報提供者(おそらく信者)がいたらしく、民間の宗教者ではあるが敏速に蒙古關係の情報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幕府は、天台以外の諸宗派を過激に排撃する日蓮一派を、對外的脅威のさなかに結束を攪亂する不穩分子とみなし、その主張に耳を貸さないばかりか、かえって彈壓を加えた。三別抄の牒状に接した幕府は、1271年9月13日、九州に所領をもつ御家人に自身または代官の下向を命じ、異國の防禦と領内惡党の鎮壓を命じたが、有名な「龍口法難」が起き

たのはその前日だった。日蓮一派の言動は悪党に準ずるものと見なされたのである〔川添2008〕。

日蓮はこうした幕府の「謗法」が續くかぎり蒙古の侵略は不可避と考え、そのことを「蒙古國は……天の御使として法華經の行者(日蓮自身のこと)をあたむ人人を罰せらるゝか」と解釋した(「異体同心事」)。幕府が蒙古の使者を斬ったことについても、「日本國の敵にて候念仏・眞言・禪・律等の法師は切れずして、科なき蒙古の使の頸を刎られ候ける事こそ、不便に候へ」と、きびしく批判している(「蒙古使御書」)。

「蒙古」の意味をこのように理解した日蓮は、神の与えた試練に苦しむ人びとの姿をとらえた貴重なテキストを残した。

去文永十一年(太歳甲戌)十月に、蒙古國より筑紫によせて有しに、對馬の者かためて有しに、摠馬尉(宗助國)逃ければ、百姓等は、男をは或は殺し、或は生取にし、女をは或は取集て、手をとをして船に結付、或は生取にす。一人も助かる者なし。壹岐によせても又如是。(「一谷入道殿御書」)

當時つくしへむかへハ、とゝまるめこゆくをとこ、はなるゝときハかわをはくかことく、かをとかをとをとりあわせ、目と目をあわせてなけきしか、次第にはなれて、ゆいのはま、いなふら、こしこへ、さかわ、はこねさか、一日二日するほとに、あゆみくとをさかるあゆみを、かわも山もへたて、雲もへたつれハ、うちそうものハなみたなり、ともなうものハなけきなり、いかにかなしかるらんかとなけかんほとに、もうこのつわものせめきたらハ、山か海もいけとりか、ふねの内かかうらいかにて、うきめにあハん。(「富木尼御前御書」)

日蓮の眼には、「謗法」に与する日本の神祇はまったく無力であった。文永の役で宮崎八幡宮が焼けたことを「彼國の大王は此國の神に勝たる事あきらけし」と斷じ、努めを果たせなかった八幡神を「大科の神」だとまでいう〔川添2008〕。先述した禪宗の東巖や、もっと有名な律宗の叡尊が、日本國の守護神である八幡神に熱誠を獻げ、法力で蒙古に立ちむかおうとしたのに對して、日蓮は國家的正統派とは對蹠的な場所に立っていた。それだけに弘安の役の結末は彼にとって意外なものだったろう。不安に駈られた弟子からその意味を問われて、「此別一門大事也、忽日本國凶事也。……いつもの事なれば、秋風に纒水、敵船賊船なんと破損仕て候を、大將軍生取たりなんと申、祈成就の由を申候けに候也。又蒙古の大王の頸の參て候かと問給へし。」と答えたが、やはり強弁にすぎよう。これを最後に消息から蒙古への言及は消え、1282年の死にいたる。

## 最後の遣使と五山文化の黎明

弘安の役後もフビライは日本征討をあきらめず、くりかえし戦争準備を命じたが、国内外に悪条件が重なって実行にはいたらなかった。しかし、働きかけの方法は戦争一辺倒ではなく、弘安役後まもない1283年、國信使愚溪如智・王君治に持たせた日本國あての詔(『善隣國宝記』卷上)には、「和好の外に余善無く、戦争の外に余悪無し」とある。「かつて日本が使節を捕えて返さなかったので、問罪のため海軍を送った。交戦の間には使者を送ったのに、日本は一言も返答しないで、わが軍にはむかった。」という主張は道理にかなっており、和好の求めを口先だけの甘言とかたづけ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むしろ、武辺一辺倒の日本外交の硬直ぶりが浮き彫りになる。しかし、この年と翌年の2度試みられた交渉は、日本の中央まで達することなく終わった。

1294年にフビライが死に、跡を嗣いだ孫のテムルが98年國交樹立を求める使節を日本へ送ったのは、フビライの硬軟兩様のうち和好路線に則ったものといえる。このとき指名されたのが、舟山列島にある宝陀寺(普陀山)住持一山一寧で、發遣にさきだって「妙慈弘濟禪師・江浙釋教總統」という肩書が付与された。使節の送達はたまたま慶元(寧波)に入港した商船に託された。普陀山は慶元から日本へ向かう航路上にあり、開山の惠萼は9世紀中葉に活動した日本人である。仏教と民間貿易に支えられた國家外交だったが、これを最後に元が日本に外交使節を送ることはなかった。

一山は1247年の生まれで、明州(寧波)や杭州の諸寺で天台・律・禪をはば広く學び、ついに禪宗五山2位の天童寺で簡翁居敬に嗣法した。仏教以外にも、文學・書・朱子學などに堪能なオールラウンドの文化人だった〔西尾1999a〕。1299年日本にいたった一山を、幕府では處刑せよとの論もあったが、「沙門は福田なり。有道の士は万物に心無し(何ものにもとらわれない)。元國に在りては元の福なり、我が邦に在りては我が福なり。」という観点から、北條貞時の決断で伊豆の修禪寺に幽閉することになった。ほどなく幽閉も解かれ、渡來僧が住するのが慣例だった建長寺の住持に据えられた。1317年に71歳で没するまで、円覺寺・南禪寺にも住し、北條得宗家や後宇多院の崇敬を受けた。ことに後宇多院は、1319年に一山の頂相(肖像畫)にみずから「宋地万人傑、本朝一國師」という贊を加えたという(「一山和尚行記」)。

一山に嗣法した日本僧に雪村友梅(1290-1346)がいる〔今谷1994〕。雪村は1307年から23年間元に滞在し、同時代の中國文化を吸収した。日本の初期五山文學を代表する作家で、在元中の詩文集に『岷峨集』、歸國後の作品集に『宝覺眞空禪師語録』がある。一山に發する法系は大門派をなさなかったが、嗣法をとまなわぬ場で彼の与えた文化的影響は絶大である。虎關師鍊(1278-1346)は、一山から日本の高僧の事蹟を問われて即答できず、僧伝集の形態をとる日本佛教史『元亨釋書』を著

した。夢窓疎石(1275-1351)は、一山を慕って京都から鎌倉へ下り、建長寺入寺を志願して偈頌(仏教的漢詩)の試験で好成績を収めた。その後夢窓派は室町幕府・朝廷の外護のもとに、臨濟宗の最大勢力を占めるようになる。龍山徳見(1284-1358)は、一山が円覺寺にいたときやはり偈頌の試験で首席をとった。1305年から45年間も元に滞在し、歸國後多くの文筆僧を育てた。作品集に『黃龍十世録』がある。

一山は、みずからが住持する寺に修行僧を受け入れる際、偈頌を作らせ中國語で朗詠させた。寺内の日常生活でも一定度の中國語能力や中國文化の素養が要求された。學芸の方面で彼が日本の禪宗社會に与えた影響はさきわめて大きく、「日本五山文學の祖」と評される。西尾賢隆は「わが國の禪家が幅廣く讀書人として中國の士大夫にも匹敵する素養をもつ一つ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一山による偈頌の試験であったといって過言ではない」と指摘している〔西尾1999 a〕。

## 倭寇事件と貿易統制

弘安の役後、日元間の商船の往來はしばらくとだえていたが、\*\*\*\*年に復活し、以後14世紀前半には、宋代以上にさかんになった。商船を利用して渡海した禪僧たちに關わる史料から、そのようすが復元できる。この時代には集中して「寺社造營料唐船」、すなわち寺社の造營費用を貿易利潤によって稼ぎ出そうとする「勸進」の船が中國に送られたが、その實態は、日元間を往來する中國人商人經營の貿易船に對して、日本→中國→日本の一往復の航海にかぎって、日本の政治權力が付与したタトルにすぎなかった〔村井2005〕。

1309年に慶元で日本商人と役人が衝突し、城内が多く焼失するという「倭寇」事件が起きて以來、元側の「倭寇」を理由とする倭船入港規制が、斷續的に行われた〔榎本2007〕。この時期、經濟的には貿易擴大の要因が存在したが、政治的・軍事的には、貿易規制が強まりつつあった。そこに蒙古襲來が影をおとしている。1328年冬、福州長樂港に日本から來た貿易船があり、翌年日本へ渡航して、翌々年「關東大仏造營料唐船」の看板を掲げることになる。福州に日本からの船が入るのは異例のことだが、その背景には、1327-8年ごろに慶元で倭寇事件が発生し、当局が日本からの船の慶元入港を禁止していた事實があった。さらに、1342年冬に慶元に入港した天龍寺船の場合からは、倭船規制の狀況がくわしくわかる。從來、天龍寺船は大きな利益を得て歸國したことのみが強調されてきたが、じつは慶元で苦難に見舞われていた。

1320年以來慶元の防衛に任じた鍾万户は、1334-5年ごろに慶元で起きた「倭寇」を鎮壓し、それ以來慶元を管轄する浙東道都元帥は、倭船の交易流通を禁止していた。鍾万户はこの禁令に基づいて

天龍寺船を扱った。貿易責任者至本は賊船ではないと弁明したが、交渉は難航した。年を越してようやく貿易は認められたが、禪僧たちの上陸はなお許されなかった。渡海僧愚中周及は、1中國商人の協力を得て、小船で慶元を素通りし、著名な禪僧のいる寺にかくまわれたが、こんな成功はむしろ例外だった。榎本涉〔2007〕が見いだした抄物史料「愚中周及年譜抄」から、つぎのような情報が得られる。①天龍寺船に便乗して求法をめざした僧の数は60余人であった。②そのうち上陸に成功したのは愚中の一行11人のみであった。③渡來僧清拙正澄の弟子たち17人は、密入国しようとして警備兵に捕まり、怒った鍾万戸に皆殺しにされた。④天龍寺船に残留していた30余人の僧たちは、これを聞いて全員日本に歸國した。

類似的な状況は日本側の窓口においても起きていた。12世紀～13世紀前半の博多では、中國商人が「在蕃貿易」を営み、多彩な社會活動を展開していた。ところが13世紀後半になると、そうした動向が史料上からパタリと姿を消す。「在蕃」の衰退と貿易船往來の増加は正の相關關係にあるらしい。弘安の役直後、幕府は「他國より始めて來入せる異國人等の事、制止を加ふべし」という法令を發した。新來外國人の排除により、博多の中國人居留地は衰退の一途をたどり、日本居住がむずかしくなった中國商人は、つねに貿易船を動かしてはならなくなったのではないか。

こうして蒙古襲来を境に、博多にはしだいに公權力の支配が浸透していった。天龍寺船の渡航にさいして、博多の「公府」「官司」が、乗船者の選定に一定の關与をし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1342年、中巖円月は再度の中國渡航をもくろんで博多に至ったが、「官司の文書下り、乗舶を禁ず、故に再出を得」なかった（「中巖月和尚自歷譜」）。1350年、博多の息浜に龍山徳見以下18人の日本人僧侶と船主以下11人の中國人を乗せた「宋船」が着岸した。代官から報告を受けた九州探題一色直氏は、歸國僧の名簿を添えて室町幕府に報告した（『園太曆』）。これらの例から、探題が出入國管理機能をはたすために、都市博多への規制力を強めていったようすがうかがわれる。

## おわりに

中世の日本人にとって、蒙古襲来はまれにみる異文化接触の経験だった。それは日本人の對外意識に大きな痕跡を残した。ただしそれは、〈異なるもの〉への理解という方向でなく、日本を他國にすぐれた神聖空間として、〈異なるもの〉への蔑視と排除をともなう「神國思想」の定着という方向をたどった。「神が國を守る」という言説も、「敵」に關するなにかの理解をふまえて自己を再認識するというのでなく、國際社會では通用しない空疎なお國自慢を述べたにすぎなかった。

蔑視觀の深まりについては、日本が新羅を朝貢國として従える歴史的起点とされてきた、神功皇后

の三韓征伐伝説の変化から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その元祖である『日本書紀』では、征伐の動機は財宝への欲望とされ、また、新羅を屈服させて馬飼とした、と書かれている。これが、蒙古襲來を経た鎌倉末の『愚童訓』になると、征伐の動機は仇討ちとなりしたがってその前段に新羅の日本侵攻が創作される、馬飼の話は、皇后が弓の弦で岩に「新羅國の大王は日本の犬なり」と書きつけた、という話に変わる〔金1999〕。

『愚童訓』には、三韓征伐で皇后に付き従った者として、全国各地の神々の名がおびただしくあらわれる。彼らはみな、弓箭・甲冑を帯びて征伐に赴くつわものだった。同様に蒙古合戦も、人と人との戦いだったのと少なくとも同程度に、神と神との戦いだった。したがって、祈禱という戦闘行為に對して神領寄進という恩賞が求められた。對外戦争という希有の経験も國內合戦の論理でとらえられ、認識の変革にはつながらなかった。

では、蒙古襲來は民衆の意識に何を残したのか。1269年に對馬まで来てひきかえした蒙古使は、塔二郎・弥二郎というふたりの島民をつれ歸った。燕京に送られたふたりに、フビライはみずから「爾國は中國に朝覲し、其の來れるや尙し矣。今朕の、爾國の來朝を欲するは、以て汝に逼るには非ざる也。但だ名を後に垂れんと欲する耳。」と語りかけ、壯麗な宮殿を仰ぎ見たふたりは「天堂・仏刹有りと聞くは、正に是れを謂ふ也」と奏した(『高麗史』元宗世家10年7月甲子條)。京・鎌倉はおろか博多さえも見たことが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庶民の超絶体験は、どことなくファンスティックな趣きがある。むしろこれが日本人の意識に何らかの痕跡を残し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が、そのような体験をした日本人がいたことは、記憶に留めておいてよいだろう。

いっぽう、民衆が異賊の侵略から受けた恐怖は、得体の知れないものを意味する「ムクリコクリ(蒙古・高句麗)」ということばに残った。井伏鱒二の小説「黒い雨」には、人びとが廣島の原爆雲を「ムクリコクリの雲」と呼んだという描寫がある〔田中1982〕。また、宮城縣仙台市には「モクリコクリの碑」と呼ばれる中世の板碑があり、これを削った粉を吞むと百日咳に効くといわれている。得体の知れない威力をもつものにすがるって疫病などの脅威に對抗しようという心性は、めずらしいものではない。

## 参考文献

- 荒木和憲, 2008, 「文永7年2月日付大宰府守護所牒の復元 日本・高麗外交文書論の一齣」(『年報太宰府學』2)
- 伊藤幸司, 2002, 「蒙古襲來をめぐる円爾と南浦紹明」(『都府樓』33)
- 今谷 明, 1994, 『元朝・中國渡航記 雪村友梅の數奇な運命』(宝島社)

- 榎本 涉, 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9~14世紀』(吉川弘文館)
- 太田 彩, 2000, 『繪卷・蒙古襲来繪詞く日本の美術414』(至文堂)
- 太田彌一郎, 1995, 「石刻史料「贊皇復縣記」にみえる南宋密使瓊林について 元使趙良弼との邂逅」(『東北大學東洋史論集』6)
- 川添昭二, 2008, 「蒙古襲来史料としての日蓮遺文」(『九州史學』150)
- 金 光哲, 1999, 『中近世における朝鮮觀の創出』(校倉書房)
- 佐伯弘次, 2003, 『日本の中世9モンゴル襲来の衝撃』(中央公論新社)
- 佐藤鐵太郎, 2005, 『蒙古襲来繪詞と竹崎季長の研究』(錦正社)
- 杉山正明, 2003, 「モンゴル時代のアフロ・ユーラシアと日本」(近藤成一編『日本の時代史9モンゴルの襲来』吉川弘文館)
- 朱雀信城, 2008, 「至元8年9月25日付趙良弼書状について」(『年報太宰府學』2)
- 田中健夫, 1982, 「ムクリコクリ」(同『對外關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初出1967)
- 張 東翼, 2005, 「1269年「大蒙古國」中書省の牒と日本側の対応」(『史學雜誌』114-8)
- 西尾賢隆, 1999 a, 「元朝國信使寧一山」(同『中世の日中交流と禪宗』吉川弘文館、初出1990)
- 西尾賢隆, 1999 b, 「モンゴル襲来前夜の日元交渉の一面 趙良弼と大応」(同『中世の日中交流と禪宗』吉川弘文館、初出1999)
- 旗田 巍, 1965, 『元寇 蒙古帝國の内部事情』(中公新書)
- 藤本正行, 2003, 『鎧をまとう人びと一合戦・甲冑・繪畫の手びき』(吉川弘文館)
- 村井章介, 1988, 「高麗・三別抄の内亂と蒙古襲来前夜の日本」(同『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初出1982)
- 村井章介, 2001, 『北條時宗と蒙古襲来 時代・世界・個人を読む』(NHKブックス)
- 村井章介, 2003, 『分裂する王權と社會』(中央公論新社)
- 村井章介, 2005 a,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文化』(放送大學教育振興會)
- 村井章介, 2005 b, 「寺社造營料唐船を見直す 貿易・文化交流・沈船」(歴史學研究會編『港町の世界史1 港町と海域世界』青木書店)
- 山本光朗, 2001, 「元使趙良弼について」(北海道學芸大學史學會『史流』40)
- 吉田光邦, 1975, 「蒙古襲来繪詞に於ける武器について」(『新修日本繪卷物全集』10、角川書店)
- 李 領, 1999, 「「元寇」と日本・高麗關係」(同『倭寇と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 13世紀以前の麗日關係

李在範

(京畿大学校人文学部史学専攻)

## 1. はじめに

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を全体的にある特徴的な狀況として言うことは難しい。そうといって時期別で差別化して言うことも易しくはない。それはこの時期に關する研究も不進であり、實際に交流關係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資料が十分に残っていない狀況である。ある意味では實際に交流關係が活潑ではなかったので、伝えられてきた資料がそれしか残っていないという主張が妥当のように聞こえるそのような分野である。

この時期に兩國間の關係が疎遠するしかなかった理由は數多くあるだろうが、まず当時の東アジアの國際環境と關連があると言えよう。高麗が建國した918年頃の國際情勢は、東アジア各國が對外的な問題よりは、自國の混亂收拾に優先的に置重するしかなかった處地であった。高麗としては、後三國の分裂を一応統一して、急な状態は片付けたというもの、地方で勃發する豪族らの反撥と王室内で展開された王位爭奪戰は、國家を安定し難く作ったのである。引き続き高麗の門閥貴族たちの間の勢力争いも高麗の總力を國際的に回すことには適合しない与件であった。

一方、高麗の周辺國で一番多い影響を与えた中國の状態もあまり有利なことではなかった。高麗建國期の中國の事情はいわゆる唐末五代の時期で、多くの王朝が交替になっていた混亂期だった。

- 
- 1) 森克己は10世紀は、8-9世紀の‘政治中心の對外關係’から、‘經濟中心の對外關係’に変わり始めた大轉換期としてみて、この時期の對外關係を‘消極的な孤立主義’、または‘閉鎖主義’としてみている。80年代後半からは石上英一を中心にした學者らはこの時期を‘積極的な孤立主義’としてみるなど、一連の試圖が行われた。李炳魯はこのような變換の時期を9世紀に早めたりする(李炳魯, 11世紀韓日兩國の對外交渉에關한一考察, 大丘史學 제59집, 1-2쪽)。

この時期に高麗は日本よりも中國の多くの國々との關係に力をつくしながら、一方では宋を無視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また相對的に日本とは大きな戰爭などの威脅がなかったので疎忽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

そして、高麗としては中國が契丹族によって遼が成立され大規模の高麗侵入を敢行して來ると、これに對する對備として他の國との關係に氣を配る余裕がなかった。實際に13世紀以前まで高麗の對中國關係は、よほど不安な狀況であった。契丹族の遼が3回目の大規模の侵略戰爭を敢行したし、その後を引き續き女眞族が金を建てて高麗に壓迫を加えたりしていた。このような東アジア國際情勢の中で高麗は大陸との關係改善に多大な力を入れるしかない狀況であった。一方、日本では醍醐天皇の延喜年間にもう遣唐使が廢止され中國との國交が斷絶になった状態であった。その後が宋と多くの關係を持つとする努力した時期であった。

それはいずれにせよ、高麗前期の韓日關係に關する研究は日本の研究が主を成していた。最近、國內で日本史料が紹介されてから、一連の研究などが現われているが、まだ満足するほどの狀況ではない。それさえも幸な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は、日本にある資料が國內に紹介されたという点であろう。勿論、資料集という性格自体が限界があることは分明であらうし、そうだとすると全体を涉獵できる機會を持つようになることは非常に幸なことであろう<sup>2)</sup>。

本考はこのような國內での資料集刊行と關連して高麗前期の韓日關係を全体的に眺望して見た結果である。以前、韓國での高麗史關係者たちが主に利用したことは『高麗史』を含めた韓國の文獻であった。だから自然に韓日關係史は自國史中心に流れるしかなかった。したがって韓日關係史の主流は倭寇になり、これを討伐した民族抗爭がしばらくのあいだ浮刻された論点であった。それで高麗と日本は倭寇で象徴される關係になったのであろう。

しかし、倭寇以前の韓日關係史は他の姿で現われる。そして、日本資料を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また別の眼目からの韓日關係史を眺望できるようになる。本稿では既刊行になった日本文獻の中の韓日關係史資料を含めて、既發表された研究成果を涉獵して13世紀以前の韓日關係史の全貌を考えてみたい。

關係史を説明するためには、時期的に區分することも一つの方法になるだろう。しかし本稿では、高麗と日本との關係を類型別で分類してみたい。例えば、國家と國家間の關係、民間との交易關係、

2) 本稿の高麗前期の韓日關係においては、既存の多くの學者の助力を頂いた。必要な場合には脚註や本文で引用することで感謝の氣持を表したい。特に、張東翼教授の勞苦に感謝する。張東翼教授の『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2004)は原文資料の詳細な紹介は勿論、資料内容まで整理してこの分野に大きな業績を残し、筆者にも大変な手助けになった。そして、『日本古中世文獻속의 韓日關係史料集成』(김기섭등, 해안, 2005)も大きな參考になった。

文化的交流などで区分して13世紀以前の韓日関係の大綱を調べてみることにする。

## 2. 高麗と日本の国家対国家間の関係

13世紀以前の高麗と日本との関係を一言で整理することは難しい。まず、史料上の問題があり、次に解釈上の問題がある。高麗史は高麗の事情に有利に、日本は日本の事情に有利に敘述したからである。本章では史料に現われた高麗と日本との関係を類型別に分類して報告し、その内容を根據にして13世紀以前の高麗と日本との関係を設定して見よう。

まず、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が國家對國家の関係としての外交関係である。すなわち、使臣の交換を通して韓日間の公式的な交流に對して考えてみたい。

國家對國家間の公的關係である使臣の交換は關係史でもっとも重要な内容になるだろう。國家間の位相、そして國家間の交流の内譯などは關係史の核心な要素であるといえよう。我が國と日本の關係資料をよく見れば次の<表1>のようになる<sup>3)</sup>。

〈表 1〉 高麗と日本の国家間の公式関係

連番	年度	関連事実	典據
1	922年(景明王6、延喜22)	6月5日、日本朝廷が對馬島に到着した後、百濟王甄萱の使臣輝巖を歸還させよという命令書(官府)を大宰府に送る。	/扶桑略記、延喜22年6月5日、延長7年5月21日/『本朝文粹』12、大宰府答新羅返牒
2	929年(敬順王3、延長7)	1月13日、耽羅島を往來していた新羅船舶が對馬島下縣郡に漂着、島守坂上経國が擬通事長岑望通・檢非違使秦滋景などをして後百濟全州へ送還させる。	/扶桑略記、延長7年5月17日
		3月25日、檢非違使秦滋景が對馬島到着。全州王(後百濟王)甄萱が日本と通交を希望したが挫折した。事實を知らせる。甄萱が長岑望通を残しておいて秦滋景だけ歸って来て通交の意味を伝える。	/扶桑略記延長7年5月17日
		5月17日、全州王の使臣張彦澄など20人が對馬島に到着。對馬島司がこれらを拘留して太政官に報告する。	/扶桑略記延長7年5月17日
		5月21日、太政官が大宰府に官府を下して張彦澄などを歸還させる。甄萱は新羅の部下なので外交は認めない。	/扶桑略記延長7年5月21日/異國牒狀記
3	937年(太祖20、承平7)	8月5日、高麗が送った牒を日本の左右大臣以下閱覽。	/日本紀略承平7年8月5日
4	939年(太祖22、)	2月15日、攝政藤原忠平が高麗の牒を左少弁藏人大江	/貞信公記抄天慶2年2月15日

3) 本稿に収録された<表>の内容は張東翼教授が、前掲資料集で韓日兩國の交流関係を整理しておいた内容(15～47頁)を簡略にまとめたものである。

172 ■ 蒙古の 高麗・日本 侵攻と 韓日関係

	天慶2)	朝綱に送る。 3月11日、大宰府が高麗の廣評省に送る答書(返牒)とともに使臣団を返す。	/日本紀略』天慶2年3月11日/帥記承暦4年閏8月5日、25日
5	940年(太祖23、天慶3)	6月21日以來、日本朝廷が高麗の牒を検討し、これに對して議論する。	/貞信公記抄天慶3年6月21日、23日、24日/帥記承暦4年閏8月5日、25日
6	972年(光宗23、天祿3)	9月23日、大宰府が高麗の南京(原)府使咸吉兢が牒を持って對馬島に到着したことを日本朝廷に報告。來月7日日本朝廷に伝達。	/日本紀略天祿3年9月23日;親信卿記天祿3年10月7日.
		10月15日、大宰府が高麗の金海府使李淳達が牒を持って對馬島に到着したことを日本朝廷に報告。	/親信卿記天祿3年10月15日.
		10月20日、日本朝廷が高麗の牒に對して議論する。	/百練抄天祿3年10月20日.
7	974年(光宗25、天延2)	閏10月30日、日本朝廷の高麗國交易使(高麗貨物使)が對馬島に派遣され高麗の産物を求入。	/日本紀略天延2年閏10月30日;親信卿記天延2年閏10月30日.
8	997年(成宗16、長徳3)	5月、高麗の牒3通(受信處は日本國・對馬島司・對馬島)日本に到着する。	/異國牒狀記長徳3年.
		6月12日-13日、日本の公卿らが高麗の牒に日本を侮辱する文句があると言って答書を送らないで、要害地を警戒するようにする。	/小右記長徳3年6月12日、13日;百練抄長徳3年6月13日;水左記承暦4年9月4日;帥記承暦4年9月2日、3日;師帥記貞治6年5月9日.
9	1019年(顯宗10、寬仁3)	4月29日、高麗の鎮溟船兵都府署が海賊船を捕獲して日本人259人を救出する。	
		9月19日以來、日本朝廷が高麗が女眞族に捕らえられた日本人送還と一緒に派遣した鄭子良が持って來た牒を議論。	/小右記寬仁3年9月19日、22日23日;左経記寬仁3年9月22日/異國牒狀記
		12月30日、大宰府が日本朝廷に高麗の使臣に關する日記を捧げる。高麗人30人が乗船した船泊2隻が對馬島から出發して筑前國に漂着したという。	/小右記寬仁3年12月30日.
10	1020年(顯宗11、寬仁4)	2月以來、女眞族によって捕らえられた日本人を送還するために來日した。高麗の使臣である鄭子良の待接と答書作成に對する議論をする。	/左経記寬仁4月11日、8月25日;『日本紀略』寬仁4年2月16日、4月11日;百練抄寬仁4年2月16日.
11	1051年(文宗5、永承6)	7月10日、日本朝廷が高麗金州が商船を通じて牒を送ったことを議論する。	/百練抄永承6年7月10日;異國牒狀記;水左記承暦4年9月4日;帥記承暦4年閏8月25日、9月2日.
12	1056年(文宗10、天喜4)	-10月1日、日本お吸物の使臣藤原頼忠など30人が金州に到着する.	/高麗史文宗10年10月己酉.
13	1080年(文宗34、承暦4)	2月5日、大宰府がもう受けていた高麗礼賓省の牒を解狀とともに太政官に送る。	/朝野群載20、太宰府解.
		4月19日、日本朝廷で礼賓省の牒に對する議論があり、医師を派遣することで意見が集められる。	/水左記承暦4年4月19日.
		10月2日、命令書[官府]を大宰府に下して、高麗が要請した医師を派遣しないこと、高麗の礼物を返すこと、大宰府の答書[反貼]は使者を選抜して送ること、そして王則貞を法に回付して處罰することなどを伝える。	/師帥記貞治6年5月9日.

		11月3日、大江朝綱が源俊房と議論して答書の字句を修正して關白藤原師實に報告し、最終本を完成した後これを大宰府に送る。	/水左記承暦4年11月3日;朝野群載20太宰府牒;本朝續文粹11太宰府牒.
14	1081年(文宗35、永保1)	5月2日、日本朝廷が大宰府が高麗に送る答書[半分牒]に對して申し込んだことを議論する。	/帥記永保1年5月2日;本朝續文粹11太宰府解.
15	1147年(毅宗1、久安3)	8月13日、日本都綱黃仲文など21人高麗に到着する。	/高麗史毅宗1年8月甲辰.
16	1156年-1165年(毅宗19、永万1)	對馬島の寛仁が牒を同南海島部署に送ることによって都府署がこれを朝廷に報告すると、都府署の名前で答書[公文書]を送るようにする。	/高麗墓誌銘集成李文鐸墓誌銘.

<表 1>の内容はいくつかの類型で區分することができる。高麗の使臣が日本に行った境遇と日本の使臣が高麗にきた場合である。そして、高麗の國家的な使節が直接朝廷に行った境遇と高麗の牒を對馬島に伝えられ、對馬島でまた朝廷に伝えた方法などである。そして高麗の地方官の名前で送った牒の主体に對しても明かにしなければならぬ。また高麗から日本朝廷への伝達過程なども明かにしなければならぬだろう。

まず、上の<表1>を通じて分かることは、高麗と日本との正式通交が高麗の後三國統一以後からという事実であり、そして相当な時間の間隔はあるものの、高麗と日本の公式的な外交関係は續け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ろう。

高麗が後三國を統一する以前には單獨に直接日本と通交することは難しかったはずである。高麗の建國が918年であるが、936年高麗が後三國を統する前までは高麗使節は日本へ行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南海岸一帯を掌握した後百濟の使節が日本と往來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1と2)。それでは高麗は東海を利用して日本と通交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だろうか。この部分が高麗の都邑である松岳と東海岸の地理的な條件が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ぬし、また当時の東海岸を利用した渤海と日本の使節交換が活潑していたことも理由の一つになるだろうと思われる<sup>4)</sup>。

高麗の公式的な使節による牒が伝達され、使臣団が初めて派遣されたことは937年、939年、940年の順序である。しかしこの使節の派遣は日本側で拒絶された<sup>5)</sup>。しかしその後でも政府次元の正常的な通交関係は續けてなされてきた。使臣が直接朝廷に入っていたかについてははしられていない。し

4) この頃、日本と渤海との公式使節の交換は度々施行されていた。今後の研究の一つとして渤海と日本、そして韓半島との関係の研究も必要であろう。

5) 拒絶の理由について、韓國と日本の見解が異なっている。日本側は後百濟と高麗を蕃國としてみていたからであるという。しかし、韓國の研究では後百濟が日本へ送った使節は日本と新羅の聯合を防ぐための意圖からであり、高麗使臣を送ったことは韓半島の統一を誇示するためであるという(李炳魯、「11世紀韓日兩國の對外交渉に關한一考察」『大丘史學』59집, 94頁)。

かし高麗で牒が朝廷に報告された例は少なくない。

この時期に問題になることは高麗初の公式使節を日本で断ったという点である。この事実において大体日本の平安時代の外交の閉鎖性と硬直性で原因を見出すことが一般的な日本學界の雰囲気であった。しかし石上英一<sup>6)</sup>はその現象の理由を韓半島の周辺事情から見い出そうとした。彼は日本が周辺世界に對して無知とか無關心から始まったのではなく、当時韓半島の混亂と動搖が日本にまで及ぶかも知れないという憂慮でこれを避けるための日本の意図的な‘積極的孤立政策’であると主張した。

その後石の主張は渡辺誠によって日本が周辺國を無視しないながらも、適切に對応したという主張<sup>7)</sup>が加わって研究の方向がよほど変わったのである。しかし南基鶴は日本學界の主張とはことなつて高麗が日本に使者を送ったことは高麗が上國という大國意識の發露であると推定した。そして‘朝貢’やこれと似ている史料的な表現は、日本の意図的な造作であると主張した<sup>8)</sup>。また李炳魯も高麗の國書に聖旨のような單語を使用して日本にとって氣にくわない行動をしたことは高麗が自身の正体性を誇示しようとしたことであると主張した。

このように國家對國家間の交流に對して兩國の學者らは自己式の主張をしている。事件の歴史的背景や意味に差はあるものの、麗日關係で國家間の公式的な關係が断絶なしに、持續していたという証據は、972年に高麗から使臣を送ったことから分かる。この年に二度の牒が高麗から對馬島へ伝えられている。ところで、この時高麗で牒を持って行った人は地方官である南京(原)府使と金海府使であった<sup>9)</sup>。彼らは日本の朝廷にまで行く事ができなかったようである。しかし、この牒が日本の朝廷に伝達され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sup>10)</sup>。

ところでここで問題になることは、高麗の牒を送った人物や機構の問題である。高麗の牒が日本に伝達される場合、南京府使や金海府使が發送者になっていたり、地方の都府署が發送者になっていたりする場合もあった。それはいずれにせよ、13世紀以前の高麗と日本の公式的な國家交流はその方法において使臣であったり、牒を送ったりなどの手段の差はあったものの、續けて持續されていた。交流の方式や内容については、多くの見解があるだろうが、たとえ回数多くないと言っても高麗と日本の國家間の使節の交換は、その密度においてはよほど深い關係にあったと言える。

6) 石上英一、日本古代10世紀の外交、學生社、1982。『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

7) 「平安貴族の對外意識と異國牒狀問題」『歴史學研究』823、2007。

8)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な前提に關する學際的研究』、荒野泰典(研究代表)平成12-14年科學研究費補助金成果報告書、2003。森平雅彦の原稿から引用。

9) 張東翼は南京として、ほかの研究者らは大体南原であるとみている。今まで紹介された模倣は‘南涼’になっている。

10) 森平雅彦、日麗貿易、大庭康時・佐伯弘次菅波正人田上勇一郎編、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

ある時期、この地方官の性格に關しても注目がなされていた。この地方豪族の對外活動における獨自性と連續性の問題である。新羅末の一部豪族の場合は、獨自的に中國と連結した時もあった。だからこの時期に南原や金海のような、中央からは比較的に遠距離にある地方の大豪族勢力の中では獨自的に對外活動を行う可能性も残っていた。しかしこれらの役職が共通的に‘府使’という点から公式的な交流に間違いはない。974年に日本朝廷で高麗國交易使が對馬島に派遣され、高麗の物品を購入して行った事實も常設かどうかという点は考慮の余地があると言っても、國家的な公的交流の事例としてみることはできるだろう。

その他にもこのような高麗と日本間の公式的な交易に關する内容は多くの所で探すことができる。ところで兩國間の國家的な公式的關係で一番氣を使う点は兩國間の國家的な位相の問題であろう。そしてよく舉論されることが牒の内容と格式の問題である。997年の高麗で送った牒の内容と格式もその中の一つである。この牒が問題になって、高麗人が日本から追放された事件が起きた。日本では高麗の牒狀に日本を無視する内容があると言って、日本朝廷が高麗の國書に答をしないほどに兩國關係が悪化されたこともあった。この997年の高麗牒狀事件の狀況・解釋については多くの見解が提示されている。

一方、1019年には、高麗によって女眞の海賊船で捕らえられた日本人を救出し、日本に送還する事件が発生した。この時、鄭子良が女眞海賊に捕らえられた日本人を送還させたこの事件は高麗と日本の關係が決して悪くない狀況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当時、東海岸一帯を脅威していた共同の敵である女眞海賊に對しては、同病相憐の協助關係が成立していたと思われる。

この事件は高麗と日本の兩國關係において、一大轉機になったと把握する傾向もある。森克己は、高麗側の好意的な対応が日本の對高麗姿勢を柔軟に変え、その後頻繁な漂流民送還のきっかけになったと言った。しかし村井章介は、この事件をめぐる日本側の高麗の軍事力に對する關心が高まったことに注目して高麗に對して相変らず疑懼心があり、‘敵國’新羅と結び付く認識、平安貴族の國際感覺の退嬰性と閉鎖性を強調した。石井正敏も刀伊事件後に高麗に對する日本の敵國視は大きい変化なしに、中央地方を問わず貴族層の基本的な認識であったと敘述した。また高麗側の友好姿勢も南基鶴が指摘したように契丹との抗爭を背景にする方便だった可能性があったはずである<sup>11)</sup>。ただ山内晉次が指摘したように日本側の優位意識と警戒感が消えたことではないものの、新羅の境遇と一緒に極端的な敵對視や紛争は生じなかったと言えよう<sup>12)</sup>。そこで特記すべきものは、この際日本に送還する時も高麗で牒を送った公式的な使節だったという点である。このような事實を見れば、高麗と日本とは

11)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前提に關する學際的研究』、荒野泰典(研究代表)平成12-14年科學研究費補助金成果報告書、2003.森平雅彦の原稿から引用。

12)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歴史科學 122, 1990.

基本的に共同の威脅には國家間の連帯をはかっていたとも言える。

これとともに國家の公式的關係で大きく注目される事件が、高麗で國王文宗の病氣を治療するための醫師を日本へ求め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高麗の醫師の招請は、結局のところ日本から送らないことになり、不發に終わってしまったが、日本では決定を下すまえまでの過程を見れば、よほど深刻に論議されたと思われる。初めには醫師を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決定を下し、送る醫師を具体的に舉論するに至るほど日本では眞面な姿勢で臨んでいた<sup>13)</sup>。兩國間の關係がどうであったが、見当がつく事件であったといえよう。この頃、中國の医官たちも高麗に往來していたが<sup>14)</sup>、國王の生命を担当する醫師を日本にも依頼して求めたということは単純な醫學技術の問題だけではなく、國家間の友好關係を考えるべき事件として特記すべきであろう。この醫師招請事件の拒絶について、日本では日本の醫師が文宗の病氣を直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羞恥であるという意見もあったが、高麗の牒に聖旨のような單語が使われるなど高麗の大國意識が文書の形式と内容から見えるということが、直接的な醫師派遣拒否の理由であった。そしてこの牒を持って來た王則貞に對して處罰したのである。結局この事件は高麗と日本との國家間の自尊心ないし優位關係に對する強い意識がもたらした結果であった

13) これと關連する過程を見れば次のようになる。

2月5日' 大宰府がすでにもらっていた高麗禮賓省の牒を解狀とともに太政官へ送る°	/朝野群載20,太宰府解.
2月16日' 大宰帥藤原資仲が' 報告した高麗國皇帝の牒が日本朝廷に傳達されることが伝えられる°	/水左記承曆4年4月19日.
4月19日' 日本朝廷で禮賓省の牒に對する論議結果' 醫師を派遣することで意見が集まれる°	/水左記承曆4年4月19日.
8月7日' 藏人辨(右少辨)藤原伊家が禮賓省の牒に對して議論するように命じた宣旨を大納言源俊房に伝う°	/水左記承曆4年8月7日.
閏8月2日' 大納言源俊房が朝廷で高麗が醫師を要請したことを言及°	/水左記承曆4年閏8月2日.
閏8月5日' 日本朝廷で高麗の牒に對して議論し' 醫師を派遣するのが' 派遣する場合だれを送るのが' 答書はどのようにするののかについて議論する°	/水左記承曆4年閏8月5日; 帥記承曆4年閏8月5日; 百練抄承曆4年閏8月5日.
閏8月8日' 大納言源俊房が高麗が醫師を要請したことに對する公卿たちの評議の結果を藏人辨藤原伊家に伝う°	/水左記承曆4年閏8月8日.
閏8月11日' 藤原伊家が' 大納言源俊房に' 왕즉정' を尋問した記録を伝う°	/水左記承曆4年閏8月13日.
閏8月14日' 日本朝廷で宋皇帝が送った禮物に對する對處および高麗の醫師要請について議論したが' 後者の場合は丹波雅忠と論議するのがいかかであろうかと意見が提示される°	/水左記承曆4年閏8月14日; 帥記承曆4年閏8月14日.
閏8月22日' 關白藤原師實が人を送り丹波雅忠に咨文をもとめたが' ,丹波雅忠が醫師を派遣するつ惟宗俊通が適當であると回答する°	/水左記承曆4年閏8月23日; 帥記承曆4年閏8月22日.
閏8月24日' 日藤原師實が醫師を派遣しないことを決定し' これに對する答狀を大江匡房をして起草させる°	/水左記承曆4年閏8月24日; 帥記承曆4年閏8月25日.
9月2日' 藤原師實が源經信を呼んで' 大江匡房が作った答書をみせる°	/帥記承曆4年9月2日.
9月3日' 藤原師實が源經信・大江匡房を呼んで' 答書を検討する°	/水左記承曆4年9月3日; 帥記承曆4年9月3日.
9月4日' 公卿たちが藤原師實の家に集まり' 答書について議論する°	/水左記承曆4年9月4日; 帥記承曆4年9月4日.
9月6日' 大江匡房が源俊房に高麗牒が前例と異なることを伝う°	/水左記承曆4年9月6日.
9月12日' 大江匡房が源俊房に' 答書の草案を報告し' ,源俊房の指示によって内容の中の殊俗を蕃王に直す°	/水左記承曆4年9月12日.
9月17日' 藤原師實が公卿らを招待して答書を見せる°	/水左記承曆4年9月17日.
9月18日' 大江匡房が源俊房に' 答書を伝えて' ,源俊房がこれを前筑後守俊光に清書させる°	/水左記承曆4年9月18日.
10月2日' 太政官の命令書を大宰府に下し' 高麗が要請した醫師を派遣しないこと' 高麗の禮物を返すこと' 大宰府の答書(返牒)は使者を選抜して送ること' そして王則貞を法によって賞罰することなどを伝える°	/帥記貞治6年5月9日.
11月3日' 大江匡房が源俊房と議論して' 答書の字句を直し' 關白藤原師實に報告して最終本を完成した後' これを大宰府におくる°	/水左記承曆4年11月3日; 朝野群載20太宰府牒; 本朝續文粹11太宰府牒.

14) 宋から醫官王儉・徐先を送る(高麗史 卷9 文宗世家 26年 6月 庚戌)。

。高麗の医師招請は失敗で終わり、日本はその後、高麗の八關會・朝賀禮の参加者として招請されなかったはずだという主張も出たぐらい、この事件は國家の公式的な事件として意味が大きかった<sup>15)</sup>。その他にもこの事件と関連して、日本での拒絶理由として多くの見解が出されたが<sup>16)</sup>、日本での拒絶その自体が、その以後の麗日關係に直接敵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について具体的に論証できる資料はない<sup>17)</sup>。

日本から高麗へ牒がきた場合は、1156年である。この時、高麗に牒を持って来た人は對馬島の寛仁であった。この時の牒を受領したことは、高麗の東南海都府署であった。この牒は高麗朝廷に報告され、高麗朝廷では都府署が答書を送るように措處していた。その手続きは日本朝廷→對馬→東南海都府署→高麗朝廷の順序であっただろう。高麗と日本の公式的な交流であったのである。

今まで高麗と日本の13世紀以前の國家對國家間の關係を考えてみた。兩國間の公式的な交流はあまり活潑ではなかった。高麗で女真人の海賊に捕らえられた日本人を送還した事例や高麗で医師を招請した事件などがあるが、兩國間の關係は決して緊密であったとは言えない。しかし、完全に断絶された状態であった時もなかった。もちろん、今まで残っている史料を根據にした時だけはそうであろう。

### 3. 交易關係

高麗と日本との關係で注目すべき分野が交易關係である。本稿では交易の範圍を公式的な國家間の關係を除いたすべての商業的な關係で言いたい。もちろんこの關係でも使臣を送ったり、牒を持たせたりした交易關係は別に扱うべきであろうが、そのような条件が揃わなかった場合には交易關係として扱いたい。交易關係に関する内容を調べてみると次の<表 2>のようになる。

15) 奥村周司, 醫師要請事件にみる高麗文宗朝の對日姿勢, 朝鮮學報 117, 1986。

16) 渡邊誠, 平安貴族の對外意識と異國牒狀問題, 歴史學研究823, 2007。

17) 高麗史では日本へ醫師を要請した事實を探すことができない。文宗32年(1078)に‘王が歸國する使節を通して感謝を表すとともに、自信が風痺症であることを言い、醫師と藥材を要請した。’という内容があるが、日本へ牒を送ったという内容は見れない。あるいは、王則貞個人と関連するあることを謀事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わしい部分がある。高麗史では日本へ牒が到着した年に薩摩州から方物を捧げたとの記録があることを見れば、王則貞の實力も實力であろうが、高麗から日本へ醫師を要請したのであるかという疑問もある。中國では1079年にすでに藥材100種と閩門通事舍人王舜封など88人を送ってきた。

〈表 2〉 高麗と日本の間の交易關係

連番	年度	關連事實	典據
1	1073年(文宗27、 延久5)	7月5日、日本人王則貞・松永年など42人高麗到着、各種物産を捧げ。壹岐島勾當官藤井安國等33人派遣して方物を捧げる。	/高麗史文宗27年7月丙午。
		11月12日、日本人が宋・黑水・耽羅人などとともに八關會に参加して禮物を捧げる。	/高麗史文宗27年11月辛亥。
2	1074年(文宗28、 延久6)	2月2日、日本國船頭重利など39人が高麗に到着、物産を捧げる。	/高麗史文宗28年2月庚午。
3	1075年(文宗29、 承保2)	閏4月5日、日本商人大江など18人が高麗に到着、物産を捧げる。	/高麗史文宗29年閏4月丙申。
		6月22日、日本人朝元・時経など12人が高麗に到着、物産を捧げる。	/高麗史文宗29年6月壬子。
		7月10日、日本商人59人が高麗に到着する。	/高麗史文宗29年7月庚午。
4	1076年(文宗30、 承保3)	10月15日、日本國僧俗25人が高麗靈光郡に到着して上京するのを要請して許諾。	/高麗史文宗30年10月戊戌。
5	1079年(文宗33、 承暦3)	11月5日、日本商客藤原などが高麗の興王寺に法螺・海藻などを施納する。	/高麗史文宗33年11月己巳。
	1080年	閏9月11日、日本國薩摩主が使臣を高麗に派遣して方物を捧げる。	/高麗史文宗34年閏9月庚子； 高麗使節遼文宗34年閏9月。
6	1082年(文宗36、 永保2)	11月19日、對馬島が使臣を高麗に派遣して方物を捧げる。	/高麗史文宗36年1月丙戌。
7	1084年(宣宗1、 応徳1)	6月20日、日本筑前州の商客信通などが水銀250斤を捧げる。	/高麗史宣宗1年6月戊子。
8	1085年(宣宗2、 応徳2)	2月13日、對馬島勾當官が使臣を高麗に派遣して柑橘を捧げる。	/高麗史宣宗2年2月丁丑。
9	1086年(宣宗3、 応徳3)	3月22日、對馬島勾當官が使臣を高麗に派遣して方物を捧げる。	/高麗史宣宗3年3月己卯。
10	1087年(宣宗4、 応徳4；寛治1)	3月20日、日本商人重元・親宗など32人高麗に方物を捧げる。	/高麗史宣宗4年3月壬申。
		7月21日、對馬島元平等40人高麗に各種物産を捧げる。	/高麗史宣宗4年7月庚午。
11	1089年(宣宗6、 寛治3)	8月19日、日本大宰府商人高麗に各種物産を捧げる。	/高麗史宣宗6年8月丙辰。
12	1116年(睿宗11、 永久4)	2月2日、日本が柑子を捧げ。	/高麗史睿宗11年2月丙寅。
13	1159年(毅宗13、 平治1)	8月2日、日本朝廷が高麗商人に對して議論する。	/百練抄平治1年8月2日。
14	1243年(高宗30、 寛元1)	9月29日、金州防禦官が日本國人が方物を捧げて高麗の漂風人を刷選したことを報告する。	/高麗史高宗30年9月壬申。
15	1244年(高宗31、 寛元2)	2月2日、この時期以前に前濟州副使盧孝貞・判官李珪が漂流して來た日本商船の貨物を押収してからこの時發覺されて配流される。	/高麗史高宗31年2月癸酉。

上の内容を見れば、高麗と日本との交易關係が非常に多様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たとえ事例は多くないが、階層的でも形態において多様な模様が現われる。上の例を見れば、高麗に來る日本人の交易者だけ収録されている。そして根據になった出典が高麗史である。どうしてこの時期に急に高麗史だけに日本から來る通交者たちが多くなったのかについて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の時期の交易の類型を見れば、商人が捧げる場合、對馬島や壹岐島の勾當官が來て捧げる

場合、日本が捧げる場合などがある。日本人の中では、對馬島や壹岐島の勾當官・商人などが見えており、高麗では日本へ送ったという記録はちゃんと見えない。日本の史料の中には、高麗との關係を残している類型が日記類などに多く残っていることに對して、高麗では官撰史書から内容などを捜すことができる。ところで、この交易關係の通交者たちは急に11世紀から高麗史に集中されて現われている。上の〈表〉から見れば、高麗商人などについて日本朝廷で議論したという事實は、高麗商人も日本に行くという意味であろう。ところで高麗商人の存在を日本の資料から捜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

このように交易の担当者らが11世紀後半に急に表面化され、12世紀に入ると、また急速に影をひそめる現象に對して、日本商人たちが当時には自力で中國に渡航するにあたっては技術的に困難であったから、まず高麗へ進出したとみていたが、これは12世紀以後になると、中國史料に‘日本商人’が現われることを念頭に置いたことであると言えよう。ところで、このような發想はまるで倭寇の移動が前期には高麗を侵犯していたが、後期には明へ進出し、ひいては東アジアの海洋民族になったという図式と大変類似している。このような發想は朝鮮は大陸進出のための一つの足場であるという卑下意識から始ま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一方、高麗に渡航した日本人の出身については多くの説がある。大宰府の貿易管理体制が瓦解になり、莊園で密貿易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持論を前提にして、九州の莊園領主、あるいは成長して來た博多の商人が海外貿易に取り掛かったことであり、個々による私的な物品献上(私獻)の形式を取っていたと把握していた<sup>18)</sup>。そして日本で高麗側に望んだことは中國産品であり<sup>19)</sup>、日本の水銀・螺鈿・硫黄などが高麗によって宋に流入され、宋の物品が高麗を経由して日本に渡って來て、日本の水銀が宋を通して高麗に入っていくという物流の三國連鎖關係を指摘したりする。しかし森克己の見解については疑問も提起されている。まず、莊園内の密貿易説につちえは、11世紀段階では大宰府の貿易管理が機能していたという指摘があつて<sup>20)</sup>、莊園の對外交易主体としての力量、特に自ら海外に進出する能力に對して慎重に評価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指摘もある<sup>21)</sup>。

貿易の形式に對して山内晉次は奥村周司が指摘した‘八關會的秩序’<sup>22)</sup>と連結させて理解しようと

18) 森克己, 日・宋と高麗との私獻貿易, 朝鮮學報 34, 1959。

19) 森克己, 日本・高麗内港の宋商人, 朝鮮學報 9, 1956。

20) 山内晉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21) また、当時の日宋貿易は宋の海上において主導されており、そのために12世紀以後の中國史料で‘日本商人’が現れたことは、力關係の變化を表したことから注目されたが、榎木渉はこの‘日本商人’の實體は宋商であり、宋商が日宋貿易を主導する状況は12世紀にも変らなかつたという(榎木渉, 宋代の日本商人の再検討, 史學雜誌 110-2, 2001)。

22) 奥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關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卍 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意識-仲冬八關會儀および迎北朝詔使儀1を中心として, 歴史學研究 別冊特輯, 1982。

する。高麗の國家的祭礼である八關會での國王朝賀禮には宋商・女眞・耽羅など異域人たちが參礼しており、高麗王を中心とする王權秩序が表現されていたが、11世紀後半にはそのに日本からの通交者が參加した場合もあった。高麗の立場では日本もこのような政治秩序に包攝される存在であったと思つたようである。醫師招請事件は日本に對する高麗の大國意識が、文書形式として反映されたこととして認識されることもある。そして、この對日通交が失敗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政府との關係が再認識されて、その以後に成立したと思われる八關會に日本が參加者として登録されなかった可能性が指摘されることもあった。

日麗通交の経路に對して、山内晉次は貿易の盛行と相反して官廳を通じた漂流民の積極的な送還が行われたことに注目して、大宰府-對馬ラインが窓口になって、金州への送還が成立し、高麗では金州の東南海船兵都府署によって中央に送られたという。今後の日本との交易や外交折衷において金州や東南海船兵都府署の場としての性格に對して、最近活潑に展開されている世界各地の常市論の成果を踏襲しながら、また朝鮮前期の三浦形成の前史という点を強調しながら、本格的な検討を追加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展望している<sup>23)</sup>。

12世紀に入っては、高麗-日本間の通交に關連した史料は著しく減少する。このような關係記事の変化は事實の有無、その自体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が、傾向性を反映していると評価されている。日本側の要因に對しては、日本商人が高麗の政治混亂による危険を受けて、技術的に可能になった對宋進出へ轉換したことであった。高麗内外の動搖が重要であるという研究者もある<sup>24)</sup>。元來、高麗貿易が薄利だからという説もあり、日宋貿易の發展による利潤バランスの変化のためであるという説もある<sup>25)</sup>。また、高麗側の要因についても、前述したように双方の經濟の隔差を念慮した高麗政府が對日貿易を縮小したという見解がある<sup>26)</sup>。これに對する反論では、高麗の混亂や經濟隔差が貿易衰退の直接的な要因ではなく、高麗北方情勢が不安定になり(女眞の台頭)、日遼貿易船であると推定される日本の怪船泊が王都近海に出現すると、これを警戒して日本商客の上京を禁じ、また醫師招請交渉が悪化されてから日本に對する應對が重視されなくなったから、對日政策が金州での來航者接待にとどまる消極的な方向に切り替えられたという主張がある<sup>27)</sup>。このように民間の交易についても、兩國の研究成果は大きな格差を表している。特記すべきものは、日本の麗日關係研究は麗・日・宋など多

23) 山内晉次,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 歴史科學 122 199。

24) 田村洋行, 高麗における倭寇濫觴期以前の日麗通交, 經濟經營論集 28-1, 1993。

25) 三浦圭一, 十世紀-十三世紀の東アジア, 講座日本史 2, 東京大學出版會, 1970。

26) 大山喬平, 中世の日本と東アジア, 講座日本史3-中世1, 東京大學出版會, 1984。

27) 李領, 院政期の日本・高麗交流に關する一考察, 1999。これに對して濱中昇(書評: 李領著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評論603, 2000)と、橋本雄(書評: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學研究758, 2008)の史料讀解批判と反論があった。

様な國家と多角的な分析をしているという点だ。それほど多くの研究性果と歴史を持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あろう。

このような民間の交易及び交流関係から興味深い事實は、12世紀末源平抗争の中で藤原親光が對馬で高麗へ亡命したというエピソードに関するものである。川添昭一<sup>28)</sup>は、11世紀以來續いた高麗との密接な関係が背景にあると把握した。13世紀全般の史料には、韓半島の南岸地域で對馬島人が高麗の統制の枠の外で活潑に活動していた内容にも注目して、政府記録には見えないが、地方・民間ではその以前から通交が續いて來たのであろうと推定したりする。

#### 4. 文化的交流

13世紀以前、高麗と日本の文化的側面での関係はどうだったのだろうか。実際に日本では韓半島へ渡った遺物が大変多くある。そしてその遺物らの水準もとても優秀なものなどが多い。しかし、この遺物らが製作された時期は、13世紀以前であっても日本へ渡った時期がいつなのかについては正確に分からない場合が多い。だからこれらの出處や渡った経緯を明確にできない現在としては、それをここで扱うことは無理な気がする。

本稿では、文獻上で紹介された中で、13世紀以前にあった文化的交流だけを調べてみたい。この時期の文化交流の現象に關して整理してみると次の<表 4>のようになる。

<表 4> 高麗と日本との文化的交流

連番	年度	関連事實	典據
1	990(成宗9、永祚2)	4月3日、この年に百濟國(高麗)の皇后が宋の商人周文德・楊仁紹を通日攝津國の勝尾寺に觀世音菩薩像・金鼓・金鐘等を寄贈する。	/応頂山勝尾寺縁起記下; 元亨釋書28。
2	1095年(獻宗1、嘉保2)	10月下旬、藥師寺の僧侶大房が大宰府で宋の商人柳裕に高麗で刊行された『極樂要書』『彌陀行願相應經典章疎』を求めてくれることを頼み。	/阿彌陀經通贊疏下の題記(叡山文庫所藏)
3	1097年(肅宗2、永長2)	3月23日、宋の商人柳裕によって高麗で刊行された『彌陀極樂書』など13部20冊が日本に伝わって、これが同年5月23日興福社淨名院に到着する。	/阿彌陀經通贊疏下の刊記(奥書)(叡山文庫所藏)
4	1103年(肅宗8、康和5)	2月11日、高麗で刊行された『華嚴經隨疏演義』が播磨國性海寺で筆寫される。	/華嚴經隨疏演義識語(東大寺尊勝院所藏)
5	1105年(肅宗10、長治2)	5月中旬、大宰帥藤原季中がこの時期以前に仁和寺の二品親王覺行の命を受けて使臣を高麗に派遣して『釋摩訶衍論通玄』4冊、『釋摩訶衍論贊玄』5冊を要請したことがあるが、この時	/釋摩訶衍通玄及び釋摩訶衍論贊玄疏の刊記(奥書)(高野山金剛峰寺宝龜院所藏); 釋摩訶衍通玄(叡山文

28) 川添昭一、鎌倉初期の對外關係と博多、箭内健次編 鎖國日本と國際交流 上、吉川弘文館、1988。

		これらの本が日本に到着。	庫所藏);釋摩訶衍論贊玄疏(仁和寺所藏);釋摩訶衍論贊玄疏(眞福寺所藏);釋摩訶衍論贊玄疏奏(東北大所藏);東寺王代記(堀河院長治2年)
6	1120年(睿宗15、保安1)	7月5日-8日、日本僧侶俊源が大宰府でかつて僧侶覺樹が宋の商人莊承・蘇景等を通じて高麗から持って来た聖教數百冊中で『弘贊法華伝』を筆寫。	/弘贊法華伝(東大寺図書館所藏)
7	1216年(高宗3、建保4)	2月6日、日本國の僧侶が高麗に来て仏法を求める。	/高麗史高宗3年2月己丑。
8	1224年(高宗11、貞応3)	10月、日本の僧侶道元が宋の慶元府で高麗の僧侶智玄・景雲に會う。	/正法眼藏12、袈裟功德。
9	1234年(高宗21、文暦1)	この年に、高麗國王が日本の貢船を通じて円爾弁円に法語を要請すると、彼が顯密法門すなわち仏教の教學を條列して答えたという。	/聖一國師年譜文暦1年;元亨釋書7、慧日山弁円。
10	1247年(高宗34、宝治1)	この年に高麗の僧侶了然法明が宋の徑山無準師範を尋ねてから商船に付いて日本へ渡って京都鎌倉地域を遊歴した。	/日本洞上連燈錄1、了然法明。
11	1251年(高宗38、建長3)	3月18日、日本に渡った高麗の僧侶了然法明が出兩國善見村の玉泉寺を開創し、引き続き北越(越前地域)にとどまっていた道元を訪問して彼の仏法を継承した。	/日本洞上連燈錄1、了然法明。
12	1259年(元宗即位年、正元1)	この年に日本の僧侶が高麗巨濟島の僧侶洪弁を尋ねて来て法華經を求め、大宰府崇福寺に備置する。	/法華靈驗伝下。
13	1260年(元宗1、中統1、文応1)	この年に高麗の使臣団に付いて大宰府崇福寺に渡って法華經をよく見た高麗の僧侶道人法行が歸って来る。	/法華靈驗伝下。

上の内容を見れば、13世紀以前の高麗と日本の文化的交流はほとんど仏教関係だけに現われている。そして史料の性格も偏向的だ。交易関係は資料の出處が高麗史だったが、仏教関係は日本史料一色である。ところで、日本史料にもかかわらず、それほど偏頗的に記述した可能性があったようには見えない。上の内容で兩國の文化交流を見れば、いくつかのおもしろい点が發見される。兩國の関係に宋が介入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ある片っ方が一方的に文化を普及する状況であるというよりは、友好的関係で交流が成立していたように見える。高麗からは日本へ佛法を求めるために行ったり、日本から高麗へ仏書を要請したりする。時々宋を経て高麗と日本の仏教に関する情報を得る事例が見えたりする。高麗と日本の僧侶が一緒に日本を旅行することもおもしろい。

上の内容の中で興味深いことは990年の内容である。この内容からは10世紀に宋を媒介にした高麗と仏教の関係が分かる。これは‘攝津勝尾寺縁起’の正暦元年(990)の内容である。これによれば、‘百濟國皇后’が宋の商人周文徳・楊仁紹を通じて涉津國の勝尾寺に觀世音菩薩像・金鼓・金鐘等を寄贈したという。これが事實ならば、宋商を置いて麗日通交が10世紀に行われた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る。しかし、原美和子<sup>29)</sup>はこの説話に見える宋商は實在人物であるものの、説話自体は周辺住民との摩

29) 原美和子、勝尾寺縁起に見える宋海商について、學習院史學 40, 2002。

擦を收拾する方便として長谷寺の観音靈驗談(異域から来た仏像が靈力を發揮するという説)を基礎にして13世紀中伴に創出された虚構であるという。それならば高麗と日本の思想的交流が12世紀から本格化した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しかし、1247年の高麗の僧侶了然法明が宋の徑山無準師範を尋ねた際に、商船とともに日本へ渡った事例がある。これを見れば、比較的自由に僧侶の日本入りが描寫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場合、密入國に處理されないほど思想界では交流が比較的円満であったと思われる。そして、実際に民間での交流が活潑した点を見れば、記録に現われるよりもっと幅広い範囲で思想的な交流が成立していたと言っても無理がなさそうである。‘百濟國皇后’の事實は信じられないが、これを根據に高麗等異域の珍宝を宋商が持って來たというモチーフが、實際歴史状況を背景にしてい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という。

## 5. 軍事的葛藤

高麗と日本との関係を考える基準の一つになることが、武力的な衝突である。言い換えれば、國家勸力の物理的な衝突である軍事的関係を捜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現前する史料に見える13世紀以前の高麗と日本との軍事的な関係はそれほど多くない。そして、その衝突の程度がそれほど厳しいとは見られない。関係史料などを調べてみると次のようになる。

連番	年度	関連事實	典據
1	954年(光宗5、天曆8)	1月25日、新羅(高麗)が日本を攻撃しようという風聞があって藤原朝忠を大宰大弼で任命。	/長い勝するの5年(陽畫1)3月6日.
2	1014年(顯宗5、長和3)	3月12日、日本が新羅(高麗)と戦闘を行い。	/シンファンゲゾングトングロック中、長靴3年3月12日)
3	1019年(顯宗10、寛仁3)	3月28日以来、女眞族である刀伊が對馬島・壹岐島・筑前國・怡土郡等の地域を攻撃したと言う。これらの侵入に関連する高麗關係記事も収録されている。	/小右記寛仁3年4月17日、18日、20日、21日、24日、25日、26日、27日、5月1日、3日、4日、24日、6月29日、8月3日など;扶桑略記寛仁3年4月8日、18日;『『日本紀略』』寛仁3年4月17日、18日、21日、25日、27日、5月26日;百練抄寛仁3年4月18日.
4	1152年(毅宗6、仁平2)	この年に日本肥前國宇野厨内小値賀嶋の弁濟使である是包が高麗の船舶を攻撃。	/青方文書安定イニョンサムワルシブサムイルブグェンドングゼオザンゲン.
5	1223年(高宗10、貞応2)	5月22日、倭人が金州を侵犯。	/高麗史高宗10年5月甲子.
6	1225年(高宗12、元仁2)	4月8日、倭船2隻が慶尙道沿海地域を侵寇している途中、高麗軍によって拿捕される。	/高麗史高宗12年4月戊戌.
7	1226年(高宗13、嘉祿2)	1月27日、倭人が慶尙道沿海地域を侵寇している途中、巨濟縣領であるジンリョンガブによって撃破される。	/高麗史高宗13年1月癸未

		6月1日、倭人が金州に侵寇する。	/高麗史高宗13年6月甲申.
		10月16日、對馬島と高麗が争ったという風聞がある。	/明月記嘉祿2年10月16日.
		10月17日、松浦党が10余隻の兵船を率いて高麗を攻撃し民家を掠奪したという風聞がある。	/明月記嘉祿2年10月17日.
		12月7日、‘등원정가’が‘구조교실’から高麗の攻撃があるはずだという風聞を伝えて聞く。	/明月記嘉祿2年12月7日.
		12月27日、肥後壹岐の民たちが高麗に侵入したという風聞がある。	/民経記嘉祿2年12月27日.
8	1227年(高宗14、嘉祿3)	2月、全羅州道按察使がスンゾンなど20人を派遣して大宰府に牒を送り、去年6月にあった倭寇の侵入を詰難。	/五妻鏡嘉祿3年5月14日.
		2月18日以來、日本朝廷で高麗の牒に對する議論が成立。	/明月記嘉祿3年2月18日、4月13日.
		5月1日、この時期以前に高麗の全羅州道按察使が使臣を派遣して大宰府總管に牒を送り、倭寇の侵入に對して抗議する。ここに對応して‘대재소이’、‘무등자외’が使者団の前で惡徒90人を處刑し、答書を送ると同時に牒の正本を關東に送り、寫本を關白藤原に送る。	/民経記嘉祿3年5月1日、15日;百練抄嘉祿3年7月21日.
		5月14日、高麗の牒が鎌倉幕府に到着する。	/五妻鏡嘉祿3年5月14日;鎌倉年代記嘉祿3年5月14日.
		7月18日・21日、日本朝廷で高麗の牒に對して議論する。	/民経記嘉祿3年7月18日、21日;百練抄嘉祿3年7月21日.
		8月12日、高麗が再び牒を送るという巷談がある。	/明月記嘉祿3年8月12日.

高麗と日本の13世紀以前までの軍事的緊張はほとんどなかったと言ってもよいだろう。韓半島と日本との軍事的な緊張は、歴史的に見る際、大きく二つの類型で現われるしかない。大陸から列島への侵攻であったり、列島から大陸への侵攻である。その中でも歴史的に(この時期だけではなく)韓國と日本の軍事的葛藤の原因の中の一つは、日本の膨脹主義にあった。日本が膨脹するようになれば、ほとんど中國を領土化しようとする政策として表現された。ところで13世紀の日本ではそういう膨脹主義が現われていたかのように見えない。

上の内容でも13世紀に立ち入って高麗と日本との間の緊張關係が発生することは、いわゆる初期倭寇という性格の侵寇集團の發生と關連がある。上の事例でみたように軍事的葛藤であるような事例が少ないばかりか、1223年5月の倭人が金州を侵犯した事件が発生する以前までは物理的衝突であるという形跡がまったく見えないと言っても良さそうだ。そして、1223年以後からの軍事的葛藤は、いわゆる初期倭寇の活動であるので、13世紀以前の一般的な麗日關係の現象として認められない。

だからこのような初期倭寇的性格の關連記事を排除すると、13世紀以前の高麗と日本との軍事的葛藤はほとんどなかったと言っても問題がないだろう。上で1019年の刀伊と係わる内容はむしろ高麗で女眞の海賊から日本人を救済して送還し、これをきっかけにして兩國間の關係はもっと友好關係になったと思われる。この事件については、國家間の交流分野ですでに述べておいた。

## 6. 漂流民の送還及び訪問(民間人の交流)

13世紀以前高麗と日本との関係でもっとも多く現れる記録は民間での交流である。民間での交流と言えば、多様な形態があるが、その中で漂流民の送還が一番多い。漂流民の送還はそのもの自体が國家勸力や地方の行政單位部署に行われていたが、漂流そのものは公式的である事件ではなく、民間での活動から起きた副次的な事なので、この事実を通じて民間での活動がどのような形態で成立していたのかが分かるようになる。そして一方では、漂流民に対する處遇を通じて兩國の友好關係がどうだったのかを推測できるだろう。漂流民の送還と係わる内容は概ね次の〈表〉のように整理できる。

連番	年度	関連事實	典據
1	942年(太祖25、天慶5)	11月15日、出雲國司が新羅舟7隻が隱岐國に寄着したということを日本朝廷に報告する。	/日本紀略、天慶5年11月15日
2	984年(成宗3、永觀2)	4月3日、高麗船が筑前國早良郡に到着する。	/小右記目錄、永觀2年4月3日、21日。
3	996年(成宗5、長徳2)	5月19日、日本朝廷が石見國に到着した高麗國人に食糧を与えて歸國させるようにする。	/小右記、長徳2年5月19日
4	998年(穆宗1、長徳4)	2月、大宰府が高麗國人を追い出したが、これは南蛮人の手違いであると判断される。	/百練抄、長徳4年2月。
5	999年(穆宗2、長保1)	10月、日本國人道要・彌刀等20号が高麗に來投。	/高麗史、穆宗2年10月。
6	1002年(穆宗5、長保4)	6月27日、日本朝廷が苛酷な政治を避けて日本へ渡って來て暮すのを要請した高麗人に対して議論する。	/小右記目錄、長保4年6月27日; 百練抄長保4年6月27日。
		7月16日、大宰府に到着した高麗漂流人である4人及び移住を希望した高麗人[參來高麗人]20人に對して日本國王が2通の文書[宣旨]を下す。	/權記、長保4年7月16日。
7	1004年(穆宗7、長保6)	3月7日、日本朝廷が因幡國に到着した于陵嶋人折兢悦など11人に對して議論する。	/權記、長保6年3月7日; 本朝麗藻下;千載和歌集11
8	1012年(顯宗3、寛弘9)	8月3日、日本國人潘多等35人が高麗に來投。	/高麗史、顯宗3年8月戊戌。
9	1019年(顯宗10、寛仁3)	5月29日、高麗の康州人未斤達が筑前國志摩郡に漂着して來たことを拘禁して訊問する。	/小右記、寛仁3年6月21日。
10	1029年(顯宗20、長元2)	7月28日、日本に漂流した耽羅人‘정일’など7人が歸還する。	/高麗史、顯宗20年7月乙酉。
11	1031年(顯宗22、長元4)	2月19日以來、1年の前日本に漂流して來た耽羅人8人を歸国させる。	/小右記、長元4年2月19日、24日、26日。
12	1034年(靖宗3、長元7)	3月、對馬島が大宇國に漂着した高麗人を歸国させたことを日本朝廷に報告する。	/日本紀略、長元7年3月某日。
13	1036年(靖宗2、長元9)	7月16日、日本が漂流した高麗人謙俊など11人を歸還させる。	/高麗史、靖宗2年7月壬辰。
14	1039年(靖宗5、長曆30)	5月10日、日本人男女26人が來投。	/高麗史、靖宗5年5月庚子。

15	1048年(文宗2、永承3)	3月1日、高麗人を父とする大宰府の舞師親分[舞師首]である滋井好行(頼好行、959-1048)が死。	/須氏系図
		5月2日、大宰府が日本朝廷に新羅暦(高麗暦)を捧げる。	/百練抄、永承3年5月2日；扶桑略記、永承3年5月2日。
16	1049年(文宗3、永承4)	11月29日、對馬島官が首領明任をして漂流した金孝等20人を金州へ送還する。	/高麗史、文宗3年11月戊午。
17	1051年(文宗5、永承6)	7月11日、對馬島が使臣を派遣して逃げた罪人良漢など3人を送還。	/高麗史、文宗5年7月己未。
18	1056年(文宗10、天喜4)	10月1日、日本國の使臣藤原頼忠等30人が金州に到着する。	/高麗史、文宗10年10月己酉。
19	1060年(文宗14、康平3)	7月27日、對馬島が漂流した位孝男を送還。	/高麗史、文宗14年7月癸丑。
20	1072年(文宗26、延久4)	3月20日、求法僧成尋一行の船舶が耽羅島近所を通過する。	/參天台五台山記1。
21	1076年(文宗30、承保3)	10月15日、日本國僧俗25人が高麗靈光郡に到着して上京することを要請して許諾。	/高麗史、文宗30年10月戊戌。
22	1078年(文宗32、承暦2)	9月1日、日本國が漂流した耽羅人高礪など18人を送還。	/高麗史、文宗32年9月癸酉。
23	1082年(文宗36、永保2)	9月14日、延暦使の僧侶戒覺が宋商劉琨の船に乗って耽羅島近所を通過する。	/戒覺、渡宋記
24	1093年(宣宗10、寛治7)	7月8日、高麗の延坪島巡檢軍が海賊船1隻を捕えたが、これには宋人12人、倭人19人が上船しており、各種貨物が積まれていた。	/高麗史、宣宗10年7月癸未。
25	1108年(睿宗3、嘉承3)	2月9日、日本朝廷で唐人・高麗人が日本に到着する事に對して議論する。	/中右記、嘉承3年2月9日。
26	1160年(毅宗14、永暦1)	4月28日、日本朝廷が對馬島使を通じて高麗の金海府が對馬島民を拘禁したという報告を受けて、多くの分野の専門家[制度、制度博士]に意見を開進[勸申]する。	/百練抄、永暦1年4月28日。
		12月17日、日本朝廷で高麗が對馬島の商人を拘留したことを議論する。	/山槐記、永暦1年12月17日；百練抄、永暦1年12月17日。
27	1185年(明宗15、元暦2)	3月4日、對馬守藤原親光が平氏の亂を避けて家族及び部下を導いて高麗に亡命する。	/玉葉、文治2年2月24日；五妻鏡、元暦2年5月23日、6月14日。
		6月14日對馬守藤原親光が高麗から對馬島に歸還する。	/玉葉、文治2年2月24日；五妻鏡、元暦2年6月14日。
28	1223年(高宗10、貞応2)	冬、高麗人が越後國寺泊浦に漂着。	/五妻鏡、貞応3年2月29日；百練抄、貞応3年4月11日。
29	1224年(高宗11、貞応3)	2月29日、3ヶ月前越後國に漂着した高麗人が所持していた弓箭を含めた各種品物を越後守護北條朝時が押収して幕府將軍源頼經に送る。	/五妻鏡、貞応3年2月29日。
30	1232年(高宗19、貞永1)	閏9月17日、この以前に肥前國唐津に位置した鏡神寺の住人が高麗へ渡り盗みをした事件があったが、この日、幕府が犯人の拘留及び上船贓物などの處理に對して守護所に命令を下し。	/五妻鏡、貞永1年閏9月17日。
31	1243年(高宗30、寛元1)	9月29日、金州防禦官が日本國人が方物を捧げ、高麗の漂風人を刷還したことを報告する。	/高麗史、高宗30年9月壬申。
32	1244年(高宗31、寛元2)	2月2日、この時期以前に前濟州副使盧孝貞・判官李珪が漂流して來た日本商船の貨物を押収したが、この時ばれてしまい配流される。	/高麗史、高宗31年2月癸酉。
33	1263年(元宗4、弘長3)	6月、この月に日本の官船大使如眞などが宋に行こうとしたが開也召島、群山島楸島などが漂流して來たし、大宰府少卿殿白の商船が宋で日本に歸國している途中宣州加次島に漂着したが、これ	/高麗史、元宗4年6月。

	ら皆を歸國させる.	
	7月2日、日本商船が龜州艾島に漂着すると歸國させる.	/高麗史、元宗4年7月乙巳.

高麗と日本の民間の間の交流と言ったが、ここには兩國が民間人をどのように扱っていたのかという点も含めている。時には極めて珍しいが、朝廷政府が處理する場合もあった。しかし大部分は地方官たちによって漂着民たちが自分たちの國に歸還されていた。このような漂着民に對して兩國がある條例ないし規約を持っていたのかについてはよくわからない。

ところで、漂流民送還や交易をめぐる浮刻されることが對馬である。山内晉次<sup>30)</sup>は對馬と高麗との間で頻頻・密接な人的交流が成立していたということに注目しているが、日本側史料には当時高麗と交易したことはひたすら對馬島人であったという記録もある。そこで佐伯弘次<sup>31)</sup>は日麗貿易の主な担当者として對馬に注目して土地の生産を中心にした交易形態を指摘しているが、對馬の銀採掘に高麗人夫が關与した可能性も考慮している。

## 7. 進奉関係

高麗と日本との公式的な関係で進奉関係が出る。記事がそれほど多くはないが、13世紀になれば高麗と對馬との関係において進奉関係が現われている。これと係わる内容を見れば、次の<表>になる。

連番	年度	関連事實	典據
1	1206年(熙宗2、元久3)	1月14日、對馬島の使臣‘명퇴’など40人が金州南海に到着して‘원포’2,000牒、黒鮑2,000果、鹿皮30枚を進奉する。	/平戸記、延応2年4月17日.
		2月、高麗の金州防禦使が日本の對馬島に牒を送り、‘명퇴’などが捧げた牒が進奉の礼ではないことを叱ってこれを返す。	/平戸記、延応2年4月17日.
2	1227年(高宗14、嘉祿3)	2月、全羅州道按察使がスンゾンなど20人を派遣して大宰府に牒を送り、去年6月にあった倭寇の侵入を詰難する。	/五妻鏡、嘉祿3年5月14日.
		2月18日以來、日本朝廷で高麗の牒に對する議論が成立。	/明月記、嘉祿3年2月18日、4月13日.
		5月1日、この時期以前に高麗の全羅州道按察使が使臣を派遣して大宰府總管に牒を送って倭寇の侵入に對して抗議する。これに對して‘대제소이’、‘우등차퇴’が使者団の面前で惡徒90人を處刑し、答書を送ると同時に牒の正本を關東に送って寫本を關白藤原に送る。	/民經記、嘉祿3年5月1日、15日 ;百練抄、嘉祿3年7月21日.

30) 山内晉次、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2003。

31) 佐伯弘次、國境の中世交渉史、海と列島文化3 玄界灘の島、小學館、1990。

		5月14日、高麗の牒が鎌倉幕府に到着する。進奉。	/五妻鏡、嘉祿3年5月14日； 鎌倉年代記、嘉祿3年5月14日。
		7月18日・21日、日本朝廷で高麗の牒に對して議論する。	/民經記、嘉祿3年7月18日、 21日；百練抄、嘉祿3年7月21日。
		8月12日、高麗が再び牒を送るという巷談がある。	/明月記、嘉祿3年8月12日。
3	1259年(元宗即位年、正元1)	7月28日、監門衛録事韓景允・權知直史館洪貯を日本に派遣して倭寇の禁止を要請する。	/高麗史、元宗即位年7月庚午。
4	1263年(元宗4、弘長3)	4月5日、大官署丞洪貯・詹事府録事郭王府を日本に派遣して倭寇が金州熊神縣の勿島に侵入して公船を盗みにしたことを詰問する。	/高麗史、元宗4年2月癸酉。
		6月、今月に日本の官船大使如眞などが宋に入ろうとしたが開也召島、群島嶼子島などに漂流し、大宰府少卿殿白の商船が宋から日本へ歸國している途中宣州加次島に漂着したが、これら皆を歸國させる。	/高麗史、元宗4年6月。
		7月27日、日本商船が龜州艾島に漂着し、歸國させる。	/高麗史、元宗4年7月乙巳。
		8月1日、洪貯・郭王府などが對馬島から賠償を受けて歸國する。	/高麗史、元宗4年8月戊申。
		9月、高麗の使臣団が牒をもって博多[博多]に到着する。	/青方文書、肥前國在聽解案。

13世紀全般には、日本で高麗への‘進奉’が史料で確認される時期である。そして初期倭寇が麗日間關係で現われる時期でもある。

この‘進奉’については、朝貢と等しいことで一時的なものではなく、日本の高麗通交の全般にわたることであると把握した事がある。そして13世紀に進奉が史料に現われたことは、高麗が交易を縮小する態度を見せたからであり、それに反對して日本で現われた対応が倭寇<sup>32)</sup>の發生であると連結したり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見解に對して進奉は鎌倉幕府が民間の自由貿易を承諾した結果として現われたことだという見解が提示された。進奉はその以前の時期からの私獻貿易の継勝で對馬によって行われたことであり、倭寇の發生はこの際、日本商人が撤収しながら現われた現象であるという指摘もある<sup>33)</sup>。

現在、進奉に對しては進奉の日本側の主体、前代貿易との連続性、制度、慣例などの性格をどのように見るべきかによって説が分かれる。近年には、主体を對馬であると見なす傾向が強く、大宰府の關与や認知も推定されている。基本的な論点は進奉が、ある特定時点の状況を一般化したものか、ではなければ通常の儀禮で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進奉’という用語は‘下’から‘上’に對

32) 13世紀前半に倭寇の存在が見られる。倭寇は一般的に14世紀後半から起きた歴史的な事件ないし行爲として理解している。しかし、韓國の史料ではすでに廣開土王陵碑文で固有名詞化した‘倭寇’という單語がある。このような敵對的な意味の用語が相当早い時期に生まれていたという事實は、それほど日本と高句麗のあいだに敵對的關係があったという意味の一つでもあるだろう。最近、廣開土王陵碑文にでる倭や倭寇の表現に對して多角的な解釋が行われているが、その用語が象徴する一種の拒否反應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はできないだろう。本稿では倭寇の問題は扱わず、‘進奉’とばかりで内容のみを簡略に扱いたい。

33) 森克己，海路による東方貿易の展開，東洋學術研究 8-3. 1969。

する進獻を意味する一般的な用語である。ところで、この用語が13世紀の麗日關係において高麗資料だけで確認されている。そしてこれに対する一定の正論に至るにはちょっと時間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時点であると言える。ただ進奉が、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の全般を代弁することができる関係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けは明らかなことであろう。

## 8. 結論

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に對しては不明な点が多い。関連資料も省略されたのみではなく、研究者も多くない。ただ、それさえも一部研究者によって緻密な分析と解釋がなされて現在に至っている。麗日關係史において研究者の數や研究成果は韓國より日本方が壓倒的に多い。したがって関連資料に對する解釋も日本のほうがより嚴密に行われている。

韓日關係史だけではなく、關係史で警戒視される点は自國史的な觀點からの接近だ<sup>34)</sup>。しかし、一方では關係史はほかより自國史の立場から接近しなければならない分野でもある。韓日關係史も同じであろう。韓國でも脱民族主義の歴史觀を主張しながら、東アジア史への志向を強く主張する例がある。しかし一方では周辺國の民族主義化を軽々しく思っではいけない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中國の東北工程やチベット、新疆事件などは歴史の問題においても、心配の問題である。

史學との出會いがすぐ政治、經濟、軍事などの現實問題として変っていけば、もうこれ以上のことはない。言い換えれば、思いや關心が物質世界をすぐにも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れば良いことである。しかし思いや無形の要素らは、物質世界を変えるためには非常に多くの時間を必要とする。それよりは、すぐの經濟的な利害關係、領土の紛争のような要所らがむしろ当代の歴史觀の変化に大きい影響を及ぼす。したがって多様な歴史的な苦悶らが時々刻々変りつつある國際情勢の中で、どのぐらいい長く自分たちの基調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には大変な惜しさがある。

このような考えをしながら、今まで議論した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を整理してこの發表を終りにしたい。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は文獻に現われた史料からみると、全分野にわたり交流が活潑であったとは言い切れない。政治的にも冷淡であったと表現するほどである。友好的な事例といえば、高麗が女眞の海賊に抑留されていた日本人を送還したぐらいである。そしてたとえ不發に終わったが、高麗から日本へ醫師を招待したことが友好的な關係であったと設定す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そうであっても、武力的に對立した時もない。高麗が侵攻するとか、兩國が合戦をしたとかの記事が極めて珍しく現われ

34) 大國意識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경향에서일 것이다. 李炳魯는 日本 측에서 後百濟와 高麗에서 보낸 蕃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ている。ただ、13世紀後半にいくと、モンゴルの日本侵攻の意図が表面化されながら、その雰囲気が変わる。もちろんこれより先立って對馬との進奉關係が揺れながら初期倭寇が発生するが、本格的な敵對關係はモンゴルが介入した以後であると言えよう。

その一方で、思想的な關係では相当な交流があったと見て良いだろう。高麗の僧侶が商船に乗って来て日本の中心地を悠々と見回っていたという記録は、兩國のこの分野の關係がよほど友好的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ことでもあろう。また中國で會った高麗の僧侶を記した日本僧侶の日記でも兩者間の交流は、一応円満に成り立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そして兩國の民間に對する處遇も一応自國へ返していることから分かる。

しかし相変わらず、この時期の研究に大きな困難があることは史料の問題である。この時期の史料が特定の資料であり、特定の時期に集中されて現われているので、信頼度が減少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例えば、日本から高麗へ多くの方物を持って來る時期は、高麗文宗の時に集中されている。他の文獻で容易に探すことは難しい。これを高麗の八關會の秩序に含めて理解しようとする傾向もあるが、それさえも十分な説明ではない。また、日本に仏教が伝來された経緯は日本の資料を通じてだけである。だから現存する史料が、どのぐらい普遍的なことであろうかについては残念な氣持がする

このような資料と研究成果の劣悪の中でも、韓日關係史の次元で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を特徴つけてみると、兩國は獨自の世界において自分たちの正体性を摸索する中で相互依存的に持続的な發展を作ろうとした時期であると言えよう<sup>35)</sup>。

35) 본고 작성에 森平雅彦教授의 論考를 참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2008년도 6월6일부터 8일까지 東京에서 가졌던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에서 發表한 森平雅彦교수의 ‘10-13世紀 前半에 있어서의 日麗關係史의 諸問題-研究動向을 中心으로-’에서 많은 部分의 情報를 취하였고, 本考의 內容의 一部는 森平雅彦교수의 見解나 整理를 옮겨 왔다. 그러나 앞의 論考를 森平雅彦教授가 ‘未定原稿이므로 轉載 引用 再配布를 嚴禁’한다고 하여 本考에서 脚註 處理하지를 못한 點이 遺憾이다.

# 13世紀前半における麗蒙交渉の一断面

## —モンゴル官人との往復文書をめぐって—

森平雅彦  
(九州大学)

### 1. はじめに

高麗が、1231年より本格化したモンゴル帝国の侵略に對し、30年近くにわたって粘り強く抵抗し續けたことは、周知の事實である<sup>1)</sup>。しかし交戦の一方で、外交努力による事態の打開を模索していたことは、同じモンゴルに對して強硬姿勢一辺倒であった日本などと比べ<sup>2)</sup>、興味深い對照をなす。かかる事實そのものは特に目新しいことでもないが、その内容と歴史的意義を正面から追究した研究は、ほとんど例がないようである。

この問題に對しては多様な接近法が考えられるが、ひとまず本報告では、高麗がモンゴル官人(將帥・書記官のほか、ここではモンゴル皇族を含める)と交わした外交文書の様式について考察する。従來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その事實關係と歴史的な文脈を検討することで、對元講和以前における麗蒙關係の一端を探ってみたい。

---

1) 池内1963・김재1963、Henthorn1963、旗田1965、姜晋哲1974、柳在蔡漢國1988、尹龍燦 1991·윤용1994、參照。

2) ただし最前線の對應責任者の動向については別途検討を要す。至元 8年(1271)に元使趙良弼が來日した際、大宰府西守護所は使26を送ったという(『元史』卷208·日本伝)。

## 2. 文書形式の検討

李奎報の『東國李相國集』、『東文選』、『高麗史』には、對元講和以前において高麗がモンゴルの將帥や書記官、あるいは皇族に對して送付した文書に關する記録が多數收載されている(<表> 參照。以下、關係文書を整理番号により“文書01”のごとく呼ぶ)。まずはその差出名義と書式について確認していこう。

### 1) 差出名義

文書01-02は、高麗に闖入した契丹集団を追って1218年に初めて姿を現したモンゴル軍の將帥に送られた文書であり、録文のタイトルや附記によれば尙書省(尙書都省)を差出名義とする。1181年に死亡した李文鐸の墓誌銘には、對馬から送られた「牒」に尙書省が返信しようとし、「辺吏」に對して破格であるとの批判をうけて中止されたという事件が記される。必要によって尙書省が外國に文書を出す事態はもともと想定されてはいた。しかし上記以外に實例は確認されず、高麗の官府が外國の官府・官人との文書を交わす際には、中央の禮賓省や按察使防禦使などの地方担当官を差出名義とする牒(統屬關係にない官廳間で使用)を用いるのが一般的だった<sup>3)</sup>。對馬の事案からも窺われるように、中央の上級官府である尙書省が直接文書を發行することは、それだけ案件や交渉相手の重要性を意味する。初顔合わせであるモンゴル將帥に對して尙書省名義で應對したことは、未知の交渉相手に對する異例な重視の表れであり、換言すれば慎重な警戒姿勢ともいえるだろう。

文書07-12は、王族の淮安公使を差出名義とすることが録文タイトルに記されている。前者は彼がモンゴルに派遣された際の道中保護に對する礼狀であり、後者はモンゴルの將帥唐古から「令公」宛てに送られた金線を當の權臣崔怡が受領せず、淮安公名義で返書を作成したものである<sup>4)</sup>。この場合はいずれも私的な性格の強い書狀と考えられる。

これらに對し、以下の文書は、差出名義が高麗王(當時は高宗)であることが比較的明瞭にわかる事例である。まず文書06は、「國銜」(國家としての資格)の文書が「予」という一人称により記されており、具体的には王朝を代表する國王の名義であったとみられる。同じ「國銜行」である文書05も同様である可能性が高い。

3) 森平2007、pp.106-10、參

4) 『高麗史』卷129・崔忠獻伝附 崔怡伝、『高麗史節要』卷16・高宗 19年 5月。

文書17には、「所論予及崔令公出來事」(〔モンゴル側が〕論じる所の予と崔令公の出頭の事)とあり、権臣崔怡とともにモンゴルから出頭を命じられた「予」が高宗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文書21も「予」という一人称により記される一方、「遣親弟新安公代我身」(親弟の新安公を遣わして我が身に代える)と述べており、王弟新安公の兄である高宗の名義で書かれていることが判明する。同じく「予」という一人称で書かれ、「親弟新安公」の文言が現れる文書22も同様であろう。

文書13では、モンゴルの攻撃通告に対する高麗の百姓の動搖を説明し、「予亦不能無懼」(予もまた恐れ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と述べ、また達魯花赤(モンゴルの監視官)を高麗が殺害したことに關する譴責に對して、「予亦一一不能知之」(予もまた〔詳細な状況を〕逐一承知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回答している。また文書18では、「予」は「大官人を遣わして書を皇帝闕下に奉る」(遣以大官人、奉書于皇帝闕下)と記し、さらに文書20では、「予」は「使者を遣わして土地の些少の産物を皇帝闕下に奉進する」(以土地輕薄所産、遣使介奉進于皇帝闕下)と記している。

これらの「予」は王朝の統治に責任を負い、國家を代表してモンゴルと交渉し、遣使進獻を行う主体であり、國王にほかならない。文書11において、モンゴルの指示を「有司に命じて」實施したと述べられるのも、國王の行爲であろう。文書15・16・19も「予」という一人称によって書かれているが、差出名義は國王だったと理解してよいとおもう。

また文書25・27については、國王文書であることが『高麗史』世家の地の文に明記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差出名義が録文のタイトルや附記に明示されない外交文書については、実際には國王名義の文書だったことが確認・推定されるケースが多く、逆に國王名義ではないことが確認・推定されるものはない。文書02・07・12のごとく、國王以外の名義の外交文書を移録する場合、通常は差出名義が録文タイトル等に明示されるのであろう。したがって、差出名義が附記されず、かつ文書内容に判断材料がみあたらない文書03・04・08～10・14・23・24・26・28・29も、國王名義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

## 2) 書式

文書01に關しては「尙書省牒」という記載があり、統屬関係のない官廳間で用いる牒が用いられたようにもみえる。しかしこれは編纂史料の地の文での叙述であり、官文書を表す一般名詞にすぎない可能性もある。一方、文書02では、録文の文言により、對等関係での書簡文である致書(書き出しが「某謹致書(于)某」となる)<sup>5)</sup>が使用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文書01の「牒」も實体は致書であった可能

5) 致書について中村、1991、pp.299-330、中村1996、pp.153-162、中西200參。

性があるが、当初は牒、もしくは別の書式を使用しながら、後に致書に変更したことも考えられないわけではない。

チンギス・カンCinggis Qanの弟カサルQasarの子であるイェグウYegü大王に對して國王名義で出された(ないし出されたとみられる)文書24~26(26では官人に對するものも含む)も、部分的な録文では書式が判明しないが、『高麗史』の地の文ではこれらの送付を「致書」と述べている。しかし高麗王に對する金朝皇帝の「詔諭」や<sup>6)</sup>、冒頭部分に「高麗國王臣謹奉書于日本國王殿下」と記す1292年の對日國書<sup>7)</sup>のごとく、明らかに致書ではない外交文書の送付について、『高麗史』の地の文では「致書」と表現するケースがある<sup>8)</sup>。編纂史料の地の文における文言で書式を判斷するのは危険であろう。『高麗史』にみえる他の事例(文書27~29)にいたっては、単に「書」とあるのみで、書狀一般をさす場合と區別がつかず、やはり書式を表す術語とは斷定できない。

一方、全体の半数弱となる文書04・08~18に關しては、「右啓」ないし「某啓」(淮安公名義の文書07・12)と書き出し、「不宣」「再拜」「謹啓」などとむすぶ書式が用いられている。これは中國でいう啓に相当する。高麗が參酌した唐制において、啓は皇太子(實際には皇太子以外の王も含む)や官府の長に對する上申文と規定されているが<sup>9)</sup>、一般官人同士の上行文書として、また私人間において丁寧の意を表し吉凶の挨拶や起居を通じる場合その他の書簡文として、ひろく用いられていた<sup>10)</sup>。外交での使用は、隋末、唐の高祖李淵が自立当初において突厥可汗に對して使用した例や、渤海王が日本に對して用いた例がよく知られている。これらは丁寧の意をあらわす個人間の通信文としての啓の性格を応用したものと考えられ、渤海については、日本に對して臣礼を避けつつも辭を卑くして友好關係を結ぼうという意図が指摘されている<sup>11)</sup>。

宋・司馬光の『溫公書儀』卷1・私書では、私文書における啓事(物事を陳述する際の書狀)の書式として、啓の一形式が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 〕は割註)。

具位姓 某

右某啓〔述事云々〕謹奉啓事陳聞〔陳賀陳謝隨時〕伏惟

尊慈俯賜 鑑念不宣謹啓

月 日具位姓 某 啓上

〈表〉にあげた文書録文で「右啓」と書き出しているものは、おそらく冒頭の「具位姓 某」が欠け

6) 『高麗史』卷14・睿宗世家・14年 2月 丁酉。

7) 日本金澤文と東京大學史料編纂寫し殘され(録文は竹内、1982、pp.298-300)。

8) 金澤文庫の對日國書に關しては、『高麗史』卷30・忠烈王世家・18年 10月 庚寅に記録がある。

9) 朝鮮王朝で國王に對する上申文を啓というのは、この流れをひくものである。

10) 堀1998、pp.243-246、參照。

11) 堀1998、pp.246-250。また石井2001石井2001b、pp.551-556參照。

ているのであろう。次行の「右某啓」の「某」も欠けていることになるが、後述する1267年の啓式對日國書では、冒頭に「高麗國王王 禎」とあり、2行目に「右啓」と書き出している。交戦期の對モンゴル文書のうち「右啓」とあるものは、いずれも國王文書であるか、そのように推定されるものであるから、1267年のケースと同様に「高麗國王姓諱/右啓」(は改行を意味する)と書き出されていたものとおもわれる。

一方、冒頭を「某啓」と記すのは淮安公名義の文書のみだが、唐代の啓では一般的な表記法であり、例えば渤海の對日國書のなかで「武芸啓」などと書き出している。『溫公書儀』私書では、時候啓狀(時候の挨拶狀)や別簡(添え狀か)手簡(一般的な書簡)において「某啓」と書き出す形式をあげており、平交・稍卑に對して用いるケースもみえる。國王の啓と人臣の啓の冒頭が異なるのは、國王の啓が王朝を代表する國書であるのに對し<sup>12)</sup>、淮安公の啓は前述のごとく私的な礼狀であるという違いに由来するのだろうが、『溫公書儀』における「啓事」とその他の「某啓」形式の用法區分が、あるいはこの違いに對應するのかもしれない。ただ「右啓」とする啓は今のところ唐代には確認できないようである。

### 3. 使用書式の歴史的文脈

啓という書式は、『東文選』や『東國李相國集』に収められた文書録文を通じて、高麗國內でも使用されていたことが窺われる<sup>13)</sup>。現時点では用法に關して中國との違いは看取されない。しかし高麗前期には、宋・遼・金など册封宗主國やこれに準ずる大陸王朝の皇帝以外の外國政府關係者に對して國王が親書を送る行爲自体、まれな現象である<sup>14)</sup>。

また實のところ、外交における啓の使用はあまり一般的ではない。唐末より東アジアでは、ある君主が君臣關係のない外國君主などに文書を送る場合、致書を用いるケースが目につく<sup>15)</sup>。モンゴル交戦期の高麗王も、遼東に獨自政權を築いていた蒲鮮萬奴に對し、「高麗國王某謹廻書于東夏國王

12) 國書とは必ずしも君主間で交わされる文だけではなく『高麗史』卷7・文宗世家9年 7月 丁巳による契丹の東京留守に對する高麗王の親書も「國書」と呼ばれている

13) 林椿「代李湛之寄權御史敦礼書」「荅朴仁碩書」(『東文選』卷58)、同「与皇甫若水書」、「上李學士書」「与皇甫若水書」「与趙亦樂書」「同前書」「与洪校書書」(同書 卷59)、李奎報、「与金秀才懷英書」(『東國李相國集』卷26)、同「軍中荅安處士置民手書」「又寄安處士」(『東國李相國集』卷26；『東文選』卷59)。

14) 宋・強至『祠部集』卷28に収める「代史館王相公荅高麗王王徽書」と「又代參政馮諫議荅高麗王書」は、宋の高官に對して高麗王の親書が送られたことを窺わせる例である。また書式は不明だが、契丹の東京留守に對して「致書」(書式は不明した例もある(『高麗史』卷7・文宗 世家9年 7月 丁巳))。

15) 中西20、參照。

殿下」という冒頭句の書状を送っている<sup>16)</sup>。これは蒲鮮萬奴から送られた書状に対する返書であるため「謹廻書」となっているが、事實上致書である。

しかも官文書であれ私文書であれ、啓は基本的に相手を上にたてた丁寧な書式である。對等な關係において用いる致書とは性格が異なる。おそらく、それは外交文書でも同様であり、金初の外交文書を集めた『大金弔伐録』の記録によると、南宋の高宗は、金軍の元帥に對し、当初は「大宋皇帝」と名乗り致書を使用した<sup>17)</sup>が、劣勢に立たされて「宋康王趙構」を名乗るにいたると、やがて啓を用いるようになった<sup>17)</sup>。

一方、1218年にモンゴル軍が初めて高麗に入った際、高麗政府はその指揮官に對し、尙書都省名義の致書を用いた。ところがその後、同じようなモンゴルの將帥に對して國王名義の啓を使用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高麗の官廳が平行文書を用いた對象に對し、君主が上行文書を用いたことになるのだが、これは兩國關係が大きく変化したことに起因しよう。1218年段階では契丹集團を共同討滅する友軍として接触したのだが、1231年以降はモンゴルの大規模侵攻を被るなかでの折衝であった。すなわち南宋の高宗が金に對して行ったように、危急存亡の秋を迎えた高麗は、國王自ら辭を卑くして交渉にあたる形をとることで事態の打開をはかろうとしたのであろう。そのような高麗の危機意識が、異例ともいへべき啓の使用にも表れているとみられる。

一方、文書04において、高麗王はチンギス・カン Činggis Qan の末弟テムゲ・オッチギン Temüge Otčigin に對しても啓を用いている。同じオッチギンに對する文書03においてどのような書式が用いられたかは不明だが、モンゴルとの開戦以前から啓を用いたことがわかる。チンギス近親の皇族であるから、モンゴル官人に對するよりは啓の使用も不自然ではないが、同格の「王」という立場であれば致書を使用してもおかしくないところである。しかし当時、オッチギンは西方遠征中のチンギスの名代としてモンゴル高原を統括する責任者であった。彼を「皇太弟」と呼ぶ高麗側もその勢威を十分に承知していたであろう。そして、モンゴル高原東部に根據地を有し、さらに東方に勢力を擴大しようとするオッチギンは、当時は貢物の要求をくりかえして高麗政府を困惑させていた。1225年に高麗邊境で遭難して兩國關係決裂の直接契機をつくった著古与は、オッチギンのもとから派遣された人物である。そのような強壓的な「皇太弟」との折衝にあたり、慎重に辭を卑くした國王文書を用いたのは、高麗ならではの鋭敏な対応であるとおもう。

そうすると、文書24～26のイェグウ大王に對する「致書」についても多少の推論が可能になろう。これが『高麗史』の用字そのままに致書であるとする、過去にモンゴル官人に對して啓を用いながら、格

16) 『東文選』卷61・回東夏國書

17) 井黒2008、參照。

上のモンゴル皇族に対しては逆に平行文書を用いたことになる。しかし苦しい戦況が續く当時の状況では考えにくいことである。やはり「致書」は書式を表す術語ではなく、実際には何らかの上行文書が用いられた公算が大きいとおもう。オッチギンの例から類推すれば、それは啓だったかもしれない。明らかに啓である文書09の送付について、『高麗史』卷23・高宗世家・19年4月壬戌の地の文では「致書」と述べてもいる。モンゴル官人に對する國王文書のなかで書式の窺えない05・06・19～23・26・28・29も、あるいはすべて啓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ただし「書」形式にも、「奉書」「獻書」など、より丁重な書式もあるので、それらが使用された可能性も皆無ではないだろう。このあたりは史料が不足しているため、推斷を差し控えたい。

なお、高麗における啓式外交文書は、意外に早くから存在した可能性も皆無ではない。日本の平安貴族藤原實資の日記『小右記』長徳3年(997)6月 12・13日條によると、この年「高麗國牒三通」が日本にもたらされ、それぞれ日本國・對馬島司・對馬島に宛てられていたが、一方でこれらの文書は「高麗國啓牒」と總称されてもいる。「啓」と「牒」がそれぞれ書式を表す語だったならば、少なくとも「日本國」宛ての文書などは啓だった可能性が高い。この事件は、日本側が宋の謀略を疑うなど差出人の正体に不審点をのこすが、実際に高麗政府から文書が送られた可能性はある。そうだとすれば、外交に啓を用いる先例はすでに高麗初期にあり、それは國王名義のものだったかもしれないのである。

その際に注意されるのは、10世紀、高麗には渤海の滅亡前後を中心に世子大光顯をはじめとするその遺民が數多く流入したことである。唐代に啓式外交文書の使用が確認されるのは、今のところ渤海のみである。渤海に蓄積されてきた對日外交のノウハウが高麗に伝わっていた可能性も無視できないであろう。997年に高麗が日本に對して上行形式の國書を送ったとすれば、その背景として想像されるのは、この直前に高麗が契丹の最初の大規模侵攻をうけたことである。北からの脅威を迎えた高麗政府が對日關係の好轉をはかろうとしたのであれば、あえて啓を用いたことも不自然ではない<sup>18)</sup>。まさに、唐・新羅と對峙した渤海武王が日本に啓を送ってきた時と同じような状況があったことになる。

しかしその後、13世紀前半まで200年以上にわたり、高麗の啓式外交文書は確認できない。10世紀における啓式國書の存否は別として、モンゴル官人に對する啓の使用に制度上の連続性があるか否かは、軽々に判断しかねるところである。

高麗の啓式外交文書が最後に確認されるのは、1274年に元・高麗軍が日本を侵略した甲戌の役(日本史上のいわゆる文永の役)に先だち、日本に對して對元通好を勸告する目的で作成された至元4年(1267)付け日本國王宛ての元宗國書である。原本はないが、日本・東大寺所藏の『調伏異朝怨敵抄』に、

18) 南基鶴, 2003, p.31では、997年高から文に對して日本側が警戒感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高麗の大國意識表れてい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が、もし國書に啓を用いておれば少なくとも書式の面では異なることになる

このときの元・世祖クビライQubilaiの國書や高麗使潘阜らの書状とともに寫しが残されている<sup>19)</sup>。主要部のテキストは『高麗史』『高麗史節要』にも伝えられ、二次的な録文は江戸時代の日本で編まれた外交文書集『異國出契』(内閣文庫所藏)にも収められるが、同時代性が高く、首末をはじめとする諸形式がより原型に近いと考えられる『調伏異朝怨敵抄』の寫しが高い史料的价值を有している。この文書は、冒頭に「高麗國王王 禎/右啓」云々とあり、結辭には「拜覆/日本國王左右/至元四年九月日 啓」と記されており(は改行)、まさしく啓にほかならない。

ただし、高麗王が同じ「王」である日本の君主に対して上行文書を用いたのはやや不可解であり、蒲鮮万奴と同様に致書を用いるのが自然にもおもえる。前述のごとく10世紀に前例があり、それに倣っただけなのかもしれないが、2つの出来事に250年以上の時代差があること、10世紀以降の兩國政府の關係が非常に疎遠であること、また高麗が國家体制を整えてゆく過程で「海東天子」<sup>20)</sup>や「八關會的秩序」<sup>21)</sup>といわれる自尊の姿勢を形成してきたことを考慮すれば、ただちには首肯しがたい。このことについては、一緒に日本に送られた元の國書との兼ね合いや、元の對日招諭に對する高麗の態度をあわせて考える必要があるが、ここでの論旨からは外れるので、別の機會に考察したいとおもう。

#### 4. 高麗史料からみたモンゴル官人の文書

モンゴル官人から高麗側に送付された文書内容が具体的にわかるのは、第1次侵攻軍を指揮する撒礼塔より1231年に送られた2通の書状である<sup>22)</sup>。モンゴル帝國で編み出された、白話風の漢語を用いてモンゴル文を直譯調に譯した特殊文体、いわゆるモンゴル文直譯体白話風漢文<sup>23)</sup>により記されているが、この種の文書としては最初期の事例であり、他に類例のない文章構成となっている。その文書學的 성격については専門家の研究にまたねばならないが、その冒頭句「天底氣力。天道將來底言語。所得不秋底人、有眼瞎了、有手沒了、有脚子癩了」(天の力。天の言ってきた言葉。従わない者は、目があればつぶれろ、手があればなくなれ、足があれば病んでしまえ)などは、モンゴル命令文特有の「權限付与」と「威嚇文言」の要素に相当する<sup>24)</sup>。こうした天の權威の主張や“脅し文句”は、モンゴルでは半ば定型化した言い回しである。しかしクビライQubilai國書<sup>25)</sup>の「至用兵、夫孰所好」

19) 『調伏異朝怨敵抄』のテキストについて平岡195所載の影を参照。

20) 明19971999、参照。

21) 奥村1979、参照。

22) 『高麗史』卷23・高宗世家・18年 12月 壬子、甲戌な本文書の試釋に村上1960Ledyard196がある。

23) モンゴル文直譯体に關する最新の研究成果に船田2007がある。

24) モンゴル命令文の書式については松川1995を参照。

(兵を用いるに至っては、だれが好むであろうか)に対する日本の反応にもみられるように、文化の異なる外国では深刻に受け止められ、摩擦を引き起こしかねない。高麗側の受けとめ方は記録されていないが、大きな衝撃を受けたことも十分に想像される。

他にモンゴル官人の文書が全面的に著録された例はないが、次のように高麗側文書で引用された部分があり、やはりモンゴル文直譯体白話風漢文で書かれた事例が確認される<sup>26)</sup>。

文書03「不曾發遣女孩兒及會漢兒言語人、亦不進奉諸般要底物」

文書08「你國選揀人戶、赴開州館及宣城山脚底、住坐種田」

文書13「你者巧言語、說得我出去後、却行返变了、入海裏住去。不中的人宋立章・許公才、那兩箇來的說謊、走得來。你每信那人言語呵、返了也」

「達魯花赤交死、則死。留下來、如今你每拿縛者」

「你本心投拜、出來迎我、不投拜、軍馬出來、与我廝殺者」

以上は文書の主文であるが、冒頭形式については、文書22の録文附記に「來書云、福裏、統領蒙古糺漢大軍征討高麗唐古拔都魯言語、道与高麗王」(來書にいう。福廕のもとに。統領蒙古糺漢大軍征討高麗唐古拔都魯の言葉。高麗王に言う)とある。「某の言語。某に道与する」という表現は初期のモンゴル命令文でよくみられる形だが、「福廕裏」という冒頭句は不可解である。「福廕」に言及するならば、何の「福廕」であるかを示さねばならない。

これに関連して注目されるのは高麗側の文書内にみえる次のような文言である。

文書21「孟夏漸熱、伏惟、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四海皇帝福裏 大官人閣下、起居千福…」

文書22「夏序方廻、伏惟、長生天氣力 蒙古大朝國皇帝福裏 帥府大官人閣下、茂膺千福…」

いずれも本題に入る前に送付先に對して挨拶を述べる部分だが、「長生天氣力。蒙古大朝國皇帝福裏」(とこしえの天の力のもとに。蒙古大朝國皇帝の威福のもとに)という文言が送付先に含まれているのである。本来これはモンゴル命令文において「權限付与」を意味する冒頭定型句である<sup>27)</sup>。おそらく、文書21・22の作成に先だつて高麗に送付されてきたモンゴル側の文書の冒頭には「長生天氣力。蒙古大朝國皇帝福裏。某官某言語」などと記されていたものを高麗側が誤解し、「長生天氣力。蒙古大朝國皇帝福裏」を、發令者たる官人を修飾する語句とみなしたのであろう。しかし文書22に先だつ「來書」に關する記録が残された際には、單純なミスか、参照された文書原本ないし録文の欠損といった理由により、「福裏」より前の部分が脱落したものとおもわれる。

25) 『調伏異朝怨敵抄』所收。

26) これは發令者がモンゴル人だからであり、耶律楚材など漢文化人が發した文書があったとすれ(未確認おそらく通常の漢が使用されたであろう

27) モンゴル語のmǒngke tengri-yin kün-dur. yeke monol ulus-un qan-u suur-durの直譯。

なおモンゴル帝國の統治下であれば、こうした文書に國号を冠する必要はないわけで、「蒙古大朝國皇帝」という名乗りは外國を對象とする文書であるがゆえの用語である。さらに近年、モンゴル帝國に關して「大朝」という稱謂が注目され<sup>28)</sup>、「大朝」「大朝國」「大朝蒙古國」といった中國史料での用例が紹介されているが、「蒙古大朝國」という表現は、高麗史料より判明した新たな知見となる<sup>29)</sup>。

また文書21では「蒙古大朝國四海皇帝」という稱謂も注意される。1246年のローマ教皇インノケンティウス4世Innocentius IV宛て定宗グユクGüyük國書の印璽銘には、皇帝の稱謂が「mongγol-un ulus-un dalay-in qan」(モンゴルの國の海の皇帝と記される<sup>30)</sup>)。この「dalay-in」の漢譯が「四海」であろう。文書21は太宗オゴデイÖgödei期のもので、「四海皇帝」という稱謂がオゴデイとグユクに關して確認されたことになる。モンゴル帝國に關してユーラシアの極東(朝鮮)と極西(歐州)の史料が見事に符合する一例である<sup>31)</sup>。

高麗への送付文書についてはモンゴル文正本が存在した可能性も指摘されており<sup>32)</sup>、高麗がモンゴルに送った國書に、モンゴル側から送られた文書に關して「以文字之各殊、憑譯解而乃識」(文字が互いに異なるので、翻譯によって理解した)<sup>33)</sup>とあることが根據のひとつとなる。ただしオゴデイ期のモンゴルの國情を記した『黑韃事略』には、「行於漢人・契丹・女眞諸亡國者、只用漢字」(漢人・契丹・女眞諸亡國に送る文書は漢字のみ用いる)ともあるので、モンゴル文直譯体で記された外交文書のすべてにモンゴル語正本があったとみなすのも早計であろう。

## 5. むすびにかえて

本報告では、麗蒙交戦期において高麗がモンゴル官人に對して用いた文書形式について検討し、その歴史的な性格を考察した。あわせて高麗側の記録より窺えるモンゴル側の文書の内容・形式についても、若干の論及をおこなった。あえて大胆な推測を加えた部分もあり、ひとつの試論にすぎないが、諸賢の叱正を乞う。

28) 采2006、參照。

29) 「蒙古大朝國」という表現『高麗史』卷23・高宗世家・18年 12月 甲戌收められ文書にもみえる。

30) Pelliot1923, pl.なおモンゴル皇帝のなかでもチンギスとグユクはqanと呼ばれる

31) 李承『賓王錄』描され元の宮廷饗宴模マルコポーロの『東方見聞録』記と一致すといケースも(森平2004、pp.78-79)。

32) 宮2006、pp.204-205。

33) 『東國李相國集』卷28・蒙古國使賚廻上皇帝表。

〈表〉高麗からモンゴル官人に対して送られた文書

番号	名義	送付先	年次	起草者	書式	出典
01	尙書省	哈眞	1218		※「牒」	節要 高宗5/12
02	尙書都省	蒙古兵馬元帥	1219	李奎報	某月日右謹致書于某官 幕下…惶恐惶恐	蒙古兵馬元帥幕送酒菓書 (東61; 李28)
03		蒙古皇太弟(オッチギン)	1220-24	李奎報		蒙古國使齋上皇大弟書 (東61; 李28)
04		大王(オッチギン)	1221	兪升旦	右啓…謹啓	同前書(東61) ※回東夏國書に對する
05	國衙行	閣下(サルタク)	1232	李奎報		國衙行荅蒙古書 (李28; 東61)
06	國衙行	荅兒巨元帥(タングト)	1232	李奎報		同前荅兒巨元帥狀(李28)
07	淮安公	荅兒巨元帥(タングト)	1232	李奎報		淮安公荅同前元帥狀(李28)
08		蒙古國元帥	1232	李奎報	右啓…	送蒙古國元帥書 (李28; 東61; 高19/3/甲午)
09		撒里打官人(サルタク)	1232	李奎報	右啓…	送撒里打官人書(李28; 東61; 高19/4/壬戌)
10		河西元帥(タングト)	1232	李奎報	右啓…	送河西元帥書(李28; 東61)
11		某官	1232	李奎報	右啓…不宣謹啓	送某官狀(李28; 東61)
12	淮安公	河西元帥(タングト)	1232	李奎報	某啓…再拜謹啓	淮安公荅河西元帥書 (李28; 東61)
13		蒙古官人	1232	李奎報	右啓…	荅蒙古官人書 (李28; 東61; 高19/9)
14		沙打官人(サルタク)	1232	李奎報	右啓…	荅沙打官人書 (李28; 東61; 高19/11)
15		晋卿丞相(耶律楚材)	1232	李奎報	右啓…	送晋卿丞相書 (李28; 東61)
16		沙打里(サルタク?)	1232	李奎報	右啓…不宣再拜謹啓	荅沙打里書 (李28; 東61; 高19/11)
17		蒙古大官人	1232	李奎報	右啓…不宣再拜謹啓	送蒙古大官人書 (李28; 東61; 高19/12)
18		蒙古大官人	1232	李奎報	右啓…	荅蒙古大官人書 (李28; 東61; 高19/12)
19		唐古官人(タングト)	1238	李奎報		送唐古官人書 (李28; 東61)
20		晋卿丞相(耶律楚材)	1238	李奎報		送晋卿丞相書 (李28; 東61)
21		中山・称海 (粘合重山・チンカイ)	1240	金欽		与中山称海兩官人書 (東61)
22		唐古官人(タングト)	1240	朴暄		荅唐古官人書(東62)
23		吳悅官人	1240	李藏用		与吳悅官人書(東62)
24		也窟(イエグウ)	1253		※「致書」	高40/8/己未
25	高麗王	也窟(イエグウ)	1253		※「致書」	高40/9/戊寅
26		也窟・阿母侃・吳悅・ 王万户・洪福源	1253		※「致書」	高40/11/戊寅
27	高麗王	也窟(イエグウ)	1253		※「書」	高40/11/戊戌

28		胡花官人	1253		※「書」	高40/11/戊戌
29		車羅大 (ジャライルタイ)	1256		※「書」	高43/4/乙亥

注) 李：『東國李相國集』、東：『東文選』、高：『高麗史』高宗世家（數字と干支は年月日）、節要；『高麗史節要』

※「 」は、編纂史料の地の文における当該文書に関する表現。

## 参考文献

- 井黒忍, 2008, 「金初の外交文書様式と國際關係—『大金弔伐錄』の検討を中心に」國際シンポジウム「10~14世紀東アジアの外交交流史料」予稿集.
- 池内宏, 1963, 「蒙古の高麗征伐」同著『滿鮮史研究』中世第3冊,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a, 「神龜四年、渤海の日本通交開始とその事情—第一回渤海國書の検討」同著『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b, 「古代東アジアの外交と文書—日本と新羅・渤海の例を中心に」同著『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 中西朝美, 2005, 「五代北宋における國書の形式について—「致書」文書の使用狀況を中心に」『九州大學東洋史論集』33.
-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 中村裕一, 1996, 『唐代公文書研究』, 汲古書院.
- 旗田巍, 1965, 『元寇—蒙古帝國の内部事情』, 中央公論社.
- 平岡定海, 1959, 『東大寺宗性上人の研究並史料(中)』, 日本學術振興會.
- 船田善之, 2007, 「蒙文直譯体の成立をめぐる—モンゴル政權における公文書翻譯システムの端緒」『大東文化フォーラム』13.
- 堀敏一, 1998, 「渤海・日本間の國書をめぐって」同著『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 松川節, 1995, 「大元ウルス命令文の書式」『待兼山論叢(史學篇)』29.
- 宮紀子, 2006, 「モンゴルが遺した「翻譯」言語—日本『老乞大』の發見によせて」同著『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 森平雅彦, 2004, 「『賓王錄』にみる至元十年の遣元高麗使」『東洋史研究』63-2.
- 森平雅彦, 2007, 「牒と咨のあいだ—高麗王と元中書章の往復文書」『史淵』144.
- 村上正二, 1960, 「蒙古來牒の翻譯」『朝鮮學報』17.
- 姜晋哲, 1964, 「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한국사7—武臣政權과 對蒙抗爭』, 국사편찬위원회.
- 김재홍, 1963, 『원 침략자를 반대한 고려 인민의 투쟁』, 과학원출판사.
- 南基鶴, 2003,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前提に關する學際的研究』平成12~14年度科研費補助金(基盤研究A2)研究成果報告書、村井章介譯(原載：『日本歴史研究』1

1、2000年).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1997.

盧明鎬, 1999, 「高麗時代の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1999.

柳在城(執筆)・蔡漢國(主幹), 1988, 『對蒙抗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尹龍嬭,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윤용혁, 1994, 「몽고 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于采芑, 2006, 「蒙古汗國國号“大朝”考」赫時遠・羅賢佑・烏蘭編『天驕偉業—成吉思汗与蒙古汗國研究紀念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Henthorn, W.E. 1963 *Korea: The Mongol Invasions*, E.J.Brill.

Ledyard, G., 1963, Two Mongol Documents from The Koryo s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2.

Pelliot, P., 1923, Les Mongols et la Papauté, *Revue de l'Orient Chrétien*, 3esérie.



# 三別抄と麗日関係

尹 龍 焮  
(公州大学校)

## はじめに

高麗時代の國家的次元での日本との関係は、他の時代に比べて全般的に疏遠な関係が維持された時期である。これはこの時期が政治的・外交的な側面で政府次元で互いの必要性がそれほど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なおかつ、13世紀には蒙古との戦亂で高麗の領土は疲弊され、政權と王朝の命運がかかった絶対絶命の条件の中で取り囲まれていたが、戦亂に處した大陸の情勢の中で日本は封建的な体制に安住することで東アジア交流の環境は活發ではなかった。13世紀日本の高麗に対する國家的な關心が提起されたことは、蒙古の壓迫による新しい情勢のためであった。長期的な侵掠戦のあげく一応の服屬を標榜した高麗を先に立たせて、蒙古は日本に対する壓迫を加えており、このような蒙古の對日‘招誘’作業に高麗はその嚮導として動員された。

本稿では1270年から1273年まで珍島と濟州島を據点にした蒙古、高麗連合勢力に抵抗した三別抄と日本との関係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もちろん、實際三別抄と日本が互いに何らかの具体的な外交的關係を形成したことではない。1271年日本に派遣された三別抄の使者も日本朝廷の何らかの注目を引くことができず、なお據点にしていた珍島が陥落されてしまったからである。濟州島の場合には、對外關係を展開する体系を揃えることができず、三別抄は一つの政治集団として積極的な外交的方案を駆使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まま、歴史上において消えてしまった。しかし反蒙の戦線を新たに形成した三別抄勢力が反蒙抗戦の新しい突破口として日本との連合戦線を構築したということは注目すべきである。特に、このような企圖の一環として送られた外交文書關連の資料が少しでも残っているという点も興味深いことである。

4年にわたる三別抄の蜂起と抗戦は失敗で終わったが、蒙古の對日征役に一定の支障をもたらした、

結果的には日本に對する蒙古軍の攻撃は順調ではない経過をあらわした。このような点において三別抄と日本との外交的關係以外に、三別抄の抗戰が引き起こした情勢の変數に注目することも必要なことであろう。本稿ではこのような観点からまず三別抄抗戰が持つ東アジア 戦局への影響及び對日關係の側面を検討し、ひいては三別抄の對日外交關連文書である‘高麗牒狀不審條條’の文件を對日關係の側面から分析してみたいとおもう。これを通じて三別抄が13世紀後半、東アジアに及ぼした影響をさらに立体的に把握してみたい。一方、最近沖繩出土の高麗瓦と三別抄勢力との關連性に關する議論に對してもともに触れてみたい。

## 1. 高麗三別抄と對蒙抗爭

高麗で三別抄の蜂起が惹起された時点は、1170年(元宗11) 6月 1日である。蒙古軍が高麗に侵入を開始して崔氏政權がこれに不服して抵抗を始めた1231年(高宗18)から40年ぶりのことである。この40年間、高麗は崔氏政權の執政者である崔瑀・崔沆・崔瑄を経て、金俊と林衍、林惟茂に至るまで何回にわたり内部の政治的な変動があった。しかし執政者の交替にもかかわらず、蒙古に對して抗戰を固守する政策路線は変わらなかった。それは武人執政者の交替が、政權の性格に大きな変化を伴わなかったからである。武人政權は効果的な抵抗のために、侵略翌年の1232年王都開京に近くにある島嶼である江華島へ首都を移し、結果的に高麗は1231年から1259年まで蒙古軍によって、6次(11回)にわたった侵略を繰返し受けながら長期的な抵抗戦を持続することができた。1270年三別抄の蜂起は元宗の開京還都決定及び武人政權の崩壊という政治的な変動状況から惹起されたのである。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三別抄は高麗武人政權下の執政者崔優によって夜別抄という名前で組織された高麗の軍事組織である。その時期は蒙古軍の侵入直前の1230年(高宗17)<sup>1)</sup>頃であった。‘別抄’という言葉で現われたように、これらは精銳軍として選發された組織であり、武人政權という政治的狀況のもとで作られた組織だったので、親政權の性格と基盤を持つようになった。ちょうど蒙古軍の大々的な侵略が始まると、三別抄は高麗の一番力強い軍事集団として目立つようになり、戦争の長期化によってその規模も擴張された。夜別抄が‘三別抄’という組織に変わったことも、またこのような組織擴大の結果であると言えよう。三別抄は蒙古軍の侵入直前に武人政權によって設置されて、1270年武人政權の崩壊と同時に政府によって解散措置がくだされた武力集団という点で、對蒙抗爭期の武人政

1) 夜別抄の成立時期については、김당택, 「최씨정권과 그 군사적 기반」 『고려무인정권연구』, 새문사, 1987, pp.186-187 ; 윤용혁, 「삼별초의 봉기와 남천에 관하여」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p.131

權と係わった一番象徴的な組織で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三別抄のこのような性格によって武人政權が崩壊し、高麗政府が蒙古に服屬した与件の中で三別抄の存立の根拠は完全に喪失された。しかし、力強い軍事力の保有が問題であった。開京政府が三別抄の解体を命じたのは当たり前の手順であったが、三別抄が保有している軍事力は完全な屈服を許容しなかった。この点からみると、1270年三別抄の蜂起は、高麗が蒙古に對する抵抗から服屬に切り替えることによる必然的な政治的過程であったと言える。すでに三別抄は蒙古に對する服屬という変化された状況に對抗する高麗の最後の勢力として残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まず、三別抄に對していくつかの言及を行いたい。第一は三別抄に對する歴史的な評価問題である。三別抄抗戰は近代史學の観点によって、民族抗戰の代表的な事例という評価を受けて來た<sup>2)</sup>。しかし一方では、近年このような‘民族抗戰’としての評価が議論の対象になっている。韓國歴史での民族主義的な観点に對する批判とともに、三別抄抗戰の歴史的意義を‘民族抗戰’ではない‘民意抗爭’で論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提起された<sup>3)</sup>。そしてここから一步進んで三別抄に對する批判的、否定的な視覚も提起された。‘三別抄’は特定政權の政治的目的によって操作されたイメージ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むしろ、彼らが反民族的な集団であり、彼らの行動は‘民族’ではない政權を‘保衛’しようとする行動であったという見解がこれに屬する<sup>4)</sup>。三別抄に對するこのような兩極的な評価は、歴史的事件を過去としてではなく、顯在的な状況に代入しすぎて解釋したことから起因する視覚であると考えられる。特に、彼らが高麗の長期抗戰の政治的な基盤だったし、蜂起の際‘反蒙救國’を直接的に主唱した点からも、‘民族抗戰’としての歴史的な意味を否定する理由はないだろう<sup>5)</sup>。

2) 王朝體制に對する單純な反亂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三別抄の抗戰を外勢に對する自主的な反蒙抗戰の事例として、その意味を積極的に与えたことは、日帝下のキンサンキの貢獻であった(김상기, 「삼별초와 그의란에 就하야」 『진단학보』 9, 10, 13, 1938-1941 ;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48)。以後、三別抄は對外抗戰の代表的な事件、あるいは高麗の對蒙抗爭のハイライトとしてその意味が強調された。一方では1970年代の軍事政權で基づいた政治現實の脈絡から三別抄の抗戰は、‘國難克服’の代表的な事例として強調されることもあった。ほどの差はあるものの、民族主義の脈絡から構成された解放以後の韓國歴史のなかで三別抄の抗戰が一定の歴史的意味を持っていたことは共通的であった。

3) ‘三別抄の抗戰’が持つ意味は三別抄の‘強忍な民族精神’などによって説明されるのではなく、高麗支配層とモンゴルの結託に反對する一般民の抵抗が爆發的に起ったことにあるという。이익주, 「고려후기 몽골침입과 민중항쟁의 성격」 『역사비평』 24, 1994, p.269.

4) “1970年代軍事獨裁政權のもとで御用學者たちは、武臣政權を民族的で進取的な政治勢力として高く評価し、三別抄軍の活動を‘國難克服’の一つの事例として選んだ。軍事獨裁政權の民族主義的な正統性を確保しようとした歴史操作の一つの事例である。이이화, 『몽골의 침략과 30년 항쟁』(한국사 이야기 7), 한길사, 1999, p.104, p.115.

5) 三別抄の民族史的意味については、かつて村井氏によって注目されたことがある。‘反蒙保國’という三別抄の檄文は三別抄の強い民族意識を集約的に表現したことでありとしていた。これに關しては村井章介「

三別抄抗戰を一方的に美化することは問題である。それは事實であるというよりは‘神話作り’に近いからだ。しかし同時にこの事件が持つ歴史的意味を意図的に、あるいは感情的に貶下することも問題である。少なくとも三別抄による反蒙抗戰の歴史的事實と、その意義を認める必要があるだろう。三別抄の歴史的意義を‘民意抗戰’で追い求めることは意味ある見解であるが、それを必ずしも‘民族抗戰’と配置される領域として縮小解釋する必要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sup>6)</sup>。

## 2. 麗日關係と三別抄

三別抄の麗日關係と係わり、まず蒙古の高麗に對する助軍要求と蒙古側の使者の日本派遣をよく調べる必要がある。特に、蒙古の助軍要求は、初めは明確に日本を狙ったことではなかったが、蒙使の日本派遣の推移に応じて日本への軍事的な攻撃へと進展された事案であった。

蒙古の對日遣使は、1266年に初めて試圖された以後、2次1267年、3次1268年、4次1269年、5次1271年、6次1272年、7次1273年など、麗元連合軍の日本侵入(1274)にのぼるまでほぼ毎年行われた<sup>7)</sup>。1266年1273年までの推移を簡単に整理すれば次の〈表〉になる<sup>8)</sup>。

〈表〉 蒙古の對日招誘の遣使(1266-1273)

次數	年度	遣使名簿	遣使の経過	國書の内容	結果
1	1266	(蒙古)黑的(兵部侍郎)、 殷弘(禮部侍郎)(高麗)宋 君斐(樞密院府使)、金 贊(侍御史)	11月派遣、巨濟島で出港直 前に氣象を言い掛かりに抛棄		巨濟島で抛棄

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中世日本』、校倉書房、1988、pp.171-172。参照。

- 6) 三別抄の歴史的な評価問題については、筆者の、「삼별초 대몽항전을 보는 여러 시각」(『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をとともに参照されたい。また、김일우·이정란은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제주도사연구』 11, 2002, pp.25-27)で、三別抄の抗爭が持つ歴史的な性格を民衆的性格と抗蒙的性格の両面から評価すべきであり、三別抄を含めた高麗の長期抗戰が元の干涉があったにも関わらず、高麗の獨立性の維持に寄與したという意見を提示した。一方、筆者は最近三別抄に對する評価問題を含めて高麗の長期抗戰の原因、戰爭時の江華島問題、對蒙抗戰遺跡に關する問題など高麗の對蒙抗戰についての全般と關連した議論点を整理したことがある。Yoon Yong-hyuk, The Focal Issues in the Historical Study of the Koryo's Resistance against Mongol,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0, 2006.
- 7) 元の遣使は大徳 3年(1299) 11次まで進行された。これについての全般的な説明は、김위현, 「여원 일본 정벌군의 출정과 여원관계」『국사관논총』 9, 1989, pp.4-10.
- 8) 『高麗史』『元高麗記事』『元史』などを参照。日本側の資料は 장동익, 『일본 고종세 고려자료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4を參考。

2	1267	(高麗)潘阜(起居舍人)、李挺(書狀官)	モンゼと高麗國書伝達、太宰府で5ヶ月間待期、京都には行かず	(蒙古國書)日本の服屬を誘い、用兵の可能性も間接的に暗示(高麗國書)蒙古の意図が友好關係樹立というので日本説得	國書に對する回答を受けず。蒙古及び高麗國書を東大寺に伝える
3	1268	(蒙古)黒的、殷弘、外6人 (高麗)申思佺(知門下省事)、陳子厚(禮部侍郎)、潘阜、外1人。總計70人余り	12月派遣、1269年3月歸國の時、對馬島の日本虜2人(塔二郎、彌二郎)を大同		大日本軍勢力投入可能性時事(10月)
4	1269	(高麗)金有成、高柔	7月、日本の捕虜を送還するという名分で派遣。對馬からの手紙は大宰府、幕府を経て京都へ送る。對馬島を経て大宰府で滞在	(元の中書省の牒狀)日本の來屬要求及び武力使用可能性も言及	日本は拒絶の返事を作成したが送らない。
5	1271	(蒙古) 趙良弼 (高麗) 徐称(別將) 一行100人余り	9月、對馬をよらず、19日九州今津 到着。大宰府へ直行、國書を京都に送る。		日本使者12人を元に送ったが、元世祖が接見拒否(偽使)趙良弼が携帶した書狀が残っている。
6	1272	高麗使者	2月13日元宗が日本國王に書信を送って招誘す。4月日本派遣元に派遣した使者団護送歸國させる。		内容不明
7	1273	(蒙古) 趙良弼	3月大宰府から京都には入らず、戻ってくる。		

1268年高麗潘阜を通じて日本に伝達した國書が無爲に終わると、蒙古は高麗に要求した宋征伐に對する助軍要求、軍事1万、船舶1千隻の作業を監督する一方、場合によってはこれを日本に投入することも考慮するに至った。

蒙古の高麗に對する助軍要求は、初めには日本より對南送戰を前提に推進された。1268年(元宗9)3月、于也孫脱などが伝えた世祖クビライの詔書で、對宋戰をむかえて高麗に對して軍事と兵船調達に對する準備、軍糧の蓄えを注文したのがそれである。その年(1268)6月(乙巳)、蒙古は吾都止を派遣して兵船の數と軍隊人數を点檢し、8月大將軍崔東秀は蒙古に入朝して助軍のための軍事1万の確保及び兵船1千隻建造を始めたと報告した。10月には、上の事項を点檢するために蒙古から脱朵兒、王國昌、劉傑など14人が入國したが、携帶した蒙帝の調書には、これら使者の指示によって船舶を建造するはずであり、軍隊と船舶をよく整理して南宋であれ日本であれいつでも使用できるように備えること、黒山島と日本の間の道を探索するように指示する内容などが含まれていた。王國昌、劉傑などは高麗到着の直後、黒山島現地を点檢し、黒山島から歸って來た劉傑は、また造船狀況の点檢のために西海島に出向けたという<sup>9)</sup>。

この頃、蒙古は南宋に對する攻撃が優先的な課題であつたので、高麗の助軍問題は日本より南

9) 『高麗史』26, 元宗 世家 8年.

宋に焦点があてられていた。1268年(元宗9)10月、クビライは都元帥阿朮、劉整などに7万の軍事を率いて揚子江の北側の要塞襄陽を包圍攻撃させることで南宋に對する本格的な作戦に突入した<sup>10)</sup>。しかし南宋攻撃のための高麗の助軍は實行されなかった。たぶん高麗での發進と對南宋戦への投入が實際は効率性が大きくないという判断からである可能性があり、しかも1270年三別抄の蜂起は高麗の對宋助軍を現實的に不可能にさせた。高麗政府が開京に還都し、三別抄が珍島で代置していた1270年12月、元世祖の詔書は高麗が造船及び徵兵命令を承諾してからも成果がないことに對して責めつけながら、“南宋でも日本でも有事時に備えて兵馬と軍船、食糧を早く準備するように”と再び指示していることを見れば<sup>11)</sup>、軍船の造船問題は相変わらず未完の段階にあり、高麗軍を南宋に送るか日本に送るかも決めていなかった段階にあったことが分かる。

このようにみれば、高麗の大規模軍船造成と1274年日本侵略への参加は、ある程度予見されたことであり、ただ1270年三別抄の反蒙蜂起と抵抗という新しい状況展開によって、その日程が一定の期間引き延ばされたわけである。

高麗の造船作業と係わってこの時期注目される事実の一つは、1272年3月戰艦兵糧都監の設置である。名称上これは大規模軍船と軍糧を確保しようとする機構の新設であるが、短期的には濟州の三別抄に對する大攻勢のための準備だったものの、同時にそれは日本征伐までを念頭に置いた機構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頃、日本招誘に對する問題が徐々に具体化されており、この都監の設置が麗元關係の一環として提起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sup>12)</sup>。特に、1271年9月、日本に派遣された元使趙良弼は、“11月を期限に相変わらず回答がなければ、兵船を送る”という通牒を送ったのである<sup>13)</sup>。このような推移は高麗を前にたてた今後の軍事的な行歩が南宋ではなく日本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ことであり、特に趙良弼の第5次遣使をきっかけにして日本に對する軍事的な措置が不可避なことになることを予告するものであった。ただ珍島陥没以後、濟州島を據点にして相変わらず、南西沿岸に對する掌握力を喪失していない三別抄の存在によって、日本に對する軍事的な措置の實行時期を引き延ばすしかない實情であった。

以上で見るように、對外征伐のための高麗の助軍及び造船に關する問題は、三別抄蜂起以前から提起されたが、三別抄の蜂起という高麗の政治状況によって引き伸ばされたのである。1266年から開始された蒙古の對日招誘、1268年南宋戦の本格的な再開などの進展を勘案すれば、1270年三別抄

10) ドーソン『蒙古史』, 三田史學會, 1933, pp.538-539

11) 『高麗史』 27, 元宗世家 11年 12月.

12) 戰艦兵糧都監とともに鈿函造成都監が設置されたが、後者は元の皇后の大藏經保管のための用品製作のためのものであった(『高麗史』 27, 元宗世家 13年 甲辰).

13) “此上以來十一月可爲期 猶爲無音者 可議兵船云云”(『吉續記』 문영 8년 10월 24일).

の蜂起がなかったならば、1271年頃には對日武力攻撃が試圖された可能性が高い。したがって三別抄蜂起によって、概ね2年ぐらい連合軍の對日攻撃時点が引き伸ばされたと筆者は考えている。1270年、三別抄蜂起の年に對日招誘の遣使が、1年あいまを置くようになったことから、そのような理由があったからであると思われる<sup>14)</sup>。これに對して、村井教授は三別抄の蜂起による對日征役の阻止要因を次のようにいくつかに分けて説明した事がある。蒙古の屯田軍及び日本遠征に使う艦船に對する三別抄の攻撃、蒙古(元)の屯田軍に供給される貢賦が慶尙、全羅地域で正常的に供給されなかった点、日本遠征に投入しようとしていた屯田軍を三別抄の鎮壓に轉用せざるを得なかった点などがそれである<sup>15)</sup>。しかし一方では、珍島と濟州島での三別抄との海戦経験は、その翌年日本侵入と關連して蒙古軍には一つの‘良い演習機會’を提供したという評価もある。

對日招誘過程では、第1次麗元軍の日本侵入前年である1273年まで4回にわたって毎年招誘使節が派遣された。前の〈表〉でみたように、その中で1270年一年だけが使節派遣ができなくなってそのほかは行っていたが、この1年の休止は三別抄の蜂起によって南部沿岸の一帶が珍島據点の三別抄の繩張に含まれていた複雑な状況があったためであろう。三別抄の對日連合戦線への追求は、基本的には麗元關係の歴史性と地理的な隣接性によって提案されることができてもあった。しかし同時にこのように數年の前から推進してきた日本への招誘、そして對日征役を念頭に置いた軍船の準備など、一連の状況が三別抄にとって麗元連合軍に對する劣勢を補うための方案として、日本との連帯を具体的に模索するきっかけを自然に造成したことであると言えよう。

高麗の大日本招誘の過程及び以後の事態進展から確認される事實の一つは、高麗と日本を一つの同一範疇として把握する日本の立場である。ひいては開京政府と三別抄に對してもこれを區分する意識がなかったという点が注目される<sup>16)</sup>。

14) 三別抄蜂起が麗蒙軍の日本侵入を遅らせたことについて、多くの賛同が行われていた。かつて旗田巍はこの点をさして、“この抗戦がなかったらば、蒙古はより早く日本を襲撃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ろう。日本遠征のための屯田軍は三別抄のせいと動くことができず、そのため三別抄の討伐に轉用されるしかなかった。(中略)客觀的にみれば、三別抄の亂は蒙古の日本侵入を遅延させ、防御準備を整える時間を与えた”と斷定していた(旗田 巍 『元寇』、中央公論社、p.106)。

15) 村井章介、「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中世日本』、校倉書房、1988、pp.160-161。

16) 남기학, 「몽고침입과 중세 일본의 대외관계」『아시아문화』1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p.474.

### 3. 三別抄の日本との連帯試圖

1270年6月1日、江華島の三別抄は蒙古に服屬して、開京に環刀した元宗の高麗政府に反旗をあげて蜂起した。彼らは蒙古に服屬した開京政府を全面的に不正し、新たに組織した彼らの政府こそ高麗の正統政府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た。これらは蜂起の直後、江華島から珍島に移動し、龍藏城を中心にして独自の勢力を構築しながら、開京政府との對決を模索していた。なお旧後百濟の地域と南部海岸地域を一帯とする沿岸の海洋勢力圏を通じて開京政府との對決を図った。一方、蒙古の壓力に對應する方便として日本との共同戦線を意図してそれなりの勢力構築をはかろうとしたのである。

蒙古への對抗のための日本との‘國際的連帯’という着眼は、どこから出たのであろうか。三別抄が江華島をあきらめて珍島へ南遷した際、西南海沿岸の島嶼で麗蒙聯合軍の攻勢を防御することができるかと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事だった。まず、珍島以外の背後基地の確保が優先的なことであって、次に南宋あるいは日本との連結を模索することが自然な手順であったといえる。他の一方では、1266年以來もう進行されていた對日本招誘によって蒙古の壓力の下に置かれた日本の立場に對して認知していたはずである<sup>17)</sup>。

三別抄の對日交渉に對して、その可能性を一番先に議論したのは根本誠氏である<sup>18)</sup>。『吉續記』の文永8年9月の‘高麗牒狀’に對する解釋がそれだ<sup>19)</sup>。そしてこれは‘高麗牒狀不審條條’文書の發見によって事實として確認された。これによれば、珍島政府が日本へ使者を派遣、對蒙抗戰において共同の補助と協助を打診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元宗12年(1271)のことである。珍島から送られた手紙は、珍島政府が蒙古軍によって崩れてかた、しばらく後の9月初に鎌倉幕府を経て京都の朝廷に伝達された。この書信をもたらした使者は多分7月末以前に博多近所に到着したと推測されるが、珍島からの出發を珍島に對する大攻勢が行われた5月15日以前であるとみれば、博多あるいは太宰府への到着は、概ね5・6月頃のこと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

17) 三別抄が日本との關係を構想したことは、“蒙古の亂暴な侵略と支配に抵抗する戦い、長期にわたる抑壓を耐えてきた經驗から得た意識”と、三別抄が南海岸を據点にして活動した過程で、“徐々に日本の存在を半券して理解したこと”とのべたこと(村井章介「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について、李領は高麗の日本に對する‘恒常的な外交關係’に基づいたことであると言った(pp.103-104)。

18) 根本 誠、「文永の役までの日蒙外交-特に蒙古の遣使と日本の態度」『軍事史學』5, 1966, pp.58-60

19) 日本へ伝えられた‘高麗牒狀’に對する議論は『吉續記』の文永8年(1271)9月2日から始まっている。關連記録はジャンドンイク(장동익, 『일본 고증세 고려자료 연구』, pp.139-143でみられる。ジャンドンイクによると、『吉續記』はかまくら時期の人物である藤原經長(1143-1200)が1167年から1302年までの日記体の記録として麗元聯合軍の日本征伐に關連する記録9件が含まれている(張東翼, 『일본 고증세 고려자료 연구』, p.143)。

珍島政府が日本へ送った手紙内容は、『吉續記』の同年9月4日條に蒙古が日本を攻撃するはずであると警告し、同時に食糧と兵力につおて協調してくれることを具体的に要請す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sup>20)</sup>。ところで東大史料編纂所の保管文書である『高麗牒狀不審條條』は、この際珍島政府が送った手紙の内容について、より具体的な知識を伝えている。この文書は珍島の三別抄が送った手紙そのものではないが、手紙の主要内容を言及して、三別抄の日本に對する希望と当時珍島政府の内部事情に對して貴重な情報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で非常に重要な資料である。

#### 高麗牒狀不審條條

- 一。以前狀(文永五年) 揚蒙古之德 今度狀(文永八年) 韋 者無遠慮 云云 如何
- 一。文永五年狀 書年号 今度不書年号事
- 一。以前狀 歸蒙古之德 成君臣之礼云云 今狀 遷宅江華近四十年 被髮左  
聖賢所惡 仍又遷都珍島事
- 一。今度狀 端二ハ 不從成戰之思也 奧二ハ 爲蒙被使云云 前後相違 如何
- 一。漂風人護送事
- 一。屯金海府之兵 先二十許人 送日本國事
- 一。我本朝統合三韓事
- 一。安寧社稷待天時事
- 一。請胡騎數万兵事
- 一。達冕旒許垂寬宥事
- 一。奉齎事
- 一。貴朝遣使問訊事

珍島三別抄政府を送った手紙には、第一、蒙古に對する非難、反蒙意志がはっきりと現われている。たとえば第1條で蒙古を‘韋毳’という言葉で、3條では蒙古風俗(文化)を‘被髮左衽’(蛮夷の習俗)という文字で指称していることなどは、公式的な外交文書として非常に強烈な反蒙意志の表現である。

第二、当時三別抄政府は珍島政府こそ正統の‘高麗’政府であることを標榜しているという点が注目される。このためこの文書の題目は‘高麗牒狀’であり、江華島での40年抗戰以後、抗蒙伝統を受け継いで珍島へ遷都したことを第3條で明らかにしている。

20) “件牒狀趣 蒙古兵可來責日本 又乞糴 此外乞救兵歟 就狀了見區分”(『吉續記』文永8年9月5日)。ハンドブック、『일본 고중세 고려자료 연구』, p.139.

第三、珍島政府と日本との共同的な運命ないし珍島政府の日本に對する思いやりが強調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内容は特別に蒙古侵略の危機的な状況を日本と共同で打開して行くことを願う三別抄政府の期待が表現されたものである。“情況を直接見せるために”使節の派遣を日本に要請したことから、珍島政府は日本との反蒙抗戰のための一種の共同戦線を希望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sup>21)</sup>。

高麗牒狀文書の以上のような脈絡は、日本との共同運命を強調することで珍島政府が日本の具体的なサポートの可能性を打診したものであると言えよう。三別抄の珍島政府の對日使者派遣は共同對處を主張する立場として軍糧、兵力などの實質的な問題を打開するための目的があった。實際、珍島政府が食糧の欠乏を憂慮していた事實は、元宗12年蒙古側の珍島に對する諜報によって確認される。珍島政府は蒙古軍の大規模の攻勢を目前にして、兵力面でも相對的な劣勢にあり、このために日本との連帯を打開策として試みたと考えられる<sup>22)</sup>。

三別抄政府の反蒙連帯への提議に對する日本側の反応は曖昧なものであった。日本は高麗國內の情勢の最近の変動に對してほとんど事前知識がなかった。したがって珍島からの手紙の眞義さえ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空虚な議論だけが續けられた。しかし日本は蒙古の侵入脅威が徐々に現實化されている事實を確認して自主的な對備策に關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ようである。

問題の三別抄牒狀の關連資料に對して、石井氏の紹介と解釋以來、何回にわたる検討があったが、三別抄の對日關係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基本資料という点から、今までの資料についての議論を整理する必要がある。文件の中で特に当時の對日關係と直接連關されることは、4・5・6番目の文句であるのでこれに限定して検討してみよう。4番目の文句から見事にする。

### 一。今度狀 端ニハ 不從成戰之思也 奧ニハ 為蒙被使云云 前後相違 如何

まず文字判讀の面では、‘思’を‘由’と見る意見が提起されている<sup>23)</sup>。文件の解釋では、‘不從成戰之思也’に對して“従わなければ戦いが起る”、または“蒙古の日本攻撃に従わないという意を現わしたことで理解することも可能”という解釋がなされた。しかし、‘爲蒙被使’については前の文章とその内容が、どのように繋がって、どうして‘前後が相違’したのかよく把握できないとも言われていた<sup>24)</sup>。その

21) 石井正敏、「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12, 1978 ; 柳永哲、「高麗牒狀不審條條의 재검토」『한국중세사연구』1, 1994. 石井の論文は筆者が、「삼별초의 대일 통교사료」という題目で翻譯紹介したことがある(『史郷』2,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1985)。

22) 三別抄の文書を含めた珍島の三別抄全般については、윤용혁, 「삼별초 진도정부의 수립과 전개」 「삼별초의 진도항진」(『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參考。

23) 柳永哲, 「고려첩장불심조조의 재검토」『한국중세사연구』, 1994, pp.163-164.

後ギムユンゴンは、上の文章の内容を"三別抄政府に日本が軍糧と援兵を送りなさい、この命令に追わなければ日本と蒙古の間に戦争が起るようになるはずで、日本は'蒙古に従うようになるだろう'<sup>25)</sup>と整理した。ここでは'不従'の主体を日本で設定してその内容は三別抄に対する日本の'不従'を仮定して、'爲蒙被使'の主体もまた日本として設定した。これに對してリュヨンチョルは、'不従成戰'の主体は三別抄、'爲蒙被使'の主体は開京政府という前題下で、上の文件を“(降參、出陸還都など蒙古の要求を)従わないことが、(三別抄と蒙古・開京政府の間)戦争が起る理由だ”、そして'爲蒙被使'は、“(開京政府が)蒙古に従うようになった”と解釋した。日本の立場では高麗が降伏したともいい、蒙古と一戦を決するようになったとも言つて、混同を起すし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sup>26)</sup>。一方、李領氏もリュヨンチョル氏と類似の意見を示したことがある<sup>27)</sup>。

'不審條條'の文書内容は、大体のところ牒状の内容の手順によってメモされたもののように見える。上の文件は、前の部分に位置したもので、概ね今までの経過の説明と關わる部分であると言える。したがつて、未來型の要求よりは過去型の内容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見れば、蒙古の要求に応じなかったのが我ら(三別抄)は戦争に參入したのであり、一方、開京側は蒙古に服屬されて従うようになったというリュヨンチョルの説明が説得力がある。これは牒状の中で、1270年を前後した高麗での情勢變動に關する簡略な言及が含まれ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ただ、これについて日本側では開京政府に對する三別抄の新政府樹立など当時高麗の情勢變化に對する事前知識が全くなかったので、その意味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考えられる。このために戦争を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何で、服屬されて使ひのような立場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何なのか、前後が合わない混同を引き起こ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日本側の混線と不明確な認識は'不審條條'だけではなく、一方で『吉續記』の記録の中にも現われている<sup>28)</sup>。高麗で惹起された一連の情勢變化を日本では全然認知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し、したがつて牒状の文面内容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であろう。

24) 石井正敏、「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p.5。

25) 김윤곤, 「삼별초의 대몽향전과 지방 군현민」 『동양문화』 21-22, 1981, pp.4-5。

26) 류영철, 「고려침장불심조조'의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994。

27) 李領, 「'元寇'と日本・高麗關係」 『倭寇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1999、p.103。

28) “当時の朝廷では外交文書を正確に讀んで、相手の意図を明確に把握する能力がある人物がなかつたのである。その結果、評定は日本の國家としての外交的な對應を策定する重要な會議というよりは高辻長成、日野資宣、藤原茂範など儒者たちの漢文解讀能力をあらそう場になってしまった”(村井章介、「高麗 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中世日本』、校倉書房、1988、p.167)。

### 一。漂風人護送事

日本側の漂風人を三別抄が護送したという内容であるが、解釋上では別に問題が内容に見える。元宗年間(1263年、元宗4年6-7月)、高麗沿海で日本側の船舶が遭難し、この時の漂風人など高麗側によって本國に護送された事例が次のように報告されていた<sup>29)</sup>。

-6月、日本官船大使如眞などが佛法を學ぼうと宋へ向かう途中、風にあい僧・俗合わせて230人が開也召島に至り、265人は群山島と湫子島にとどまった。

-太宰府少卿殿の商船に乗った78人が宋から日本に歸國する途中風に会い船を失って小船で 宣州加次島に停泊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全羅道按察使に命じて食糧と船を与え、本國に護送してくれた。(6月)

-7月(乙巳)日本商船30人が風のため漂流し、龜州の艾島に止まったので食糧を与え(本國へ)護送した。

これによって当時、高麗沿岸海路で日本船舶の海難事故がたびたび起こり、そのため漂風人の護送が行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上の船舶すべて南宋へ往來していた日本の船舶であり、漂流あるいは停泊地点が開也召島(西天、現在は群山市開也島)、群山島(群山仙遊島)、湫子島、加次島(平北先天)、エド(平北構成、現在は井州)などほとんど西海沿岸の南北全域にかけていて当時日本の對宋往來が江南への直航路とともに韓半島沿海を北上して中國沿海を回って南下する沿岸航路が相変わらず利用されていたことが推測できる。その過程でたびたびの海難事故が西海沿岸で起こり、これら漂風人を歸還させた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を物語ってくれる<sup>30)</sup>。1270年三別抄蜂起以後、西南海沿岸を三別抄が掌握していたので、この時期西海沿岸の漂風人の問題が三別抄の管轄下に入って行く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リュヨンチョルはこの漂風人の護送がわざわざ‘不審條條’で言及された理由は、当時三別抄による‘漂風人の護送使’についての事實を幕府が分かっていなかったと推測した<sup>31)</sup>。太宰府の少卿殿商船の場合のように、当時日本は地方領主、あるいは寺院が主体になって直接商船を派遣して交易をしていたので、このような諸般事實を日本政府あるいは業務担当者が詳しく把握していなかったと思われる。

29) 『高麗史』元宗世家 6월, 7월.

30) 60年後である1323年寧波(明州)を出發して博多に向かう貿易船が全南シンアンの置きで沈没したことも、もしかするとこの船舶が江南と日本列島の直行路ではなく、高麗の西海沿岸の海路を利用していたかもしれない。

31) 류영철, 앞의 「고려침장불심조조」의 재검토, pp.168-169.

ただ、‘不審條條’での‘漂風人’についての性格に対する問題が残る。1270年三別抄蜂起以後は西海沿岸が一種の戦時状態に置かれていたから、問題の‘漂風人’は、純粋な漂風人よりは南海と西海沿岸を掌握していた三別抄によって航海途中拘留された集団である可能性が多いことと考えられる。三別抄は、潜在的連合勢力である日本との通好を開く方案として、彼らを本國に護送し、したがって日本側への牒狀でもこの点を特に強調して言及したはずである。‘不審條條’で‘漂風である護送使’と言及した部分は、このような脈絡から讀むのが理解しやすい。

### 一。屯金海府之兵 先二十許人 送日本国事

“金海部に駐屯していた軍事のなかで先に20余人を日本に送った”と言う内容である。ここで何より問題になることは、‘屯金海府之兵’の正体に關する問題だ。これに對して石井氏はこれらが蒙古軍兵士として、日本に行く趙良弼一行の情報を伝えるために、日本に送った兵士であると解釋した。1271年9月19日、九州の今津に到着した当時の元使趙良弼一行の使節団の規模は、‘100女人’に至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に<sup>32)</sup>、この文書では100人ではなく‘20人余り’と記述したことは、それほど三別抄側の不正確な情報を反映することだという<sup>33)</sup>。40余名の元使趙良弼一行が高麗に到着したことは、同じ年(1271)正月(奇妙である)のことであった。忽林赤王國昌・洪茶丘などが同行したが、趙良弼以外のこれら麾下の軍師は、趙良弼が日本から戻って来るまで金州(金海)等地の浜辺で待つように措置した<sup>34)</sup>。これは元使一行に惹起される万が一の事態に備えたことであると同時に、それを予防するための壓力措置であったと言える。

しかし日本に派遣される蒙古使者趙良弼の先發隊としての蒙古兵士が今度三別抄の使行とどのような関わりがあるのかについては、よく理解ができない。このためにギムユンゴンはこの金海部の兵士を蒙古兵であるという解釋を否定し、この20人軍事が‘捕虜になった倭寇’であるのと解釋した。これに對して、リュヨンチョルもこの日本に送られた20人の兵士が金海を侵入してから捕らえられた倭寇であり、元宗12年(1271)4月、三別抄が金州を襲った時これを奪取したことであり、これら奪取した倭寇を三別抄が日本本國に返したことでであると説明した。この場合、‘屯金海府之兵’の‘屯’の意味が問題になるが、ここでの‘屯’は抑留の意味であり、“日本に對する外交的な儀禮として金海に抑留されていた倭寇たちを金海部の屯兵として表現したこと”であると主張した<sup>35)</sup>。

32) 『五代帝王物語』(續群書類從完成會本 3) 石井 논문에서 재인용.

33)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

34) 『高麗史』 27, 元宗世家 12年正月己卯.

35) 류영철, 「고려첩장불심조조의 재검토」, pp.169-170.

李領氏はこの問題について、1271年3・4月の金州一帯に對する三別抄の大大的な攻略に注目している。すなわちこの時期が對日本牒狀の作成及び發送時期にあたるという点のためであるが、彼は牒狀の作成時期を元世祖の詔書を珍島にもたらした朴天澍の歸京以後から三別抄が長興部などを攻撃して南海沿岸に對する攻勢を本格化する2月癸卯日のあいだであると推定した<sup>36)</sup>。同時に三別抄の牒狀が送られた後であるとも言える、1271年5月趙良弼はまだ開京に泊まっていた、趙良弼が日本を行って来るうちに金州に待機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洪茶丘が三別抄の據点珍島攻撃前に投入されている事實を指摘した<sup>37)</sup>。趙良弼が開京を出發するのが8月、彼らが筑前國今津に到着したのが9月19日という点から、問題の記録を元使趙良弼と直接連關させることはどうしても難しい事になる。

文字的に見て金海部の軍師は‘金海部に駐屯していた軍事’である。リュヨン Cholなどは‘屯’を抑留していたという意味で解釋したが、これはやはり無理であろう。このために、‘金海部の軍師’は金州駐屯の蒙古軍として初めて解釋されたのである。もうこれら‘金海部駐屯の軍師’が蒙古軍も倭寇もないならば、この金海部の兵士が三別抄の軍師である可能性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李領は1271年4・5月金州一帯での旺盛な三別抄の軍事活動が南海島に據点を置いた劉存奕の部隊であると推定した。劉存奕の部隊は伝統的な高麗・日本の友好關係を根據にして、日本との連帶をはかるため金海一帯に進出したが、麗蒙聯合軍の大攻勢の前の時点での三別抄のこのような兵力分散が珍島三別抄の失敗の一原因であるという意見を李領氏は出している<sup>38)</sup>。

珍島三別抄の軍事的失敗の一原因を南海島據点の軍事力の分散として見なすことが適当なことであろうかについては疑問がある。珍島自体が沿岸の小さな島としてここだけに兵力を集中することが必ず戦略的に効果的なことであると斷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当時三別抄は濟州島に背後を設定して莞島、南海島など沿岸多くの島に據点を確保していたが、むしろこのような地域據点の設定が戦略的に必要な事であったらう。それはそうであるが、‘不審條條’で言及した‘金海部の兵士’は、おそらく三別抄の軍事である可能性がある。すなわち、對日使者団の派遣のための三別抄の事前段階てきな措置ではなかろうかと思われる。それが必ず劉存奕麾下の軍師であったかは、やはり検討を要する。

36) 李領,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일본역사연구』 9, 1999, pp.65-67.

37) 『고려사』 27, 元宗世家 12年5月丁丑および庚寅の記録から確認される。李領, 上の,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pp.70-71.

38) 李領, 前の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p.74 参照。一方、珍島政府の急速な没落背景、‘金海府駐屯兵士’である劉存奕との關係の可能性についてもベサンヒョンも類似た意見を出している。ベサンヒョン(배상현), 「삼별초의 남해항쟁」 『역사와 경계』 57, 2005, p.105 및 p.111 参照。

## 一。安寧社稷待天時事

イウソンはこれに對して、“天時がくると、社稷が再び安定するはずだという所信を披瀝”したことであるという<sup>39)</sup>。すなわち今後の政局に對する三別抄の自信感と期待が反映されているという意見であろう。これに對してリュヨンチョルは、“社稷の安寧が天時を待つほど緊急である”と解釋した<sup>40)</sup>。この解釋と必ず反するものではないが、筆者はこの句節について“社稷を安寧にすることは天時を待つことである”、すなわち“社稷の安寧はただ天にかかっている”という意味として解釋したい。これは未來に對する期待、あるいは危機意識の表現でもあるが、これよりは自分の運命がただ天にか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巨大な麗蒙聯合軍と軍事的に對決中にあった三別抄政府の莊嚴な決意の表明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してこのような三別抄の運命が、一方では日本の運命とも繋がっていることを暗示することで、三別抄と日本が共同運命体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高麗正統政府を自任する三別抄政府の樹立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幕府では、このような三別抄の危機意識と決然としている情勢判断と覺悟を理解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

## 一。請胡騎数万兵事

これについて、リュヨンチョルは請軍の主体は開京政府で、‘胡騎數万’は蒙古軍であるとしている。すなわち、開京政府が大規模の蒙古軍を引き入れた事實を意味するという<sup>41)</sup>。これに對してベサンヒョンはこれが日本軍の數万を要請したことであるという<sup>42)</sup>。文字とおりに見るとやっぱり‘豪氣’は蒙古軍であるしかないと考えられる。そうならば、リュヨンチョルの見解どおり開京政府が請軍の主体とせざるを得ない。すなわち高麗政府と連合した大規模の蒙古軍の進入が予定されている事情を伝えるものであると言える。やっぱり三別抄政府と高麗政府に對する混線から理解の混亂が惹起されたと思われる。三別抄はこのような事態が自分たちに對する危機である同時に、今後日本に對する壓迫へと移されるはずであることを予告したのである。

三別抄の對日牒狀は日本との連帶によって共同對抗するということが一次的な目標であったが、

39) 이우성, 「삼별초의 천도 항몽운동과 대일통첩」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p.185.

40) 류영철, 앞의 「『고려첩장불심조조』의 재검토」, p.171.

41) 류영철, 위의 논문, p.171.

42) ‘胡騎’の‘胡’が‘オランケ’の指稱ではなく、‘戈戟’を意味す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から‘胡騎’は‘よく武装された騎兵’を要請したことであるという。ベサンヒョン(배상현), 「삼별초의 남해항쟁」 『역사와 경계』 57, 2005, p.105.

一方では危機の際の背後避亂地の確保を模索するという意図も含ま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当時三別抄は濟州を背後基地として確保していたものの、濟州以後の背後基地として日本列島の有用性についても深い關心を持っていたはずである。

以上の内容を整理してみたいと思う。三別抄の牒狀では蒙古による高麗の服屬及びそのあいだの情勢變動と關連した簡単な狀況伝達があり、西南海上で確保した日本商人、あるいは漂流人の送還を通じて三別抄に對する友好的な關心を引っ張り出そうと思っていた。同時に金海部駐屯の三別抄軍事(20人規模)を先に派遣して今度日本に對する遣使を準備しようとしたことにも見える。珍島側ではもしか日本側が諸般の狀況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可能性を上程して、必要だったら珍島に對する現地確認も歓迎するという立場であった。しかし当時、日本朝廷は全般的に東アジア情勢に對する知識がなかったし、國際的な認識さえ欠けて牒狀文句の正確な意味についての把握さえできないまま、これを死蔵してしまった。はなはだしくは開京側の高麗政府と三別抄政府の間の仕分けさえ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だ。高麗と日本の外交的な相互關係が疏遠した時代背景が、牒狀の處理にもそのまま反映されたのである。しかし他の一方では、この三別抄の牒狀にたいする接收をきっかけにして、日本は蒙古の脅威を現實的な狀況とし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具体的な九州防衛戰に對する準備を始めたのである<sup>43)</sup>。

#### 4. 沖繩と三別抄

韓國では、2007年國立濟州博物館での沖繩特別展をきっかけに、沖繩出土のいわゆる‘癸酉銘’の瓦の三別抄との關連についての議論が興味をひいている。特に、出品された資料中には‘癸酉銘’瓦以外に三別抄の據点であった珍島龍藏城出土のものと非常にそっくり似ている蓮花文瓦當が含まれているからである。

元々沖繩出土の高麗係瓦は、9種類32形式に至る非常に多様な様態を見せている<sup>44)</sup>。その中で

43) 朝廷で三別抄の牒狀に對する議論直後とも言える9月13日、幕府から九州に領地を持っている御家人たちへ自信が自らいくか、代官を急いで送るように命令し、翌年文永9年(1272)正月には九州の御家人をして沿岸を警備するように守護に命じていた。これについては、ナンギハック(남기학), 「중세 일본의 외교와 전쟁」 『동양사학연구』 80, 2002, p.205 參考。

44) スマクセ4種、アンマクセ10種、スキ2種、アンキ瓦5種、有段式スキワ5種、ソカレ瓦1種、鬼面瓦1種、マルキ1種などがそれである。これら高麗系の瓦沖繩に到來した高麗匠人によって、はじめて作られた以後技術的な繼承によってなされたことであろう(上原 靜, 「오키나와제도의 고려계 기와」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p.212 参照)。

特別に‘癸酉年高麗瓦匠造’の名文瓦は製作者の身元及び製作時期を明らかにした紀年が入っているので早くから注目されてきた。5百年高麗歴史の中でこの癸酉年が具体的にどの年代をさしているかについては、1153年、1273年、1333年、1393年などが提示されたが、その間の議論を通じて大体に高麗元宗14年(1273)と朝鮮太祖2年(1393)の二つの説が主に論難の対象になってきた<sup>45)</sup>。

まず、1273年説は浦添城を根據にして、中山に強大な勢力を形成したのが琉球王國の英祖王の治世という判断によるものである<sup>46)</sup>。ここに關口廣次は癸酉年名文瓦と14世紀全般の勝連城 本丸敷地で出土した古瓦との技術上の連続性ないし継勝性を考慮する観点から英祖王の1273年説を支持しており<sup>47)</sup>、大川清もやはり1273年製作のこの瓦が琉球王國において瓦製作の始めという観点を強調した事がある<sup>48)</sup>。

以上のような1273年説に對して、1393年説は『高麗史』に昌王元年(1389)に初めて琉球・高麗の間の交渉の記録が登場しているという点、『朝鮮王朝實錄』に見える琉球王の高麗への亡命など高麗末・朝鮮初において兩國交渉を重視して、問題の癸酉年が1393年という立場を取った<sup>49)</sup>。西谷正は九州大學所藏のまた他の癸酉銘及び‘大天’名文資料を紹介する一方、瓦の年代については1393年説に傾いているが、しかしその以前に遡及できる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sup>50)</sup>。

一方、癸卯年高麗瓦に對する日本での多様な年代観に比べて、国内ではイヒョング<sup>51)</sup>、チョイギョソンがこの癸卯年高麗瓦を三別抄と連結して1273年説を強調したように、ほとんど1273年説が大きい流れ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は特記する点である。1273年は高麗元宗14年にあたり、これは濟州島の缸坡頭里を據点にした三別抄が麗元連合軍によって完全鎮壓された年である。すなわち、連合軍に追いかけられた濟州三別抄の一部が濟州を脱出、国内沿岸あるいは海外へ逃げた可能性を上

45) 1153年の説は、田邊泰・巖谷不二、『琉球建築』、1935、p.49；新城徳祐『琉球歴史年表』1960などによって行われてきたが、最近ほぼ議論されていない。1333年の説は考古學的遺物と關係などによって、その可能性が完全に排除されていない。

46) 松本雅明、『沖繩の歴史と文化-國家の成立を中心として』、近藤出版社、1971、p.89。

47) 關口廣次、「沖繩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とその間の事情-勝連城本丸跡出土古瓦を中心として-」『考古學雜誌』62-3、1976。

48) 大川 清、「琉球古瓦調査抄報」琉球政府文化財保護委員會『文化財要覽』1962年版、1962、pp.115-120)。

49) 三島 格、「琉球の高麗瓦など」『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攷』、1980、pp.789-795。

50) 西谷 正、「高麗・朝鮮 兩王朝と琉球の交流-その考古學的的研究序説」『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26、九州大、1981。この論文は筆者が全文を翻譯して忠清道文化財研究院、『금강고고』4、2007に掲載した。

51) “おそらくこの時期に濟州道で連合軍に抗拒していた三別抄とその家率たちは琉球の方に避難し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この際、渡來した高麗人たちが琉球の都城造營事業似も參加して建築と製瓦に従事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이형구, 앞의 논문, p.531)。

程することができるし、その場合沖繩琉球王朝への歸附も十分に可能性あるという。

このような國內の年代觀からみると、濟州博物館の特別展に出品された資料中のウラソエ城の蓮花文樺膜の瓦は龍藏城から出土された樺膜の瓦と非常に似ているという点で特別な關心を引き起こした。銀杏を連想させる9葉の蓮花の葉っぱが中心文様として展開され、中央には鋭くない子房があるが、子房と蓮花の間に突線帯の枠を取り囲んであった。9葉の蓮花の外には2組の禪臺を取り囲み、禪臺の間に30余文様を飾った形態である。瓦當の大きさは短縮16.0-長軸 21.0cmである<sup>52)</sup>。この高麗瓦當は國內ではじめて紹介されたが、特にそれが三別抄の據点であった珍島龍藏城の出土品とそっくりだということは、沖繩・高麗との1273年製作説と絡み合っただけでなく、大きく興味を起すようなことであった。

沖繩のウラソエ・ヨドレ出土の物を龍藏城出土の瓦當と厳密に比べてみると、両者は等しいもの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まず龍藏城のものが、8葉であることに對して沖繩瓦は蓮花が9葉という点、花びらの形態が龍藏城の物がもう少し丸い感じで、外の聯珠文も龍藏城の方がもう少し整理された感じを与えるという点等の差異が觀察されるから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二つの資料がよほど類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特記すべきである。

1271年三別抄の残余勢力が珍島から濟州へ移動する時、残余勢力の一部が濟州島ではなく第3の地域で分散した可能性も十分に上程することができる。1273年濟州島での場合は、珍島に比べてより多い数の島外分散が不可避だったのであろう。濟州島から脱走した三別抄の残余勢力は、また高麗の南、西沿岸の島嶼へ回歸して生き延びた場合もあっただろうが、一方では、より安全が保障された日本列島方面への必死的な脱走可能性も十分に上程することができる。

1274年日本が麗蒙聯合軍の侵入を受けてから以後九州では連合軍の攻撃対象になった博多(福岡)海岸一帯に20km長さの大規模の長城、いわゆる元寇防壘を構築した<sup>53)</sup>。海岸に石垣の長城を積んで敵から防禦するという九州のこのアイデアは一体どこから出たのであろうか。当時としてこのような石垣の關防施設は日本としては非常に例外のことであるからだ。ところで、1次日本遠征の直前麗元軍は、三別抄の最後據点である濟州島を陥落させた事があったが、この濟州島には海岸を取り囲んだ長城が三別抄の防禦設備として構築されていた。濟州島の沿岸を石垣でめぐらしたといういわゆる‘環海長城’の存在がそれである<sup>54)</sup>。現在、残された濟州島の環海長城遺跡は倭寇などに對する必要のため、後に補修が絶えず行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ものの、その遺跡の一部がまだ濟州島に残さ

52)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유구왕국』, 2007, pp.134-135. 寫眞史料と説明。

53) 元寇防壘の調査と研究に關する概要は、川添昭二『蒙古襲來研究史論』雄山閣, 1977に時期別に研究史が整理しており、地區別の現場重心の概況は柳田純孝など、『元寇と博多-寫眞で讀む蒙古襲來』, 西日本新聞社, 2001, pp.27-52が良い參考になる。

54) 강창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탐라문화』 11, 1991.

れている。蒙古軍の侵略を石垣の防壘によって沮止するという‘元寇屋壘’のアイデアが、濟州島沿海を石垣で取り囲んだ環海長城と同じ発想ということは、両者の連關關係を暗示することであって、同時に濟州島の三別抄勢力の一部が九州に上陸することで提供したアイデアであ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

現段階での問題の核心は、韓國と沖繩の兩地域の高麗瓦に對するより鉅範で精緻な検討を進むことであり、特に造瓦の技術的な側面について、細密に点検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龍藏城、缸坡頭里城など珍島と濟州島の抗蒙遺跡は、沖繩・高麗瓦の問題を解決する一つの重要な鍵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点でこれら遺跡の持つ意味は、單純な戰爭史あるいは民族抗爭史の次元を越え、中世東アジア交流の國際的な側面であり、したがってこれからの持続的な検討が重要であ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 おわりに

本稿は、1270年江華島で蜂起して珍島、濟州島を轉々しながら1273年まで活動した三別抄に對して、特に日本との關係を中心に考察した。

三別抄の對日關係を考察するに当たって、もっとも重要な資料は1271年珍島の三別抄が日本に送った牒狀關連史料(高麗牒狀不審條條)である。これによれば、當時の高麗は牒狀を通じて蒙古に對する服屬及びそのあいだの情勢變動と係わった簡単な狀況伝達の内容が含まれていた。三別抄は西南海における制海權を基盤に確保した日本商人と漂風人の送還を通じて三別抄に對する友好的な關心を引き出そうと思っていた。同時に金海部駐屯の三別抄軍師(20人規模)を先に派遣して、今度日本に對する遣使を準備するようにしたと考えられる。珍島側ではもし日本側が諸般の狀況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可能性を上程して、必要だったら珍島に對する現地確認も歓迎するという立場であった。しかし当時日本の朝廷は全般的に東アジア情勢に對する知識がなかったし、國際的な認識さえ欠けて牒狀文句の正確な意味についての把握さえできないまま、これを死藏させてしまった。高麗と日本の外交的な相互關係が疏遠した時代的な背景が牒狀の處理でそのまま反映されたわけである。

麗蒙聯合軍は三別抄鎮壓以後の1274年に、日本への征役に出たが、もし三別抄の蜂起がなかったらば蒙古はもっと早く、少なくとも1-2年を前もって日本への無力的な方法による壓迫に出たはずであろう。三別抄の蜂起以前の對日招誘の過程では、1266年から第1次麗元軍の日本侵入の前年である1273年まで4回にわたり、毎年使節が派遣された。その中で、1270年の一年だけが使節派遣を行わず、このような1年の休止は、三別抄の蜂起によって南部沿岸一帯が珍島據点の三別抄の繩張

に含まれていたという複雑な状況のためだったのであろう。

三別抄の對日連合戦線への追求は、基本的に麗元關係の歴史性と地理的な隣接性によって提案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同時にこのように數年の前から推進していた日本への招誘、そして對日征役を念頭に置いた軍船の準備など一連の状況が三別抄にとって日本との連帶を具体的に模索するようになるきっかけを造成したとも言えよう。

本稿では三別抄と關連して、‘癸酉年高麗瓦匠造’という字が書かれた沖縄出土の瓦が三別抄と關連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最後に言及した。瓦の癸酉年ということは1273年の可能性があり、特に龍藏城のものとそっくりな瓦當の存在は、濟州島あるいは珍島三別抄と關係がある可能性を高めている。ただ、この点が事實として確認されるためには、今後より活發な研究と幅廣い資料検討を要する。

# 蒙古の日本侵略と日本の対応

## -高麗と日本の関係に留意して-

南基鶴  
(翰林大學校)

### 端書き

13世紀末蒙古(1271年以後、國号を‘大元’に変えたが、本稿では便宜上蒙古という名称を用い、必要に応じて‘元’と称する)の日本侵略は、東アジアの諸國が連携された國際的な事件であった。この戦争は蒙古・南宋・高麗・日本各國の國內事情と各國を取り囲んだ國際情勢の流れに連動されて勃發し、それによって東アジアの國際政局は大きく揺れた。南宋は世界帝國へと背伸びしようとする蒙古によって滅亡され、蒙古に服屬した高麗は二度も日本侵略に強制動員された。日本は歴史上未曾有の對外的危機を迎えて國家の存亡をかけてその対応に苦心した。

本稿では蒙古の侵略に對して日本が外交上・軍師上に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たのかを全般的に検討してみたい。このためには、まず蒙古の意図と政策、蒙古によって動員された(あるいは動員される立場に置かれた)高麗の立場と對策、そして日本の対応方式とそれを規定していた國內事情をあまねく考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その中でも、特に本稿では高麗と日本の関係に留意してみたい。

一方、当事者である高麗は日本を招誘しようとする蒙古と日本の間でどのような立場に置かれたのか、また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たのか、高麗は日本に對してどんな態度を取り、日本は蒙古と高麗の外交交渉に對してどのように対応したのか、また蒙古の日本侵略戦争において高麗が遂行していた役割および日本は蒙古と高麗に對してどのような形で軍師行動をとり、戦争を経験しながら高麗と日本は互いに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のかが重要な問題であろう。このような問題は蒙古の日本侵略に對する日本の対応の性格は勿論、この時期の高麗と日本の関係を把握するために欠かせない分析の

對象である。

今まで韓國學界では高麗の對蒙古抗爭に力点を置く一方、元の干涉期の高麗と日本の關係にはあまり關心を傾けようとしなかった。一方、近年日本學界は蒙古の侵略に對應した國內政治史を重心にした分析が行われており、國際關係と言っても日本と大陸の關係に重点を置く傾向が強い。この時期高麗と日本の關係に對するより正確で均衡を保つ理解はこれからの課題ともいえよう。

## 1. 蒙古の日本招誘と日本の対応

### 1) 蒙古の日本招誘の展開

蒙古は第1・2次日本侵略を前後にして持續的に日本との外交交渉を試みた。事實、蒙古の日本に對する政策は外交交渉(=日本招誘)と武力解決(=日本遠征)の二つの軸から展開された。この兩面政策は狀況の展開によって比重が変わったものの、蒙古が日本に對してともに用いた基本政策でもあった。蒙古は軍師的手段なみに、いやそれに先立って可能であるならば外交的な手段で所期の目的を果たそうとしたこと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以下では、まず蒙古の對日交渉の展開を全体的に眺めて見よう。

1274年、第1次日本侵略以前の段階で蒙古は6回(1266。8：未到着、1268。1、1269。3、1269。9、1271。9、1272。5)にわたって日本招誘を試みている。1268年1月に到着した最初の蒙古國書は‘大蒙古國皇帝’が‘日本國王’あてに送る形式で、高麗が蒙古に‘來朝’したことを知らせて高麗と接した‘小國’日本が蒙古に‘通好’=朝貢することを要求しながら、末尾には“兵力を使うことを誰が好むだろうか”と軍師的脅威を表していた<sup>1)</sup>。この國書は元代の評価によれば、日本を臣下として見下ろしていないし、全く丁寧な表現を使ったことだ<sup>2)</sup>。國書の文面上、蒙古は日本との円満な交渉を望んでいたのである。

この段階で 蒙古の日本招誘の意図に對しては、南宋征伐の一環であろうということには、概ね見解が一致している。蒙古は南宋の襄陽城攻撃(1268-1273)を前後して、日本招誘を試みているし、その目的は海上で繋がっている南宋と日本の通交關係を切り、南宋を孤立させるためであった。數次の

1) 至元3年(1266) 8月 蒙古國牒案、『鎌倉遺文』13卷 9564號。

2) 國書の末尾には、‘不宣’という言葉で終りにしているが、元代の『國朝文類』(卷41、征伐、日本)によると、‘不宣’は“臣下として見なしていないことをさす”と記されており、この國書の全般について“文體が誠を盡くしており、謙讓の意思が簡冊にあふれる”と評価していた。

使者派遣にもかかわらず、日本側の回答がなかったため、蒙古のクビライは 1270年11月日本遠征準備に取り掛かって高麗へ屯田兵を派遣している<sup>3)</sup>。しかし、ちょうど高麗で起きた三別抄の反亂(1270-1273)によってその実行が不可能になり、1273年4月三別抄を平定して阻害要因がなくなると、戦列を整備し、その翌年に日本侵略に乗り出したのである<sup>4)</sup>。1274年は 5年間にわたった襄陽城攻略が成功した直後であり、なお蒙古が南宋の本土へ本格的な侵攻を行った時期に当たる。したがって第1次日本侵略は実は同年開始された南宋に対する 全面的な進攻作戦の一環であった。すなわち、日本の軍師的な征服が目的ではなく、南宋に対する総攻撃の側面作戦として南宋と日本の関係を遮断するための武力示威ないし武力偵察だったのである<sup>5)</sup>。この時の遠征軍は蒙古人・漢人(旧金朝人)・高麗人などで構成された3万数千の兵力で<sup>6)</sup>、九州・博多での戦闘の翌日の気象悪化も重なってそのまま撤退している。

第1次侵略以後、蒙古は1275年4月と1279年6月の2回にわたり、また使臣を派遣して日本招誘を試みている。蒙古は実際の軍師的脅威による日本の態度変化を期待したはずであった。1275年の使臣は、日本との戦闘後高麗へ歸還した1274年11月からわずか三月後である1275年2月に決定されており、1279年の使臣は蒙古に降伏した南宋の使臣と日本人留學僧と一緒に派遣するなど南宋との関係を利用して日本側の態度変化をはかっている。蒙古としては、使者一行が翌年1280年4月まで戻ってきて日本の態度に対する最終判断を下した後、出兵可否を決める予定であった。しかし日本側は2回の使者一行を皆斬首しており、その事實は遅れて蒙古側に知らされ、2次侵略の直接的なきっかけとして作用する<sup>7)</sup>。

1281年、蒙古の第2次日本侵略は南宋征伐が成功した後、日本側の使者處刑の消息が伝わる中で推進されたのである。遠征軍は蒙古・漢人・高麗のほかに降伏した南宋の軍師を含んで14万もなる大規模の兵力<sup>8)</sup>で1次に比べて約5倍に達しており、日本に屯田軍を設置する予定であったことを考えてみ

3) 旗田巍、『元寇-蒙古帝国の内部事情』、中央公論社、1965、pp.90-91。

4) 村井章介、「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同『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1988、pp.161-163。

5) 杉山正明、『大モンゴルの世界 陸と海の巨大帝国』、角川書店、1992、pp.249-250。石井進、『鎌倉びとの聲を聞く』、日本放送出版協会、2000、pp.56-57。

6) 『元史』、『高麗史』などの史料と数多くの関連研究は遠征軍の規模について、それぞれ異なって記述している。本稿では戦闘要員だけが約2萬6千(蒙漢軍2萬、高麗軍約6千)、高麗の船頭(梢工)・水手6,700の總3萬2千~3萬3千が動員されたとみる。そのほかに元から別に船頭・水手が供給された可能性もあるが(池内宏、『元寇の新研究』、東京、東洋文庫、1931、pp.126~127 参照)、現在としては不明である。

7) 相田二郎、『蒙古襲來の研究 増補版』、吉川弘文館、1982、pp.24-27。参照。

8) 高麗から出陣した東路軍は約4萬(高麗軍1萬、高麗の水手約1萬7千、蒙漢軍1萬數千)、中國から出陣した江南軍は10萬<sup>9)</sup>であった。特に、江南軍10萬をのせた3,500隻の大艦隊は外海に向けた艦隊として

れば、蒙古は日本(少なくともその一部の地域)に対する軍師的な征服支配まで考慮したようである<sup>9)</sup>。蒙古のクビライは1266年当時日本に對して‘不臣’の朝貢國としての國交開始を要求したが、日本の無回答によって無力行事につながり、使臣の處刑によって1279年の中國統一後には、征服による屬領化を狙ったと思われ、少なくとも君臣關係の設定を意図したと考えられる<sup>10)</sup>。

大規模な第2次日本侵略が台風によって失敗した以後にもクビライが1282年、1284-85年、1292-1293年にわたって第3次日本侵略を執拗に図っていたことはよく知られた事實である<sup>11)</sup>。しかしクビライはひたすら無力解決のみ考えたわけではなく、従来通り數回にわたり使者を送って日本の招誘をはかっていた。第2次日本侵略の後、蒙古の日本に對する使者派遣は、1283年8月の如智・王君治、1284年5月の如智・王積翁、1292年10月の高麗使者金有成・郭麟、1299年3月の禪僧一山一寧など總4回に達する。また、1292年7月、歸國する日本商船に寄託した燕公楠の牒状を含めば、蒙古は全5回の日本招誘をはかったことになる。このなかで初めの2回は日本に到着しておらず、燕公楠の牒状は無視されており、金有成は抑留され最後の一山一寧も同じく日本に抑留されたと言えよう。

クビライは第3次日本侵略の企圖が中國江南各地の反亂、ベトナムの抵抗、蒙古帝國の内部の事情によって續けて挫折し、日本を軍師的に征服・支配するという意志を捨てて外交交渉の方へ重点を置くようになったと思われる<sup>12)</sup>。1294年クビライが死亡した後も蒙古は1299年、成宗が國書を送って日本招誘を試みている。この時の蒙古國書は書式上クビライが最初に送った國書と似ており、‘先皇の遺意’を奉じて日本に對して‘通問’を要求するという趣旨であった<sup>13)</sup>。クビライが初めて意図したことと等しく成宗も日本が‘不臣’の朝貢國になる形態として円満に國交を結ぶことを希望していたのである。その一年前の1298年、成宗は日本侵略の建議に對して“今は時ではない”と棄却したが<sup>14)</sup>、實際にその後、成宗が日本侵略を準備した形跡はない。

---

は人類史上最初の超大型艦隊だったという。

- 9) 日本遠征軍の姿とか当時の戦況が詳しく描かれた『八幡愚童訓』(甲本)では、“今回は必ず勝利するの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居住に必要な生活用具と耕作するための農器具まで持ってきた”と記されている(『日本思想大系』20『寺社縁起』、岩波書店、1975、p.190)。
- 10) 中村榮孝、「十三・四世紀の東亞情勢とモンゴル襲來」、『岩波講座 日本歴史』6 中世2、1963、p.42。
- 11) 旗田巍、『元寇』、pp.147-172。参照。
- 12) 1292年8月に高麗の世子が入朝した際、クビライはその席で日本侵略についての意見を聞いていたが、今回の侵掠準備は今までとは異なっており、高麗だけに命じ、中國内部で行った痕跡はない(旗田巍、『元寇』、p.167)。中國人の反抗を警戒したわけでもあるが、侵掠の目的が少なくともこの段階に至ると、日本の來服を促すことにあったことを強く思わせる。
- 13) 序頭に‘大元皇帝致書于日本國王’、末尾に‘不宣’と書いていた(大徳3年[1299]3月、元國王書狀寫、『鎌倉遺文』第25卷 19324號)。
- 14) 『元史』卷208、「外夷列傳」日本傳、大徳2年(1298)。

このようにみる際、少なくともクビライの晩年、あるいは成宗即位後の蒙古の外交交渉に對して日本が冷情で思慮深く對處したらば、日本は‘臣事’であれ、‘不臣’であれ蒙古の朝貢國になることで済み、事實上實現する可能性が少なかった侵略の壓迫と危機感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たはずである。しかし、幕府は滅亡に至るまで外交交渉を拒否し、蒙古に對する防衛体制を固めるのみであった。日本はその被害が比較的に輕微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蒙古の使臣たちを處刑、または抑留する硬直された態度に一貫している<sup>15)</sup>。この点は結局蒙古の侵略軍を退けた安南（ベトナム中部・北部）と占城（ベトナム南部のツェンパ：Champa）が後には自らクビライ政權に入朝して從屬關係を結んだ事實<sup>16)</sup>と對照的である。その方が蒙古の絶え間のない壓迫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は勿論、政治的・經濟的にも利点が多かった<sup>17)</sup>。一応、入朝すればクビライは再び軍隊を送らなかったのである。

## 2) 高麗朝廷と三別抄の対日交渉

1266年11月、クビライは日本招誘のため、蒙古の使臣黒的を高麗に派遣し、日本への道案内を命じた<sup>18)</sup>。これに對して高麗は翌年1月宋君斐・金贊などを黒的と同行するようにしたが、彼らは巨濟島に至って風と波が激しいという理由で開京へ歸還してしまう。すると高麗國王元宗は黒的が本國に歸る途中に、宋君斐を一緒にクビライのもとへ派遣し、“對馬島の風俗が頑迷で禮儀がない”から使者の渡日が危ないこと、そして“日本は元來小邦と通交したことがなく、ただ對馬島人が時々貿易のため金州を往來するだけである”と報告した<sup>19)</sup>。しかしこれはクビライの大きいな怒りを買ってしまい、高麗は以後日本招誘の使命を直接担うことになる。1267年8月、黒的一行がクビライの命令を記した詔書を持って再び高麗へ來ると<sup>20)</sup>、宰相李藏用は黒的に書信を送って次のように言っている。

まず、旧來の中國と日本の關係に對して、日本が海を隔てて中國から遠く離れており、時々相通するがあつてもかつて中國に職貢したことはなく、中國も“來ればこれを 慰撫し、行けば關係を切った。これを得ても王化に利益がなく、捨てても皇威に損傷がない”と思つていて、日本を放置しておいた

15) アジアの諸國でも元の使臣を殺害、または抑留したり、侮辱を加えたりしていたが、日本のようにそのあとでも自らの外交手段を講じなかった國はなかったという(片倉穰、「蒙古の膨脹とアジアの抵抗」、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日本史』IV、東京大學出版會、1992、p.101)。

16) 杉山正明、『大モンゴルの世界』、pp.255-256。

17) Morris Rossabi,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218. 杉山正明、『大モンゴルの世界』、p.256。

18) 『高麗史』卷26、「元宗世家」元宗7年(1266) 11月 癸丑條。

19) 同、元宗7年(1266) 11月 丙辰條、元宗8年(1267) 1月條。

20) 同、元宗8年(1267) 8月 丙辰條。

と説明する。そして隋文帝の時の例をあげて、日本は“驕慢で名分が分からない國”なので、日本に國書を送達することに對して、“送らないことが得策である”と勸告する。結論的に李藏用は‘海遠くにある’ということを感じて蒙古に‘入朝’しない日本をほったらかしておいて、“歲月を約束して日本のやり方を見ながら、中國へ來れば内附を勧め、來なければ 度外に置いて、日本が愚かに人里離れた所で一人暮らしをするようにほったらかすこと”提言していた<sup>21)</sup>。

これに對して『高麗史』では“(李)藏用は日本が畢竟來ないと、將來我が國に障害(累)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隱密に黒的を説得し、その事(日本招誘)を中斷するようにしたこと”と評している。高麗の‘累’というのは、すなわち蒙古の日本遠征に高麗が動員されることを指しており、その事態を憂慮して國書を送らないことが得策であると黒的に力説したのであった。李藏用の日本認識は前述した元宗のそれと等しい。元宗はまた1271年3月クビライに差し上げた表文の中で“その(日本の)風俗が頑疾し、思慮深くない”<sup>22)</sup>と言っている。高麗國王の日本に對する認識は“日本はただ島夷であるのみだ”<sup>23)</sup>と話した忠烈王の言葉でも確認される。

高麗が当初からクビライに對する非協力的な態度を取った背後にこのような高麗朝廷の日本認識が介在していたことは、日本招誘のための高麗の對日交渉の姿勢から反証される。1268年1月、日本に派遣された高麗使者潘阜は九州の大宰府あてに書信を送り、高麗と日本の関係が古くから敦睦したことをあげて、その長年の友好関係のために以前蒙古使臣(黒的)の渡日を阻んだことに對して‘貴國に向けた我國の意’の反映であると強調した。引き続き、“その皇帝國書の意味は歸國と通好すること以外に決して他のことはない”と言って、蒙古國書と高麗國王書を直接日本國王に伝えることを希望していた。彼が持ち込んだ高麗國王書では蒙古皇帝の‘日本通好’要求は“貢獻の利益のためではなく、ただ無外の名前を天下に高めるためだけである”と言いながら、“一介の使臣を派遣して行って見るようにすること”を勧めている<sup>24)</sup>。

高麗國王の國書と高麗使臣の書状は、高麗と日本兩國の友好関係とそれに即した日本への思いやりを強調して、蒙古國書に對して予想される日本の疑惑と反發を撫でさして蒙古の朝貢要求に応じるように日本を説得することに力を入れていた。このような高麗の姿勢は前述した日本認識、すなわち“驕慢と名分が分からない”、あるいは“風俗が頑疾で思慮深くない”という日本=‘小夷’、‘島夷’觀と矛盾

21) 『高麗史』卷102、「列傳」15、李藏用。

22) 『高麗史』卷27、「元宗世家」元宗12年(1271) 3月條。

23) 『高麗史』卷28、「忠烈王世家」忠烈王 4年(1278) 7月 甲申條。

24) 至元五年(1268)正月日、高麗國牒狀案、『鎌倉遺文』13卷 9845號。1292年金有成が日本にもたらした高麗國書にも“貴國は遠くの海外にある。ただ使者を送り入朝だけすれば、けっしていかなる後患も無いはずであるので、よく考えてくれることを望む”とあって、基本的に同じ趣旨を表している(『高麗史』卷30、「忠烈王世家」忠烈王 18年(1292) 10月 庚寅條)。

するように見える。しかし、むしろそういう認識が根底にあったからこそ、用語使用に格別な注意をしながら日本との外交交渉に心血を傾けて臨んでいると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初めには 蒙古使臣の渡日と蒙古國書の送付をどうしても妨げようと思っていたが、クビライの命によって日本招誘の使命を担うようになった高麗は、戦争の事態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に日本に対する外交的説得ないし懐柔へ切り替えたのである。

蒙古國書は朝貢か、それとも戦争かという兩者擇一を日本に強要しており、高麗が日本に対して上でみたように蒙古の意図を説明したことは蒙古國書に對する強い反發を憂慮したからである。高麗朝廷は基本的に‘島夷’日本が柔軟な國際的な現實感覺が欠けていると考えており、その認識を土台にした高麗なりの外交的努力は、結局成果をあ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潘阜一行は大宰府の冷淡な待遇を受けたのちにそのまま歸國<sup>25)</sup>、日本側は後述するように蒙古國書が“礼を欠けた”と言って返牒さえ送らなかったのである。

蒙古の日本侵略という事態を願わなかった高麗朝廷の立場は、高麗が兵站基地として引き受ける重い負担が予想されたことによる。ところが、一応日本遠征が不可避ことになると、高麗としてはできる限り負担を少なくしようとしたり、あるいはその負担の代価として遠征軍の中での自國の地位向上に力をつくそうとした。

第1次日本侵略翌年の1275年、2次遠征に応じることができない高麗の困窮した状態を訴えた忠烈王が1278年、突然日本遠征を自ら要望して<sup>26)</sup>、1280年には軍糧・兵力・水手など軍備負担の限界を力説する一方、高麗の將軍金方慶が元師府に参加して公事を主観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要請したこと<sup>27)</sup>は、その端的な例である。第1次遠征当時、消極的に回避しようとしていた高麗が第2次遠征では元の日本遠征意志を手伝って日本を元に服従させて自國の消耗を減らそうとしたという主張があるが<sup>28)</sup>、その背後には蒙古の第2次遠征が必然視され、高麗の負担も避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状況があった<sup>29)</sup>。

なおかつこのような高麗の態度変化について、高麗で深刻な倭寇問題を元の力を借りて解決しようとしたという解釋がまだ續いているが<sup>30)</sup>、これには賛成できない。倭寇の被害がいつそう深刻になる13

25) 『高麗史』卷26、「元宗世家」元宗9年(1268) 7月 丁卯條。

26) 『高麗史』卷28、「忠烈王世家」忠烈王4年(1278) 7月 甲申條。

27)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忠烈王6年(1280) 11月 己酉條。

28) 中村榮孝、「文永・弘安兩役間の國際政局-日本・モンゴル間の高麗-」『日鮮關係史の研究』上、東京、吉川弘文館、1965、p.72 以下、川添昭二、「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上)『福岡大學總合研究所報』147、1992、p.87。

29) 1278年に忠烈王が上奏文を送った背景には、この前に命令を受けた矢の製作が1277年1月に終わった状況で、2次日本遠征を避けられないという王の判断とともに、当時高麗の南方の半分を元に歸屬させようとした洪茶丘の策動を牽制しようという意圖があった(池内宏、『元寇の新研究』、pp.200~201 参照)。

20年代以後、ひいては本格的な倭寇に展開される1350年代以後、高麗が蒙古の日本遠征を望んでいた形跡は全くないし、高麗はあくまでも和親的な立場を取って外交折衷による倭寇問題の解決をはかっていたからである。客觀的に見て、日本遠征の最大の被害者は高麗だったし、その被害は13世紀当時の倭寇とは比較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の甚だしいことだったという事実を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一方、高麗朝廷の立場が本来蒙古と日本との戦争を回避することにあつたらば、それとは反對に高麗国内では日本と連帯して蒙古への抗戦を図る動きがあつた。すなわち高麗武臣政権の中樞として對蒙古抗戦の中心であつた三別抄である。近年日本で發見された「高麗牒狀不審條條」という古文書によって知られているように、三別抄は1271年5月珍島陥落直前、日本に對して軍師援助と連帯闘いを訴えるために通牒した<sup>31)</sup>。通牒を送るに際して日本へ漂流民を護送したり、禮物を送ったりなど友好的儀禮的な措置を取っていたことも共通の敵に對する同盟關係結成の一布石だつた。朝廷が古からの友好關係をたてまえにして蒙古に入朝するように外交的な説得に力を入れたらば、珍島の三別抄政府は等しく日本との友好を表示しながら、對蒙古抗戦のための軍師同盟を模索するはずであつた。

三別抄は朝廷と等しい高麗の正統王朝として自任しており、また1260年代に倭寇と敵對した経験があつて倭寇の被害が多かつた南海地域の民間の支持を得ていた点からみると、日本を夷狄、あるいは寇賊として見なす觀念から脱皮したとは考えられない。たぶん三別抄は對蒙古連帯闘争を展開するに至つては、有用な‘蛮夷として荒くて、倭寇として海戦に上手な’國家として日本を期待し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しかし日本では高麗政府と三別抄をまともに區別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まま、高麗と蒙古を同じ敵として見做す雰囲気<sup>32)</sup>が支配的であつた。三別抄の通牒に對する日本の對応は確認されていないが、おそらく政府当局者はこれを無視したはずだ。これは、また一つの健全な兩國關係の發展の可能性が喪失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

蒙古の日本侵略以前に外交的解決をはかつた朝廷の試みであれ、反對の軍師的の同盟を模索した三別抄の試みであれ、日本の對応によっては、高麗と日本の中に新しい關係が形成され、今後の東アジアの中で兩國關係が相當に進展されたはずであるということは想像し難くない。しかし日本は高麗朝廷の説得に臨むほど柔軟な國際的な感覺を持たず、また三別抄とともに連帯闘争を展開するほど高麗の國內事情を把握していなかつたし、積極的な防禦戰略を立てる能力も欠けていた。

30) 川添昭二、「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上)、p.87.

31) 石井正敏、「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三別抄の日本通交史料の紹介—」『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12、1978、村井章介、「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pp.164~166.

32) 文永8年(1271) 9月 15日 祈願文、『鎌倉遺文』第14卷 10880號.

### 3) 日本の対応

日本は蒙古が二度にわたる侵略を前後して、方法を変えながら粘り強く試みていた外交交渉をすべて無視し、戦争の事態を避けるための高麗の勧誘と説得にも一体の外交的対応をしていなかった。蒙古への連帯闘争を訴える三別抄の通牒に対しても黙黙不答であった。日本は外交上、‘無対応’に一貫したわけである。その背後にはどんな国内事情があったのだろうか。

日本国内では 蒙古という強大な勢力と大陸での侵略戦争に対して少なくとも蒙古國書が到来した当時には大体認知していた。それは 蒙古國書が渡来すると、公家・武家がみせてくれた戸惑いと危機感を通じて伺うことができる。“この事は國家の珍事であり、また同時に大事なことである。万人が驚歎するしかない”<sup>33)</sup>とか、“これ(牒状)を見て公家と武家が大きく驚いて返牒を送るかどうか、牒使を斬首するかしないか、諸道の意見書と公卿の僉議がまちまちであった”<sup>34)</sup>という言葉に端的に現われている。民間でも“当時、天下無双の驚きべきことは、ただこの事だけだ”<sup>35)</sup>と衝撃的な事として受け入れていた。10世紀以後、長年にわたり周辺國家と國交を結ばず、國際的な緊張状態に置かれたことがほとんどなかった日本としては外交的でも軍師的でも國家存亡の危機に對處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しい状況に直面したのである。

鎌倉幕府は九州の大宰府から送った蒙古國書を高麗國書とともに京都の朝廷の後嵯峨上皇にさしあげるとともに同時に、1268年2月蒙古に對する警戒令を西國地方の御家人らに下している<sup>36)</sup>。ここに原則上朝廷が外交權を掌握し、對外的に國王[天皇]として日本を代表していたこと、そして幕府が日本國の守護を本來的な職務の軍師權門<sup>37)</sup>として警戒態勢を取り揃えていたことを伺うことができる。幕府は警戒令で、“蒙古人が凶心を抱いて本朝の様子を伺おうと牒使を送ったのである”<sup>38)</sup>と言っている。これに對して、幕府が始めから蒙古國書の到来を侵略の 前兆として受け入れたという見解<sup>39)</sup>もあるが、このような場合においては、当然はかるべき警戒態勢として見なした方が適當であろう。

一方、蒙古國書に初めて接した公家貴族らは後嵯峨上皇が駐在する院評定で‘返牒の有無’をめぐ

33) 『深心院關白記』文永5年(1268) 2月 8日條(『大日本古記録 深心院關白記』、岩波書店、1996)。

34) 『八幡遇童訓』、『伏敵編』卷1、p.15。

35) 至元5年(1268) 正月日 高麗國牒狀案、『鎌倉遺文』第13卷 9845號。

36) 龍肅、『蒙古襲來』、至文堂、1959、pp.27-31。

37) 黒田俊雄、「中世の國家と天皇」、『岩波講座 日本歴史』6 中世2、1963 (同、『日本中世の國家と宗教』、岩波書店、1975、収録)。

38) 文永5年(1268) 2月 27日 關東御教書、「追加法」436(佐藤進一池内義資編、『中世法制史料集』第1卷、岩波書店、1955、p.227)。

39) 川添昭二、『蒙古襲來研究史論』、雄山閣出版、1977、p.27。

る議論を繰り返したあげくに、“蒙古國書が礼を欠ており回答しない”<sup>40)</sup>と決めた。ところで、このような朝廷の方針は、1269年9月第4回の使臣が来たことをきっかけに変わる。朝廷は今度は返牒を送る事にしたが、その趣旨は従來の中國との通好が中絶されていたので蒙古の通好要求に応じにくいということとともに、蒙古の軍師的脅威に對して、その不義を訴えるということだった<sup>41)</sup>。菅原長成が基礎した文永7年(1270)正月日付けの「贈蒙古國中書省牒」は日本國太政官から蒙古の中書省あてに送る形式で、“歸國とはかつて人物の交通がなかったので、本朝にどうして好悪があるのか。由緒を振ふり返かえず、凶器を使おうとするに和風がまた吹いても疑氷が相変らずあつい。どうして帝徳仁義の境地を称しながら民庶殺傷の根源を開こうとするのか”<sup>42)</sup>という道義的批判の色彩を帯びたこともそのためであった。朝廷はこのような返牒を作成して幕府に送ったが、幕府はこれを抑留して送らなかつた。ここで朝廷はどのように返牒を送ろうとし、幕府はどのようにそれを抑留したのかが検討対象になる。

朝廷の‘返牒’は實はどうしても、蒙古との戦争を回避しようとする公家側の意図の發露であった。1271年9月第5回の使者趙良弼が日本に來て回答を要求しながら、“來る11月を期限に相変らず回答がなければ、兵船を送る”という最後通牒を發した際、朝廷側は“事態が大変急になった。ことが終局に向かっているので歎息するに値する”と荒てて幕府が抑留したこの前の返牒の下書きを若干修正して急いで送ろうとしていた<sup>43)</sup>。1269年末朝廷が返牒を送る事にしたことも同年2月、對馬島に到着した第3回の使者たちと島民との衝突<sup>44)</sup>、その際に捕えて連れて行った島民2人を送還しながら回答を要求するなど、蒙古の重ねた‘尋問’<sup>45)</sup>によって對外的な危機意識が高くなったからであった<sup>46)</sup>。朝廷は蒙古の通互要求は婉曲に斷りながらも、戦争事態を事前に阻むため外交的手段を講じたのであった。

40) 『深心院關白記』文永5年(1268) 2月 8日、10日、14日、17日、19日、25日、26日條 吳『鎮西要略』文永5年條、『伏敵編』卷1、p.31.

41) 蒙古來使記録、『鎌倉遺文』第14卷 10380號.

42) 贈蒙古國中書省牒、『本朝文集』67、『伏敵編』卷1、p.39.

43) 『吉續記』文永8年(1271) 10月 24日條.

44) 『五代帝王物語』龜山、『新校 群書類從』第2卷.

45) 『師守記』貞治6年(1367) 5月 9日條、『史料纂集 師守記』第9.

46) 最近張東翼は『異國出契』(1680年前後成立)に収録されている‘大蒙古國中書省牒’と‘高麗國慶尙晋安東道按察使牒’を學會にはじめて紹介した(「一二六九年「大蒙古國」中書省の牒と日本側の對應」、『史學雜誌』114-8、2005)。前者は蒙古國中書省が日本國王あてに送った至元6年(1269)6月の牒狀であり、後者は高麗慶尙道按察使が大宰府守護所あてに送った至元6年8月の牒狀で、ともに1269年9月日本へ到着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それによると、蒙古の中書省は對馬島民2人を送還しながら、翌年春までに期間を限定して日本の臣屬を要求し、これに応じなかつたらば、武力行使を行うという意志を明確にしていた(同、pp.66-69)。張東翼の指摘とおり、この牒狀は最初の蒙古國書に比べてより具体的であり、なお脅迫性も強いものである。中書省の牒狀は趙良弼の最後通牒とともに朝廷の返牒が危機意識の産物として戦争を回避しようとする意圖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伺わせる。

朝廷はこれと同時に、高麗に対しても「大宰府守護所牒」を送ろうとしたが、そこではこの前の使臣と對馬島民との衝突事件に對して、むしろ丁寧に謝って使行の難しさに同情を示して食糧を提供しようとするなど、非常に宥和的である態度をとっていた<sup>47)</sup>。日本國內でこの返牒を‘和親’するという意味で受け入れたこと<sup>48)</sup>は單純な誤伝ではなく、この返牒が外交的・平和的な問題解決を志向したことに起因する。要するに朝廷側は蒙古・高麗との外交交渉を通じて戦争を回避しようとしたことであり、返牒に對する蒙古側の反応を察しようとしたことに見える。

そうすると、幕府はどうして朝廷がおくろうとした返牒を抑留したのであろうか。朝廷の返牒方針に對する幕府の措置に對しては、その事情を説明しないまま結局のところ、“(蒙古)牒狀の体が無礼であるので、返牒する必要がない”と言って、使者をそのまま返したと伝わる<sup>49)</sup>。ここで注目すべきことは、幕府が‘牒狀の体’を問題視している点である。これを伝統的な國際意識や慣習による態度<sup>50)</sup>として見ることは、そのような意識の張本である朝廷が返牒を選んだことを考慮すれば、説得力がない。また、軍師・警察を担当する政權としての‘武斷的・劃一的’な態度<sup>51)</sup>の反映であると見ることは、幕府の狀況認識を度外視する武人体質論的な評価に近い。その他に当時、南宋側からの情報や民族主義的である中國の禪僧らの宗教思想の影響を指摘する見解<sup>52)</sup>もあるが、朝廷側もそういう情報と思想を接した痕跡がある<sup>53)</sup>。したがってこの問題は日本の政治体制、すなわち朝廷と幕府の關係及び幕府權力の性格を通して接近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蒙古國書はあくまでも、‘日本國王’である天皇へ送られたものであり、幕府がそれを朝廷に上奏して重大な國際事件に對する對応を(たとえ形式的だと言っても)幕府に任せたことは、朝廷(天皇)の存在意義が對外的な危機の中でも確認され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朝廷の‘返牒’は國家統治權者としての当たり前前権限の發動であり、國家の重大事を自ら担当しようとする意識の反映であったと言えよう。結果的には幕府によって抑留されたが、朝廷が幕府の意思とは別に、いやそれに反してまで‘返牒’を送ろうとしたことは、對外問題をきっかけに朝廷の‘爲政者意識’が高まっ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った<sup>54)</sup>。

47) 贈高麗國牒、『本朝文集』67、『伏敵編』卷1、pp.39-40.

48) 朝廷の‘返牒’について、“今回は返牒を送り、また和親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文永7年[1270]5月26日、東巖慧安敬白文、『鎌倉遺文』第14卷、10630號)という巷説が流布されたことも、基本的には‘返牒’が外交的・平和的な指向性を持っていたことに一原因があるだろう。

49) 『五代帝王物語』龜山.

50) 田中建夫、「東アジア通交關係の形成」、『岩波講座 世界歴史』9、岩波書店、1970、p.543.

51) 村井章介、「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p.168.

52) 川添昭二、『中世九州の政治と文化』、文獻出版、1981、pp.110-111.

53) 京都の正傳禪寺住持である東巖慧安は“蒙古國は性情が驕慢であります。(中略)謹んで敵國の元來の意圖を考えてみるに、日本の軍兵を退き、諸國の國土を國土を降伏させようとするのであります”という意見書を朝廷關係者にみえる人物へ提出していた(東巖慧安意見狀、『鎌倉遺文』第14卷 10559號).

對外的な危機下での朝廷のこのような動きは、その方針がいずれにせよ外交面で幕府の主導権が制約されることになった。なおかつ、もし返牒をきっかけに蒙古の使臣と牒狀が渡來して朝廷と蒙古の接触が活発になるようになると、幕府が孤立化される恐れもああった。そのため幕府は朝廷の外交権の發動を抑制し、“牒狀が無礼なので、返牒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大義名分に即した強硬な政策を選んだのではないかと思う。この名分論的な強硬策は朝廷の‘返牒’、すなわち‘外交権の發動’を抑制するための正当性を提供し、軍師權門である幕府が武力による國家守護を表面的に立てて外交上の主導権を確保することに有効だったのであろう。蒙古に對する軍師的對應を要求する立場の論理的な歸結が、“我が國の大小のことは皆武家に賦課してください。武家は朝家の第一の重宝です”<sup>55)</sup>という言説のように、これはつまり幕府による國政の主導であつた。

一方、当時幕府權力の最高實力者が北條氏の家督である北條時宗であつたという事實もこの強硬策の背景の一つとして注目される。もう時宗の生父である北條時頼の時代から幕府の實質的な最高權力は‘執權’という公職にあつたのではなく、北條氏の本家の長である‘得宗’へ移されていた<sup>56)</sup>。しかし、北條氏は本來幕府の御家人と同列の身分あり、得宗は將軍が持っていた御家人支配の正統性が欠けていた<sup>57)</sup>。したがって外國からの脅威から軍師的な對決を避けようとしたら、支配の正統性が欠けている自分の權力に對する對抗勢力の批判に直面するようになることを憂慮したはずである。ここで幕府の得宗權力は大義名分に即した強固な態度を取らざるを得なかつたと思われる。

幕府が日本と蒙古との交渉自体を拒否し、‘牒狀の無礼’を名目にして蒙古に對する戰爭不辭という強硬策を選んだのは、以上のような日本國內の政治的な背景があつたのである。第1次侵略以後、1275年9月、同年4月に到着した蒙古の使臣を幕府が斬首したことも同じこと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幕府の使臣斬首は、“永遠に和親しないで、通問しない<sup>58)</sup>”、あるいは“日本を狙うことを阻んで、侵略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sup>59)</sup>”という名分からであつた。この措置は幕府の得宗權力が蒙古に對する斷固

54) 朝廷に對する幕府の力の優位を決定させた1221年「承久の亂」以後、特に1246年宮騒動をきっかけにして朝廷は幕府の強い干涉のもとにおかれるようになり、その結果誕生したことが後嵯峨上皇が主宰する院評定制であつた。その後、後嵯峨院政下の朝廷は内外の重大事に關して幕府の意向にしたがつたと指摘されている(上横手雅敏、「鎌倉幕府と公家政權」、岩波講座『日本歴史5 中世1』、岩波書店、1975、pp. 58-60。なお網野善彦、『蒙古襲來』、小學館、1974、pp.48-51)。しかし、蒙古國書の到來という元來なかつた新しい沙汰に直面して朝廷がそれなりに主體的な動きを見せたのは注目される。

55) 東巖慧安意見狀、『鎌倉遺文』第14卷 10559號。

56) 村井章介、「執權政治の變質」、『日本史研究』261、1984、p.17。

57) 幕府體制の頂点である將軍になるためには身分的な尊貴性を整え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が、北條氏は小國伊豆の在廳官人の出身で低い身分であつた(同上、pp.27-28)。

58) 『關東評定傳』建治1年(1275)、『群書類從』第4輯 補任部。

59) 『鎌倉年代記裏書』建治1年(1275)、『増補 續史料大成』51。

たる態度を国内外に見せ付けたことである<sup>60</sup>)と同時に、蒙古との外交交渉の自体が必要ではないという幕府の意思表示でもあった。朝廷がこの時の牒状の上奏を受け取ったことはそれから一月も過ぎた後のことであった<sup>61</sup>)。1279年6月、滅亡した南宋の昔の臣下出身の牒使が到着した時にも、幕府は形式上の牒状を朝廷に常在したものの、朝廷の評定を待たずにやはり幕府獨断で處刑した<sup>62</sup>)。朝廷の外交権は、この段階で事実上認められず、初めから外交的な対応の機会さえ与えられなかったのである。朝廷は幕府の獨断的な措置に對して無力であって、その後‘反牒不可’という先例によって幕府の政策に順応するしか他の方途はなかった<sup>63</sup>)。

## 2. 蒙古の日本侵略と高麗・日本

### 1) 高麗の軍師戦略的な位置

蒙古の日本侵略は、日本から一番近くに接した國家であると同時に蒙古に服屬した高麗の軍師基地化をもたらした。高麗は蒙古の日本遠征のための戦艦、軍糧、兵力などを普及しなければならない兵站基地として轉落するしかなかった。高麗が憂慮した事態が現實になっておびただしい負担をもたらしたことは高麗の諸史料から確認される。

1271年1月、蒙古は日本へ使者趙良弼を派遣する段階から蒙古の軍隊を金州(金海)に駐屯させながら、必要な食糧を供給し、戦艦を金州に集結させることを命じていた<sup>64</sup>)。また同年3月には屯田経略司を鳳州(黃海道鳳山)に設置して軍隊を駐屯させており、農牛3,000頭、屯田に必要な農具・種子・秣糧及び秋までの軍糧を普及することを要求した<sup>65</sup>)。屯田軍の設置に引き續き1272年2月には、戦艦兵糧都監が設置され<sup>66</sup>)、高麗は本格的な普及基地体制下に置かれるようになる。1273年4月耽羅の三別

60) 江戸時代の『大日本史贊藪』では、時宗はこの時の元の使者を斬首して日本の‘威武’を宣揚し、外國へ恐ろしさを与えたことは良いことであつたと評価している(同、卷4、日本國粹全書刊行會、1916、p.293)。

61) 『師守記』貞治 1年(1362) 5月 9日條、『増補 續史料大成』51。

62) 『北條九代記』下、弘安2年(1279)條、『續群書類從』第29輯上、『勤仲記』弘安2年 7月 29日條、『増補史料大成』34。相田二郎、『蒙古襲來の研究 増補版』、pp.26-27。

63) 1292年7月、高麗の使者金有成がもたらした高麗國書について朝廷の後深草上皇は、“實は高麗國王の文體が無礼で奇怪する”という反応みせ、その對策として“以前に決定した趣旨と違いない”という前例を重視する段階にとどまっていた(正應 5年(1292) 12月 10日 後深草上皇書狀、『鎌倉遺文』第23卷 18066號)。

64) 『高麗史』卷27、「元宗世家」元宗12年(1271) 1月 己卯條。

65) 同3月 丙寅條。

抄が滅亡した翌年高麗は、1274年1月から5月まで諸道で造船人員30,500人を徴發して大船300隻を含んだ總900隻を急速に建造・完工した<sup>67)</sup>。第1次遠征に動員された高麗軍は約6,000人、船頭・水夫などは6,700人、高麗がその間負担していた軍糧米は糧穀が‘乏絶’<sup>68)</sup>になるほどであった。この戦争における高麗の負担は、1275年1月、“もしまだ日本征伐を起こしたら、そこに所用される戦艦と軍糧を供給する能力を小邦は持っていません。結局、國が破滅されて消え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sup>69)</sup>とクビライに訴えた忠烈王の言説でも端的に現われている。

第2次日本遠征による普及基地として高麗の負担は1次よりもっと重かったのである。高麗は戦艦900隻、軍師10,000人、船頭・水夫17,000人、軍糧最小10万石以上<sup>70)</sup>を供給した。ここに馬の飼料、武器、各種兵站品まで調達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高麗は二度にわたる遠征による戦艦の建造で河川と海辺の材木さえもほとんど伐採し、もうこれ以上戦艦の建造が不可能な状態であった<sup>71)</sup>。“十八年辛巳年(1281)、官軍が日本を征伐する時すべての戦艦・食糧を含め軍卒と船頭・水夫、その他一体の物資に至るまであらゆる力をつくして供給した<sup>72)</sup>”という忠烈王の話は、政治的な言辭であることを考慮しても高麗が担っていた負担の重さを十分に理解できる。

その後もクビライの第3次日本遠征の祈禱があるたびに高麗は戦艦の修理・建造、軍糧の準備、兵器の製作、軍士と水夫の徴發などに對する要求を受けたのは勿論のことである<sup>73)</sup>。蒙古は高麗以外に中國江南と東京(遼陽)にも普及基地としての役目を命じたが、1285年11月江南の江淮米100万石を高麗の合浦(馬山)まで運んで保存するように命じたこと<sup>74)</sup>に現われるように、高麗こそ日本遠征のため

66) 『東國通鑑』卷36、元宗13年(1272) 2月條。

67) 『高麗史』卷27、「元宗世家」元宗15年(1274) 1月條、同6月 辛酉條。

68) 第1次遠征軍に對して高麗が供給した軍糧は史料で確認されない。ただ數年にわたった遠征準備期間に高麗が供給した軍糧は“庚午年(1270)から今まで5年の間に軍糧を供給して來たので、もう糧穀が乏絶されてことは長くなる”という言葉のように莫大なものであった。高麗は1274年2月、“近年に軍人、軍馬の食糧と史料は到底用意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官員らと民たちからおさめたものは數え切れない”と言いながら、食糧供給の難しさを訴えたが、これに對して元は同年4月、米2万石を送って軍糧に補うようにして糧穀値段として絹を送るようにした(『高麗史』卷27、「元宗世家」元宗15年(1274)2月甲子條、同4月甲子條)。太田弘毅の指摘どおり、ここで言う2万石が実際に漕運されたといっても、結局糧食の準備は高麗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はずである(太田弘毅、『蒙古襲來-その軍事史的研究-』、錦正社、1997、p.91)。

69) 『高麗史』卷28、「忠烈王世家」忠烈王1年(1275) 1月 庚辰條。

70) 第2次遠征の当時、高麗が供給した軍糧については10萬石(『元史』「世祖本紀」)、11萬石(『高麗史』「忠烈王世家」)、あるいは12萬3千5百60餘石(『東國通鑑』忠烈王8年)など諸史料に異なって記されている。

71) 『高麗史』卷31、「忠烈王世家」忠烈王20年(1294) 1月 癸酉條。

72) 同、忠烈王23年(1295) 10月 丙申條。

73)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忠烈王9年(1283) 3月 庚午條、同卷30、「忠烈王世家」忠烈王11年(1285) 12月 辛丑條、同12月 甲寅條・丁卯條、『東國通鑑』卷38、忠烈王9年(1283) 3月條。

74) 『元史』卷13、「世祖本紀」至元22年(1285)11月癸巳條。また、元はおそらくクビライ死亡直前である1293

の第一の兵站基地だったのである。

高麗は蒙古の日本遠征のための普及基地ないし兵站基地としての役目を遂行するようになった一方、反対に日本からの侵攻に対する防御基地としての役目も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すでに蒙古の日本遠征以前から高麗と日本の間に造成された軍師的緊張の中で高麗は日本からの侵攻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1269年5月、慶尙道按察使が“濟州島人が日本に漂流してから戻ってきて言うのは、日本が兵船を取り揃えて、我らを侵犯しようとしている”と報告すると、高麗朝廷は三別抄を派遣して沿海を驚備する一方、築城と糧食の備蓄を命じて日本に近い彰善縣(南海)にあった國史を珍島へ移すようにしている<sup>75)</sup>。日本側の蒙古侵入に対する警戒態勢が誤解されて伝わったものであるが、高麗としては三ヶ月前に黒の一行為對馬島民と衝突して島民2人を捕らえて歸還した事件もあって、日本の軍師動向を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はずである。それで戦争が実際に勃發した以後には、日本の侵攻に備えてもっと防備を強化することが必然的であった。

第1次日本遠征直後、合浦には蒙古軍で構成された鎮戍軍が設置され、1278年高麗軍に取り替えられるまで駐屯した。たぶん憂慮されていた日本の侵攻に備えた措置であろう<sup>76)</sup>。1280年5月、倭賊が固城漆浦及び合浦に侵入して漁夫を捕え連れ去った事件が発生すると、高麗は慶尙道と全羅道に軍師を送って守備する一方、蒙古に大將軍を派遣してこの事件を報告している<sup>77)</sup>。

蒙古はこの際、高麗の軍卒を利用して倭賊を防御することを命じたが、日本遠征に際しては1281年6月に本國から騎兵300人を送って合浦を守るようにした<sup>78)</sup>。遠征が失敗した直後の1281年10月、蒙古は忠烈王と征東行省の要請を受け入れ、‘日本と見合わせる要衝’である慶尙道金州・合浦等地と全羅道に鎮辺萬戶府を設置した<sup>79)</sup>。翌年1282年1月には、日本の高麗沿岸への侵寇事件についての忠烈王の要請を受け入れ、蒙古は本國から軍師500人を金州に派遣することを決定した<sup>80)</sup>。まもなく2月、

年、日本征伐のために江南米10萬石を運搬して江華島に備蓄しておいたのである(『高麗史』卷31、「忠烈王世家」忠烈王20年(1294)12月庚寅條)。

75) 『高麗史』卷26、「元宗世家」元宗10年(1269)5月丙午條。

76) 1278年7月、高麗の忠烈王は“合浦鎮戍軍は残しておいて、倭寇に備えてください”と願ったが、クビライは“わざわざ残す必要があるのか。君の民たちに害にならないのか。君が自分の國の國人をして鎮戍するようにしなさい。倭寇に恐ろしがる必要はない”と返事している(『高麗史』卷28、「忠烈王世家」忠烈王4年(1278)7月戊戌條)。後述する2次遠征直後の動向を一緒に考慮すれば、蒙古軍はたぶん1次遠征直後、要害地域である合浦に數年間駐屯して日本の侵攻に備えていたことであると推定される。

77)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忠烈王6年(1280)5月癸卯條。

78) 同、忠烈王7年(1281)6月丙戌條。

79) 『元史』卷99、「兵志」、鎮戍條に“〔至元十八年(1281)〕十月、高麗王并行省皆言、金州、合浦、固城、全羅道等處、沿海上下、與日本正當衝要、宜設立鎮邊萬戶府屯鎮、從之。”とみえる。

80) 『元史』卷208、「外夷列傳」高麗傳、至元19年(1282)正月條。『元高麗記事』には、“〔至元19年正月1

蒙古は蒙・漢軍1,400人を送り、耽羅島の防備を強化しており<sup>81)</sup>、4月には軍師340人を送って合浦を守るようにし、60人は王京を守るようにして‘不意の変故(不慮)’に備えることにした<sup>82)</sup>。このような一連の措置は、蒙古と高麗が日本からの逆攻に備えて金州・合浦などを含めた高麗の要害と首都開京、そして日本と中國の江南地方を連結する海上の要衝である耽羅島の防備を強化していたことの証である。蒙古本國も日本の仕返しを憂慮して1281年11月、日本遠征から戻ってきた軍師らをして慶元(寧波)・上海・澈浦など江南地方の沿海を鎮戍させた<sup>83)</sup>。

1・2次日本遠征の發進基地であった高麗の合浦は、行政上金州の管區の中にある要害地であった<sup>84)</sup>。金州は遅くとも11世紀中葉から1266年廢止される前まで、日本人の貿易商人を応待する館舎があるほど、高麗で日本人との交流が行われる對日交渉の據点であった<sup>85)</sup>。金州が平和の時には、日本人の海上往來がもっとも活發な隣接地域<sup>86)</sup>であったので、戦時には日本との軍事的な對峙が一番尖鋭な地域になりかねなかった。蒙古と高麗が攻守兩面の軍師要害として合浦と金州を重視した理由はここにあったのである。

2次遠征失敗直後に慶尙道の合浦等地と全羅道に設置された鎮辺万户府は、“日本を控制する”<sup>87)</sup>ことが主要な目標であった。1301年7月、蒙古は高麗の要請に従い前年に設置された耽羅總管府を廢止して高麗に隸屬させ万户府を設置するに至る<sup>88)</sup>。これら三つの所の万户府は、蒙古君の一時的な駐屯<sup>89)</sup>を除いて平時には高麗軍に充当されて征東行省の管轄下に置かれた。本來第2次日本遠征

5日] 蒙古軍100名で高麗の金州を鎮戍した”と見える。

81) 『東國通鑑』卷38、忠烈王8年(1282)2月條. すでに、蒙古は遠征失敗直後である1281年9月、耽羅の鎮戍軍を増員して高麗にその戦具を供給するように命じた(『元史』卷11、「世祖本紀」至元18年(1281)9月癸酉條)。当時、耽羅は蒙古の直轄地でダルハチ總管府の支配下に置いていた。

82)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忠烈王8년(1282)4月 戊戌條。

83) 『元史』卷99、「兵志」. 鎮戍、〔至元〕十八年(1281)十一月條。

84) 『高麗史』卷57、志11、地理2、慶尙道金州條によると、金州には義安郡・咸安郡の2郡と漆園縣・熊神縣・合浦縣の3縣が屬していた。また、『新增東國輿地勝覽』卷32の「昌原都護府」には合浦の形勝に關して“合浦は大きな陣である。虎が蹲っているような、龍が蟠っているようである(合浦巨鎮、虎踞龍盤)”と記述されていた。合浦は朝鮮時代に慶尙右道兵馬節度使の本營があったところでもある。

85) 南基鶴、「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日本歴史研究』11、2000、pp.81-82。

86) 日本からの高麗漂流民の送還も日本各地→大宰府→對馬島→金州→東南海(船兵)都部署という官廳間のルートで處理されていた(山内晉次、「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歴史科學』12 2、1990、40等)。13世紀に入り、金州に倭寇が發生したこともここが對馬島をはじめとする九州地域民たちがもっとも活發に往來した地域であることを反證する。

87) 『元史』卷208、「外夷列傳」高麗傳、至元18年(1281)11月條。

88) 『高麗史』卷32、「忠烈王世家」忠烈王27年(1301)5月 庚戌條。

89) 1287年3월には合浦を守っていた蒙古の軍事たちが翻刻へ歸っていた(『高麗史』卷30、「忠烈王世家」忠烈王13年(1287)3月 庚申條)。

のため1280年8月に設置された征東行省は、遠征失敗後、何回も置廢を繰り返してからやがて防倭(=對日本防禦)機關としての役目を遂行するようになった<sup>90)</sup>。征東行省が日本遠征のための軍司令部役目をした初期には、江南軍の蒙古人總司令官が長官を担当していたが、その後には高麗國王が長官であった。

1302年遼東行省が征東行省を竝合しようと図っていた時、高麗の忠烈王は“小邦は〔元國の〕一番遠い辺疆にある重要な地域で、まだ歸順していない日本國に接しています。至元18年(1281)大軍が海を渡って出征した後、至元20年(1283)世祖皇帝の聖旨を奉じて本人が行征東省事の職を引き受けて辺面を威鎮し、現在の慶尙道合浦等地と全羅道の二つの場所の鎮辺万户府を管領してきました。そして本國(高麗)の軍官・軍人を徵發して、現在の合浦・加徳・東萊・蔚州・竹林・巨濟・角山・内礼梁などの要害地域と耽羅等地に派遣・配置し、烽燧を設置して船兵を隠しておき、日夜を問わず監視・巡察して日本國賊軍に對備する仕事を主觀してきており、今まであやまちをおか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つて日本の賊人を捕獲したことがあり、これを〔元國の〕中書省と樞密院に公文にて報告もしました”と征東行省の任務と日本に對する高麗の警備(経費)態勢の万全を強調した後、“以前のように行征東省事を担当させ東方極辺の未服屬國である日本方面に對して威鎮する仕事を專担させてくださるならば、辺關事務が大きく間違ふことはないでしょう”と上奏した<sup>91)</sup>。ここで日本に對する‘威鎮’(警戒・對備)を主任務にする軍師機關としての征東行省の存在意義をよくわか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の時高麗が併合反對の理由として表明したことが日本に對する効果的な警備であった<sup>92)</sup>という点で、蒙古の對日防禦基地としての高麗の位置がよく現われている。蒙古の政府も第3次日本遠征を計畫する一方で、いつも日本の仕返しを憂慮していたことは、1292年10月貿易のために慶元に入港した日本船から武器が発見されると、“異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恐ろしくて”、直ちに都元帥府をして海道を防備するようにした措置<sup>93)</sup>か

90) クビライの死亡をきっかけに遠征論議が中斷された後、征東行省は1299年に再設置になって高麗を管轄領域にする元の地方機關として性格が轉換され、以後元の滅亡に至るまで高麗の内政を見張る役目をしたということが一般的な見解である。これに對して、高柄翊は‘征東’自体が中止された以後にも征東行省は名義上・形式上に存在していたし、一時的に元朝の官吏を要職に任命して高麗内政に對する監視と統制を行ったこともあるが、基本的には高麗の元帝國內での1行省としての地位を確定することでその存在意義があったとみている。そして、征東行省の軍事機構としての主要任務は‘征東’から‘控制日本’、すなわち防倭に変わったという(高柄翊、「麗代征東行省의 研究」、同『東亞交渉史의 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1970、pp.222-229、pp.282-292 参照)。

91) 『高麗史』卷32、「忠烈王世家」忠烈王 28年(1302)條。

92) 上の上表では、“東京から開京までは1500餘里であり、開京から合浦まではまた1400餘里である。もし海外にすこしでも警戒することがあるならば、報告往來に千里も遠いと言っているのに、況や3千里の外になるのでどうなるでしょうか”と言っている。

93) 『元史』卷17、「世祖本紀」至元29年(1292)10月 戊子條。

ら伺うことができる。

以上のように、高麗は軍事戦略上蒙古の日本遠征のための兵站普及基地に止まらず、蒙古の対日防禦基地としての位置にも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高麗の立場(入場)では、日本遠征の負担だけではなく、対日防禦の負担まで担う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蒙古としては、自信の‘東藩’<sup>94)</sup>である高麗國をして蒙古と對峙している日本を‘威鎮’・‘控制’するようにし、高麗は日本の侵攻から自國を防衛するためでも、この役目を自ら引き取らざるを得なかった<sup>95)</sup>。

## 2) 日本の‘異國征伐’計画

高麗が日本からの侵攻を憂慮したことは決して杞憂ではなかった。以下では日本の方に視野を向けて、当時‘異國征伐’と呼ばれた高麗侵攻計畫の経過と背景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これは蒙古の侵略に對する日本の軍事的な対応の特徴をよくあらわす事例であると同時に、高麗と日本の兩國關係の展開を察するために見逃してはいけない重要な事件の一つである。

1274年10月5日、高麗の合浦を出發した第1次日本遠征軍は、對馬島・一岐島を占領して10月20日、ついに九州・博多に上陸した。日本の武士たちがこれに對して応戦を行ったが、結果は日本側の苦戦、日本軍は大宰府方面で後退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遠征軍が蒙古人・女真人・漢人・高麗人など多くの民族で構成された混成部隊でありながらも、統一的な指揮体系のもとで組織的な集団戦法を駆使し、毒を塗った短い矢と‘鐵砲’のような火薬武器まで利用して重裝備の個人戦で応戦する日本軍を敗退させたことは『八幡愚童訓』によく描かれている<sup>96)</sup>。個人騎馬戦を主とした國內戦争とは異なる大規模の對外戦争だったという点で、個別武士団を集合させておいたぐらいの日本軍の指揮体系の不一致・非効率こそ最大の弱点であった<sup>97)</sup>。

94) 1330年潤7月、高麗の忠肅王は高麗の國家を否定して元帝國の内地として作ろうとする畫策を聞いて、元國太師 右丞相に書簡を送り、“高麗國は我らの東藩である”と云って、至元3年(1266)日本を招誘した蒙古國書の文章を引用して反駁している(『高麗史』卷36、「忠肅王世家」忠肅王17年(1330) 閏7月 庚寅條)。高麗が元の‘東藩’であることは世祖クビライ以來の兩國の基本關係として、續けて認められてきたものである。

95) 1332年6月高麗の臣下たちは忠惠王の復位問題に關する上書文のなかで、“〔王が不在した状態では〕まだ歸順しない隣國の海倭の変を憂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云っている(『高麗史』卷36、「忠惠王世家」忠惠王2年(1332)6月壬辰條)。王の復位の必要性を強調するための文脈ではあるものの、高麗が變りなく日本に對する警戒態勢を維持していることを分かる。

96) 『八幡愚童訓』(甲本)、『日本思想大系』20 『寺社緣起』、pp.184-185。

97) 南基鶴、「중세 일본의 외교와 전쟁-몽골의 일본 침략을 소재로-」『東洋史學研究』80、2002、pp.214

氣象悪化も重なって翌日遠征軍が退いた後、幕府は蒙古の再侵に備えて沿岸警備をより強化した。いわゆる‘異國警固番役’を整備して、翌年1275年2月には春夏秋冬各3ヶ月ずつを守護の指揮のもとで九州各國の御家人が交代に驚備する体制を作った<sup>98)</sup>。同年4月、蒙古の使臣杜世忠一行が長門國室津に到着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幕府は5月周防・安芸兩國の御家人を長門國の警備に動員し、備後の御家人を追加させることで4ヶ國で編成して侵入に備えることにした<sup>99)</sup>。ところで、幕府はこの使者一行を8月に關東へ召還して9月7日鎌倉の瀧の口で斬首し、その後まもなく‘異國征伐’の計畫を樹立していた。この計畫は遅くとも同年11月以前には立てられたことが確認される<sup>100)</sup>。このように幕府は蒙古の再侵に備えて警備体制を整備強化していたが、使者の處刑という強硬策に引き継ぎ、‘異國’を‘征伐’するという攻勢へと旋回したのである。ここで言う‘異國’は、侵略の張本人である蒙固ではなく、侵略に動員された隣接國高麗を示す。

この計畫の概略的な内容は、翌年1276年3月頃を實行時期にして、鎮西(=九州)の軍事力を中心に動員するが、不足な場合には山陰・山陽・南海道など西國沿岸地帯の地頭御家人及び本所一円地の船頭[梶取]・首府[水手]を徴發す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sup>101)</sup>。そして実際に、1276年3月を前後した時期に九州の守護、または守護代が總責任者である大宰少二經資の指揮によって御家人・非御家人を問わず動員を督促するなど、‘征伐’の準備が進行されていた。ただ、関連史料である『北條九代記』では、これを‘警固事’の一環で把握しており<sup>102)</sup>、また幕府が實行時期に合わせて高麗に向けて出陣する者を除いた九州の武士たちに‘異國警固石築地’を築造するようこしている点<sup>103)</sup>からみると、‘異國征伐’は元來高麗に對する全面侵攻ではなく、‘異國警固’とともに推進された局地的な侵攻計畫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幕府は1276年3月、“これから1・2ヶ月は格別に異國警固を怠けてはいけない”<sup>104)</sup>と、

-215。

98) 文永12年(1275) 2月 4日 少貳經資書狀案、『鎌倉遺文』第15卷 11805号。

99) 建治元年(1275) 5月 12日 關東御教書案、『鎌倉遺文』第16卷 11910号、建治元年(1275) 5月 20日 關東御教書案、同、11913号。また、このごろ異國警固番役の方式も変更されて三ヶ月ずつ年一回から、一ヶ月ずつ年三回として変わった(建治元年(1275) 6月 5日 豊後大守護友頼泰書下、同、11923号)。

100) 『帝王編年記』卷26、九州探題。

101) 建治元年(1275) 12月 8日 關東御教書案、『鎌倉遺文』第16卷 12170号。村井章介は安藝1國から100隻を越える船舶が守護によって徴發されたという点から‘異國征伐’のための軍事動員は相当な規模であったと指摘している(村井章介、『北條時宗と蒙古襲來 時代・世界・個人を読む』、日本放送出版協會、2001、p.121-122)。

102) 『北條九代記』下 建治元年條では、“警固事に對して決めた。鎮西に有能な守護らを任命して海辺地域に派遣した。京都大番役を中止した。在京人を置いた。公家と武家が國家行事の費用を減らして儉約を行い、民庶を煩わしくないようにした。これらはすべて軍旅の準備するためのことだった”と記述されている。

103) 建治2年(1276) 3月 5日、大友頼泰書下、『鎌倉遺文』第16卷 12252号、建治2年3月11日 持運請文、同、12262号等。

‘異國征伐’を準備する一方で‘異國警固’を厳しく施行していたのである。

そうならば、なぜ幕府は‘異國警固’に止まらず、‘異國征伐’まで敢行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か。‘異國征伐’については、蒙古の日本攻略基地であると同時に兵站基地である高麗に對する反撃や仕返し攻撃という軍事戦略的な次元で理解することもできるし<sup>105)</sup>、そこに敷かれた對外態度としての高麗の弱体を狙った‘冒險的な侵略主義’<sup>106)</sup>を指摘することも可能であろう。しかしそれまで蒙古の使者たちを送り返して防衛体制に一貫してきた幕府が、突然使者の處刑と外敵への攻撃という極端な強硬策を選んだことには、それなりの國內事情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將軍と御家人の間の御恩-奉公の相互關係に即した幕府主從制の原理上、戦後御家人が恩賞地を望むことは当然の事であった。特に、1272年2月以來、九州御家人たちは過重な異國警固の負担を担っていたからその要求は当然ながら強かった。實は戦場に出陣した御家人たちの窮極的な同期は勳功の賞であり、自分の領主支配の擴大と強化にあった<sup>107)</sup>。戦争が終わってからまもない1275年6月、九州の肥後國の御家人竹崎季長が銀賞の訴訟のため、鎌倉まで行ったことはあまりにも有名な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武士が少なくなかったことは、翌年3月豊後國の御家人田原泰廣が鎌倉に直接上訴しようとしたこと<sup>108)</sup>からも伺うことができる。しかし幕府は戦後、新しく獲得した領地はなく、蒙古の再侵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であったので、特別な勳功者以外は銀賞給与を延期するしかなかった。そのため銀賞を期待していた多くの御家人らに不満が生じたのは勿論の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御家人らの不満と経済的な負担はさまざまな紛争や訴訟をもたらす原因になり、ひいては訴訟を管轄裁判する鎮西守護と御家人の間の不和が大きくなったのであろう。これは1280年12月、“近年守護と御家人が土地訴訟や刑事訴訟をおこし、そのため多數が不和しているので(鎮西警固に)氣をつけていない”<sup>109)</sup>という幕府の警告からも伺うことができる。

104) 建治2年(1276) 3月 8日 北條宗頼書狀(川添昭二、『注解 元寇防壘編年史料-異國警固番役史料の研究-』、福岡市教育委員會、1971、pp.146-147)。

105) 一例として、中村榮孝は“積極的な防衛政策として海を渡って反撃する異國征伐”計畫として理解している(同、「十三・四世紀の東亞情勢とモンゴル襲來」、p.37)。一方、幕府がモンゴルの再侵に備えるために西國を中心にする廣範圍な地域に散在する兵力を短期間に博多湾周辺に動員する必要から異國征伐を名目に西國の御家人に動員令を下したとみる見解もある(安田元久編、『古文書の語る日本史3 鎌倉』、筑摩書房、1990、p.226)。これは‘征伐’のための準備としては極めて疏略した点、または幕府の軍事力の劣勢に注目した見解として、鎌倉幕府が本当に高麗に侵攻することを思っていたと思わない。しかし現存史料は高麗侵攻準備が現地ですべて具体的に進行されていたことを伝えているから、本稿は異國征伐を單純な‘名目’であったとは見なさない立場である。

106) 村井章介、「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p.169。

107) 黒田俊雄、『庄園制社會』、日本評論社、1976、p.210。

108) 建治2年(1276) 3月 8日 北條宗頼書狀。

守護と御家人の不和は訴訟のほかにも戦功・軍忠の報告をめぐるはみ出していた。前述した竹崎季長の場合も自分の戦功を抜け落ちさせた守護に対する不満が背後にあった。‘異國警固’の独立的な勤務をめぐる御家人総領と庶子の対立も、軍忠を幕府に報告する職責があった守護との不和をもたらしたもう一つの要因であった。1276年閏3月、豊後國の御家人禪季は‘異國警固’に関しては、總領の指揮に従わず、守護の指揮に従いたいことを願いながら、その理由として幕府に戦功を報告する際、自分の名前を名簿に直接あげたいからであると明らかにしていた<sup>110)</sup>。このような庶子の行動は總領との紛争をもたらして、守護自分も両者の対立のなかに引き込ま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ろう。

以上のように、軍役賦課による経済的な負担、恩賞の延期から伴った不満、警固番役の勤務方式をめぐる總領・庶子間の対立、そして戦功・軍忠を報告する守護に対する不信・不満などが訴訟の頻発と守護・御家人の不和を深化させたと思われる。この現象は戦後、恩賞問題が大きな社会的な關心事として台頭される1275年以後、現われるようになっただろう。守護と御家人の不和は守護による御家人の指揮・統制に即した防禦体制の童謡をもたらす。幕府はこの事態を根本的に解決することができず、“自分の宿意を抱いて天下大亂をほったらかすのは非常に不忠なことである”<sup>111)</sup>と言って、それを抑制しようとしただけであった。

1275年9月、使者の處刑という幕府の強硬策は当時の國內事情、特にもっとも重要な防衛地域である九州の現地事情を考慮したならば、實は對外危機を自ら醸成することで、防禦体制の弛緩を引き締めようということであった。それに引き続く‘異國征伐’計畫も單純な外敵への攻撃に止まらず、それを軸にする防禦体制の再編・強化をはかったことにみえる。幕府は動搖している防禦体制で外敵の侵略を待つより、むしろ攻撃することによって敵軍に打撃を加える同時に、對外戦争の遂行をきっかけにして臨戦体制下で國內統制の強化をはかろうとしたのではなからうか。この臨戦体制下での幕府は御家人に対する守護の軍事指揮権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従来支配権をおよぼ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本所一円地の武士まで軍事指揮・統制のもとに置くことができた<sup>112)</sup>。また、幕府が國內武士の統制のために、得宗權力の意思を直接代弁し、貫徹することができる多数の有力な守護(あるいは守護代)らを西國地方へ派遣したことも注目される<sup>113)</sup>。この計畫は實行において困ることになり<sup>114)</sup>、まもなく中止になっ

109) 弘安3年(1280) 12月 8日 關東御教書、『鎌倉遺文』第19卷 14207号。

110) 建治2年(1276) 閏3月 15日 僧禪季申狀案、『鎌倉遺文』第19卷 14207号。

111) 同註 109)。

112) 幕府は第1次蒙古の侵掠に際して御家人ではなくても軍功をたてれば、恩賞を与える緊急措置を取ったことがあるが(文永11年(1274)11月1日、關東御教書案、『鎌倉遺文』第15卷、11742号)、現存史料のなかで実際に非御家人を幕府の指揮統制下に動員したことは1276年3月以來のことである。“異國警固は例外なく、軍役〔平均役〕である”(建治3年(1277)9月19日、關東御教書、『鎌倉遺文』第17卷、12866号)という原則が成立した時点も全面的な‘警固事’が定まれた1275年末において探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たようだが、幕府による国内武士の統制効果において十分に満され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

一方、‘異國征伐’という大義名分の自体が、得宗権力の對蒙古政策に正当性を提供した側面も見逃すことができない。従来防御を固守して來た幕府が、かえて外敵を攻略するという攻勢的な姿勢を明確に現わすことで、得宗権力は幕府の有力御家人と朝廷の公家側に對して、政策主導の正当性を主張・獲得しようとした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大義名分のもとで、北條氏一族が大舉西國地方の守護として進出しており、京都の本所・領家側の支配領域に幕府の支配權が擴大されていったことが注目される<sup>115)</sup>。この大義名分は北條一門の守護の西國進出に對する外様守護の不滿やその支配圏を侵害された本所領家側の反發を抑壓するためにも有効だったのだろう。

幕府の‘異國征伐’計畫が中止された以後、石築地の造營がほぼ完成された<sup>116)</sup>1277年6月、南宋の滅亡が国内に伝わり、1279年7月には一ヶ月前に到着した元使(旧南宋降將の使臣)を博多で處刑するなど對外的な緊張はもっと高まっていた。南宋の滅亡による國際状況の変化のためかこの時期に‘異國征伐’を計畫した痕跡はない。それが現われたことは第2次日本侵略直後のことであった。

遠征軍が台風によって壊滅的被害を被って撤退した1281年閏7月初から約一ヶ月余りの時期に幕府は再び‘異國征伐’=高麗侵攻を計畫した。大將は少二經資、あるいは大友頼泰で、彼らの管轄國と見える3ヶ國(筑前 豊後 肥前)の御家人だけではなく、少なくとも山城・大和の惡徒57人を動員するという内容で、その惡徒たちは8月中、九州に行くように命じられた<sup>117)</sup>。今回の計畫は前回に比べて小規模で、筑前・肥前など戦闘の中心地が動員対象になっていた。これは今度の計畫が戦勝の雰囲気に乗って侵略國への仕返しをするという大義名分に即し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くれる。たぶん該当地域の非御家人や九州他の地域など西國地方の武士は‘異國警固’に動員されていたはずである。

この計畫も實行された痕跡はないが<sup>118)</sup>、單純な攻撃だけではなく、幕府による国内統制の強化を企ていたという点で前回と基本的に一致している。それは1282年、得宗時宗の叔父北條時定が少二經資の代わりに肥前國の守護に就任しており、その後彼が北條氏の九州支配の強化に橋頭堡的な役

113) 村井章介、「蒙古襲來と鎮西探題の成立」、pp.190-196.

114) 石築地造營との兩立の難しさ、課役負擔の輕減を望む御家人の意向、幕府によってはじめて動員される本所一圓地の武士、すなわち非御家人の非積極性などによって結局のところ實行には移されなかったように見える。

115) 村井章介、「蒙古襲來と鎮西探題の成立」、pp.190-196. 南基鶴、「蒙古襲來と鎌倉幕府の對應-對應策の性格をめぐって-」、『蒙古襲來と鎌倉幕府』、臨川書店、1996、pp.28-31. 参照。

116) 1277年1月、薩摩守護島津久時は同國御家人比志島太郎佐範に宮崎役所の石築地役の勤務を完了したという證明書を發給していた(建治3年(1277) 1月 27日 島津久時覆勘狀、『鎌倉遺文』第17卷 12645号)。

117) 弘安4年(1281) 8月 16日 聖守書狀、『鎌倉遺文』第19卷 14422号。

118) 大和興福寺側の否定的な態度(『勘仲記』弘安5年10月16日條、裏文書)による幕府との交渉、遠征失敗後、高麗側の對日防禦態勢の整備などによって實行が遅延・中止されたと推測される。

割を果たした事実<sup>119)</sup>、かつて1278年の段階から幕府が統制下のもとに置こうとした大和の悪徒<sup>120)</sup>を‘異國征伐’の大義名分として重ねて動員しようとしたことから現われている。

以上、考察したように蒙古の第1・2次の日本侵略後にそれぞれ台頭した‘異國征伐’計画は、高麗侵攻を轉機にして國內武士に對する統制を強化し、窮極的には北條氏の得宗權力の直接的な指揮統制下での對蒙古防禦体制を構築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った。高麗と日本關係から見ると、この計画は兩國が交戦國として双方の侵攻から常に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正面對峙の状態に突入したことを意味する。日本にとって、もう高麗は蒙古と完全に一体化した‘異國’=外敵そのものとして現實的な侵略對象として浮び上がったのであった。高麗の日本に對する‘控制’、‘威鎮’はそれほど現實性を持っていたとも言えよう。

### 3) 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

蒙古の日本侵略は、かつてなかった大規模の外侵を受けた日本人の對外意識、特に高麗觀に深刻な影響を与えた。高麗が自分の意図に反して仕方なく戰爭に動員されたものの、日本側から見ると、高麗は蒙古と一体化した‘敵國’として映されたことも事實だ。日本は1275年、蒙古の使者とともにきた高麗使者を處刑し、第2次侵略直後日本軍の捕虜になった遠征軍の中で奴隸にした旧南宋軍を除いた蒙古人と高麗人をすべて處刑した<sup>121)</sup>。高麗人を日本の侵略者として蒙古人と同一視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異國征伐’は、正しくそういう認識が土台に敷かれた高麗への強い敵對感を現わしてであった。

特に、直接的な被害を受けた對馬・壹岐・博多など北部九州地域民らの蒙古・高麗に對する恐怖と敵愾心は当時史料によく現われている。例えば “[蒙古國の兵士らは]民をつかまえて男は殺したり虜に取ったりし、女は一所に集め手をくぐって船に縛ったり捕虜として捕らえたりした”<sup>122)</sup>とか、“高麗の兵船500隻は壹岐・對馬からきて次から次へと殺した。人民たちはこれを耐えることができず、妻子を連れて深い山に隠れたが、[高麗軍が]赤ん坊の泣き聲を聞いて、結局のところ彼らのところまで來たので、生き延びるために愛する赤んぼうを殺すしかなかった”<sup>123)</sup>という話が流れた。どこまでが事實な

119) 川添昭二「岩門合戦再論-鎮西における得宗支配の強化と武藤氏-」『論集日本歴史4 鎌倉政權』、有精堂、1976、p.254.

120) 1278年7月、幕府は大和國の悪徒=寺僧・國民を動員しようとし、興福寺側では國民については応じるが、寺僧については拒否したことがある(『中臣祐賢記』建治4年(1278)7月3日、同4日條)。

121) 『國朝文類』卷41、征伐、日本

122) 『日蓮聖人遺文』、〔建治元年(1275)〕5月8日 一谷入道女房宛書狀、『鎌倉遺文』第16卷 11905号。

123) 『八幡愚童訓』(甲本)、『日本思想大系』20 『寺社緣起』。

のか確認しにくい、高麗を含んだ遠征軍の‘殘酷な侵略者’のイメージは、当時から形成されて世間に伝えられた。後世に‘ムクリコクリ(蒙古・高麗)’という言葉が、西日本地域で恐怖の代名詞として使われたこと<sup>124)</sup>もそういう事情による。

蒙古の侵略という國家存亡の危機はいわゆる神國思想を大きく高揚させた。日本は数多い神々が暮している神聖な國土であり、神明の加護があるから外國が絶対狙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思想が、‘神風’を触發製にして幅廣く擴散した。ここに内在した神秘的・獨善的な自國優越意識を土台として‘神功皇后の三韓征伐’神話が想起され、ましては“新羅(高麗)の王は日本の犬だ”<sup>125)</sup>という言説で、高麗を卑下する態度が現われるようになった。古代には神明加護であるから諸藩、特に新羅を支配する力があるという對外的な優越意識が神國思想の主な内容であったが<sup>126)</sup>、それからは高麗をただの畜生として扱う露骨的な蔑視觀さえ登場したである。

また、一つ注目したいことは、蒙古の侵略以後日本の‘武威’に對する觀念が高揚されたという点である。自己認識の一形態として外國に對する日本の軍事的な威勢の自覺と主張は、武士政權が樹立された鎌倉初期から芽ぐみ始めたが<sup>127)</sup>、蒙古の侵略による對外的緊張をきっかけにしていっそう高揚されることになった。蒙古國書の到來以後、京都正伝寺の禪僧東嚴慧安は、“日本國の武芸は他の國々よりすぐれる。弓箭は比べものにならないし、甲冑は鬼を恐ろしくする”<sup>128)</sup>と言って、鎌倉幕府の武力とその威勢に對する期待を表明していた。鎌倉末 = 南北朝期の儒者玄惠は、“天竺(インド)・震旦(中國)・日域(日本)の3國の中で日本人は心も強く、弓の力が他の國よりすぐれる”<sup>129)</sup>と言っている。このように日本(具体的には鎌倉幕府)の‘武威’が高揚されながら、“武威が嚴重で文道が正しいから四夷の起こる事はなく、三韓をすぐ服屬させることができる”<sup>130)</sup>という三韓(高麗)に對する武斷的な侵略主義ができた。幕府が祈った‘異國征伐’こそまさにその表現であった。

一方、蒙古の日本侵略は高麗の日本觀にも非常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蒙古の第2次日本侵略に際して全羅南道順天都護府にある定慧社(現、松廣寺)の禪僧冲止<sup>131)</sup>は日本遠征の威容を称

124) 田中健夫,『ムクリコクリ』、『日本歴史』228、1967、pp.88-89.

125) 『太平記』卷39、「神功皇后攻新羅給事」。

126) 成澤光,『政治のことは意味の歴史をめぐって』、平凡社、1984、p.168.

127) 南基鶴,『鎌倉時代の‘武威’에 대한 일고찰 - 中世 日本 の 自己認識의 한 형태 -』、『歴史學報』178、2003、pp.179-185.

128) 東嚴慧安意見狀、『鎌倉遺文』第14卷 10559號.

129) 玄惠注,『聖德太子憲法』(坂本太郎編、『聖德太子全集』第1卷、龍吟社、1942 所收).

130) 宴曲抄,『文武』(早川純三郎編、『宴曲十七帖 附謠曲末百番』、國書刊行會、1912 所收).

131) 冲止(俗名は魏元凱)は、1244年科擧に合格した人才として1254年出家する前まで官職にいたと推定される。そのあいだに‘倭寇’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使者として日本へ行った経歴がある。彼を官と全く関係ない人物として見なすことはできないが、僧侶になってから民間に身を置きながら、官からも自由な宗教人としての

頌する内容の‘東征頌’<sup>132)</sup>を作った。

まず彼は、蒙古の皇帝クビライの寛徳と恩澤をほめた後、日本が海を間に置いて隔てていたことで蒙古に來朝しないことに對して、問罪したということで‘東征’を正当化している。そして日本に對しては、“釜の中の魚魚群[鼎魚群]”のように偏狹で、かつ孤立した“醜い島國蛮夷[島夷醜]”として描いている。日本に對する蔑視の態度がありありと現われている。

沖止は1280年‘東征’のための戦艦を作る際、嶺南地方の惨状を目撃して、“嶺南の苦痛を言おうと思つたら涙が先にでる”<sup>133)</sup>と言うなど民衆に同情的な人物であった。このような彼が遠征軍の威容をほめていたことは、二律背反的にみえるものの、彼の本心は日本遠征が不可避だった以上、その事実を是認しながら、民衆の鬱憤を排泄しようとしたという指摘<sup>134)</sup>がある。

このような沖止の立場を支えたものが、日本に對する‘島夷’觀と‘倭寇’觀であった。東征頌の作詩と同じごろ、彼は遠征軍の都元帥である金方慶に差し上げた祝壽で、日本を示して‘卉服’、あるいは‘倭寇’と蔑稱していた<sup>135)</sup>。すなわち夷狄と寇賊として日本を認識し、指稱していた。日本を蛮夷として見なす觀念は朝廷のそのものと等しいことであり、日本=‘倭寇’觀は13世紀に入って形成され始めた略奪者としての日本人のイメージが徐々に強化されて、高麗と日本の敵對關係を背景にしてもっと固まったかのように見える。彼は民衆の鬱憤を發散するもう一つの方法を高麗と辺民を侵奪する‘倭寇’ (=日本) の討伐で探していたのであるまいか。彼において日本は、“偏狹で醜い島夷”、“辺民を掠奪する倭寇”に過ぎなかった。民間に身を置いて民衆に同情的であった彼の日本認識は民間の情緒を一部分でも代弁することであつた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に13世紀末、蒙古の日本侵略は高麗と日本の間に偏見・憎惡・恐怖・蔑視に彩色された否定的な相互認識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國家間の戦争がもたらした傷痕は兩側ともに深かつたし、相互認識は相当な屈折を経験するしかなかった。

---

生活もしていたことから民間知識人と見なすこともできるだろう。

132) 沖止 著、秦星圭 譯、『圓鑑國師集』、亞細亞文化社、1988、pp.73-75.

133) 同上、解題、p.19.

134) ‘嶺南艱苦狀 二十四韻 庚辰年造東征戰艦時作’、同上、pp.67-69.

135) ‘都元帥金侍中’祝壽疏、同上、pp.243-245.

## 結びにかえて-アジアの中の高麗と日本-

高麗末の儒者李齊賢は1323年、高麗を元の内地にしようとするいわゆる‘立省’策動を反駁しながら、元の中書省に上書したが、その中で“小邦と日本は海を間に挟んだ隣接國であるので、我らが中國と和親し福を享受すれば、彼らは歸化が遅れたことを恥ずかしがることであり、私たちが冷待を受ければ、彼らは頑迷するので自慢することは必然的なことであります”<sup>136)</sup>と記述している。

立省策は中國(元)の高麗に對する冷待として受け取られて日本の歸化をもっと難しくするはずなので、その歸化を促すためにも立省策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理である。ここでは元帝國の支配秩序に屬した高麗王朝の名分論的立場から、元に‘歸化’しない日本を頑迷な國として扱っている。かつて蒙古の使者が高麗へ來た際、宰相李藏用が中國の冊封体制に基づいて日本の國際的な地位を‘小夷’・‘島夷’で規定したことを思い出させる。このような高麗の日本観は中國、すなわち元帝國の冊封体制に屬した高麗とそこから脱している日本という兩國の立場が変わらない限り持續するしかなかった。

高麗と日本は13-4世紀蒙古帝國のユーラシア大陸支配-東西統合という時代の流れの中でそれぞれへの編入と離脱という異なる道を歩むことになった。それによって高麗と日本の兩國の歴史展開も大きな分かれ道に立ち入ることになった。12世紀末ほとんど同時期に成り立った兩國の武士政權は、結局高麗の武臣政權が蒙古の侵略を受けて1世紀ぶりに消滅し、日本の 武家政權はその後にも存續發展して行った。日本は蒙古を中心にした世界秩序の中で高麗を含んだアジアの多くの國々と異なつて敵對の態度を最後まで固守していた。その主体は東アジアの例外的な存在ともいえる武士政權だったのである。

蒙古帝國の登場と高麗と日本の異なった進路は、兩國間の武力衝突と深刻な軍事對峙を伴った。高麗の對日交渉の據点であった金州は、その管轄内の合浦が日本遠征軍の發進基地になり、高麗と一番緊密な交流地域だった北部九州は遠征軍と日本軍の激戦地になってしまった。以後、半世紀以上にわたり兩地域は相對國に對して嚴しい警戒態勢を取る防禦基地化して通交は斷絶された。比較的に平穩だった兩國關係は極度に悪くなってしまい、古からの制限的な通交さえ行われず、地理的な隣接要因も作用して日本と大陸の間よりもっと強い敵對的な緊張關係が形成・持續された<sup>137)</sup>。

しかし他の一方で、嚴密に言えば日本は蒙古を中心にした世界秩序の中での一つの構成員として參加していたことも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元の開放的な貿易政策と日本の大陸文物に對する旺盛

136) 『高麗史』卷110、「列傳」23、李齊賢。

137) 南基鶴、「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p.85。

な意欲を背景にして、日本は早くも13世紀末から元との貿易に乗り出している。14世紀に入っては、寺院・神社の造營を名目にして、いわゆる‘寺社造營料唐船’という一種の公許貿易船が幕府によって元に派遣されるのに至る。政治・軍事的には對立していたものの、日本と大陸との文物交流は非常に活發に成り立っていたのである。ここから後日の日明間の勘合貿易の歴史的な前提を探すことは難しい事ではない。このようにみると、日本は蒙古帝國の支配下の世界秩序の中で、ある程度一定な孤立を維持しながらも、同時にそれへの積極的な参加という二重の相反する姿を見せていたと言えよう。



# 日本侵攻以後の麗日関係

佐伯弘次

## はじめに~モンゴル襲来から前期倭寇へ

13世紀代の東アジアの政治的動向を大きく規制したのは、モンゴル(元)の動向である。高麗は、1230年代以降、モンゴルの激しい攻撃を數次にわたって受けるが、モンゴルに屈服した後には、その藩屬國として、モンゴルからの強い政治的制約を受けた。

13世紀の後半に2度にわたるモンゴル襲来を受けた日本は、3回目のモンゴル襲来に備えて、異國警固番役や石築地の築造、異國降伏の祈禱、寺社への徳政政策など、様々な政策を行った。結局、3回目のモンゴル襲来は実行されなかったが、異國警固番役や石築地の修築は14世紀代まで続いた。元の日本招諭は1299年まで続き、日元の間で外交関係が構築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しかしその反面、日元貿易は活發に行われ、政治的には對立しながら、經濟・文化面では深い交流があるという、政経分離の関係が長く続いた。これに對して、高麗と日本の間は、外交関係はもちろんのこと、經濟的交流も公的には斷絶したままであった。これが日元関係と日麗関係の大きな相違点である。

14世紀中後期になるとこうした関係に大きな変化があらわれる。1350年以後の前期倭寇(庚寅以來の倭寇)の活動と中國における明の建國によって、麗日関係はもとより、東アジアの國際関係は大きく変化することになった。

大きな流れとしては、モンゴル襲来(戦争)の時代から、倭寇の活動とそれへの對策、さらには明による東アジア世界の再編と各國の對應の時代に変化していくのである。

## 1. モンゴル襲来以後の麗日交渉

### 1) 元使・高麗使の日本派遣

1281年の元の第2次日本遠征(弘安の役)後においても、元の日本招諭<sup>1)</sup>は継続した。フビライは日本遠征の準備をその後も行っており、日本側もそれを予想して、異國警固や石築地の修築を継続して行っていた。3度目の日本遠征(モンゴル襲来)は兩國にとって近く實施される現實の問題であった。

1283年 12月には、日本の鎌倉幕府は、元が來年春に襲来するので異國警固番役を嚴重に行うように薩摩國中の地頭御家人や本所一円地の住人たちに命じた。翌84年4月、元は、日本國信使王積翁や愚溪如智らを日本に派遣したが、同行した者たちが對馬で積翁を殺したため、元の使節たちは引き返した。

1289年から90年にかけて、日本の朝廷周辺で、「近く蒙古が襲来する」という噂が流れ、朝廷や幕府は主要な寺社に異國降伏の祈禱を命じた。しかしこれはまさに「浮説」であり、元の襲来はなかった。

反フビライ派のモンゴル王族ナヤンやカダンが中國東北部でフビライに反亂を起こした。この反亂は高麗にまで波及したが、1291年にフビライ側の勝利で終わった。その翌年の1292年 5月、日本商船が耽羅に立ち寄った時、商人2名が現地の人に捕らえられた。同年 7月、日本商船が元の慶元(寧波)から歸國し、元の地方官燕公南の牒状をもたらした。その内容は不明であるが、鎌倉幕府が異國降伏の祈禱を全國の一宮・國分寺に行わせたことから、モンゴルの再來襲を予見させるような内容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高麗は、フビライの指示を受け、1292年に耽羅で捕らえられた日本商人を送還するという名目で日本に使者を派遣した。高麗使(宣諭使)金有成一行は同年 10月に來日した<sup>2)</sup>。11月 12日、鎮西(九州のこと)の使者が京都に到着し、蒙古牒状(實際は高麗牒状)の到來を報じ、翌13日に六波羅探題の使者も同行して鎌倉に向かった。11月 24日、鎌倉幕府は寄合を開き、北條兼時・同時家を「異國打手大

1) 弘安の役後における元の日本招諭に關しては、池内宏、『元寇の新研究』、東洋文庫、1931年、龍肅『蒙古襲來』、至文堂、1959年；川添昭二、『蒙古襲來研究史論』、雄山閣、1977年、南基鶴、『蒙古襲來と鎌倉幕府』、臨川書店、1996年、佐伯弘次、『日本の中世9 モンゴル襲來の衝撃』、中央公論新社、2003年などを参照また全般的に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編、『對外關係史總合年表』、吉川弘文館、1999年を参照した

2) 高麗使金有成の來日と日本側の對応に關しては、池内1931、龍1959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編1999佐伯2003などを参照。

將軍」に決定した。12月 8日、鎌倉幕府の使者は異國牒状を持って上洛した。鎮西→六波羅探題(京都)→鎌倉幕府(鎌倉)→朝廷(京都)という異國牒状伝達の一連の流れは、文永の役以前と全く変わらない。12月 10日、幕府の使者は關東申次西園寺實兼に高麗牒状を届け、これ以降、朝廷・院内部で高麗牒状への對策が検討される。治天の君である後深草法王は、對策について指示し、この牒状を「無礼、尾籠、奇怪」と評した。

金有成が日本にもたらした高麗國書は、『高麗史』などに記されているし、金澤文庫には寫しが残っている。それによると、日本商人が耽羅で捕えられ、フビライの命によって護送された経緯をのべ、高麗が元に臣屬して國家を保ったが、宋は元に逆らって國を滅ぼしたこと、皇帝フビライは徳が高いことなどをのべ、元への遣使入朝を促している。

この國書を見た朝廷・幕府は、異國降伏祈禱を寺社に行かせた。先にのべたように幕府は、この使節の來日に危機感をつのらせ、北條兼時・同時家を「異國打手大將軍」に任命し、九州に下向させた。二人は翌1293年に九州博多に下向した。北條兼時は北條時宗の甥であり、得宗と大変近い關係にあったし、当時は六波羅探題北方という要職にあった。この人事が、元の再襲來を想定して、並々ならぬ決意のもとでなされ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一方の北條時家は、北條氏の有力一族名越氏である。この二人の「異國打手大將軍」任命と九州下向をもって、鎮西探題の成立とみる見方も有力である<sup>3)</sup>。この二人が九州に下向する直前、鎌倉幕府は、「爲異賊警固、所下遣兼時・々家於鎮西也、防戰事加評定、一味同心可運籌策、且合戰之進退、宜隨兼時之計」(異賊警固のため、兼時・時家を鎮西に派遣するところである。防戰については評定を行い、一味同心し、計略をめぐらすべきである。取りあえず合戰の進退は、兼時の計らいに隨うべきである)と薩摩守護島津忠宗に命じている<sup>4)</sup>。臨戰的な雰囲気が強くなり感じ取られるが、兼時が首班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

こうした「異國打手大將軍」の派遣と前後して、幕府は、關東にまだ残っていた九州に所領を持つ御家人を九州に下向させ、さらに來るべき異賊合戰の勳功賞を九州の御家人たちに約束し、九州の防備を固めようとした。博多に下向した兼時・時家は、石築地修造や異國警固番役勤仕の徹底をはかったようである。さらに1294年3月には北部九州沿岸や島嶼部で烽火の演習を行った。それを指令した文書<sup>5)</sup>に、「異國用心が大事である。決して緩怠してはならない」とのべ、元の再襲來を想定しての演習であることがわかる。しかし、元の再襲來はなく、兼時・時家は1295年4月に關東に歸った。

日本側の史料<sup>6)</sup>によると、1293年4月に幕府の計らいで「異國牒使」を本國へ送還したとしているが

3) 例えば、村井章介『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1988年。

4) 島津家文書正応 6年 3月 21日關東下知狀、『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之一』34

5) 來島文書永仁 2年 3月 6日北條定宗書下(『鎌倉遺文』24卷 18499号)。

6) 『師守記』貞治 6年 5月 9日條。

、『高麗史』列伝・金有成によると、金有成は日本に抑留されたまま歸國せず、1307年7月5日に日本で病死したとする。いずれが正しいのかはわからないが、文永の役以後の元使は幕府によって殺害されることを例としており、あるいは高麗使節は歸國でき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

1298年、日本の商船が元の明州(慶元)に到った。翌年、この船が歸國するとき、元使(國信使)一山一寧が便乗して日本に渡航した。従來の元使は、高麗經由で高麗の案内を前提とした日本に派遣されることが恒例であり、慶元から海路、しかも日本からの貿易船に便乗して來日するのは初めてであった。禪僧が正使に任じられるのも異例であった。一山一寧は、10月には鎌倉に到着している。その後、一寧は歸國することなく、建長寺の住持となるなど日本の禪宗界で重きをなした。これが最後の元の日本招諭の使者であったが、これも成功しなかった。

## 2) 日本の大陸軍事情報の収集

弘安の役直後から日本が元・高麗の軍事情報の入手に努力し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sup>7)</sup>。すなわち、1282年に日本は、賈祐という弘安の役南宋降兵を江南に派遣し、元の遠征計畫を偵察していた。日本商船に便乗して入元する日本僧も偵察の役目をになった。こうした元の偵察は、おそらく幕府の主導で行われたと推測される。南宋の滅亡を日本に伝えたのは貿易船であった。文永の役後も日元貿易は行われており、日元貿易船が元の偵察の受け皿になったことは容易に推測できる。

高麗に対しても、弘安の役直前に高麗の軍事基地がある合浦周辺で「漁者」が連続して倭賊によってさらわれているのは、高麗の軍事情報を得るための偵察行動である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

## 2. 14世紀の麗日關係

### 1) 前期倭寇の活動

前期倭寇が活動する1350年より以前にも倭寇の活動がある。13世紀前半に小さなピークを迎える倭寇を初期倭寇と呼ぶ。14世紀代になると、元に對する倭寇活動が行われた。これは元寇を契機として元側が日本商人に對する迫害を行い、これに對する日本商人の自衛的な暴力行為が海賊団の發生・展開につながったという説<sup>8)</sup>があったが、近年の研究<sup>9)</sup>では、こうした日本人の「倭寇」行為は、元

7) 南1996、pp181-183。

側の現地役人の日本商人への侵漁に対する暴動事件であり、決して組織的・計画的な海賊行爲では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

1323年 6月に倭が會元の漕船を群山島で掠奪し、楸子島に寇し、老弱男女を虜にして去ったという事件<sup>10)</sup>が起こった。漕船の襲撃と被虜人の掠奪は前期倭寇の特徴でもあり、前期倭寇に連なる海賊行爲であるといえる。したがって「庚寅以來の倭寇」は、少数ながら14世紀前半からすでに起こっている点を確認しておきたい。

1350年 2月、倭が固城・竹林・巨濟に寇した<sup>11)</sup>。合浦千戸崔禪らがこれと戦い、三百余級を斬獲した。「倭寇の侵、ここに始まる」と『高麗史』が記すように、この事件以降、倭寇の活動が急に活発化し、朝鮮半島を頻繁に襲撃するようになった。「倭賊祈禳法席」「倭賊防禦使」という語句が『高麗史』に散見するように、当初、倭寇は高麗政府から「倭賊」と称されていたようである。

こうした前期倭寇の關しては、いくつかの時期区分がなされている。田中健夫氏は、大きく4時期に分けた<sup>12)</sup>。第1期は1350年2月以降の初期の段階、第2期は恭愍王の時代(1352~74)で、倭寇活動が本格化した時期、第3期は倭寇活動の最盛期で、辛禡王(1375~88)代に極点に達する。第4期は倭寇勢力の減退期であり、高麗恭讓王の時代から朝鮮太祖・定宗・太宗の時期にあたる。その大きな畫期となったのが、1389年2月の高麗軍による對馬攻撃であったとする。

田村洋幸氏は、大きく初期・中期・終焉期の3期、細かくは6期に時期区分している<sup>13)</sup>。頻度が少ない初期は1350~73年で、倭寇に対する無策の時期である前半期(1350~62年)と、積極的に倭人招致策を立て、進んで日本に禁賊を請う後半期(1364~73年)に分ける。最盛期である中期は1374~89年であり、倭寇猖獗期の前半期(1374~80年)と漸次衰勢に向かう後半期(1381年~89年)に分ける。倭寇終焉期の終焉期は1390~1418年で、小規模の非組織的倭寇と大船団の倭寇が混じる前半期(1390~1400年)と小規模化する後半期(1401~18年)に分ける。

兩者の時期区分は、細かい年代については相違しているが、1350年以降、次第に増加し、辛禡王の時期に最盛期を迎え、高麗末から朝鮮初期に衰退するという流れは共通している。

日本におけるかつての通説<sup>14)</sup>では、倭寇たちの主要な目的は、漕船・倉稟等の襲撃による食糧の掠奪と人の掠奪であったとされている。その根據地の中心は對馬・壹岐・松浦地方の「三島」地域であり

8) 森克己『新訂日宋貿易の研究』國書刊行會、1975年。

9) 榎本2007。

10) 『高麗史』世家忠肅10年(1323)6月丁亥、同戊子條。

11) 『高麗史』世家、忠定王 2年 2月條。

12) 田中健夫、『倭寇と勘合貿易』、至文堂、1966年、pp.11-14

13) 田村洋幸、『中世日朝貿易の研究』第2章、三和書房、1967年。

14) 田中健夫、『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1959年田中196な。

、その發生の主要な原因は、農業生産によっては島民の生計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三島の経済的事情であったとされる。さらに高麗・朝鮮側の外交政策や倭寇懐柔政策等によって、倭寇たちは向化倭(投化倭)や使送倭人・興利倭人等に変質していった、ともされている。

1980年代後半、日本では、これまでの倭寇の理解を大きく変える研究が相次いだ。田中健夫氏<sup>15)</sup>は、大規模集団倭寇の實體を検討し、大量の人員・船舶・馬匹の洋上移動を考えると、倭寇が日本人のみの海賊集団であるという考えは不自然であり、大規模倭寇集団は、日本と高麗・朝鮮兩國人民との連合によって成立したという説を提示した。

いっぽう、高橋公明氏<sup>16)</sup>は、倭服を着て倭語を話し、各地を移動する濟州島の海民を検討するなかで、倭寇に朝鮮国内のかなりの海上勢力が關与しており、その基層部分を濟州島の海民が担ったという説を示した。

日本においては、この兩氏の新しい考え方は倭寇研究に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えたが、いっぽうで、様々な批判の対象ともなった。浜中昇氏<sup>17)</sup>は、こうした田中健夫氏・高橋公明氏の見解に批判を加えた。『高麗史』『高麗史節要』の夥しい倭寇記事のなかで、高麗の民が詐って倭賊となったことを示す事例は2例にすぎず、「倭人不過一二」という1446年の李順蒙の言は裏付けの史料がないこと、高麗・朝鮮の禾尺・才人たちが盜賊行爲を働く記事は多いが、彼らと倭人たちとの連合を示す史料がないこと、濟州島などの海民を海賊集団として組織しうるような主体は、朝鮮国内にはなく、朝鮮半島南部の海民が高麗末期の倭寇に参加したとしても、個別的な次元に止まったこと、倭人・日本人による大規模な倭寇は可能であることなどを指摘し、朝鮮半島南部の海民が個別に参加した可能性はあるが、倭寇を構成したのは基本的に倭人ないし日本人であったとした。

村井章介氏<sup>18)</sup>は、禾尺・才人たちが倭賊を偽装したことはあったが、それは彼らが倭賊と連合して一つの集団となって倭寇行爲を行ったことを示すものではないこと、李順蒙の言は、國家の役を逃れているものが非常に多く、軍隊の数が足り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文脈のもとで記されたものであり、そのまま信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指摘し、田中説を批判した。

李領氏<sup>19)</sup>は、庚寅年の倭寇は、足利直冬の攻勢に慌てた少貳頼尙が、對馬の軍勢を動員し、兵糧米を求めて高麗に攻め入ったものであるという新しい見解を示し、倭寇は海賊に限定すべきではなく

15) 田中健夫、「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日本の社會史1』、岩波書店、1987年。

16) 高橋公明、「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に」『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3、1987年。

17) 浜中昇、「高麗末期倭寇集団の民族構成—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歴史學研究』685、1996年。

18) 村井章介、「倭寇の他民族性をめぐって」、大隅和雄・村井章介編、『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山川出版社、1997年。

19) 李領、『倭寇と日麗關係史』第4章・第5章、東京大學出版會、1999年。

、むしろ悪党というより廣い社會的階層であり、多くの倭寇集団は公權力、とくに南朝側と強く結ばれていたこと、田中健夫氏の禾尺・才人 = 倭寇論に關しては、大規模の禾尺・才人が倭寇と連合したことを立証する史料はないこと、高橋公明氏の濟州島人 = 倭寇論に關しては、濟州島人が倭寇であることを示す史料は皆無であること、倭寇 = 高麗人主体論を述べた李順蒙に關しては、倭寇に關する記事が伝聞に基づくものであり、李順蒙の人格・性向が「狂妄」とされ、その發言も信用しがたいことを指摘した。

以上の3氏の見解は、田中氏・高橋氏の新見解を眞っ向から批判するものであり、前期倭寇の主体を、日本人と高麗・朝鮮人の連合としたり、高麗・朝鮮人とする理解は再検討すべきであるといえる。むしろ旧説の日本人主体説が見直されてきている<sup>20)</sup>。ただし、庚寅年の倭寇は少貳氏が派遣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李領氏の見解には、日本の學界は否定的である<sup>21)</sup>。

いっぽう、中國で活動した前期倭寇に關しては、元時代に關しては史料が乏しいが、1358～63年ごろ、連年、倭寇は沿海の郡縣を襲撃していた<sup>22)</sup>。元末の倭寇については、方國珍ら群雄の反亂と關連づけて研究が行われている。浙江沿海部を據点とした方國珍は、その配下に舟山列島などの海民がおり、彼らが「島夷」すなわち倭寇と結託して海賊活動をしていたこと、方國珍や張士誠の滅亡後、その配下の「諸豪」は亡命し、「島夷」と手を結び、中國沿海に入寇したこと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sup>23)</sup>。こうした倭寇と中國沿海部の海民の連合による中國沿海への入寇と高麗への襲撃がどのように關係するのか今後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倭寇は東アジア全体で活動したのであり、東アジア的スケールで検討すべき時に來ている。

## 2) 高麗の日本への使節派遣と日本側の対応

### ①金竜・金逸の來日(1366年)

倭寇の活發化という状況に直面した高麗は、倭寇禁壓を要請する使者を日本に派遣した。1366年

20) 橋本雄・米谷均、「倭寇論のゆくえ」、桃木至朗編、『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岩波書店、2008年。

21) 森茂暁、『南朝全史』、講談社、2005年、橋本・米谷、2008。

22) 榎本涉、『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一吉川弘文館』、2007年、pp.177-180。

23) 奥崎裕司、「方國珍の亂と倭寇」、明代史研究會編、『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上』、汲古書院、1990年、藤田明良、「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歴史學研698、1997年、熊遠報、「倭寇と明代の「海禁」—中國學界の視点から」、『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1997年、壇上寛、「方國珍海上勢力と元末明初の浙江沿海地域社會」、京都女子大學東洋史研究室編、『東アジア海洋域圏の史的研究』、京都女子大學、2003年。

9月、高麗の使者金龍らが出雲に到着した<sup>24)</sup>。金有成の遣使以來、實に七十余年ぶりの遣使である。一行は出雲で方物を奪われたが、翌年2月に上京し、天龍寺に宿した。同寺への宿泊は、室町幕府の計らい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彼らに若干遅れて、高麗から金逸が別途到着し、同じく天龍寺に宿した。

当初、京都では、「蒙古ならびに高麗使が牒状を持って來朝した」という噂が広がったが、後に高麗の使者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金龍が持参した「牒状」(外交文書)は室町幕府を経て朝廷に伝達された。蒙古襲來時の対応と同じである。この一連の高麗の外交文書は現存している。これによると元の征東行中書省(高麗王が長官)が日本國に對して、至正10年(1350)以降、日本の賊船多数が高麗を襲撃し、役所を焼き、民衆を悩ませているため、日本が海島に對して嚴重に禁壓を加えるように依頼したものであった。さらに『高麗史』によれば、遅れて派遣された金逸の派遣目的も、「日本に行き、海賊を禁ずることを請う」ためであった。

朝廷で、この「牒状」に對する対応が協議されているとき、室町幕府は高麗使一行を厚くもてなし、奈良・大仏殿への観光も行っている。同年5月には、朝廷で高麗への「返牒」を行わないことが決定した。これに對して、室町幕府が「返牒」を作成し、種々の贈物を使節に与え、天龍寺僧を使者として派遣し、一行を送還した。これによって日本の外交を室町幕府が管轄するという先例が作られた。倭寇禁壓要求の高麗使者派遣は、日本においては、外交權の移動という重要な轉換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

## ②羅興儒の來日(1375年)

1375年 2月、高麗は羅興儒を通信使として日本に派遣した<sup>25)</sup>。『高麗史列伝』によると、羅興儒が日本に到ると、日本側は興儒を「諜者」と疑って捕らえた。「鄭夢周伝」によると、夢周が拘禁されたのは博多であり、博多の主將(九州探題か)が拘禁したと記している。高麗出身の僧良柔が興儒を見て、赦されるように請うたという。1375年 11月 6日、室町幕府は「高麗使之羅興儒以下、同進物等」を召し上げるため、播磨守護に對して、人夫・伝馬を用意し、警固を行い、通過させるように命じた<sup>26)</sup>。すなわち1375年 11月～12月ごろ、羅興儒一行は播磨國付近を京都に向けて通過した。その後、翌76年 5月 3日、近衛道嗣のもとへ公家の一人が倭寇禁止を求める「高麗國牒状」を持参した(「愚管記」)。道嗣は國家の重事であるから、殿上定を行うように申し入れた。その後の詳しい状況は不明であるが、羅興儒一行は1376年 10月に歸國した。この時、室町幕府は、僧良柔を使者として高麗に派遣した。こ

24) 金龍・金逸の來日に關しては青山公亮『日麗交渉史の研究』第8章、明治大學、1955年中村榮孝『『太平記』に見える高麗人の來朝』、同、『日鮮關係史の研究 上』、吉川弘文館、1965年参照。

25) 羅興儒以後の遣使については、主とし青山195、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編1999を参照し。

26) 東寺百合文よ函60、「人夫役文書案」『相生市史 第8卷上』、相生市、1992年、pp.380-381。

の時、禪僧周佐が記した私信形式の外交文書が『高麗史』辛禡伝に引用されている。これには「我が西海道の九州は、亂臣が割據し、年貢を納めないこと20年以上になる。西海道の頑民が敵の隙に乗じて入寇した。私の行ったことではない。このため朝廷は武將を派遣して倭寇たちを征討し、その地に深く入って敵味方が合戦し、日々戦っている。願わくは、九州を回復すれば、天に誓って海寇を禁止する」という日本側の事情が記されている。倭寇の根據地である九州の支配が果たされないため、倭寇の禁壓ができないというのである。当時の室町幕府の事情がストレートに語られている。

### ③安吉常の来日(1377年)

1377年 6月、高麗は安吉常(吉祥ともある)を日本に遣わし、禁賊を要請した。『高麗史』にはこの時の國書の一部が引用されている。安吉常は日本で病死したという。東寺領播磨國矢野莊のこの年の算用状には、「高麗人上洛人夫催促使雜事」と「同下向時送夫催促使雜事」が記されている<sup>27)</sup>。羅興儒の時と同様に、播磨國の沿道の莊園に、人夫・伝馬等が賦課されたのである。これは播磨一國のみではなく、高麗使が通行する沿道には一様に同様の賦課がなされたと考えられる。

この年の8月に日本國は僧信弘を高麗に派遣し、倭寇禁壓が容易でない事情を伝えた。この信弘は室町幕府ではなく、九州探題今川了俊が派遣した使僧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sup>28)</sup>。了俊は、翌年6月に信弘に軍69人を率いて倭賊を捕らえさせようとした。7月に信弘は倭寇と戦い、船1艘を捕獲し、被虜婦女20余人を救出した。11月に再び倭賊と戦ったが、勝たず、遂に歸國した。

### ④鄭夢周の来日(1377年)

1377年 9月、高麗は鄭夢周を日本に派遣し、禁賊を要請した。『高麗史』鄭夢周伝によると、鄭夢周は博多で「古今交隣の利害」を「極陳」し、主將(今川了俊か)を敬服させたという。鄭夢周は日本で詠んだ漢詩を残している(「圃隱先生文集」)。夢周は、翌78年 7月、日本から歸國した。九州探題今川了俊は、周孟仁を使者として派遣し、同行させ、尹明ら數百人の被虜人を送還し、三島の倭寇の禁壓を約束した。78年 6月に東寺領播磨國矢野莊に守護代から「高麗人送夫催促使雜事」が賦課されている<sup>29)</sup>のは、鄭夢周が京都から歸國途上のことと考えられる。安吉常の使節派遣以來、室町幕府よりもむしろ博多の九州探題との交渉が重要と位置づけられた感があり、使節の送還も九州探題が行っている。

「鄭夢周伝」によると、倭寇たちが高麗の良家の子弟を奴隸としているのをあわれみ、被虜人の身

27) 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編、1999。

28) 青山、1955。

29) 對外關係史編集委員會編、1999。

代金を拂って歸國させようと図り、廷臣から據出させた資金をもとに、元被虜人の尹明を博多に派遣し、被虜人百余人の送還に成功したという。被虜人の送還が使節たちの重要な使命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

#### ⑤李子庸・韓国柱の来日(1378年)

1378年 10月、高麗は李子庸・韓国柱の兩名を日本に派遣し、禁賊を要請し、今川了俊に金銀酒器等を贈った。翌79年 5月、韓国柱は歸國した。大内義弘は朴居士に軍186人を率いさせて韓国柱に同行させた。同年7月には李子庸が歸國した。今川了俊は被虜人230余口を歸し、槍等を献上した。高麗の交渉先はますます西國の大名たちにシフトした。

#### ⑥尹思忠の来日(1379年)

1379年 閏5月、高麗は尹思忠を日本に派遣した。日本での活動や歸國年など、詳しいことは不明である。

以上のように高麗の倭寇禁壓要求に応えたのは、外交権を掌握しつつあった室町幕府ではなく、今川了俊や大内義弘といった西國の有力大名たちであった。室町幕府は何も行動しなかったわけではなく、例えば1381年 8月 6日、大隅守護今川了俊に對して、「当國の悪党人たちが高麗に渡って狼藉をするので、嚴重に制止すべきである」と、大隅國の倭寇の禁壓を命じている<sup>30)</sup>。高麗の倭寇禁壓の要求に、幕府としても応えようとしたのであるが、実際に現地で禁壓を行うのは、守護大名や地域の領主たちであった。今川了俊は、多くの被虜人を高麗・朝鮮に送還し、その見返りとして、大藏経を要求したりしている<sup>31)</sup>。高麗使臣が金銭でもって被虜人の購入・送還を意図したことに象徴されるように、被虜人の送還は、貿易上の優遇や貿易そのものの拡大といった利点があった。

## おわりに

以上のような高麗の頻繁な外交努力は、西國有力大名に着目することによって、ある程度の成果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1380年代になると倭寇は減少傾向となる。

いまひとつこの時期に注目されるのは、三島の一角、對馬の島主宗氏の動向である。『高麗史』によると、1368年 7月、對馬島万戸が高麗に遣使し、土物を献上した。高麗は、閏9月に講究使を對

30) 寢文書永徳 元年 8月 6日 室町幕府御教案、『南北朝遺文九州編』卷5 5673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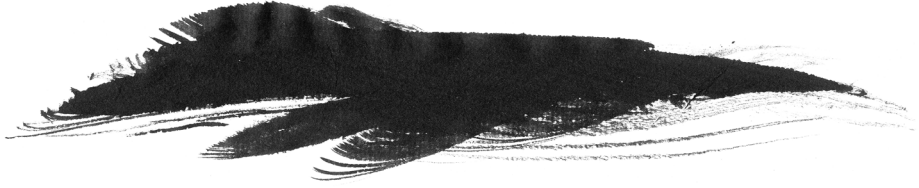
31) 川添昭二、『對外關係の史的展開』第5章、文獻出版、1996年。

馬に派遣、11月には對馬島万戸崇宗慶が高麗に遣使來朝し、高麗は宗慶に米千石を与えた。崇宗慶(宗宗慶)は本宗家の宗経茂であり、先の對馬島万戸とも同一人であろう。宗経茂はこのころから高麗に遣使し、高麗との通交關係を結ぼうとした。おそらく宗氏は、對馬近海における高麗使の護送にも關与したと考えられる。

こうした遣使と米の給与は、次代の朝鮮時代における宗氏と朝鮮との關係と共通するものであり、中世日朝關係は、14世紀後半の高麗末期から準備されつつあ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 토론문 일본어 원문





# 13世紀以前の麗日關係

発表者：李在範

討論者：榎本涉

李在範氏の報告は、前期麗日關係史のトピックを、國家間關係・交易關係・文化的交流・軍事的葛藤・漂流民送還・進奉關係の6つに分けて概観したものが、韓國・日本双方の史料・研究史を踏まえた視野の広いもので、知見の少ない当該分野でどのような問題があるのか、よく整理されているという印象を受けた。私はこの報告について、三点ほど感じたことを述べてみたい。

① 李氏の整理した6項目は、李氏の麗日關係史に對する理解を反映したものとなっているが、相互に關係が深い項目もある。たとえば漂流民・逃亡人・戰爭捕虜の送還は、しばしば國家や地方官の間で行なわれているが、人民を本來屬する國に戻すか歸化人として受け入れるかは、本來は國家的な統治權・支配權に屬する事項であり(10世紀以後の日本では、實態としては必ずしもそうではなくなるが)、その送還はしばしば國家レベルで行なわれた。したがって漂流民送還という機會に当たっては、國家間の交渉も持たれることになる。

實は李氏が國家間關係として挙げたものには、漂流民送還を目的としたものが散見する。たとえば997年の高麗からの牒狀送付については、「抑高麗使、大宰人也」と言われ(『小右記』長徳3/6/13)、この時に日本で出された太政官符には「須專國信、先達大府。何脅斷綆漂流之客、以爲行李」とあり(『水左記』承暦4/9/4)、高麗が大宰府の漂流民を日本に送還する際に牒狀を託したことが知られる。また1051年の高麗牒狀については、「高麗國牒狀定。返上日向國女事」(『百鍊抄』永承6/7/10)とあり、日向の女性を日本に送還した際に牒狀も送ったものだった。

これを踏まえると、成果を出さなかった高麗建國当初の外交交渉(937~940年)や、國王の病氣を治すための医者派遣要請という特殊な事例(1080年)を除き、李氏が麗日間の國家間關係としたもののすべては、漂流民・戰爭捕虜の送還に限定される。意図しない人民の移動が兩國間で起

こった時に、その解決の過程で國家間関係が問題とされたのであり、言い換えればそうした偶発的な事件以外に國家レベルで交渉が行なわれることは無かったということでもある。李氏の挙げた6項目中で、國家間関係と漂流民送還は、特に11世紀以前に關しては、極めて密接な関係を持つことになろう。漂流民を自國民として受け入れたり拘束したりする選択肢もあるのだから、漂流問題の下位レベルに屬するトピックとして國家間関係を整理することすら可能である。

以上は李氏による分類に異議を唱えたわけではなく、分類という作業の限界を示すために述べたに過ぎない。李氏の報告は關係資料の分類を主な目的としたもので、どのような問題があるのかについては分かりやすくなったが、分類作業は各トピックを横並びに提示することで相互の關係を見えづらくする側面もある(國家間関係と漂流問題の他には、進奉關係と軍事的葛藤、交易關係と文化的交流・進奉關係なども)。その先にある作業として、今度は分類した各トピックを有機的に結び付けて行くことが求められよう。それによって李氏報告冒頭で困難であるとした「13世紀以前の麗日關係を全体的にある特徴的な狀況として言うこと」も、一定の筋道が立ってくるものと思われる。

②第3章の交易關係に關しては、主に日本からの商人來航に關する『高麗史』記事が挙げられている。だがこれとは別に第4章の文化的交流のところで、1095～1120年に宋商人が高麗で仏典を購入して日本にもたらした記事がいくつか挙げられている。これらも高麗と日本の間の物の移動という意味では、明らかに麗日貿易の事例である。

宋商人の麗日貿易關与の事實は、『高麗史』に日本商人來航記事が集中する1073～89年の後の時期であることと關係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が、斷言は避けたい。ただいずれにしろ、宋商人と見られる黃仲文が1147年に高麗に來航して『日本都綱』と呼ばれていること(第2章表參照)も含めて

- 
- 1) 972年に金海府・南原府が派遣した使者について、森平雅彦氏はこの時点で地方官の派遣が始まっておらず、地方豪族が自主的な通交を凶ったものである可能性を指摘する(森平2008「日麗貿易」『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1056年の「日本國使正上位權隸膝原朝臣賴忠」の金州來航について、その官位を「正七位權掾」と訂正できるとすれば(掾は地方官である國司の四等官の四番目で、大掾の相当位は正七位、少掾の相当位は從七位)、膝原賴忠は對馬などの國衙の在廳官人の可能性が高くなり、「日本國使」と記されていても京都の朝廷が派遣した使者ではないことになる。1147年に高麗に來航した日本都綱黃仲文は、日本の使者であることは確認できず、現状では一商人の來航と見るべきであろう。1156-65年の事例とされる李文鐸墓誌銘の記事は、對馬が「辺事」について東南海都部署に牒を送ったというもので、東南海都部署は開城にこの件を伝えたが、「辺事」をもって尙書省から返牒するべきではないとされて、東南海都部署から返牒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流れを見る限り、對馬の牒で扱われた「辺事」は麗日間の國家的な案件ではなく、對馬に關する案件だった可能性が高い。以上は地方官レベルでの交渉と見るべきであり、公的な性格を有するとしても、「國家間關係」のトピックとして扱うべきではないだろう。

考えれば、日本人の名を持った商人や使者の他に、宋商人も麗日貿易に關与したことは疑いなく、この点は麗日貿易をアジア史の中に位置づけるためにも強調しておく必要があると思う。さらに検証は困難だが、『高麗史』に登場する宋商人に、實は日本を経由して來航した者が含まれる可能性もあるだろう。

日本商人の活動の場が高麗から宋へと広がっていったとする森克己の發想が、朝鮮を大陸進出の足場と見る卑下意識から來ているとする李氏の意見は、傾聴の価値があると感じた。この森説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アジアにおける貿易の動向とその担い手の問題を、麗日間に視野を限定せずに追及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③ 日本の仏教史料には、高麗の仏典を購入した事實を伝える記事の他にも、高麗に關する記事が散見する。たとえば日宋交通路上の目印・漂着地として高麗が登場する場合がある<sup>2)</sup>。1072年の成尋、1082年の戒覺の例については李氏も触れている(第5章の表)が、他の13世紀半ばまでの事例で言えば、円爾が1241年に宋の慶元から出航した途次に高麗國耽沒羅阿私山下に漂着した例(『聖一國師年譜』)、文榮房(13世紀前半の入宋僧湛海か)が入宋する際に惡風によって高麗に漂着した例<sup>3)</sup>、無本覺心が1254年に宋から歸國した際に船が漂流し、おそらくその時に高麗に立ち寄ったという例(『明極和尚語録』)が挙げられる。

宋から日本に向かう船が高麗に漂着することが多いことは、京都の藤原定家が1226年に倭寇の活動を耳にした際に述べており<sup>4)</sup>、高麗を敵に回すことが日宋間の往來斷絶につながることを心配している。一方で高麗との通交斷絶への危惧については述べていない。この時代の(少なくとも中央の)日本人にとって、高麗の重要性は日宋間の交通路上という地理的な位置關係にあったと言える。その意味で實際に漂流した人に近い立場から書かれたものとして、日本の仏教史料は貴重である。

ただし仏教史料の取り扱いに際しては、他の史料と同様にその性格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たとえば李氏が日本における高麗僧の自由な活動の具体例として評価する了然法明であるが、16世紀

2) 拙稿, 2008, 「日宋・日元交通における高麗 - 仏教史料を素材として -」『中世港湾都市遺跡の立地・環境に關する日韓比較研究』平成15~19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3) 高橋秀榮, 2007, 「泉涌寺出身の律僧たち - 金澤文庫の聖教を手がかりに -」『戒律文化』5。

4) 『明月記』嘉祿2年10月16日條。

午時法眼來談。…高麗合戰一定云々。鎮西凶党号松浦党、構數十艘兵船、行彼國之別鳴合戰、滅亡民家、掠收資財所行向、半分許被殺害、其殘盜取銀器等歸來云々。爲朝廷太奇怪事歟。依此事舉國興兵。又我朝渡唐之船、向西之時、必到着彼國、歸朝之時、多隨風寄高麗、流例也。彼國已爲怨敵者、宋朝之往反不可輒。當時唐船一艘寄高麗、被付火、不殘一人燒死云々。末世之狂亂至極、滅亡之時歟。甚奇怪事也。

までの史料で、彼を高麗僧としたものは存在しない。彼が高麗僧とされるのは、『日本洞上聯灯録』に収める伝に「高麗國人」とあることに據るが、この本は1727年の成立であり、十分な信を置くことはためられる。一方で1808年序の『宗門略列祖伝』のように、『日本洞上聯灯録』以後でも了然を日本人として明記するものがあり、後世でも必ずしも了然高麗人説が受け入れられていたわけではないらしい。

高麗人説の根拠はおそらく1645年成立の『玉泉寺縁起』で、了然が開創した出羽玉泉寺の由緒書である。これも成立年代・史料の性格から見て、やはり信を置くことは難しい。ここでは了然は高麗人ではなく「百濟國僧也」とされ、來日を齊明天皇の時代(655-61)、玉泉寺開創を663年とする。モデルは明らかに『元亨釋書』に見える百濟人の法明尼(656年に中臣鎌足の病氣を治した尼)で、了然法明と法明尼の法諱が一致することから同一人物と誤解されたものだろう。だとすると了然が高麗僧とされるのも、「百濟國僧」とする誤伝の言い換えに過ぎない可能性が高い。

このように、了然法明の評価については留保の必要を感じるが、従来仏教史料は十分に活用されておらず、高麗關係史料もなお發掘される可能性はある。麗日關係の史料集發刊は、今後の研究進展にとって歓迎すべきことであるが、一方でさらなる史料探訪の意義も、依然として低下していないことは、最後に付言しておきたい。

972年に金海府・南原府が派遣した使者について、森平雅彦氏はこの時点で地方官の派遣が始まっておらず、地方豪族が自主的な通交を図ったものである可能性を指摘する(森平2008「日麗貿易」『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1056年の「日本國使正上位權隸際原朝臣頼忠」の金州來航について、その官位を「正七位權掾」と訂正できるとすれば(掾は地方官である國司の四等官の四番目で、大掾の相当位は正七位、少掾の相当位は從七位)、際原頼忠は對馬などの國衙の在廳官人の可能性が高くなり、「日本國使」と記されていても京都の朝廷が派遣した使者ではないことになる。1147年に高麗に來航した日本都綱黃仲文は、日本の使者であることは確認できず、現状では一商人の來航と見るべきであろう。1156-65年の事例とされる李文鐸墓誌銘の記事は、對馬が「辺事」について東南海都部署に牒を送ったというもので、東南海都部署は開城にこの件を伝えたが、「辺事」をもって尙書省から返牒するべきではないとされて、東南海都部署から返牒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流れを見る限り、對馬の牒で扱われた「辺事」は麗日間の國家的な案件ではなく、對馬に關する案件だった可能性が高い。以上は地方官レベルでの交渉と見るべきであり、公的な性格を有するとしても、「國家間關係」のトピックとして扱うべきではないだろう。

## 参考文献

拙稿, 2008, 「日宋・日元交通における高麗 -仏教史料を素材として-」『中世港湾都市遺跡の立地・環境に関する日韓比較研究』平成15~19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高橋秀榮, 2007, 「泉涌寺出身の律僧たち—金澤文庫の聖教を手がかりに—」『戒律文化』5。

『明月記』嘉祿2年10月16日條。

午時法眼來談。…高麗合戦一定云々。鎮西凶党号松浦党 構數十艘兵船 行彼國之別嶋合戦 滅亡民家 掠收資財所行向 半分許被殺害 其殘盜取銀器等歸來云々。爲朝廷太奇怪事歟。依此事舉國興兵。又我朝渡唐之船 向西之時 必到着彼國 歸朝之時 多隨風寄高麗 流例也。彼國已爲怨敵者 宋朝之往反不可輒。當時唐船一艘寄高麗 被付火 不殘一人燒死云々。末世之狂亂至極 滅亡之時歟。甚奇怪事也。



# 13世紀全般における麗蒙交渉の一断面

-モンゴル官人との往復文書を中心に-

発表者：森平雅彦

討論者：李 薫

## 1. 本論文の意義

本の論文は、13世紀高麗・モンゴル交渉の推移を外交文書の様式的な側面から検討し、麗日間の外交文書などとの比較を通じて高麗時代の對蒙古、對日本の外交文書が、「啓式(外交)文書」であったことについて、氣を配りながら主張するものであると理解した。特に、原本の不在は勿論、寫本といっても原本の形態をそのまま保存されていない不十分な状態からの文書學的な研究は、方法論的な側面で韓國の研究者たちに新しい刺激を与えられるだろうと思われる。

## 2. 質問

### - 史料的な問題

まず、題目の副題を見れば、高麗側(國王、尙書省など)とモンゴル官人との往復文書が検討対象になっている。往復文書ならば、送った文書に對して受け取った文書を1對1で對應させて、相互検討する方が理解しやすいだろう。〈表〉を見れば、高麗側の文書だけが示されており、なぜ各文書に對應するモンゴル側の外交文書はないのか？本論文で提示された史料が、現在確認されている高麗時代の外交文書の全部であろうか？

### －方法論的な問題

高麗側の外交文書については、差出し人の銘記方式、文書を送る際に用いる文言、末尾に用いる文言、年紀記載などの書式的な側面からの検討がなされている。ところで、モンゴル側の實際外交文書としては、1231年撒禮塔が送った「書狀」が唯一であると言いながらも、文体(モンゴル文・直譯体・白話風・漢文)だけが紹介されているのみで、書式については言及されていない。書式について伺いたいと思う。同じ方法で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し、この時、「書狀」ならば、同等な立場から取り交わした「書」を意味す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も伺いたい。〈表〉の1232年の高麗側の文書が、「啓」であるが、モンゴル側の文書が「書」であるならば、このような外交關係はどのように理解すべきであろうか。

### －評価の問題

「啓」を上行文書、「書」を平行文書など、あるな書式として見なすこと、ひいては外交關係を反映していると見なすことについては、発表者もためらっていた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朝鮮時代の朝日關係で取り交わした文書(書契)の例をあげれば、等しい外交相手に与える文書といっても、その時その時の状況によって多様な文言を用いていた。17世紀初、朝日關係が安定していない状況で、對馬藩主が礼曹參議に文書を送るという意味の文言として、「謹啓」「奉啓」「奉書」「啓書」「贈書」「致書」「啓達」の7種を使っていたが、この中からどれを選択するのかということは、相手に對する尊敬の程度による差であった。

すなわち、13世紀高麗・モンゴル關係で外交文書として「啓」を選択するのか、「書」を選択するのは、その時その時の外交的な姿勢や態度を反映することではあるものの、外交關係(システム)を反映することではないのではなからうかと思われる。

なぜなら、外交文書の書式に定着されるためには、両者が合意に至るまで多くの摩擦と交渉が予想されるが、そういう記録が残っているのか？

### －「啓」式文書であるといっても、文章の末尾には「不宣」といって、「書」に見える文言を用いている。

「啓」を強調するためには、「書」の特徴について、もう少し紹介を加え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

－上行文書として、「啓」式文書と「咨」式文書の差は何だろうかについて伺いたい。

# 蒙古の日本侵略と日本の対応

## 「高麗と日本の関係に留意して」へのコメント

発表者：南 基 鶴

討論者：船田善之

南基鶴氏の報告「蒙古の日本侵略と日本の対応—高麗と日本の関係に留意して—」(以下「南報告」と略称)は、モンゴルの対日交渉・侵略という未曾有かつ緊迫した東アジアの政治情勢において、高麗・日本がとった対応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南基鶴氏には労作『蒙古襲来と鎌倉幕府』(臨川書店、1998年)がある。氏はこの成果も基礎にしつつ、高麗・日本の立場・対応と高麗・日本の関係を考察し、新たな視角・知見を提出している。

かかる内容の報告に対するコメンテーターとしては、モンゴル帝國史を専門とする評者ではなく、日本史あるいは高麗史を専門とする研究者が本来ふさわしいだろう。評者のコメントは、おのずからモンゴル帝國史の立場から加えることになるが、的を外した議論を含む可能性をあらかじめお断りしておき、南基鶴氏のご海容を乞う次第である。また、評者は、ここ数年九州大學大學院のゼミにおいて、佐伯弘次氏・森平雅彦氏と共同で日本・モンゴル関連資料集『伏敵編』を講読している。以下のコメントもこのゼミでの議論に多くを依據していることを付言しておきたい。もちろん、不適当な内容があれば、評者が責を負うものである。

南報告の新視角は、モンゴルの日本侵略、モンゴル・日本関係というテーマに、日本—高麗という座標軸を引いた点にある。南基鶴氏は「はしがき」において、「今まで韓國學界では高麗の對蒙古抗爭に力点を置く一方、元の干涉期の高麗と日本の関係にはあまり關心を傾けようとしなかった」、「近年日本學界は蒙古の侵略に對した國內政治史を重心にした分析が行われており、國際關係と言っても日本と大陸の關係に重点を置く傾向が強い」と述べる。それぞれ、韓國における「高麗史」學界と日本における「日本史」學界の状況を指摘したものである。

こうした状況は「モンゴル帝國史」學界においても当てはまる。中國の「蒙元史」學界についてい

ば、基本的には自國史の立場から、對外關係史(中國では『中外關係史』と呼ぶ)の場において考察がなされている。そこではおおむね、對高麗・對日本を別個に扱っており、通史・斷代史の概説書でも、對外關係を叙述する章でそれぞれ別の節・項目として高麗・日本を別個に取り上げる形式がとられている。かかる検討・叙述は、實は『元史』『外夷伝』の高麗・日本という歴史叙述の枠組みを踏襲しただけにすぎない。多面的・立体的な國際關係の把握にはほど遠い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

一方、日本でも従來のモンゴル帝國史研究・元代史研究の對高麗・對日本に關する叙述は、中國のそれと大同小異であった。しかしながら、近年の日本では、『モンゴル時代史』という概念が提唱されるに至り、これより後、中央ユーラシア史の視角からの検討、ユーラシア史規模での考察が主流となりつつある。こうした潮流が新しい知見と多くの成果をもたらしたことは評者も認めるところである。しかしながら、モンゴルの對高麗・對日本關係史を考える場合、こうした視角は巨視的に過ぎる側面をもつ。實際に微視的な検討、とりわけ高麗の動向に對する丹念な分析については不十分であると指摘せざるを得ない。さらに、近年の日本の學界は、モンゴル帝國と日本の關係については、經濟・文化交流に關心の重点が移行しており、政治・外交・戰爭については、杉山正明氏が一連の概説書・通史でモンゴル時代史の立場からの言及をする程度にとどまっ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の中、南報告は、『高麗朝廷と三別抄の對日交渉』の一節において、モンゴルの對日外交の中断を畫策したり、外交文書・書狀を通じて、日本の態度軟化を試みたりするなど、高麗の自立的な動向を浮かび上がらせている。そこには、モンゴルという大國に服屬しつつも、自らの安定・保全のため戰爭回避を指向しつつ、兩面外交を展開していたともいうべき高麗の主体性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よう。このような高麗の立場・對策に着目した点は大きく評価できる。これによって多面的・立体的な歴史像構築に寄与している。

この功績に對して、二点、望蜀の言を述べたい。第一に、モンゴル帝國における高麗の位置、とくに高麗王家の地位との關連についてである。高麗國王は、1259年以降、モンゴル帝國內での地位上昇を進めていく。その駙馬高麗國王としての地位を確立するまでの過程は、森平雅彦氏の詳細な檢証によって跡づけられている。こうした高麗國王のモンゴルにおける動向とモンゴル・高麗の對日交渉・政策を有機的に結合させることも、当時の國際關係の多面的な把握には必要であろう。

第二に、モンゴルが日本へ使節を派遣した際に、高麗がとった兩面外交とも言うべき舉措についてである。高麗は日本に宛てた文書の中で、やむなくモンゴルの外交政策に協力しているかのような言説をもって弁明するとともに、日本にモンゴルへの使節派遣を勧めている。この高麗の舉措は大きな問題をはらんでいる。モンゴル側にとってみれば、このような高麗の兩面外交は容認できるものでは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高麗がモンゴル側に知られることなく、隱密に行った可能性だけでなく、

反対にモンゴル側(とくに使節レベル)が日本の強硬な姿勢を軟化させるために、アメとムチを使い分ける方策をとった可能性も想定できるかもしれない。後に趙良弼が國書の寫しを日本側に託していることから、使節らがこうした外交文書の寫しを携帯していたことは間違いない。つまり、モンゴルの使節は高麗の日本宛て文書の内容を確認できた可能性もあるからである。これについては推測を交えざるを得ないが、より深い議論が必要とされよう。

續いて、日本の国内情勢と對外政策を連動して考察した成果についてとりあげたい。杉山正明氏は「鎌倉日本に外交はなかった」との評価を下しているが、実際はそのように単純なものではなかったはずである。南報告は、日本—モンゴルの座標軸に幕府—朝廷、さらに北條得宗家—將軍—天皇という座標軸を加えることにより、モンゴルの國書に對して返牒させなかった幕府の外交政策、さらにはその後の異國征伐計畫を、整合的に説明することに成功している。

そこで氣になるのが、日本(幕府・朝廷)の對外情勢認識である。つまり、日本はどの程度、当時の高麗の半島情勢を認識できていたか、という問題である。従来、三別抄からの牒文をめぐって、十分な情勢分析はできていなかったと議論される傾向にある。その反面、三別抄の存在は半島情勢の一部に過ぎないという見方もあり得よう。武臣政權から高麗國王の復權という大まかな情勢については、ある程度認識していた可能性もある。かかる情報が使節から伝えられていた可能性は高いし、何よりも届けられた國書二通は大蒙古國皇帝と高麗國王がそれぞれ發したものであった。この認識が朝廷・幕府の對応に影響を与えた可能性の有無について、南氏のご意見、さらにはフロアを含めた議論を期待したい。

最後に、高麗と日本の相互認識に關する考察についてとりあげたい。上述のように、この座標軸を引いた点が、南報告の成果の一つである。南報告は、モンゴルの日本侵略によって、高麗・日本の相互認識は否定的で屈折したものとなったと結論している。この結論は、確かに外交・政治・戦争の面についていえば、妥当であろう。ここで想起されるのが、モンゴル・日本間の外交斷絶と經濟・文化交流の活況である。ここで留意されるのは、その經濟・文化交流を担った仏教というコードである。このことは、寺社造營料唐船の存在からも明白であるし、直接の玄關口であった中國江南だけではなく、モンゴルの庇護を受けた華北の大寺院でも邵元のような日本僧の活躍がみられている。一方、高麗の仏教界もモンゴルと強く結合していた。近年紹介された松廣寺のチベット語法旨、大都郊外や安陽・杭州の寺院關連史料などからも、その緊密性を窺うことができる。換言すれば、仏教というコードを通じて、日本はモンゴルと交流しており、そこには高麗も含まれていたのである。こうした國際環境において、日本と高麗の經濟・文化交流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だろうか。この問題提起をもって、本コメントを結ぶことにしたい。



# 日本侵攻以後の麗日關係

発表者：佐伯弘次

討論者：金 普 漢

13-14世紀は、北方モンゴル草原からの元の成立、金と宋の滅亡、高麗の降伏と日本の侵攻、室町幕府と朝鮮の成立、元の滅亡と明の成立など東アジア情勢が激變する時期であった。

本の發表文では、まず13世紀モンゴル侵攻以後の使臣の入國という麗日交渉の進行過程と日本の軍事情報の収集を紹介している。同時に前期倭寇の興起に對する既存の研究成果を紹介し、中國沿岸に出現した倭寇と高麗侵入倭寇の關連可能性を提示しながら、東アジアの規模で倭寇について見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る。また高麗の禁寇使臣の派遣と日本の對應では、入國する高麗使臣など列擧しながら、被虜人の送還から得られる經濟的な利益と對馬に支給される米の支援が高麗末から始まっていたみている。したがって本發表は全体的な流れとして、モンゴル侵攻に對する軍事的危機、禁寇のための麗日兩國の外交的努力、被虜人送還の經濟的な価値などの内容で構成され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といえる。

ただ、本發表は論文の完結性という面では、まだもう少し時間が必要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という面で少きを兼ねるが、本文では言及されなかった疑問がある内容について、幾つか質問してみたいと思う。

第一に、1292年に金有成によって伝達した高麗牒狀について、日本朝廷と元(院?)が「無礼、愚鈍、奇怪」と評価していたとしているが、以前に伝達された蒙古・高麗牒狀に對する朝廷の評価とさほど違いはない。

このような評価を下す朝廷と元の判断基準は何であっただろうか。例えば日本中心的な觀念(神國思想など)、あるいは東アジア國際情勢に對する未熟知、それとも他の何があったのか疑問が生じる。

第二、本文で大陸に対する日本の軍事情報の収集について、「元の偵察が幕府の主導の下で行われたと推測される。(中略) 日元貿易船が元の偵察を引き受けていたこと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と叙述している。

当時、元の動向にもっとも敏感な存在は、一次的に幕府より元を往來しながら交易を担っていた日本商人であったと思われる。このような側から商人は貿易が優先で、貿易過程で収集される情報は次善であり、元に對する情報は副次的に生じた結果物として見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例えば、高麗内の倭寇活動を見れば、漕倉の位置情報、人物に對する情報(崔瑩將軍など)、地理・地形の情報などは倭寇たちに必須的な要素だったのであり、相当高い水準であった。すなわち倭寇の高麗に對する情報量は、幕府のそれより絶對的な優位を占めていたと推測される。したがって日元貿易船の主な目的は、一次的に元の偵察より貿易の利益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事である。

第三、史料を通じて金龍は1366年8月に高麗を出發して9月日本に入國し、金逸は1366年11月に高麗を出發して1367年2月日本に入國していたと把握されている。

発表者はこれらがともに高麗王が送った使臣として見ているが、高麗がほぼ同じ時期に、同じ目的(禁寇)で使臣を重複して派遣したことには、どのような理由からであったのか伺いたいと思う。

第四、「安吉祥の謝絶派遣の以來、室町幕府よりむしろ博多の九州探題と交渉することが重要であったような感じがしており、謝絶の送還も九州探題が行っていた」と叙述している。

本來、日本の外交権は朝廷の固有の権限であるが、金龍・金逸の入國以後には室町幕府が管轄し、安吉祥の入國以後には九州探題、または西國の大名へ移管されている。比較的短い期間の内に外交権の回変化が見られているが、その理由は何だろうか。

最後に、1380年代倭寇が減少する傾向について、高麗の外交が西國の大名らを注目するようになり、その成果を得ることができたと分析している。そして對馬島宗氏に米1,000石の下賜に注目している。

高麗史の記録によると、1354年漕運船40余隻の掠奪、1355年200隻掠奪、1360年閏5月に4万石を掠奪した以後に相当期間(1年あるいは9ヶ月間)の間、高麗には倭寇が全く出現されていない。また、1368年11月に高麗朝廷で對馬の崇宗慶(宗宗慶)に米1千石を下賜した以後にも、約1年間の間倭寇の形跡を捜すことができない。以上、4件の記録の共通点は、大量の掠奪品と下賜品が伝達された以後には、長期間にわたり侵入と掠奪が起らなかったという点である。

ところで、この問題は單純に高麗時代だけの問題にとどまらず、朝鮮時代にまで及んでいたと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か。すなわち『海東諸國記』と『經國大典』の規定で貿易を除いた純粹な接待費が1万石であり、『中宗實錄』からは1509年(中宗4)の接待費用が2万2千石であったという記録が見える。結局、中世の朝日關係は高麗が奪われた總量を朝鮮がそのまま引き受けたから、可能な外交關係であ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このような面から麗日關係は貿易より掠奪の側面、朝日關係は内在した掠奪と貿易の側面から相互統一された眺望が必要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が、先生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う。

